

2007 충북지역어조사 결과보고서

국립국어원 2007-1-20

발간 등록 번호
11-1370252-000068-14

# 2007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 박 경 래

연구 보조원 : 김 남 정

조 사 지 역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7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12 월 20 일

연구책임자 : 박 경 래

2007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1. 조사 과정 .....	7
2. 전사 원칙 .....	12
3. 전사 자료 .....	15
제 1 편    구술발화 .....	17
제 2 편    어    휘 .....	152
제 3 편    음    운 .....	213
제 4 편    문    법 .....	257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파일 48,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3) 조사된 질문지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5) 제보자 조사표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 1. 조사 과정

## 1.1 조사 지점 개관

2007년도 충청북도 지역어 조사지로는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용현 토산 부락을 선정하였다. 충주시는 청주시 제천시와 함께 충청북도의 세 개 시 가운데 하나로 충청북도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현재의 충주시는 1995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증원군과 충주시가 하나로 통합되어 도농통합시인 새로운 형태의 충주시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증원군에 속하던 엄정면이 충주시에 속하게 되었다.

충주시는 북으로는 강원도 원주시와 여주군에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충청북도 제천시와 접해 있다. 남쪽으로는 괴산군에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음성군에 인접해 있다. 충주시는 동쪽으로 태백산맥, 동남쪽으로 소백산맥, 서북쪽으로 차령산맥이 뻗어 있는 남고북저 지형의 전형적인 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충주시 동쪽으로 흘러들어와 중북부를 흐르는 남한강과, 남쪽 괴산군에서 흘러와 북류하여 탄금대 부근에서 남한강에 합류하는 달천이 있다. 그밖에 본 조사 지점인 엄정면 지역을 흐르는 논강천(論江川)과 원곡천(院谷川) 등이 있다. 대부분의 하천이 산지를 흐르고 있어 남한강과 달천이 합류한 일대의 충주평야와 서남부의 농경지를 제외하고는 평야의 발달이 미약하다.

조사지인 엄정면은 충주시 한 개읍 열두 개 면 스물여섯 개 동 가운데 하나로 충주시 북쪽에 위치해 있다. 조사지 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거리에 안성 일죽 장호원 충주 제천 영월로 이어지는 38번 국도가 동서 방향으로 이어져 있고, 조사지를 나자로 끼고 돌아 남쪽으로 이어지는 원주 충주 괴산을 잇는 19번 국도가 지나가는 아늑한 곳이다. 조선 시대에는 남한강의 수운을 이용해 충청도·강원도·경상도 지방에서 거둔 조세미를 이곳 목계 나루터에서 서울로 수송하기 위한 덕홍창·가홍창 등이 있었던 규모가 큰 상업 중심지였으나, 한강수운의 쇠퇴와 함께 상권도 쇠퇴하였고 지금은 조사지 동쪽에 위치한 내창 마을이 옛 시절의 번성했던 흔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충주시 엄정면은 충주 시내를 물론이고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장호원읍으로 통하는 도로가 발달해 있었지만 주 생활권은 충주시였다. 조사 지점인 엄정면 용산리 용현 토산리는 엄정면 소재지 서쪽 약 300m 지점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마을 앞쪽으로는 추평저수지에서 발원한 원곡천이 이 하천을 따라 발달해 있는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마을 앞에는 넓은 들이 있어 주로 논농사를 짓고 마을 뒤로는 구릉지대여서 담배, 고추 등의 밭작물과 복숭아 사과 등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

조사 지점인 용산리는 우씨 집성촌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이후 서서히 흩어졌고

지금은 각성반이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 이 마을 태생의 주민들끼리는 교류가 있는 편이지만 주로 비슷한 연령대끼리 왕래가 있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는 편이다. 초등학교는 동네 앞의 면소재지에 있는 엄정초등학교에 다니고 중학교는 충주로 나가 다니거나 읍내에 있는 사립학교인 신명중학교에 다닌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충주로 나가 다니거나 읍내에 있는 충원고등학교에 다닌다.

교통은 마을 앞의 엄정면 소재지에서 충주시내로 다니는 시내버스와 충주, 원주, 장호원으로 다니는 시외버스가 있지만 자주 다니지 않는다. 충주까지는 버스로 약 20분이 걸린다.

## 1.2 예비답사와 제보자 선정 과정

2007년도 충청북도 지역어조사 지역으로 충주시를 선정하였고 조사 지점과 제보자 선정을 위해 2007년 7월 18일 충주시 금가면 일대를 사전 답사하였다. 금가면은 충주를 관통하는 남한강 유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남한강을 건너야 충주로 나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드나들이 적으로 곳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큰 몇 개의 마을을 돌아보고, 들에 물고를 보러 나오신 할아버지에게 주변 마을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8월 2일 지역어 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선정과 제보자 선정을 위해 금가면 면사무소를 찾았다. 장수마을과 집성촌을 소개받고 마을을 찾았으나 부부가 다 조사 지역 출신인 제보자를 찾지 못하였다. 특히 금가면에는 공군 비행장이 건설되면서 비행장에 편입된 지역의 주민들이 같은 행정구역 내의 다른 마을로 이주하거나 노년층의 주민들이 자녀를 따라 타지로 이주하여 적당한 제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8월 3일 다시 금가면의 다른 마을을 찾았으나 적당한 제보자를 찾지 못해 이웃면인 엄정면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고 식당주인에게 적당한 마을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자 엄정면 소재지인 용산리 마을 회관을 소개하였다. 마을회관을 찾아갔으나 농번기여서 잠겨 있었다. 마침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는 할머니를 만나 할머니로부터 용현 토산부락의 노인 어른을 소개받았다. 용현 토산부락의 노인 어른으로부터 두 분을 소개받고 찾아가는 길에 대문 앞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던 제보자 부부를 만났다. 조사에 대한 대강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보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받았다.

## 1.3 조사 기간

현지 조사는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보자의 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정한 결과 였다. 제보자가 고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고추를 따서 손질하는 동안에는 잠시 쉬어야 했다. 일차 조사는 2007년 8월 3일 오후 제보자가 지역어조사에 응해 주면서부터 시작하여 8월 8일까지 실시하였다. 이차 조사는 일차 조사를 마치면서

약속한 날짜인 8월 13일에 이루어졌다. 삼차 조사는 8월 20일과 8월 23일에 이루어졌는데 8월 20일에는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어휘 항목 가운데 빠진 부분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쳤다.

일차 조사 때 조사한 어휘 음운 항목의 녹음 자료는 녹음기 조작의 오류로 음성이 작게 녹음되었다.

## 1.4 제보자

### (1) 주제보자

- 이름: 이
- 성별: 여
- 나이: 81세(토끼띠) (1927년생)
- 출생지: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 거주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 선대거주지: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 직업: 농업
- 경력: 없음
- 학력: 초등 4년 중퇴
- 병역: 해당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금가면 면사무소에서 장수 마을을 소개받았으나 적당한 제보자를 찾지 못해 이웃 면인 엄정면으로 가서 마을 어른께 소개받았음.
- 제보자의 특기 사항: 충기가 좋아 표준어형과 방언형을 다 알고 있는 경우 처음에는 표준어 어휘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음. 엄정면과 이웃면인 금가면에서 출생하여 보조 제보자인 김 할아버지와 결혼한 후 지금까지 이 마을에 살고 있음.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지 못하여 조사 도중에 자주 쉬어야 했음.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발음이 분명하고 목소리도 큰 편임.

### (2) 보조 제보자

- 이름: 김
- 성별: 남
- 나이: 83세(소띠, 1925년 8월 11일생)
- 출생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 거주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 선대거주지: 충청북도 충주시
- 직업: 농업

- 경력: 없음
- 학력: 한글해득
- 병역: 육군 복무(강원도에서 5년)
- 제보자 소개 과정: 면사무소에서 장수 마을을 소개받았으나 적당한 제보자를 찾지 못해 이웃 면인 엄정면으로 가서 마을 어른께 소개받았음.
- 제보자의 특기 사항: 건강하고 충기도 좋으며 적극적이거나 가는귀를 먹어 주 제보자로는 부적당함. 처음에는 주제보자로 삼고자 했으나 가는귀 먹은 것을 확인하고 주제보자를 부인으로 교체함. 성격이 급하여 제보 도중에 자주 자리를 뜨기도 하였음.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목소리도 크고 발음이 분명한 편임.

## 1.5 조사 일정

- (1) 조 사 자: 박경래(세명대 교수)
- (2) 조사 일시: 2007년 8월 3일 - 8월 23일
- (3)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용현 토산마을)
- (4) 조사 내용:

번호	조사일자	제보자	영역별순서	조사시간	항목번호	비고	전사
01	8월 3일	김	구술 1	2:00:30	1.1. 조사마을... 1.2. 일생 의례		완
02	"	"	구술 2	1:59:55	1.2. 일생 의례 1.3. 생업 활동		
03	8월 4일	"	구술 3	2:01:35	1.3.1 논농사 1.3.2 밭농사		~50:04
04	"	이 김	구술 4	2:01:47	1.5 식생활 1.6 거주생활		~1:09:40
05	"	이 김	구술 5	1:41:16	1.5 식생활 1.6 거주생활		
06	8월 5일	김 이	어휘 1	2:01:35	20610 싱겁다~21104 넓히 다 (21008 추녀)	음성 작음	완
07	"	"	어휘 2	2:01:25	21201 마을 ~21618 거적(가마니)	음성 작음	완
08	8월 6일	"	어휘 3 구술	2:01:34	~21713 표주박 1.8 세시풍속과 놀이	음성 작음	어휘 완
09	"	"	어휘 4	2:02:25	21718 시루밑~ 22224 불쌍하다	음성 작음	완
10	"	"	어휘 5	1:40:12	22232 아장아장~ 22377 나이	음성 작음	완

11	8월 7일	김성묵 이종근	어휘 6	2:02:10	구술 및 어휘 보충	음성 작음	완
12	"	이종근	어휘 7	2:01:35	22412 미꾸라지~ 23013 과일	음성 작음	완
13	"	"	어휘 8 음운 1	1:57:50	23019 개암~ 31052 과자	음성 작음	완
14	8월 8일	"	음운 2	1:49:00	31053 일~ 32059 뚝-	음성 작음	완
15	"	"	음운 3	2:01:40	32060 깎~ 32246 던지-	음성 작음	완
16	8월 13일	"	음운 4	1:35:55	32247 모이- ~ 음운 끝	초반 소음	완
17	"	"	문법 1	2:03:00	40101 나~		완
18	"	"	문법 2 음운 보충	1:18:05	40701~문법 끝 음운 보충		완
19	8월 20일 8월 23일	"	어휘	2:01:50	어휘 보충 구술		완
20	8월 23일	"	어휘/구술	2:02:15	20101 벼~20223 구술(6.25 이야기)		어휘 완
21	"	김성묵 이종근	어휘/구술	2:01:40	어휘(메기, 20301~20615) 구술(6.25, 질병 )		어휘 완
22	"	"	구술	2:02:20	구술(질병, 세시풍속, 놀이, 시집살이)		어휘 3개
23	"	"	구술	0:12:25	구술		

- (5) 조사 시간: 42시간 32분  
(6) 녹음기: SONY DAT 100  
(7) 마이크 : SHURE SM11

## 1.6. 전사

- (1) 전사자: 김남정 / 박경래

전사 일시: 2007년 10월 8일 ~ 2007년 12월 11일

전사 내용: 구술발화 1번, 3번, 4번 파일 및 어휘, 음운, 문법 항목 전사

- (2) 1차 점검: 박경래 / 김남정

1차 점검 일시: 2007년 11월 5일 ~ 2007년 12월 17일

- (3) 2차 점검: 박경래

2차 점검 일시: 2007년 12 월 18 일 ~ 2007년 12월 20일



## 2. 전사 원칙

### 2.1. 구술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원칙적으로 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구술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여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분절하여 전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말과 조사자의 말을 각각의 문장으로 나누어 전사하였다. 구술 내용이 전환될 경우에도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전사하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어 마무리하였다. 전사한 각분절 단위별로 문장 종결 부호를 넣어 마무리한 다음 이어서 { } 안에 전사한 지역어에 대응하는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단어의 일부가 생략되었지만 추정이 가능한 경우 ( ) 안에 생략된 부분을 넣어 의미 파악이 용이하게 하였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사한 각 분절 단위마다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구술 내용과 질문지에 제시된 질문 내용의 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 “#1”(보조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또는 생략된 경우 추측이 가능한 경우 (xxx) 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발화된 내용이 조사된 질문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조사된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각각의 분절에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보고서에는 하나의 표제항 아래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다. 그 외에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도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에 없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지역어형을 분절하고 어휘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 또는 조사되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를 하였고,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친구형은 응답형 뒤에 (+친),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 ⑪ 조사 시 제보자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응답형을 생각하지 못할 때 조사자가 해당 어형을 제시하여 나온 응답형일 경우 (조사자 제시)로 기록하였다.
- ⑫ 제보자의 응답형에 대해 제보자가 확신할 수 없어하는 경우에는 (?제)로, 조사자가 응답형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로 표시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에 없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음운 항목 번호로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분절하고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질문항목에 없거나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문법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분절하고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면 ‘위’로 전사하고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면 ‘위[wi]’로 전사하였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 [wE]로 실현되면 각각 ‘웨’ ‘왜’로 전사하였다.
- ③ 모음 ‘에(e)’와 ‘애(ε)’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ㅐ’로 통일시켜 표시하였다.

-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으로 특히 긴 장음은 “::”으로 표시하였다.
- ⑥ 이중모음 으( [yɪ])는 으ㅡㄴ:구(연구), 으ㅡㅇ:감(영감) 등과 같이 표기하였다.
- ⑦ 하나의 단어 내에서 음절과 음절 사이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발음하는 곳에는 “-”으로 표기 하였다.
- ⑧ 말을 하다가 생략한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2007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 3. 전사 자료

# 제1편 구술 발화

파일 번호: 01

SCB\_CJ\_01

과 일 내 용: 구술발화 조사마을, 일생의례

조 사 자: 박경래(1958년 2월 17일생)

제 보 자: 이 (李, 1927년생, 女, 81세 토끼띠, 초등 4년 중퇴, 농업)

보조 제보자: 김 (金, 1925년 8월 11일생, 男, 83세 소띠, 한글해독, 농업)

전 사 자: 김남정, 박경래

전사검토: 박경래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용현 토산부락

조 사 장 소: 제보자의 집

조 사 일 시: 2007년 8월 3일

## 1.2. 일생 의례

10201 # 본다구 해:가지구 일차에 되면 이:차에 안 되구, 일차에 되면 이:차에 안 되구 사: 무 이래가주구. {본다고 해 가지고 일차에 되면 이차에 안 되고, 일차에 되면 이차에 안 되고 사뭇 이래 가지고.}

10201 # 사:물 그걸루다가 그래다가 지끔두 그냥 서울 그거 과나꾸 실림동에 거냥 지끔두 이썬유 거냥, 아:무거두 모태구. {사뭇속 그것으로 그러다가 지금도 그냥 서울 그것 관악구 신림동에 그냥 지금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10201 @ 딸:드른? {딸들은요?}

10201 # 따:런 모두 저 아냥가서 세:시 다 가 살구유. {딸은 모두 저 안양 가서 셋이 다 가 살고요.}

10201 # 그래 망내아더리 해표::두, 해표 그래 나오구서는 구니내두 머여 석싸 장교루다가 장 장교 계:급장 달구 땅: 육개월 구닌생활해구 나와따구유. {그래 막내아들이 학교도,, 학교 그렇게 나오고는 군인에도 뭐야 석사장교로 장 장교 계급장 달고 딱 육개월 군인생활하고 나왔다고요.}

10201 @ 네에:. {네.}

10201 # 그래구선 저러캐 그느무 재경고시 보너라구 그래다가 모태구선. {그리고는 저렇게 그놈의 재경고시 보느라고 그러다가 못 하고는.}

10201 @ 할머니는 이르미 머예요? {할머니는 이름이 뭐예요?}

10201 # 이조그니유, 이종근. {이종근이요, 이종근.}

10201 @ 이종근. {이종근.}

10201 # 으. {예.}

10201 @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데.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데.}

10201 # 팔씨빌. {팔십 일.}  
 10201 @ 팔씨빌. {팔십 일.}  
 10201 @ 할머니는 학교는 어트개 다녀썬요? {할머니는 학교는 어떻게 다녔어요?}  
 10201 # 금가 공민해꼬유. {금가 국민학교요.}  
 10201 # 금가 공민해꼬. {금가 국민학교.}  
 10201 #1 머 공민해꼬두 안되유, \*\*\*\*\*. {뭐 국민학교도 안돼요, X\*\*\*\*\*.}  
 10201 # 흐 그래두 공민해꼬지 멀. 탕겨쓰니. {흐 그래도 국민학교지 뭐. 다녔으니}  
 10201 # 사:년 탕겨따. {사년 다녔다.}

##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0101 @ 이 동네가요, 언제 생겨썬요? {이 동네가요, 언제 생겼어요?}  
 10101 # 네? {네?}  
 10101 @ 이 동네가 언제 생겨썬요? {이 동네가 언제 생겼어요?}  
 10101 # 언제 생긴건 모르구:, 이동네가. {언제 생긴 건 모르고, 이 동네가.}  
 10101 @ 예. {예.}  
 10101 # 언제 생기건 예전버터 내려오녕 거, 어너채생긴지 몰:르구. {언제 생긴 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거, 어느때 생긴지는 모르고.}  
 10101 # 우:씨네가 이동네 와 산:재가 지금 오뱅녀니에유. {우씨네가 이 동네에 와 산지가 지금 오백년이에요.}  
 10101 @ 우씨네만? {우씨네만?}  
 10101 # 어, 다냥 우씨네가. {응, 단양 우씨네가.}  
 10101 @ 예. {예.}  
 10101 # 그래쓰니까 인제 그때 우:씨내버툼 사런년지, 그전버툼 사런 그저내두 탄 사라미 사런지 그걸 애:길 모:뜨러서 몰:르지. {그랬으니까 이제 그때 우씨네부터 살았는지, 그전부터 산... 그전에도 다른 사람이 살았는지 그것을 얘기를 못 들어서 모르지.}  
 10101 @ 그럼 우:씨가 세:일 만내요? {그럼 우씨가 제일 많네요?}  
 10101 # 만:년대 지그른 다:가서 읍썬여. {많았는데 지금은 다 가서 없어요.}  
 10101 # 두: 찌빙가 세: 찌빙가 지금 그냥 이래구 썬유. {두 집인가 세 집인가 지금 그냥 이려고 있어요.}  
 10101 # 아 우:씨네가 장비두널 삭 다러 다러찌. {아 우씨네가 \*\*\* 모두 다 사 살았어요.}  
 10101 @ 그저내는 우씨내 동네연는데? {그전에는 우씨내 동네였는데.} # 예. {예.}  
 10101 @ 지그른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10101 # 지금두 우:씨네가 세:찌빙가? {지금도 우씨네가 세 집인가?}  
 10101 # \*\*\* 한 서너집 이꾸션 다 이사가구 읍썬유. {\*\*\* 한 서너 집 있고는 다 이사가고 없어요.}  
 10101 # 그건 판사람더리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지.}  
 10101 #1 호:쑤론 너더썬 되지. {호수로는 너댓 집 되지.}  
 10101 @ 이 마을, 이 동네요. {이 마을, 이 동네요.}

10101 # 네. {예.}

10101 @ 여기서 불르는 이르미 따로 이쨌요, 용현 말구? {여기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지요, 용현 말고.}

10101 # 흔:터라 그래유. {헨터라고 해요.}

10101 @ 흔:터? {헨터?} # 예. {예.}

10101 # 흔:태래닝거넌 왜 흔:태라그래냐면, 근 역싼대요. {헨터라고 하는 것은 왜 헨터라고 하느냐면, 그것이 역사인데요.}

10101 @ 네. {네.}

10101 # 저:근네 저:기서 나가보면 알:지만, 드 들: 북파내 쪼끄만 사니 하나 이쨌유, 산. {저 건너 저기에서 나가보면 알지만, 들 들 가운데 조그만 산이 하나 있어요, 산.}

10101 # 그거털 자라봉이라 구래넌데, 자라가치 생겨서. {그것을 자라봉이라고 그러는데, 자라같이 생겨서.}

10101 # 사내봉이라그래넌데, 맨 저 뽕 돌려 노니구서넌 고 산만 요:러캐 하나 생겨쨌유. {사내봉이라고 그러는데, 맨 저 뽕 돌려 논이고는 그 산만 그렇게 하나 생겼어요.}

10101 # 그거시 지끄면 인제 읍:썩전넌데, 운:제부텨 이뻐 나문지 소나무가 이렇개시 두:아람 되닝개 거기서 사:무 커가주 그 조쿠 그러캐 조언넌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언제부터 있던 나무인지 소나무가 이런 것이 두 아람 되는 게 거기에서 사뭇 커 가지고 그게 좋고 그렇게 좋았는데.}

10101 # 거기에 저:: 맨:끄태서 인제 이 동 그때:예닌 이 동네가 아주 모두 우:씨내더리 잘 살구 잘 살구 그래가주 지비 거진 다 불타시피루 이르게 사룬넌데. {거기에 저 맨 끝에서 이제 이 동 그때에는 이 동네가 아주 모두 우씨네들이 잘 살고 잘 살고 그래 가지고 집이 거의 다 불타시피 이렇게 살았는데.}

10101 # 저:: 땡:끄테:서 함부니 도리가쨌. {저 맨 끝에서 한 분이 돌아갔어.}

10101 # 그래구 그거 자라봉애다 가따 장: 장:사릴 미 지:내너라고. {그래서 그 자라봉애다 갖다가 장 장사를 지내느라고.}

10101 # 장:사 지내넌데 장:사찌비서 부리 나쨌유. {장사를 지내는데 장삿집(초상집)에서 불이 났어요.}

10101 # 게 장:사 지내러 옴:나래넌 말캉 거냥 남자더리구 모구 어지간함 다 나가니까, 장:사지내루. {그래 장사 지내러 옛날에는 모두 그냥 남자들이고 뭐고 어지간하면 다 나가니까, 장사 지내러.}

10101 # 머 글 그 불 끌:썩웁씨 그만 그 빈 장:사찌비서 부리 나가주 이동내 썩: 따 타버리때여. {뭐 그 그 불 끌: 사이 없이 그만 그 장삿집(초상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동네가 모두 다 타버렸대요.}

10101 @ 아:. {아.}

10101 # 그래가주구 지벌 허러빠리쨌, 그양. {그래 가지고 집을 헐어버렸어, 그양.}

10101 @ 예예. {예.}

10101 # 그래가주 흔:터유. {그래 가지고 헨터예요.}

10101 # 이르면 용혀넌데, 그이. {이름은 용현인데, 그.}

10101 @ 허러따 그래서? {헐었다고 그래서?}

10101 # 예:, 허러따그래서유. {예, 헐었다고 그래서요.}

10101 # 그래 흔:터유, 용혀니. {그래서 헐터예요, 용현이.}

10101 # 용혀니래능 건 왜 용혀니라구 인재 이르미 된냐머닌, 요 우:에가 고개가 이썬유.  
{용현이라는 것은 왜 용현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었느냐 하면, 요기 위에 고개가  
있어요.}

10101 # 고개가 충주: 옌:나래 인재 내려오년재, 충주:예 목싸가 이꾸, 원주:예 목싸가 이꾸,  
감사년 인재 청주:예 이찌마닌. {고개가 충주 옛날에 이제 내려오는데, 충주:예 목  
사가 있고, 원주:예 목사가 있고, 감사는 이제 청주:에 있지만은.}

10101 # 머여 춘천내두 인재 감사가, 강원도 감사가 이깨찌마닌. {뭐야 춘천에도 이제 감  
사가, 강원도 감사가 있겠지마는.}

10101 # 충주 목싸가 이꾸, 원주 목싸가 인는데, 땡기녕 기런 요기 요길뿌니여. {충주 목사  
가 있고, 원주 목사가 있는데, 다니는 길은 요기 요길 뿐이야.}

10101 @ 네:. {네.}

10101 # 거러 땡기능 기리유. {걸어 다니는 길이요.}

10101 # 다른드루 땡기는데가 아:무길두 읍썬유, 여 모깨루 해서 이리 땡기두 모:땡기구.  
{다른 데로 다니는 데가 아무 길도 없어요, 여기 목계로 해서 이렇게 다녀도 못  
다니고.}

10101 # 지끄면 기리 사:방 조아저찌만. {지금은 길이 사방 좋아졌지만.}

10101 # 그래 인재 충주 와서 충주 목싸:예 헨테 와따가 원주 목싸한테루 가너라구, 어너  
잉그민지 내가 그걸 몰:러. {그래 이제 충주 와서 충주 목사한테 왔다가 원주 목  
사에게 가느라고, 어느 임금인지 내가 그것을 몰라.}

10101 # 잉:금니미 이길루 지:내가다가 여 고개:가 이썬서 고개털 안저 쉬:년대 나무가 조:  
꾸, 아마 더운뎡지. {임금님이 이 길로 지나가다가 여기 고개가 있어서 고개에  
앉아서 쉬는데 나무가 좋고, 아마 더운 뎡인지.}

10101 # 나무가 아:주 조:꾸 그래서 안저 쉬:뎡유, 잉:금니미. {나무가 아주 좋고 그래서 앉  
아서 쉬었대요, 임금님이.}

10101 # 그래 언전 어너 잉:그민지 그건 모르 내가 이르멜 모러년대, 잉:금니미 안저 쉬:어  
따구 해서, 옌:나랜 잉:그물 용강 용 머여 용상이라 그래자너? {그래 어느 임금인  
지 그건 모르 내가 이름을 모르는데, 임금님이 앉아서 쉬었다고 해서, 옛날에는  
임금을 용강 용 뭐야 용상이라 그러잖아?}

10101 # 게 잉:그미 안저 쉬:따구 해서 용상고개요. {그 임금이 앉아 쉬었다고 해서 용상  
고개예요.}

10101 # 그래 용상고개라구 이르멜 지:꼬. {그래서 용상고개라고 이름을 짓고.}

10101 # 이동네년 용 용상고개 미치니까루 용혀니라구, 그 그 용짜릴 따가주 용혀니라구  
이르멜 지어썬유. {이 동네는 용 용상고개 밑이니까 용현이라고, 그 그 용 자를  
따 가지고 용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10101 # 그래가주 이: 전:체가 전부가 용 용산니라구 해찌, 이르멜 지:뎡여, 용산니라구.  
{그래 가지고 이 전체가 전부가 용 용산리라고 했지, 이름을 지었대여, 용산리라  
고.} @ 용산? {용산?} # 어. {응.}

10101 # 이 용산니가 저: 우루두 사:문 용선니데, 그래가주 이동네가 용혀니라구 이르미  
그때서버터 이르미 지어뎡뎡 거유. {이 용산리가 저 위로도 계속 용산리인데,



그래 가지고 이 동네가 용현이라고 이름이 그때부터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10101 @ 그럼 조:기는 용성이요? {그럼 조:기는 용성이요?}

10101 # 예? {예?}

10101 @ 용상, 용성? {용상, 용성?}

10101 # 용성고개, 용상고개. {용상고개, 용상고개.}

10101 #1 용고개. {용고개.} @ 상? {상?}

10101 # 나:. {예.}

10101 # 잉:그미 안저편 자리라구 해서 용상고개. {임금이 앉았던 자리라고 해서 용상고개.}

10101 @ 용상고개? {용상고개?}

10101 # 예. {예.}

10101 @ 예예. {예.}

10101 # 그래서 역사가 이르케 니리와때능 거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요.}

10101 # 이른 애:기두 왜 판분더런 지금 하나두 몰:러요, 난 엔:날부터 저 으:른드란테 드러서 애:기지. {이런 이야기도 왜 판 분들은 지금 하나도 몰라요, 나는 옛날부터 저 어른들한테 들어서 들어서 애:기지.}

10101 @ 그래니까 하라분니만테 여쭙보루 와쥴요. {그러니까 할아버님한테 여쭙보러 왔지요.} # 헤헤헤. {허허허.}

10101 # 그이 역싸 애 역싸 애:기지유, 역싸 애기. {그 역사 애기 역사 애기지요, 역사 애기.} @ 네. {네.}

10102 @ 여긴 머 사나 강이나 머 이 골짜기 가튼대두 다: 이름두 이꾸, 그 유래가 이짜너요. {여기 뭐 산이나 강이나 뭐 이 골짜기 같은 데도 다 이름도 있고, 그 유래가 있잖아요.} # 예. {예.}

10102 @ 그렇거 이쓰면 좀 말쓰매 주세요. {그런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10102 # 여:가 저: 내:청장이라 구래는대, 저기 저 시:장얼. {여기가 저 내청장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저 시장을.} @ 예. {예.}

10102 # 내창장인데 내창장이라구 여:가 내창장이 아니유. {내청장이라는데 내창장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내청장이 아니예요.}

10102 # 저: 갈라면 교당니래년대 거기 저기저 내:챙이래년 동네가 이썬요. {저기 가려면 교당리라는데 거기 저기저 내창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10102 # 거기에 이:조때서번지 버터민지, 엔:날부터 개와집 지:꾸선 사려서 사무 이르개 구대럴 내려오민서 구대럴 병사럴 해썬, 한지비서. {거기에 이조때서부터, 옛날부터 기와집 짓고서 살아서 사뭇 이렇게 구대를 내려오면서 구대를 병사를 했어, 한집에서.}

10102 # 한지비서 구대럴 병사럴 해썬니까 엄:청 오래 강거지유. {한집에서 9대를 병사를 했으니까 엄청 오래 간 것이지요.}

10102 @ 머를 해따구요? {뭐를 했다고요?}

10102 # 병사. {병사.}

10102 # 나라예, 어. {나라예, 응.}

10102 @ 병사? {병사?}

10102 # 야, 야. {예, 예.}

10102 # 병사라는 버시를 해썬유, 병사. {병사라는 버시를 했어요, 병사.}

10102 # 그에 판 금 지끄먼 판:사 금:사 머 여:러 가지 병사지만 그때년 삼정승 육판서 왜 이르차너유? {그 판 금 지금은 판사 검사 뭐 여러 가지 병사지만 그때는 삼정승 육판서 왜 이렇잖아요?}

10102 # 그때 병사래녕거릴 구대병사릴 해때유. {그때 병사라는 것을 구대 병사를 했대요.} @ 예예. {예.}

10102 # 내리온 애:기가. {내려온 애기가.}

10102 # 그래 그동내가 내:챙인대 그이르믄따서 여기서 내:창장이라 그래유. {그래 그 동네가 내창인데 그 이름을 따서 여기에서 내창장이라고 그래요.}

10102 @ 예:. {예.}

10102 # 그 내:창장이래년 데 여기가 옴:나래년 거 우리 커서 쫄:끄마서버텀두 그러치만. {그 내창장이라는 데가 여기가 옛날에는 그 우리 커서 조그만했을 때부터도 그렇지만.}

10102 # 여그서 저 제천 영월 단양 사:뭇 나가능게 모깨 와서, 배루다가 머 소그믄 실:꾸 와서 모깨와서 내려가주구 일루 마강 저서 이리 나가그래요. {여기에서 저 제천 영월 단양 사뭇 나가는 게 목계 와서, 배로다 뭐 소금을 싣고 와서 목계 와 내려가지고 이리로 모두 저서 이리 나가거든요.}

10102 # 그래서 땡기능 그 기리 그거빠끼 읍:써따구요. {거기서 다니는 그 길이 그것 밖에 없었다고요.}

10102 # 충주 저그저 머여 판두루 가능 기리 우:꾸. {충주 저기 저 뭐야 판 데로 가는 길이 없고.}

10102 # 그러타가 지금 사:방 기리 기리대찌유. {그렇다가 지금 사방 길이 그렇게 되었지요.}

10102 # 그래서 이거 내창장이래녕개 이거 내창장. {그래서 이 내창장이라는 것이 이게 내창장.}

10102 # 모깨는 여: 아:래가 인제 모깨:, 모깨 아싯 보시찌 아시찌유? {목계는 여기 아래가 이제 목계, 목계 아셨지 보셨지 아셨지요?}

10102 @ 예, 다리인넌데. {예, 다리 있는 데.}

10102 # 예. {예.}

10102 # 모깨가 그거 오:모깁대:, 예:저내 그때예. {목계가 그게 오목계인데, 예전에 그때 예.}

10102 # 바다까애는 마:니 배가 마:니 되지마는, 이 저 산꼴루 이런 강으루넌 배가 단넌대가 벨루 읍:때유. {바닷가에는 많이 배가 많이 되지만, 이 저 산꼴로 이런 강으로 는 배가 닿는 데가 별로 없대요.}

10102 # 그에 모깨 와서매 그 도설 달구서는 소금 모 실:꾸 오구 서울루 물건 시러가구, 그러는 배가 수:십 척씩 여와 모깨 와 이꺼렁. {그 목계에 와서는, 그 돛을 달고 서는 소금 뭐 싣고 오고 서울로 물건 실어 가고, 그러는 배가 수십 척씩 여기 와 목계 와 있거든.}

10102 # 그래서 항:구루다가 그르이까 바다예 항:구가 아니구 이런대 항:구루넌 오:모깨여, 다서뻥째 드러가넌. {그래서 항구로 그러니까 바다의 항구가 아니고 이런 데(강

의) 항구로는 오목계야, 다섯번째 들어가는.}

10102 @ 예:. {예.} # 그래 모깨가 그래 오:모깨래능 거유, 지끄른 다: 절판나찌마넌. {그래서 목계가 그래서 오목계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결단났지만.}

10102 # \*\*\* \*. {\*\*\* \*.}

10102 @ 아:, 다섯번째라 그래서 오:모깨라구. {아, 다섯번째라고 그래서 오목계라고.}

10102 # 예:. {예.}

10102 @ 산:이나 머 바위가튼대 이러캐 머 고:사지내구 이러능 거는 업써요? {산이나 뭐 바위 같은데 이렇게 뭐 고사 지내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10102 # 여기 그렇진 업써유. {여기 그런 것은 없어요.}

10102 @ 그저내두요? {그전에도요?}

10102 # 네. {네.}

10102 @ 호수는요? {호수는요?}

10102 # 예? {예?}

10102 @ 연못, 저수지 가통거. {연못, 저수지 같은 것.}

10102 # 저:수지 거통데두 머 예:전버튼 내려오능 건 업:써유. {저수지 같은 데도 뭐 예전 부터 내려오는 것은 없어요.}

10102 # 저:수지 지금 새루 메썸년 저내 행거, 저: 추평니래는대 저:수지 매금 거 그거배긴 여긴 다름 건 업:써유. {저수지 지금 새로 몇 십 년 전에 한 것, 저 추평리라는 데 저수지 막은 것 그것 밖에는 여기는 다른 것은 없어요.}

10102 @ 강:은뇨? {강은요?}

10102 # 강은 목계강 그거시 인녕 거구유. {강은 목계강 그것이 있는 것이고요.}

10102 @ 목계강. {목계강.}

10102 @ 저개 어디서 오능 거요? {저개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10102 # 그이 영월 으-:춘 다냥 머 여그서 사:물 따 이리 여기 나가능거유. {그 영월 영춘 단양 뭐 여기에서 사뭇 다 이리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10102 @ 충주댐 지나서 오능 거쥬? {충주댐 지나서 오는 거쥬?}

10102 # 예: 충주댐르루 해서 나와유. {예 충주댐으로 해서 나와요.}

10102 # 게 서울루다 이거, 항:강 이 서울 싸라미 이거 물 다: 멍녕거 아니유, 이거 항:강 물 이거. {그래 서울로 이거, 한강 이 서울 사람이 이거 물 다 먹는 것 아니예요, 이거 한강물 이거.}

10102 @ 네. {네.}

10102 # 그래가주 여기와 수질 나쁘다, 수질 나쁘지 해개 안해내너라구 아주 단소기 만:치 유. {그래 가지고 여기 와서 수질 나쁘다, 수질 나쁘지 않게 하느라고 아주 단속 이 많지요.}

10103 @ 이 동네는 주로 어떤 니를 마니 해요? {이 동네는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해요?}

10103 # 그전 논논상 바똥사 그거 뿌니유. 다름 거 해능 거뚜 업:써유. {그저 논농사 밭농사 그거 뿐이에요. 다른 것 하는 것도 없어요.}

10103 @ 논 논농사면 주로 머:해요? {논 논농사면 주로 뭐해요?}

10103 # 벼지유 머, 벼. {벼지요 뭐, 벼.}

10103 @ 벼? {벼?}

10103 # 으. {예.}

10103 @ 벼하구 베:하구. {벼하고 베하고.}

10103 # 예? {예?}

10103 @ 벼하고. {벼하고.}

10103 # 네. {네.}

10103 @ 벼라구두 하구 베라구두 해요? {벼라고도 하고 베라고도 해요?}

10103 # 예. {예.}

10103 @ 어넌마:를 더 마니 써요, 그저:내 쓰담마리 어떻거요? {어떤 말을 더 많이 써요, 그전에 쓰던 말이 어떤 거예요?}

10103 # 벼지유 머, 벼. {벼지요 뭐, 벼.}

10103 @ 벼? {벼?}

10103 # 어. {예.}

10103 @ 그럼 반농사는 머해유, 주로? {그럼 밭농사는 뭐해요, 주로?}

10103 # 반농가사 반농사야 자기 머꾸사너라구 여:러가지 자꼬기니까, 머 버리두 해구 밀: 머 콩두 해구 여:러 가지 해녕 거지유 머 바태는. {밭농사 밭농사야 자기 먹고 사느라고 여러 가지 잡곡이니까, 뭐 보리도 하고 밀 뭐 콩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지요 뭐 밭에는.}

10103 # 여:러가지씩: 자꼬글. {여러 가지씩 잡곡을.}

10103 @ 요새 마니 하능거 하구, 옴:나래 마능거 하구 다르쥬? {요새 많이 하는 거 하고, 옛날에 많이 하는 거 하고 다르지요?}

10103 # 그러치, 그러치유. {그렇지, 그렇지요.}

10103 @ 어트게 달라져쥬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10103 # 지끄면 머:: 자기 명년 주루보담두 농초내서두 농사를 지어서 파러가주구 뜯:씨너라구. {지금은 뭐 자기가 먹는 주류보다도 농촌에서도 농사를 지어서 팔아 가지고 돈 쓰느라고.}

10103 # 그래가주구 주루 머 담:배해넌대년, 여기 담:배두 마니 해썬넌대 지끄문 도통 인 재 주로 아나구. {그래 가지고 주로 뭐 담배 하는 데는, 여기 담배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이제 주로 안 하고.}

10103 # 나두 담:벨 한 이시보:년 해씨쥬유, 그런대 안해구 그러치만. {나도 담배를 한 이십오 년 했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그렇지만.}

10103 # 주로 이너머 가면 담:배럴 한: 삼십정씩 마니 해유, 미찌비. {주로 이 너머에 가면 담배를 한 삼십 정씩 많이 해요, 몇 집이.}

10103 # 그래구서넌 고추, 머이 여:러가지 인재 모두 돈:나올꺼만 해녕거유 머 허허허. {그리고서는 고추,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두 돈 나올 것만 하는 거예요 뭐 허허허.}

10103 @ 요새 하능 거가요? {요새 하는 것이요?}

10103 # 네:. {예.}

10103 @ 그저내는 머 해쥬요? {그전에는 뭐 했어요?}

10103 # 그저넌 콩, 팥, 보리 그거지유. {그전에는 콩, 팥, 보리 그것이지요.}

10103 @ 보리두 여러가지가 이짜너요? {보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0103 # 머가유? {뭐가요?}

10103 #1 버리:, 밀:. {보리, 밀.} # 버리, 아 버리:. {보리, 아 보리.}

10103 #1 밀 버리. {밀 보리.}

10103 # 버리는 머 여러 가지가 머 인나, 미:리구 버리구, 밀 버리 인재 그래지유. {보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밀이고 보리고, 밀 보리 이제 그러지요.}

10103 @ 근대 그거 보매 심능 거뚜 이꾸:, 또 가을 저 심능 거뚜 이짜너요? {그런데 그거  
봄에 심는 것도 있고, 또 가을에 심는 것도 있잖아요?}

10103 # 가:으래 심닝거, 그러치유 그저 버리닌 인재 가:으래 상:꾸 보매 심닌 버린 읍:씨  
유. {가을에 심는 것, 그렇지요 그 보리는 이제 가을에 심고, 봄에 심는 보리는  
없어요.}

10103 @ 그뚜 저 껌때기 빨:가캐 까:지능 거 이짜너요? {그것도 저 껌때기 빨장게 까지는  
것 있잖아요?}

10103 # 버리가유? {보리가요?}

10103 @ 예. {예.}

10103 # 그렇건 모르겐는대유. {그런 것은 모르겠는대요.}

10103 @ 봄버리. {봄보리.}

10103 # 야, 봄 보매 가:넌 봄버리. {예, 봄 봄에 갈면 봄보리.}

10103 @ 늘버리 머 이렇거. {늘보리 뭐 이런 것.}

10103 # 야, 봄버린 이씨유, 봄버리. {예, 봄보리는 있어요, 봄보리.}

10103 # 빨거캐 까지능 건 우:꾸유. {벌장게 까지는 것은 없고요.}

10103 # 보매 가:넌 봄버리가 이씨유. {봄에 가는 봄보리가 있지요.}

10103 @ 그럼 인재 연나래 저기. {그럼 이제 옛날에 저기.}

10103 @ 이 동네에서 서로 인재 사람들 마늘 때. {이 동네에서 서로 이제 사람들 많을  
때.}

10103 # 예. {예.}

10103 @ 서루 도와조야 되자너요?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10103 # 네. {네.}

10103 @ 그래서 그러캐 서루 이르캐 험려칼라구 만든 그 모임가통 거 이짜나요, 머 동네  
고사를 지낸대든지 호니늘 한대든지 머 상여캐, 계: 계: 가통 거 이렇거 이씨씨요  
예저내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하려고 만든 그 모임 같은 거 있잖아  
요, 뭐 동네 고사를 지낸대든지 혼인을 한대든지 뭐 상여계, 계 계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쥬 예전에는?}

10103 # 계: 머여 그런 \*\*거넌 우:꾸유, 이동내루서넌. {계 뭐야 그런 \*\*것은 없고요, 이  
동네로서는.}

10103 # 우:꾸 서루 인재 오구가구 서루 이 가치 도워서 품마시해서 일: 해능거구, 그래구  
인재. {없고 서로 이제 오고 가고 서로 같이 도와서 품앗이해서 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0103 # 계:래런거넌 동네서 인재 이리:캐 인재 쌀 이르캐 모아 가주구 그걸 읍넌 사람 싱  
냥이 떠러져서 읍넌 사라맨태, 예 장:내싸리라구 그래유. {계라는 것은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쌀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없는 사람 식량이 떨어져서 없는 사  
람한테, 예 장리 쌀이라고 그래요.}

10103 # 장:내싸리라구래 읍:넌 사라미 그걸 가따 머꾸 함말가따 머그머넌 말반:, 반:마를

보태가주구서넌 가:으레래 가따 내:구 그래는 인재 계:가 이썬요. {장리 쌀이라고 그래 없는 삶이 그것을 갖다가 먹고 한 말 갖다 먹으면 (한) 말 반, 반말을 보태 가지고서 가을에 갖다 내고 그러는 이제 계:가 있어요.}

10103 # 그런 계:는 행개 이꾸:, 다른 먼 일:해구 이르캐 도와넌 돈:넌 그렇게:는 우:꾸. {그런 계:는 한 것이 있고, 다른 뭐 일 하고 이렇게 돕는 돕는 그런 계:는 없고.}

10103 # 인재 서루 품마시 해서매 내가 하루가 해주면 또 하루 오구 그저 여:러 사라미 모여 인저 그걸 사물 주러치 그러치유. {이제 시로 품앗이 해서 내가 하루 가 해주면 또 하루 오고 그저 여러 사람이 모여 이제 그것을 사뭇 주로 그렇지 그렇지요.}

10103 @ 금 아까 그 계:는 계: 이르미 머예요? {그럼 아까 그 계:는 계 이름이 뭐예요?}

10103 # 그거 머 말하자머넌 그저 머 큰개 자:근개 이리큰두 이름두 지:꾸요. {그게 뭐 말 하자면 그저 뭐 큰개 작은개 이렇게도 이름도 짓고요.}

10103 # 또 허허허 인재 머여 부모덜 위해서매 해넌 계: 모:능 개 이썬썬요. {또 허허 이제 뭐야 부모를 위해서 하는 계 모으는 것이 있었어요.}

10103 @ 예. {예.}

10103 # 그 인재 상포개:라구 인재 그래서 그렇 계:가 이꾸. {그 이제 상포계라고 이제 그래서 그런 계:가 있고.}

10103 @ 그건 어트개 하능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103 # 그거두 인재 마창가지지유 머. {그것도 이제 마창가지지요 뭐.}

10103 # 츠:매:는 여:러 사라미 부모인은 쓰면 인꾸 인재 이런 사람 봐:가주 서 서루 모여 가주구 쌀 뎀말씩 봐:가주구 그 읍년사람 머꼬 내:가따 내:구.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부모가 있는 있으면 있고 이제 이런 사람 모아 가지고 서 서로 모여 가지고 쌀 몇 말씩 모아 가지고 그 없는 사람 먹고 내어 갖다가 내고.}

10103 # 이래가주서넌 인재 마냐개 그글 머여 부모상얼 당해머넌 거그서 인재 쌀 뎀말 인재 주머넌 그거 가주 장:사 지내구.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제 만약에 그것을 뭐 부모상을 당하면 거기에서 이제 쌀 몇 말 이제 주면 그것 가지고 장사 지내고.}

10103 # 머 예:저내넌 머 장:사 지:내구 그래는대 지끔 모냥으루다가 머 조이그민지 머 또 허지닝거 그거두 읍:씨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읍:씨유 읍:씨, 그냥 행편대루 고대:루 지내지. {뭐 예전에는 뭐 장사 지내고 이러는데 지금처럼 뭐 조의금인지 뭐 떨어지는 것 그게 없으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없어요 없어, 그냥 형편대로 그대로 지내지.}

10103 @ 동네에서 고:사는 안지내썬요? {동네에서 고:사는 안 지냈어요?}

10103 # 예, 이동넌 고:사 읍썬유. {예, 이 동네에는 고:사 없어요.}

10103 @ 그저내두요? {그전에도요?}

10103 # 네:. {네.}

10103 @ 호닌개는? {혼인계는?}

10103 # 예? {예?} @ 호닝계. {혼인계.}

10103 # 예? {예?}

10103 @ 호닌개. {혼인계.}

10103 # 호닌개? {혼인계요?}

10103 @ 예. {예.}

10103 # 호닝깨두 안 해유, 읍씨유. {혼인계도 안 해요, 없어요.}

10103 @ 상포깨만 이꾸? {상포계만 있고?}

10103 # 예? {예?}

10103 @ 상포깨만 이꾸? {상포계만 있고?}

10103 # 네, 이씨꾸유. {네, 있었고요.}

10103 @ 네에. {예.}

10103 @ 당개는요? {당계는요?}

10103 # 예? {예?}

10103 @ 당개라능 거뚜 이씨요? {당계라는 것도 있어요?}

10103 # 그렇 거 인는데 이 동넨 안해씨유. {그런 것 있는데 이 동네는 안 했어요.}

10103 @ 어떻걸 당개라 그래요? {어떤 것을 당계라고 그래요?}

10103 # 당개래닝 건 예 머 여:러 사라마 인재 모여가서는 그 단디걸 해서매 해자구 해서 해넌 모 목쩌근 그런래 그렇 거 읍씨씨유, 이동내는. {당계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이제 모여 가지고 그 단결(?) 위해서 하자고 해서 하는 모 목적은 그런데 그런 거 없었어요, 이 동네는.}

10103 @ 송:개라능 거뚜 이씨요, 송:개? {손계라는 것도 있어요, 손계?}

10103 # 예? {예?} @ 송:개. {손계.}

10103 # 송개래능 거 모르겠는대유. {손계라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10103 # 인재 어디던지 동:내가 그 송:이 마느머닌 종친회라구 해서 종친 그 종계가 이꼬. {이제 어디든지 동네가 그 성(씨)가 많으면 종친호라고 해서 종친 그 종계가 있고.}

10103 @ 네. {네.}

10103 # 종계가 이꾸. {종계가 있고.}

10103 # 또 명:가. 그러치유 머, 종친회 종개 그이. {또 뭔가. 그렇지요 뭐, 종친회 종계 그거.}

10103 @ 그건 어티개 하능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103 # 그거닌 종개래능 거닌 연날버텨 내려오민서넌 그 선대: 으른들께서 내려오닌 그 제:사 지넌라구 산소엘 우:해가주서넌 인재 토지털 장만 해거래유. {그것은 종계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그 선대 어른들께서 내려오는 그 제사 지내려고 산소를 위해 가지고 이제 토지를 장만 하거든요.}

10103 # 토지를 장만해서 그 토지에서 농살 지어서 그 산소털 인재 예: 오대가 너머가면 시제루다 올라가넌대. {토지를 장만해서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산소를 이제 오대가 넘어가면 시제로 올라가는데.}

10103 # 오대가 너머가면 시제루 올라가넌대 시제 지낼 때: 거기서 나닝걸루다가 인재 그 제사늘 가주구서, 그레이까 농사장:걸 가주구 읍시걸 장만해서 제:사 지내닝거. {오대가 넘어가면 시제로 올라가는데 시제 지낼 때 거기에서 나는 것으로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장만해서 제사 지내는 것.}

10103 # 그 이제 시제라구 해서 시 시월따래 그걸 지:내지유. {그 이제 시제라고 해서 시시월 달에 그것을 지내지요.}

10103 # 그래서 인재 그개 나중애 모여가주 종친더리 인재 그걸 모이머닌 인재 여:러 사람 더리 사:방 가 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개 나중애 모여 가지고 종친들이 이제 그것을 모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방 가서 사니까.}

10103 # 모이머닌 그걸 인재 종친회라구 계:라구 해가주서닌 거기다가 인재 기그멀 조금씩 내:써유 마캉. {모이면 그것을 이제 종친회라고, 계라고 해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기금을 조금씩 냈어요 모두.}

10103 # 내:가주 그개 커나가능거시 인재 종개라 그래지유. {내 가지고 그것이 커 나가는 것이 이제 종계라고 그러지유.}

10103 @ 네:. {네.}

10104 @ 이동내가 다른 동네하구 비교해서 자랑될 만한거나 머 자랑할마냥거나 이동내가 가지구 인는 또 특징이나 이렇거 이쓰면 얘기해 주세요. {이 동네가 다른 동네하고 비교해서 자랑될 만한 것이나 뭐 자랑할 만한 것이나 이 동네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나 이런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10104 # 특징이래능 거 읍써유, 이동내는. {특징이라는 것 없어요, 이 동네는.}

10104 @ 다른 데하구 머 자랑할마냥거는요. {다른 데하고 뭐 자랑할 만한 것은요.}

10104 # 읍:써유. {없어요.}

10104 # 이동내 우:씨네가 마나썸넌데 전부 우:씨네가 사라썸넌데 머여 그 일본 시대 때 일본 놈덜한테 머 으려가주구 더:가주서닌 말:캉 만주루다 마이 가때여. {이 동네에 우씨네가 많았었는데 전부 우씨네가 살았었는데 뭐야 그 일본 시대 때 일본 놈들한테 뭐 \*\*가지고 데어 가지고는 모두 만주로 많이 갔대요.}

10104 # 여 산소가 여기 머썸 모두 말차방하니 이꾸 그런데 산 머여 마:캉 만주루다 가구 그래닌 바라매 동네애 머 우:씨네가 고만 그러케 살:던 사람더리 읍쓰니까루 탄 사람더리 드러오구 그래니까 머 해능기 읍:써유. {여기 산소가 여기 뭐 썸 모두 말차방하니 있고 그런데 산 뭐야 모두 만주로 가고 그러는 바람에 동네에 뭐 우씨네가 그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탄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 없어요.}

10104 @ 아까 산소가 어트개요? 말초루마니요? {아까 산소가 어떻다고요? 말초롬하니요?}

10104 # 네? {네?}

10104 @ 산소가 말초롬하니 이따구요? {산소가 말초롬하니 있다고요?}

10104 #1 마:니 이땀마리여, 마:니. {많이 있단 말이야, 많이.}

10104 #1 산소, 우씨네 산소가 마:니 이:써따구. {산소, 우씨네 산소가 많이 있었다고.}

10104 # 어. {응.}

10104 @ 여기 머 문화재가통 거 이써요, 여기 엄정리 동네나 이쪼개? {여기 뭐 문화재 같은 거 있어요, 여기 엄정리 동네나 이쪽에.}

10104 # 문화재 읍써유. {문화재 없어요.}

10104 # 문화재넌 저기 저 머: 미시리래능 미실 그 윤:보관 아까 얘기해뵈 윤:태뵈이래넌 간:도 성장한 그지비 문화재루다 이래 이꾸. {문화재는 저기 저 머 미실이래는 미실 그 윤보관 아까 얘기했전 윤태동이라는 간도 성장한 그집이 문화재로 이래 있고.}

10104 # 아까 저:기 내:챙이라구 해서매 그 구대 병사지 그지븐 고만 요저내 다 뜨더빠리구 고기다 모이두 써버서 읍써저빠리구. {아까 저기 내창이라고 하는 그 구대 병



사를 지낸 그 집은 그만 요전에 다 뜯어버리고 거기에다 묘를 써서 없어져버리고.}

10104 # 그래서 저: 요:기 저기 미:시리래두 거기 윤:태동이내 집 그지비 지금 무늬재루다가 정부에서 팔리해구 이찌 해구 이찌유. {그래서 저기 저건너 요기 미실이라는 데 거기 윤태백이내 집 그 집이 지금 문화재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하고 있지요.}

10104 @ 예:저내 여기 동네에서 머 민송노리가통 거 이씨씨요? {예전에 여기 동네에서 뭐 민속놀이같은 것 있었어요?}

10104 @ 농사질때라든지 머 다논나라나 머 이를 때, 추서기나 서:리나 이를 때, 보름가튼 때 노는 거 이짜너요, 그런 노리. {농사 지을 때라든지 뭐 단옷날이나 뭐 이럴 때, 추석이나 설이나 이럴 때, 보름 같은 때 노는 거 있잖아요, 그런 놀이.}

10104 # 그런 노리두 여긴 읍씨유, 안 해유. {그런 놀이도 여긴 없어요, 안 해요.}

10104 # 그전내 머 예 예:저내닌 모개서 줄다리닝 거, 모개 줄다리닝 거 유명해:짜마닌 지 끄면 그거뚜 우:꾸유. {그전에 뭐 예 예전에는 목계에서 줄다리기 하는 거, 목계 줄다리기 유명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없고요.}

10104 @ 모개 줄다리닝 거요? {목계 줄다리닝 거요?}

10104 # 예. {예.}

10104 # 되:개 줄다리닝개 머 전국짜그루 유:명해지유. {목계 줄다리닝 것이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지요.}

10104 # 저: 영월 제천 다낭서두 다: 청병이 오니까, 그때년. {저기 영월 제천 단양에서도 다 청병이 오니까, 그때는.}

10104 #1 게 그 민송노리래는 거는 그때서. {그래 그 민속놀이라는 것은 그때서.}

10104 # 메:쌌니구 머구가내 막 쩌 청병이 오능거유. {몇 십 리고 뭐고 간에 막 저 청병이 오는 거예요.}

10104 # 그래니까 그 \*\*\* 저 농악치구 그냥 막 그냥 기때 가주구 막 오구 그래년대. {그러니까 그 \*\*\* 저 농악 치고 그냥 막 그냥 깃대 가지고 막 오고 그러는데.}

10104 # 그땐 머: 우리 어려서 보머닌 주리래닝 계시 이 이렇 계시 머머 엄:청나지 머머 그렇걸 막 그냥 맵기러 가주구 다리구 그랜데 이 그거뚜 모개두 인제 다: 절판나 읍씨서 머 읍씨유, 엔:나랜 그래씨두. {그때는 뭐 우리 어려서 보면 줄이라는 것이 이 이런 것이 뭐뭐 엄청나지 뭐 그런 것을 막 그냥 만들어 가지고 당기고 그렸는데 이 그것도 모게도 이제 다 없어지고 없어서 뭐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10104 @ 그저내 그거 어트개 헐는지 줌 얘기해조 보새요, 줄다리기 하능 거. {그전에 그거 어떻게 했는지 줌 얘기해 주세요, 줄다리기 하는 거.}

10104 #1 잘 알자너 그거 {잘 알잖아 그거.}

10104 # 어? {응?}

10104 #1 동서루 나뉘가주구 줄다리서. {동서로 나누어 가지고 줄 당겨서.}

10104 @ 예. {예.}

10104 @ 그거:. {그거.}

10104 # 줄 다리닝거유? {줄 당기는 거요?}

10104 @ 예. {예.}

10104 # 줄 다리능진. {줄 당기는 것은.}

10104 @ 맨:처매 이르케 준비하능 거에서부터 어트게 준비해 가주구 어트게 하는지. {맨 처음에 이렇게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10104 # 준비는 인재 모깨래능 동:내가 예: 동:내 이르미 머 저 알:루 인재 이래 신장노가 이거 쯡: 나썩유. {준비는 이제 목계라는 동네가 동네 이름이 뭐 저 아래로 이제 이렇게 신작로가 이렇게 쯡 났어요.}

10104 # 여서 인재 그 가 강까애넌 전부 배가 와 다:꾸 그런대, 동:내 그 신장노 골:모걸 갈러가주구서넌 이쪼개넌 서편 이쪼근 동편 그래구 서편 동편닐 갈러가주구 거그서 인재 해넌대. {여기서 이제 그 가 강가에는 전부 배가 와 닿고 그런대, 동네 그 신작로 골목을 갈라 가지고서 이쪽은 서편 이쪽은 동편 그래서 서편 동편을 갈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10104 # 동:내 땡기민서넌 그 가:으래 농사진 베짖 베짖벌 막 으:터다 가주가유. {동네 다니면서 그 가을에 농사지은 벼짚 벼짚을 막 얻어다 가지고 가요.}

10104 # 가주와서 그거릴 이 비비 꼬:가주서넌 연:실 해가주구 한:대다가 막 무꺼가주구 사람 질루 하지른 될꺼유 아마, 그거 지푸루다 행개. {가져와서 그것을 이 비비 꼬아서는 계속해서 해 가지고 한 군데다 막 묶어 가지고 사람 길로 한 길을 될 거요 아마, 그거 짚으로 한 것이.}

10104 # 그래가주구 근 머여 이 사람 쥐구 자버땡기넌 데 그거 가달가다리 인재 수::십 가 다릴 땡기러서 한대가 땡쳐 가주서넌 주릴 땡기러 가주구 인재 그 강까애 강까애 유. {그래 가지고 그 뭐야 이 사람 쥐고 잡아 당기는 데 그거 가닥가닥을 이제 수십 가닥을 만들어서 한 군데 땡쳐 가지고 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강가에 강가예요.}

10104 # 강까애 지금 그거뚜 다: 읍썩저썩유. {강가에 지금 그것도 다 없어 졌어요.}

10104 # 그때넌 그 모깨강애 이짜그루 안쪼그루넌 새이깁이라 그라구 저짜그루넌 한강 큰 강이구 그런대. {그때는 그 목계강애 이쪽으로 안쪽으로는 셋강이라고 그리고 저 쪽으로는 한강 큰 강이고 그런대.}

10104 # 그 새이에 아주 백싸장 엄:청 닐개 움 움 지러꺼래유, 인재 거기서 썩 주릴 다리넌대. {그 사이에 백사장 엄청 넓게 움 움 길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썩 줄을 당기는데.}

10104 # 주린 인재 이 동:내 서퍼내선 서편 동내선 땡길구 동퍼는 동퍼내서 땡길구 이래가 주구 주를 땡기러가주구 나갈채넌 그 주릴 미머넌 사라미 그냥 전부 어깨에 미:너라구 뽁뽁::캐개 드러서유. {줄은 이제 이 동네 서편에서는 서편 동네에서 만들고 동편은 동편에서 말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줄을 만들어 가지고 나갈 때는 그 줄을 메면 사람이 그냥 전부 어깨에 메느라고 뽁뽁하게 들어서요.}

10104 # 뽁뽁캐서 그기 주릴 미구나가넌대, 수::십 수:뽁명이지 머 미구거렁. {뽁뽁하게 그 줄을 메고 나가는데, 수십 수백 명이지 뭐 메거든.}

10104 # 그 우:애 인재 편쟁이라구 해가주서넌 편장이 줄 꼭대기에 올라서서 \*\*\*\*\* 서루 인재 이 그 국끼릴 들구 막 이러캐서 인재 나갈채보면 참 거 귀경헬만 해지유. {그 위에 이제 편장이라고 해 가지고 편장이 줄 꼭대기에 올라서서 \*\*\*\*\* 서로 이제 이 깃발을 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갈 때 보면 참 그 구경할 만하지요.}

10104 # 그래머년 인재 그 동퍼내는 이 여 여가 동퍼닌대 동퍼는 제:천, 다냥, 영월 여기 저기꺼정 사:문 여기에 부그내꺼정 전부 인재 청병이라구 해서 기버릴 해유, 모개 인재 서 저 동퍼내서. {그러면 이제 그 동편에는 이 여 여기가 동편인데 동편은 제천, 단양, 영월 여기까지 사:문 여기 부근까지 전부 이제 청병이라고 해서 기별을 해요, 목계 이제 서 저 동편에서.}

10104 # 기버릴 해머년 그거 머여 청병이 인재 또 올찌개 이 저 제천서매 온다구 해면 거기서 인재 풍무릴 치구 여러 사라미 막: 추멀 추구 이제 오지유. {기별을 하면 그거 뭐야 청병이 이제 또 올 때 이 저 제천에서 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풍물을 치고 여러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이제 오지요.}

10104 # 그램 모개서 인재 또 마중얼 나가유. {그럼 목계에서 이제 또 마중을 나가요.}

10104 # 그래 서루 인재 그개 참 그 예:저내 그 귀경하지, 서루 하패가주선 드러오구 또가 구 또가구. {그래 서로 이제 그개 참 그 예전에 구경(할 만)하지, 서로 함해 가지고 들어오고 또 가고 또 가고.}

10104 # 이래서 동퍼내년 동편, 저조개 영월 제청 달쌍꺼정두 사:문 냥 여기릴 청병을 해구. {이래서 동편에는 동편, 저쪽에 영월 제천 단양까지도 사:문 그냥 여기에 도 청병을 하고.}

10104 # 저조개 서조개년 저 여주 안성 머 저짜꺼정 이:천꺼정 마캥 그냥 청병을 해유 그냥, 그램 거기서두 마캥 와유. {저쪽에 서쪽은 저 여주 안성 뭐 저쪽까지 이천까지 모두 그냥 청병을 해요 그냥, 그러면 거기에서도 모두 와유.}

10104 # 그러면 인재 그 사람더리 모두 오머년 머: 그:, 내가 그거 사람 마:는대 쯔:꼬마서 물:러 그런지 모르지마년 머 청병을 해와두 머 그 동:내에서 대저패녕거 그건 우:꾸.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모두 오면 뭐 그, 내가 그것을 사람 많은데 어려서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청병을 해 와도 뭐 그 동네에서 대접하는 거 그것은 없고.}

10104 # 와서 인재 음:식뚜 인재 사먹꾸 아:주 음식 짱사가 엄:청나지유 머. {와서 이제 음식도 이제 사 먹고 아주 음식 장사가 엄청나지요 뭐.}

10104 # 그래구 그거두 해녕거 그래 모개:: 주리 그래서 유명해유 아주. {그리고 그것도 하는 것 그래도 목계 줄이 그래서 유명해요 아주.}

10104 # 다른데보더두 아주 그거년 아주 그냥, 근대 그개 지금 다: 읍써저서. {다른 데보다도 아주 그것은 아주 그냥, 그런데 그개 지금 다 없어져서.}

10104 # 인재년 줄: 그거 맵기년 사람두 메싸람 읍써유. {이제는 줄 그것 만드는 사람도 몇 사람 없어요.}

10104 # 읍써유, 다: 주거씨. {없어요, 다 죽었어.}

10104 @ 금 그 주른 머 맵근다 그래요, 튼다 그래요? {그럼 그 줄은 뭐 만든다 그래, 튼다 그래요?}

10104 # 야 줄 디린다 그래지유, 줄 디린다구. {예 줄 드린다 그러지요, 줄 드린다고.} @ 디린다? {드린다?} # 야. {예.}

10104 # 지푸루만 전부 해니까유. {짚으로만 전부 하니까요.}

10104 @ 거 언제까지 해써요? {그것 언제까지 했어요?}

10104 # 물:러유, 이저버려써유, 맨년도꺼지 헐:년지 그건.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몇 년도까지 했는지 그건.}

10104 # 머 우린... {뭐 우리는...}

10104 #1 해:방되구두 해써. {해방되고도 했어.}

10104 # 나: 아:... 한 열따서살 안쫓개 고마 해구서넌 여지전 고만 뒤써유. {나 아... 한 열다섯 살 안쪽에 그만 하고서는 여태껏 그만 두었어.}

10104 # 열따서살 안쫓기지, 그저내고. {열다섯 살 안쪽이지, 그전이고.}

10104 # 두 번 두 따리닝 거배긴 모빠쓰니깐, 모두 모:르니까유. {두 번 줄 당기는 것 밖에 못 봤으니까, 모르니까요.}

10104 @ 금 해방되구는 안헨내요? {그럼 해방되고는 안 했네요?} # 네? {네?}

10104 @ 해방되구는 안해써요? {해방되고는 안 했어요?}

10104 # 안 해써유. {안 했지요.}

10104 # 그냥 줄다린다 구래:, 형식쩌그루다가. {그냥 줄 당긴다고 그래, 형식적으로다.}

10104 # 해마다 해기닝 줄다리, 모깨 줄다린다구 그래넌대, 형식쩌그루다 머 좀 그래가주 그냥 해구 시:에서 인재 모시 해가주구... {해마다 하기는 줄다리, 목계 줄다리기 한다고 그러는데, 형식적으로다 뭐 좀 그래 가지고 그냥 하고 시에서 이제 뭐 해 가지고...} #1 연:날거찌 안해지. {옛날같이 안 해지.}

10104 # 시:에서 인재 모여서 모깨 쫓다린다구 이제 그러개 어 금너내두 해써찌유, 아마. {시에서 이제 모여서 목계 줄다리기 한다고 이제 그렇게 금년에도 했었지요, 아 마.}

10104 # 나 가두 아너써유, 그 볼꺼뚜 움녕거류 호호호호. {나 가지도 않았어요, 그 볼 것도 없는 걸요 허허허허.}

10104 @ 그러 그거 말구 머 정월따래 노능 거 머 이렇건 업써써요? {그럼 그것 말고 정월 달에 노는 것 뭐 이런 것은 없었어요?}

10104 # 읍:써유. {없어요.}

10104 @ 그에 쥔 큰 노리여깨내요, 행사여깁내요? {그것이 제일 큰 놀이였겠네요, 행사였 겠네요?}

10104 # 예:, 그저넌 그래찌유. {예, 그전에는 그랬지요.}

10104 @ 그거 해서 이기면 어떠쿠, 지면 어트개 돼요? {그것 해서 이기면 어떻게, 지면 어떻게 돼요?}

10104 # 머 별거 읍써유 머, 이기구 지구 그거지유 머 무슨 먼 머 허허허허. {뭐 별것 없 지요 뭐, 이기고 지고 그것이지 뭐 무슨 뭐 뭐 허허허허.} #1 그래니까 장사해닝 거유, 장사:. {그러니까 장사 하는 거예요, 장사.}

10104 @ 장사하구 노느라구? {장사하고 노느라고?} #1 장사... 장사가 마니면 모이들자너. {장사... 장사가 많으면 모이들잖아.} # 예, 노느라구. {예, 노느라고.}

10104 @ 여기 특싼무른 머:가 마니 나요? {여기 특산물은 뭐가 많이 나요?}

10104 # 특싼품 크게 나능 거 읍써유. {특산품 크게 나는 것 없어요.}

10104 # 여기 머: 사과 사과가 좀 마:이 나구, 그저 과일 그래구선 주루 요즈매는 주루 인 재 고추가 마이 나오고. {여기 뭐 사과 사과가 좀 많이 나고, 그저 과일 그리고 는 주로 요즘에는 주로 이제 고추가 많이 나오고.}

10104 # 요:너매 동네 담:배 메찌비 마니 해닝거지유, 담:배 요너매 동네에 거기. {요 너머 동네 담배 몇 집이 많이 하는 것이지요, 담배 요 너머 동네에 거기.}

10104 # 그래유, 머 크:개 나능 거뚜 읍써유. {그래요, 뭐 크게 나는 것도 없어요.}

10105 @ 지금 요 동네는 그 하라버님 어려쓸때 하구. {지금 여기 동네는 할아버님 어렸을 때 하고.} # 예? {예?}

10105 @ 하라버님 어려쓸때하구 비교해가주구요. {할아버님 어렸을 때하고 비교해 가지고요.} # 네. {네.}

10105 @ 이 동네가 머가 어트개 달라져써요? {이 동네가 뭐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10105 # 달라징 거는, 달라져써유 어려쓸때 대면. {달라진 것은, 달라졌지요 어렸을 때에 대면.}

10105 # 어릴 쟈 마캥 기냥 초가집, 그냥 흑 즉찌브루 해구, 그러치마닌 지끄면 마캥 새루 지어쓰니까. {어릴 때는 모두 그냥 초가집, 그냥 흙집으로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모두 새로 지었으니까.}

10105 # 새루 마캥 지... 통다 다 새루 썩 지어쓰니까, 게 달라져써유 동네가. {새로 모두 지... 통으로 다 새로 전부 지었으니까, 달라졌지요 동네가.}

10105 @ 마을 이 동네 모양은뇨? 모양은 그대루 이꾸요? {마을 이 동네 모양은요? 모양은 그대루 있고요?}

10105 # 네, 모양은 그대루 이써유. {네, 모양은 그대루 있지요.}

10105 # 선새가 어:대루 이쓰니까유. {산새가 그대루 있으니까요.}

10105 @ 여기 사는 사람두 달라져써꺼 아니요, 그전하구? {여기 사는 사람도 달라졌을 것 아니에요, 그전하고?} # 예? {예?}

10105 @ 사람 사능거뚜 달라져써꺼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것도 달라졌을 것 아니에요.}

10105 # 사람 사능거야 예:전에보다 잘 먹꾸 잘 지내까 달라져써유. {사람 사는 것이야 예:전보다 잘 먹고 잘 지내니까 달라졌지요.}

10105 # 차가 집집마둥 다: 이꾸 머, 달라져써유 머. {차가 집집마다 다 있고 뭐, 달라졌지요 뭐.}

10105 @ 여기 사는 사람 숯:짜두 다르자나요, 성씨두? {여기 사는 사람 숫자도 다르잖아요, 성씨도?} # 예? {예?}

10105 #1 다르지유:, 성씨두 다: 달려져꾸... {다르지요, 성씨도 다 달라졌고...}

10105 # 예, 그르므뉴. {예, 그럼은요.}

10105 @ 어트개 달라져써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10105 # 머 판대서 마캥 오니까루 머. {뭐 판 데서 모두 오니까 뭐.}

10105 # 그전 승: 읍든 승:더리 마니 드리오구 그래써유 머. {그전에 성 없던 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지요 뭐.}

10105 @ 그저내는 우씨드리 마니 사라따구요? {그전에는 우씨들이 많이 살았다고요?}

10105 # 예:, 주로 이동내선 아주 우리 우:씨더리 사라뎡거지유. {예, 주로 이 동네에서는 아주 우씨 우씨들이 살았던 것이지요.}

10105 @ 그리구서넌 인재 어떤 성씨드리 마니 드려와써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성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10105 # 지끄미유? {지금요?}

10105 @ 예. {예.}

10105 # 머 어너 특출라게 마니 웅건 우:꾸유, 그저 여러 사라미 머 장씨두 이:꾸 그저 머... {뭐 어느 특출나게 많이 온 건 없고요, 그저 여러 사람이 뭐 장씨도 있고

그저 뭐…}

10105 # 나넌 김간대 김씨 김씨두 미집 뛰구, 머 그래유. {나는 김가인데 김씨 김씨도 몇 집 되고, 뭐 그래요.}

10105 # 머 그래군 머 또 달라장개시 이동내 요즈매 절른 사람덜 완년대 승:이 몬:지 이르미 몬:지 지금 모르는 지비 메찌비유. {뭐 그리고 뭐 또 달라진 것이 이 동네 요즈매 젊은 사람들 왔는데 성이 뭔지 이름이 뭔지 지금 모르는 집이 몇 집이예요.}

10105 # 내가 양가지 그사람더리 내한테 모르지 그래니까루 이동내 사러두 어떤지비 머여 절른내덜 와 가주서는 인사 안 해구 그래니까 승:이 몬:지 이르미 몬:지 그뚜 몰르구 지금 마 마:너유. {내가 안 가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모르지 그러니까 이동내 살아도 어떤 집이 뭐야 젊은네들 와 가지고서 인사 안 하고 그러니까 성이 뭔지 이름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많 많아요.}

10105 @ 예. {예.}

10105 # 메찌비유 그냥. {몇 집이요 그냥.}

10105 # 그래… {그래…}

10105 #1 옴:나레넌 이사덜 오면 이래 지브루 차저다니유, 인사해루, 어서 온 모라구. {옛날에는 이사를 오면 이렇게 집으로 찾아 다녀요, 인사하러, 어디서 온 뉘(누구)라고.}

10105 @ 할머니두 이쪼그루 가까이 오셔유, 그래야지 여기 소리 드러가지. {할머니도 이쪽으로 가까이 오셔요, 그래야지 여기 소리 들어가지.}

10105 # 옴:나레는 어서 이사덜 동네덜 오든지 오머넌, 동:내 싸람더란테 다 인사덜 해구 서루 알:구 이래구 지내는데 지끄면 그거뚜 아니유, 와따 가면 고마이구. {옛날에는 어디에서 이사를 동네를 오든지 오면,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인사를 하고 서로 알고 이려고 지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예요, 왔다 가면 그만이고.}

10105 # 어허허 알:지두 모태유. {허허허 알지도 못 해요.}

10105 @ 옴:나레 이르 떡 캐가주구 하나씩 돌리구 그래짜너요. {옛날에 이렇게 떡 해 가지고 하나씩 돌리고 그랬잖아요.}

10105 # 야:, 그러치유. 머 만치유. {예, 그렇지요. 뭐 많지요.}

10105 @ 무슨 떡 캐썬요? {무슨 떡 했어요?}

10105 # 시루떡기라구 해서 켜떡 캐넌 거지유. {시루떡이라고 해서 켜떡 하는 것이지요.}

10105 #1 마구설기… {마구설기…}

10105 @ 마구설기는 어트개 하능 거요? {마구설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105 #1 쿵, 쌀가루에다 쿵얼 썬겨서 찌능 거. {쿵, 쌀가루에다 쿵을 섞어서 찌는 것.}

10105 #1 켜떡근 인재 팔 쌀머가주구 쌀가루 켜떡 느쿠. {켜떡은 이제 팔 삶아 가지고 쌀가루 켜떡 넣고.}

10105 # 이 동네:넌 지끔 머여 다른대:덜 가봐찌마넌, 다른대두 다 그렇가부등구머넌. {그이 동네는 지금 뭐야 다른 데를 가 봤지만, 다른 데도 다 그런가 보더구먼.}

10105 # 시:에서 지정얼 해가주서넌, 장:수마으리라고 이동내덜 지정얼 해가주구.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서, 장수마을이라고 이 동네를 지정을 해 가지고.}

10105 # 그래가주구 인재 거기서 마:니 보:줄 해조 가주구 그 여행두 가따오구, 또 모여서 머 교육뚜 바 바꾸 모두 그래능게 이꾸유.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많이 보

조를 해줘 가지고 그 여행도 갔다오고, 또 모여서 뭐 교육도 받 받고 모두 그러는 것이 있고요.}

10105 # 인재 경:로당알 조 우애다가 저 저우애 똥내 지어 가주구 그 경:로당으루다가 늘 그이덜 마니 모여 놀:구, 인재 그렇거지유 주루 머. {이제 경로당을 저 위에다가 저 저 위에 동네에 지어 가지고 그 경로당으로 늙은이들 많이 모여 놀고, 이제 그런 것이지요 주로 뭐.}

10105 @ 여기는 머짜라미나 사라요, 동네가 그러면? 머토, 머토나 대구. {여기는 몇 사람이나 살아요, 동네가 그러면? 몇 호, 몇 호나 되고.}

10105 # 이 부라개 전체가유? {이 부락 전체가요?} @ 예. {예.} # 전체가. {전체가.} @ 예. {예.}

10105 # 전체가 호쑤 마:너유, 한 이백: 이백코가 너머유, 이백코가 너머유 집쑤루넨. {전체가 호수는 많아요, 한 이백... 이백 호가 넘어요, 이백 호가 넘어요 집 수로는.}

10105 @ 저쪽 저기 읍 읍내까지요? {저쪽 저기 읍 읍내까지요?} # 예, 저 우애꺼지, 예. {예, 저 위에까지, 예.}

10105 # 한 우리 부라기. {한 우리 부락이.}

10105 @ 예. {예.}

10105 # 여 토산부락, 토산부라기라 그래넨대, 토산부라기라 그래넨대 토산부라기 이백코가 너머유. {여기 토산부락, 토산부락이라 그러는데, 토산부락이라 그러는데 토산부락이 이백 호가 넘어요.}

10105 @ 토산부라기 용 용선애기하능 거예요, 용선? {토산부락이 용 용선 애기하는 거예요, 용선?}

10105 # 용산니:가 아니구. {용산리가 아니고.}

10105 # 토산부라기 또 용산니에서 또 향님뿌라기구 토산부리기구 따루 또 갈러저쑤유. {토산부락이 또 용산리에서 또 향림부락이고 토산부락이고 따로 또 갈라졌어요.}

10105 @ 아아. {아.}

10105 # 용산, 용사니에서 상님... 향님뿌라기구 향님뿌락, 또 토산뿌라기꾸 그래유. {용산, 용산리에서 향림... 향림부락이고 향림부락, 또 토산부락 있고 그래요.}

10105 @ 예. {예.}

10105 @ 금 용현하구 토사는 어디예요, 토산쑤개... {그럼 용현하고 토산은 어디예요, 토산 속에...}

10105 # 토산쑤개 용혀니지유. {토산 속에 용현이지요.}

10105 @ 예. {예.}

10105 @ 금 토산부라기라 그러나요? {그럼 토산부락이라 그러나요?}

10105 # 예. {예.}

10105 # 그 인재 저 동네 저 우애 똥내두 이르미 되끼미, 모꼴, 그르개 여:기두 이르미 동네가 도 달러유 그냥. {그 이제 저 동 저 위에 동네도 이름이 토끼미, 목골, 그리고 여기도 이름이 동네가 또 달라요 그냥.}

10105 @ 그러면 용산니에 토산부라기 인능 거내요? {그러면 용산리에 토산부락이 있는 거네요?}

10105 # 예. {예.}

10105 @ 금 머싸라미나 대유, 잉구는 여기에? {그럼 몇 사람이나 돼요, 잉구는 여기에?}

10105 # 예? {예?}

10105 @ 주민주는 면명정도 되요? {주민수는 몇 명 정도 돼요?}

10105 # 그건 몰:르지유, 즈넌 내가. {그것은 모르지요, 저희는 내가.}

10105 @ 요동내만뇨, 요기. {요동네만요, 요기.}

10105 # 요동내유? {요동네요?}

10105 @ 요기 용혀니라 그래짜나요. {요기 용현이라 그랬잖아요.}

10105 # 네. {네.}

10105 @ 요동내만, 혼:터. {요동네만, 현터.}

10105 # 용혀:니 머 만차내유, 그러니까루 움마여. {용현이 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야.}

10105 #1 한 이시보. {한 이십 호.}

10105 # 스물, 그저넌 스물뚜집 이쨌넌대 그뚜 인제 비:구 뜨꾸 그래가주서넌 지금 여 여  
라홉찌빙가 그런대. {스멀, 그전에 스물두 집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비고 뜯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열아홉 집인가 그런대.} #1 한 이십포 돼유. {한 이십 호 돼  
요.}

10105 # 한지비, 말캉 다 두시꾸구 세:시꾸 인넌 사라미 머여 두기내 하구 야으내 하구 그  
렁가? {한 집이, 모두 다 두 식구고 세 식구 있는 사람이 독이네 하고 양은네 하  
고 그런가?}

10105 #1 너더찌면 한 댕: 너더댕 되여. {너덜집은 한 댕 너더댕 되여.} # 어? {응?}

10105 # 그래구넌 다: 마캉 두지 두:씨기구 그래니 머. {그리고는 다 전부 둘 둘씩이고 그  
러니 뭐.}

10105 #1 다: 나가찌 머. {다 나갔지 뭐.}

10105 # 한 머너 한 사:심명내두 안 되지 총 수짜가 머 사:심명 안 되지. {한 뭐야 한 사  
십 명도 안 되지, 총 숫자가 뭐 사십 명도 안 되지.}

10105 # 사 한 사:심명 되까, 총 수짜가. {사 한 사십 명 될까, 총 숫자가.}

10105 # 사능 개 그래유. {사는 게 그래요.}

## 1.2. 일생 의례

10201 @ 하라버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사라온 내력 쪽:칸번 얘:기해 보세요, 어릴 때부  
터 여기 태어나셔서 이동내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라오신 얘기 좀 해조 보세요.  
{할아버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력 쪽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여기 태어나셔서 이 동네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10201 # 나: 사라웅거 애길 해머넌 채걸 향권 귀:두 모땅해유. {나 살아온 것 얘기를 하면  
책을 한 권 써도 못 당해요.}

10201 # 나넌 고상 참: 엄청나게 마니 헨 사라미유, 아주. {나는 고생 참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주.}

10201 @ 그래니까 어리실때부터 쪽: 칸번, 순서대로 한 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리실 때부터 쪽 한 번, 순서대로 한 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10201 # 다른 애:기말구 내한대 대:해서 내가 헨 애기마니유? {다른 애기 말고 나한테 대  
해서 내가 한 이야기만요?}

10201 # 내가 사러온 애기마니유? {내가 살아온 애기만요?}

10201 @ 예 예. {예 예.}

10201 @ 아니 머 주변 애기해두 갠차니요, 하라버지하구 팔려된 주변애기 하셔두 대구:.  
{아니 뭐 주변 애기 해도 괜찮아요, 할아버지하고 관련된 주변 애기 하셔도 되  
고.}

10201 # 허허허 내가 사러온 애길 해면 참: 기가. {허허허 내가 살아온 애기를 하면 참 기  
가.}

10201 #1 조용 걸루 골러해유. {좋은 것으로 골라 해요.}

10201 # 기구만장하개 사러써유, 나넌. {기구하고 만장(萬障)하게 살았어요, 나는...} @ 아  
니요, 다: 다:해주셔두 되요. {아니요, 다 다 해 주셔도 돼요.}

10201 @ 이동내서 태어나서따면서요? {이 동네서 태어나셨다면서요?}

10201 # 네. {네.}

10201 @ 예. {예.}

10201 # 그래 어려서매 클찌개넌 칭구더리 가튼 또래가 마:너써찌요, 마너써찌유. {그래 어  
려서 클 때는 친구들이 같은 또래가 많았었지요, 많았었어요.}

10201 # 게 모두 시 저: 심:씨내가 여기 함 번 사라쨌넌대, 심:씨내가 이동내에서 제:일 부  
자래서 그: 자손더리 일본시대 때 일본가서 으학때학 조러벌 해고. {그 모두 시  
저 심씨네가 여기 한 번 살았었는데, 심씨네가 이 동네에서 제일 부라라서 그 자  
손들이 일본 시대 때 일본 가서 의학대학 졸업을 하고.}

10201 # 심:형서비래넌 사래미, 으학때학 조러벌 해구서넌 인재 칭구덜 하구 작빨인살 해  
구 한:구개 와서 서우래 와서 병워닐 차릴라고. {심형섭이라는 사람이, 의학대학  
졸업을 하고서 이제 친구들 하고 작별인사를 하고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 병원  
을 차리려고.}

10201 # 그 병원 차리는대 인재 그: 머: 도:니 비용이 엄청 마이 드러서, 이 지비서 재사니  
베릴 한 사:백씩 캔넌대, 사:백써기머넌 남 조가주 너러 머여 노너오능개 사:백써  
기면 거진 천 석 나오넌 자리라고요. {그 병원 차리는데 그 돈이 비용이 엄청 많  
이 들어서, 이 집에서 재산이 버를 한 사백 석 했는데, 사백 석이면 남 주어서  
논을 뭐야 놔뉘오는 것이 사백 석이면 거의 천 석 나오는 자리라고요.}

10201 # 근대 땅언 여기 주루 우:꾸 저: 강원도 쪼개 저: 원주쪼그루 저쪼그루두 마니 인  
는대. {그런데 땅은 여기 주로 없고 저 강원도 쪽에 저 원주쪽으로 저쪽으로도  
많이 있는데.}

10201 # 그걸 다 파러야, 다 파러두 병원 하나 인재 서울서는 모차린다 이래구 헨넌대.  
{그것을 다 팔아야, 다 팔아도 병원 하나 이제 서울에서는 못 차린다 이려고 했  
는데.}

10201 # 칭구덜하구 작빨인사루다가 인재 술먹꾸 놀:구, 그 사래미 그랴래는지, 놀:구 인재  
내가 보잔꾸 애:기만 드룽거여. {친구들하고 작별인사로 이제 술 먹고 놀고, 그  
사람이 그러려고 그런지, 놀고 이제 내가 보지는 았고 애개기만 들은 거야.}

10201 # 칭구덜찌리 추꾸덜 해다가 축꿀 해다가 우트개 어퍼저때여. {친구들끼리 축구를  
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어떻게 었어졌대요.}

- 10201 # 그 박싸더리 의학박싸더리 모두 행거시, 어퍼저서 그자리에 어퍼전년대, 이거릴 해니까루 창사구가 창수가 어디가 머 메똥가기 나때능구려. {그 박사들이 의학박사들이 모두 한 것이, 얹어저서 그 자리에 얹어졌는데, 이것을 하니까 창자가 창자가 어디가 뭐 몇 동강이 났다는구려.}
- 10201 # 그래가주 그자리에 주꺼썬유.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 10201 # 그래가주서넌 고만, 형서비라는 이가 일본가서 으학때학 조립 해가주선 그래가주 구 모태구. {그래 가지고서 그만, 형섭이라는 이가 일본 가서 의학대학 졸업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못 하고.}
- 10201 # 고 다음 동생이 우리 가튼 또랜대, 한:국 싸라르루넌 그때시 일본시때애넌 그래두 그만해머넌 최:고지, 광:산전문대하걸 조립해서. {그 다음 동생이 우리 같은 또랜데, 한국사람으로는 그때 당시 일본 시대 때에는 그래도 그만하면 최고지, 광산전문대학을 졸업했어.}
- 10201 # 광 머 광산 머시대니가 광산전문대해기래여. {광 뭐 광산 뿔이냐니까 광산전문대학이래.}
- 10201 # 그래가주 지리박싸가 돼따구, 형섭 저기 중:서비라구. {그래 가지고 지리박사가 됐다고, 형섭 저기 중섭이라고(하는 사람이).}
- 10201 # 그래구서 그 미태 인재 우리내 또랜 사:방 참 이래다가 머 일변놈 구닌한테가서두 죽꾸, 머 피어 어디가서 주꾸, 예 여 이사나가 주꾸, 다: 주꺼썬유. {그리고서 그 밑에 이제 우리들 또래 사방 참 이러다가 뭐 일본놈 군인한테 가서도 죽고, 뭐 피어 어디 가서도 죽고, 여기에서 이사 나가서 죽고, 다 죽었어요.}
- 10201 # 다: 죽꾸 지금 나 하나 나머썬유 나, 질: 모:빠운놈 여가 나 하나 나머따구. {다 죽고 지금 나 하나 남았어요 나, 제일 못 배운 놈 여기 나 하나 남았다고.}
- 10201 # 나넌 궁민해표두 모:까구, 어려서버텀 멍녕거래녕 거넌 참 굶따시피 해구, 노박 그냥 배아퍼서 이래가주구 다 차차 차차 나이 머거서. {나는 국민학교도 못 가고, 어려서부터 먹는 것이라는 것은 참 굶다시피 하고, 늘 그냥 배 아파서 이래 가지고 차차 차차 나이 먹어서.}
- 10201 # 내가 열레살버텀 나무 장사릴 해썬유, 열레살버텀. {내가 열네 살부터 나무 장사를 했어요, 열네 살부터.}
- 10201 # 서 사내 가서 나무릴 해가주서넌 질머지구 모깨루 가유. {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서 쪼어지고 목계로 가요.}
- 10201 # 여기는 사넌 사라미 우:꾸 모깨는 그때 배하구 장사꾸니 망꾸 그래이까 맨: 장사 저 장사꾸니 멍넌 음식찌미 이르기 마느니까 거기 싸람더런 전부 사거렁. {여기는 사는 사람이 없고 모계는 그때 배하고 장사꾼이 많고 그러니까 맨 장사 저 장사꾼이 먹는 음식점이 이렇게 많으니까 거기 사람들은 전부 사거든.}
- 10201 # 그래 모깨루 가머넌 여기서 새보개 날, 전날 해다 봐 오닐 해다 봐따가 자구서는 날 새: 새:기 저내 모깨루 지구간다구유. {그래 목계로 가면 여기에서 새벽에 날, 전날 해다 봐 오늘 해다 놓았다가 자고서 날 새 새기 전에 목계로 지고 간다고요.}
- 10201 # 가머넌 논, 돈: 그때 톤 시보전, 십싸전, 십쩔 이래 바더요. {가면 돈, 돈 그때 톤 십오 전, 십사 전, 십 전 이렇게 받아요.}
- 10201 # 그걸 가주 오머넌 그걸 가따가 또 해구 또 해구, 열레살버텀 내가 나무장사릴 해

구.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갖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열네 살부터 내가 나무장사를 하고.}

10201 # 사:물 내가 이르기 고상얼 해서매 나오다가 시무살 먹편 해, 참 으:런더리 우트개다: 그때 머 사능거뚜 모해구 그런대, 이 시꾸릴 만내두룩 우티기 영겨릴 해:서. {사뭇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나오다가 스무 살 먹던 해, 참 어른들이 어떻게 다 그때 뭐 사는 것도 뭐하고 그런데, 이 식구를 만나도록 어떻게 연결을 해서.}

10201 # 그래 겨론해가주서닌 시무살버텀 내가 이지블 시무살 먹편 해가 이지블 내가 내 소느루 징:거유 그냥. {그래 결혼해서 스무 살부터, 내가 이 집을 스무 살 먹던 해 이 집을 내가 내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냥.}

10201 # 이거 그냥 머 되나마나 그냥 헬쭈두 모르녕걸 그저 머 목쭈구 말구 다: 디리지양쿠. {이거 그냥 뭐 되나마나 그냥 할 줄도 모르는 것을 그저 뭐 목수고 뭐고 다 들이지 않고.}

10201 # 이: 저 서까래 저개 이개 스물 늑:짖대 기리기가 스물늑:짖대. {이 저 서까래 저개 이개 스물 녀 잔데 길이가 스물 녀 잔데.}

10201 # 저: 가춘니 여기서 삼십년대유, 삼십니년 되는데 가서 이 썽소나무릴 저걸 한지매 열깨씨걸 지구선 삼십니 되너서 저오구. {저 가춘리 여기에서 삼십 리인데요, 삼십 리 되는데 가서 이 썽소나무를 저것을 한 짐에 열 개씩 지고서 삼십 리 되는 데서 저 오고.}

10201 # 여기 이 구드릴 썽는데 여 사냐꼬리라는대 저 추평니 가서매 사:내 가서 그느물 파서 그거릴 지개루 저오구. {여기 이 구들을 썽는데 여 사냥골이라는 데 저기 추평리 가서 산에 가서 그놈(의 것)을 파서 그것을 지개로 저 오고.}

10201 # 이 지경얼 해서 내가 사라나온거 보머닌 참: 고생두 망:쿠, 주글뿐두 마니 해썬유. {이 지경을 해서 내가 살아 나온 것 보면 참 고생도 많고, 죽을 뻔도 많이 했어요.}

10201 # 그래다가보니까루 자식떠리 인재 나:서 크구 그래니까 내가 모뻘워서매 하:니 대유. {그래 돌아보니까 자식들이 이제 낳아서 크고 그러니까 내가 못 배워서 한이 돼요.}

10201 # 아 어디가서 누기 배운 사람하구 애:기릴 해넌대. {아 어디 가서 누기 배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10201 # 그뚜 인재 으:트개서 애:기가 된냐하머닌, 애:기가 자꾸 마:나지내유.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서 애기가 되었냐 하면, 애기가 자꾸 많아지네요.}

10201 # 요 우애 저. 일본 시대 때 저:수지릴 마거썬요, 여 동네 물 저 노내 물대너라구. {요기 위에 저... 일본 시대 때 저수지를 막았어요, 여기 동네 물... 저 눈에 물 대느라고.}

10201 # 즈:수질 마거넌대, 고거 해방저내 터:저판마리유. {저수지를 막았는데, 그게 해방 전에 터졌단 말이에요.}

10201 # 그이 해:방되구나서 우리나라에서 인재 그거릴 또 마거뻬유. {그 해방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것을 또 막았대요.}

10201 # 마그니까 무리 채여가주 그 아내 무리 채여가주구 그 아내 싸람더리 막 이올해녕 거여. {막으니까 물이 차 가지고 그 안에 물이 차 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막 이유를 하는 거야.}

- 10201 # 그래가주구 그 수세를 인제 거기 인제 수세라구 해서 이미태 싸람더리 해:서 무려 주구. {그래 가지고 그 수세를 이제 거기 이제 수세라고 해서 이 밑에 사람들이 해서 물어 주고.}
- 10201 # 그래다 보니까루 허지니라구 해닌 사라미 만주서매 나와가주 만주가 이따가 나와가주 여와서 지땅두 망:쿠 살:기두 괜차넌데. {그러다 보니까 허진희라고 하는 사람이 만주에서 나와 가지고 만주에 가 있다가 나와 가지고 여기 와서 제 땅도 많고 살기도 괜찮은데.}
- 10201 # 그사라미 수리게:장이라구 이제 마이 배우구 또토캐구 그래니까루 수리게:장이라구 그 세웠넌데. {그 사람이 수리게장이라고, 이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수리게장이라고 그 세웠는데.}
- 10201 # 아 그 아내 모시행걸 다 자기가 모두 헬라그래능기여. {아 그 안에 뭐시한 것을 다 자기가 모두 하려고 하는 거야.}
- 10201 # 그래서 누가 헬싸람두 우꾸 여기 이 물 그 물 대:가주선 농 머여 농사 진넌 사라미 이뉘니 사:십 삼명인데 사:십삼명이 모여가주선 회:털 해써. {그랬 누가 할 사람도 없고, 여기 이 물 그 물 대 가지고 농 뭐야 농사 짓는 사람이 인원이 사십삼 명인데 사십삼 명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어.}
- 10201 # 이거털 이래가주 안 되니까 그 정부에 판겨를 바짜, 재판얼 해자.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정부의 판결을 받자, 재판을 하자.}
- 10201 # 그래 어디꺼정이나 해넌데꺼정 가치 해자, 하구선 재판얼 해기루다가 도장얼 바꾸 약썻걸 헨넌데. {그래 어디까지 하는 데까지 같이 하자, 하고서 재판을 하기로 도장을 받고 약속을 했는데.}
- 10201 # 아 이누무 재판니 그르캐 소키 안 끝나내유. {아 이놈의 재판이 그렇게 속히 안 끝나네요.}
- 10201 # 그래다 보이까루 허지니라는 사라미. {그러다 보니까 허진희라는 사람이.}
- 10201 # 하영이 어머이래느니 가부 사:너니 혼차 혼차 사:넌니하:구. {하영이 어머니라는 이 과부로 사는 이 혼자 혼자 사는 이하고.}
- 10201 # 기몽수래닌 사라미 여기서 소이울 경상도서 올라완 이살완넌데, 소임부물 보구 그랜는데 그사람 하:구. {김홍수라는 사람이 여기서 \*\*\* 경상도에서 올라 와 이사를 왔는데, 소임을 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 10201 # 또 김옥썩내러니 노인 한분 하구. {또 김억수라는 이 노인 한 분하고.}
- 10201 # 세:사람한테 가서 이거 재판얼 해면 당신네가 지니까, 지니까 지머넌 개이 그때가선 크닐나니까 안 난 안 헨다구 모여 포기 도장얼 해라, 그애 포기해라. {세 사람한테 가서 이거 재판을 하면 당신네가 지니까, 지니까 지면 괜히 그때 가서 큰 일 나니까 안 난 안한다고 뭐야 포기 도장을 찍어라, 그래 포기해라.}
- 10201 # 그래서 인제 아 그 세:시 그만 그이헨테다가 재판 취소 포길 해판마리유. {그래서 이제 아 그 셋이 그만 그이한테다가 재판 취소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 10201 # 근대 우리넌 사:십삼명이나 되니까루 삼명 포기럴 헨다구해서 그개 머 상관인너냐 그래떠니 아 그개 아니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십삼 명이나 되니까 삼 명 포기를 한다고 해서 그개 뭐 상관 있느냐 그랬더니 아 그개 아니내요.}
- 10201 # 하:나가 포길 해두 그 재판넌 무효래요 다시 해야 된대유. {하나가 포기를 해도 그 재판은 무효래요 다시 해야 된대요.}

- 10201 # 아 그래가주구는 야 이거털 그사람한테 성더 거냥 주면 이사라미 막: 그냥 수새릴 막: 바더디털티구 우리는 다 모시 될테구 그래이까루 안되개따. {아 그래 가지고 는 야 이것을 그 사람한테 \*\* 그냥 주면 이 사람이 막 그냥 수새를 막 받아들일 테고 우리는 다 뭇이 될테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 10201 # 그래가주 회:털 해가주서넌 이걸 그사람한테 세상옵시 너머가지 안투룩 아나 안 너머갈 싸라무루다 이걸 짜 가주서넌 뽀버가주 해자. {그래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서 이것을 그 사람한테 세상없어도 넘어가지 않도록 안 안 넘어갈 사람으로 이것을 짜 가지고 뽑아가지고 하자.}
- 10201 # 그래가주 결쟁얼 헨넌대 요 우용화니래넌 사래미 요: 우에 사라씨넌대, 그사라미 대해꼬껴정 조리패구 다: 해씨유. {그래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여기 우용환이라는 사람이 요기 위에 살았었는데, 그 사람이 대학교도 졸업하고 다 했어요.}
- 10201 # 게 그사라미 이재 세우구 그래구 사:십 삼명 중에 세:사라미 포기해쓰니까 한 사:십명 중에 나릴 뽀내 날. {그래 그 사람을 이제 세우고 그리고 사십삼 명 중에 세 사람은 포기 했으니까 한 사십 명 중에 나를 뽀내 나를.}
- 10201 # 난 아무거뚜 배우지두 모테 공민두 모르구 머 아 아무거뚜 모르넌대 아 날: 뽀내 유. {난 아무 것도 배우지도 못 해 국민도 모르고 뭐 아 아무 것도 모르는데 아 날 뽀내요.}
- 10201 # 여하턴 허지니한텐 세:상옵씨두 안머갈팅까 안 너머 갈 싸람 뽀버라. {여하튼 허진희한테는 세상없어도 안 넘어 갈 테니까 안 넘어 갈 사람 뽀아라.}
- 10201 # 이래가주 헨넌대 그래가주 청주가따 재판날 청주가 여기 충주는 버뤄니 이씨두 그때넌 청주에서 나온 지원해너라구 머여 그 재판날만 와서매 해지 청주루 가구 래유.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청주 갖다 재판을 청주가 여기 충주는 법원이 있어도 그때는 청주에서 나온 지원 하느라고 뭐야 그 재판날만 와서 하지 청주로 가고 그래요.}
- 10201 # 그 청주가 가서는 재판날 딱: 거러가주구. {그 청주에 가서는 재판을 딱 걸어 가지고.}
- 10201 # 그래 인재 우리가 인재 일리리 땡길쭈두 우꾸 벼:노사릴 세우기루 해서 벼노사릴 세웬넌대 김중호 벼노사릴 라고 에 벼:노사혁뢰장이구 그리여 김중호 벼노사가.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일이 다닐 수도 없고 변호사를 세우기로 해서 변호사 세우는데 김중호 변호사를 라고 변호사협회장이 그래 김중호 변호사가.}
- 10201 # 그 김중호 벼노사릴 우리가 세워탄 마리어. {그 김중호 변호사를 우리가 세웠단 말이야.}
- 10201 # 아 게떠니 이누머 재판날 해넌대 허지니하구 우요위니하구 우용환니하구 모:땡긴 다구. {아 그랬더니 이놈의 재판을 하는데 허진희하고 우용환이 하고 못 다닌다고.}
- 10201 # 이개시 메빠늘 해구 메빠늘 해두 장:체 이개 꼬치 안나요 우트기 된누무개 민사라 능개. {이것이 몇 번을 하고 몇 번을 해도 당최 이게 끝이 안 나요, 어떻게 된 놈의 것이 민사라는 것이.}
- 10201 # 머:던지 한견만 드러가면 그걸루 함버니구선 또 너머가내유. {뭐든지 한 견만 들어가면 그것으로 한 번이고 또 넘어가네요.}
- 10201 # 머:던지 이유 항가지만 함버는 또 너머가유. {뭐든지 이유 한 가지만 한 번은 또

넘어가요.}

10201 # 그 민사래능 거 아:주 드립떠구머뉴. {그 민사라는 것이 아주 더럽더구먼요.}

10201 # 지글 재파늘 여털고빠닐 헨:넌대. {그것을 재판을 열일곱 번을 했는데.}

10201 # 그래다가 인재 그이 그걸 해다보니까 추 충 머여 청주 버번 충주 지워누루다 충주가 인재 판 머 재판소 그래니까 버번이 인재 새루 생 돼:가주선 판:사 세:시 안저스매 재파늘 해기루다가 충주루서 돼:따구유. {그러다가 이제 그 그걸 하다보니까 추 충 뭐야 청주법원 충주지원으로 충주가 이제 판 뭐 재판소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새로 생 되어 가지고 판사 셋이 앉아서 재판을 하기로 충주로 되었다고요.}

10201 # 개서 거기서 인재 이견 충주에 꺼니까 충주루 너머간다 그래 충주루 너무겨썬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것은 충주 것이니까 충주로 넘어간다, 충주로 넘겼어요.}

10201 # 냉견는데 어 거그와서 이누머 김종오 변호사라느니가 자기두 망:쿠 그래니까루 도통애 여기 재판나래 몬:나와유 바쁘니까. {넘겼는데 어 거기에 와서 이놈의 김중호 변호사라는 이가 자기도 많고 그러니까 도통 여기 재판날에 못 나와요 바쁘니까.}

10201 # 그래가주구 이그 인재 변호살 판사라덜 씨기야 한다. {그래 가지고 이 이제 변호사를 판 사람을 시켜야 한다.}

10201 # 판사라덜 씨길래두 배동하기래는 배동하기 \*\*\* 그 아주 나쁜 누미유. {판 사람을 시키려고 해도 배동학이라는 배동학이 \*\*\* 그 아주 나쁜 놈이에요.}

10201 # 배동이라는 변호사가 이누머 벼:노비만 바꾸 땡기넌 출짱비만 바꾸 그러캐 소걸써 거 게 해지두 안내, 이누머 변호사가 아 드루워유, 아 변호사덜 마캥 도동눔더리유. {배동학이라는 변호사가 이놈의 변호비만 받고 다니는 출장비만 받고 그렇게 속을... 그 하지는 않네, 이놈의 변호사가 아 더러워요, 아 변호사들 모두 도둑눔들이에요.}

10201 # 아 자꾸 그래다 보니까루 한버넌 판:사가 송:판사라구 송: 머신가 판사가 충주에 인재 주심판사가 인넌대 재판날두 아니구 그랜대 우용화니하구 나하구 김성무기하구 오라구 통지릴 해서 불러썬유. {아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한번은 판사가 송 판사라고 송 뵈인가... 판사가 충주에 이제 주심판사가 있는데, 재판날도 아니고 그런데 우용환이하고 나하고 김성묵이하고 오라고 통지를 해서 불렀어요.}

10201 # 그래 드리가썬유 버버닐 가떠니. {그래 들어갔지요, 법원을 갔더니.}

10201 # 그 재판 해넌대넌 선생니몬 다 아시개썬마넌 그 판:사뒤애 먼:말 해던지 그 서기가 여 금:토힐구 그랜 서기가 땡기민서넌 말: 해는대루 일리리 적떠라구 적똥구머뉴. {그 재판 하는 데는 선생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 판사 뒤에 무슨 말 하든지 그 서기가, 여기 검토하고 이런 서기가 다니면서 말 하는 대로 일일이 적떠라구 적더구먼요.}

10201 # 그런대 인재 송:판사가아 드러오라 그래더니만 머여 서기보구서는 가 저 가 이쓰라구. {그런데 이제 송 판사가 아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뭐야 서기보고서 가 저기가 있으라고.}

10201 # 그래서 그 서기가 인재 나가등구먼 그랜 뒤에 자기 판:사실루다가 드루오라그래유. {그래서 그 서기가 이제 나가더구먼 그런 뒤에 자기 판사실로 들어오라고 그

래요.}

10201 # 드러오더니마넨 그래서 드러가떠니 당신내가 이개 해능거시 당연헐 이런대 여 한 필찌가 하마 그때애 허지니가 허유노기 이르무루다가 명애병경 등기 이저널 해씨 니 이거꺼정 향꺼버내 마주 해여된다. {들어오더니만 그래서 들어갔더니 당신네가 이거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여기 한 필지가 벌써 그때 허진희가 허윤옥이 이름으로 명의변경 등기 이전을 했으니 이것까지 한꺼번에 마저 해야 된다.}

10201 # 마주 해야되니까루 다시 해라 그거유 그거 때때 안 된다구. {마저 해야 되니까 다시 해라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10201 # 그래서 인재 우리넨 인재 판:사가 우리 단독 우리거튼 사라를 불러 가주구 얘기헐 때넨 우리가 판:살 미더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판사가 우리 단독 우리같은 사람을 불러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판사를 믿었지.}

10201 # 예, 그러케 해거썸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10201 # 그래서 인재 아 그랩 벼노살 누기쭈 씨겨썸 조캐썸니까? 이 우리가 바:보처를 이개 승마기여. {그래서 이제, 아그러면 변호사를 누구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까? 이 우리가 바보처럼 이제 썸맥이야.}

10201 # 판:사한테 무리썸유. {판사한테 물었어요.}

10201 # 벼노살 누기쭈 씨겨썸 조캐썸니까. {변호사를 누구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까.}

10201 # 그래니까 그제서 인재 판:사가 송:판사가 서기릴 부르더라고.{그러니까 그제서 이제 판사가, 송 판사가 서기를 부르더라고.}

10201 # 서길 부르민션 이분더리 판, 변노사릴 누기쭈 해썸 조캐느냐구 무르니 누굴해썸 조으까 그래니까루. {서기를 부르면서 이분들이 판, 변호사를 누구 좀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니 누구를 했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10201 # 서기가 그 '윤:무시 벼노사 청주 인넨대 그부니 아주 철썸하개 자래는대' 그래더라고유. {서기가 그 '윤:뫼이 변호사, 청주 있는데 그 분이 아주 철썸하게 잘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10201 # 그애 인재 판:사가 인재 송:판사가 그래유. 그래길래 우리넨 인재 그 해래넨 대루 해녕거지유 머 썸맥처럼. {그래 이제 판사가 이제 송 판사가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뭐 썸맥처럼.}

10201 # 그래뜨니 예: 대답만 해고 나와 가주구서넨 용화니래넨 사래미 여기 가치 나야는 용화니래넨 사래미 나와가주서 하는 얘기가. {그랬더니, 예 대답만 하고 나와 가지고서는 용환이라는 사람이 여기 같이 나야는 용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10201 # 서우래 정:추농 벼노사가 하:주 철뚜철미하구 머 인 저 여간 고지시캐구 그래지 아는데 핵교 땡길찌개 머 도기러 선 선생얼 해때녕가 은사시구 그런대 그 선상저 그 벼노산니만테 가서 서우래 가서 얘기릴 해야거따구. {서울에 정춘홍 변호사가 아주 철두철미하고 뭐 이 저 여간 고지식하고 그렇지 않은데 학교 다닐 적에 뭐 독일어 선생을 했다던가 은사시고 그런데 그 선생 저 그 변호사님한테 가서 서울에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10201 # 그 몰:러 나넨 모르니까 자네가 아려서 해여 자넨 대하교꺼정 대어쓰니까 잘 아려서 해여. {그 몰라 나는 모르니까 자네가 알아서 해 자네는 대학교까지 배웠으니까 잘 알아서 해.}

- 10201 # 그래서 서울루 가서 정추농 벼노사털 세워써유. 윤: 벼노사털 안 세우구. {그래서 서울로 가서 정춘홍이라는 변호사를 세웠어요. 윤 변호사를 안 세우고.}
- 10201 # 근대 이 서울서 내려와요? {그런데 이 서울에서 내려와요?}
- 10201 # 그래다 보니까루 이누며 송:판수가 춘처느루다가 영전이 되서 춘처느루다 판:사루다 그만 이저널 해짜너.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송 판사가 춘천으로 영전이 되어서 춘천으로 판사로 그만 이전을 했잖아.}
- 10201 # 그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개때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대요.}
- 10201 # 그래서 인재 구만 에이 우리가 구만 이러가주 안 되개따구. 그래서 이제 포:기루해:써유 머. {그래서 이제 그만 아이 우리가 그만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뭐.}
- 10201 # 아유 이렇 고상두 해구 머 세상에 산: 고상열 내가 참. {아이고 이런 고생을 하고, 뭐 세상에 산 고생을 내가 참.}
- 10201 # 나 사러온 애기털 하면 머 채걸 꾸며두 모:따해유. 이거 내가 목숨 목숨 사리오넨 생가캐머넨. {나 살아온 애기를 하면 뭐 책을 꾸면도 못 다 해요, 이거 내가 목숨 목숨 살아온 생각 하면.}
- 10201 # 안 땡긴대가 우:꾸 안 헨대가 우:꾸 이리라구 이리라군 다: 제천 가서 예기 제천 시내 가서 제기 증:기회사꺼정두 땡기구. {안 다닌 데가 없고, 안 한 데가 없고, 일이라고 일이라고는 다 제천 가서 제기 제천 시내 가서 제기 전기회사까지도 다니고.}
- 10201 # 이 여기저 머야 다리째 너매 해표 그 궁민해표 인년대 그 궁민해표 진년대두 가 일:해구. {이 여기 저 머야 다릿재 넘어 학교 그 국민학교 있는데 그 국민학교 짓는 데에도 가 일하고.}
- 10201 # 충주 저기저 머야 몬: 절 저리 머:지 그거 절 그저내. {충주 저기 저 머야 무슨 절 절이 뭐지 그거 절 그전에.}
- 10201 # 안 땡긴 대가 읍:씨 내가 땡기민선 이랜 사라미유. 그래가주구 모미 고려가주구유 인젠 사:방 아픈대만 나며써유 허허허. {안 다닌 데가 없이 내가 다니면서 일 한 사람이요. 그래 가지고 몸이 굵아 가지고 이제 사방 아픈 데만 남았어요 허허허.}
- 10201 # 말두 모태유. 그래가주구 인재 꼬트매기 가서 자꾸 애:길 하는데, 이래가주 내가 모:빠우구 그래쓰잉까루 이누무 자식뜨리나 모빠운드루 가리킨다구. {말도 못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끝에 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 가지고 내가 못 배우고 그랬으니까 이놈의 자식들이나 못 배운데로 가르친다고.}
- 10201 # 그래다보니까 망내가 인재 중학교년 여길 나오구서넨 고등학교원줄 가가주구 원주서 인재 서울대해표 가서 머여 시허멀 반년대 시허매 서울대해표 해 하격되 가주구. {그러다 보니까 막내가 이제 중학교는 여기를 나오고서 고등학교는 원주를 가 가지고 원주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가서 머야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서울대학교 해 합격되어 가지고.}
- 10201 # 게 다른사라면 엄정애 이 엄정애서 서울대해표 가따구 해두 저: 수원농대 또 무슨 저 화공파 머 이른대지 이 경제파넨 우리애배킨 서울대해표 읍:써유 엄정애서넨. {그 다른 사람은 엄정애 이 엄정애서 서울대학교 갔다고 해도 저 수원농대, 또 무슨 저 화공파 뭐 이런 데지 이 경제과는 우리 애 밖에 서울대학교는 없어요 엄



정에서는.)

10201 # 그르케 그런대 드러가서 그거덜 거서 해:가주구선 또 대하권꺼정 다 마치는:개 어  
여지꺼 이르케 소:걸 씹기내유 이러케 소걸 이서 세상에. {그렇게 그런 데 들어  
가서 그것을 거기에서 해 가지고 또 대학원까지 다 마친 게 아니 여태껏 이렇게  
속을 썩이네요 이렇게 속을 썩여 세상에.}

10201 # 아 그누미 잘되면 난 아:무 걱쟁두 읍씨 잘되구 갠창쿠, 지금 자근자식 하나 지금  
둘째놈 여기 충주시청에. {아 그놈이 잘 되면 난 아무 걱정도 없이 잘 되고 괜찮  
고, 지금 작은자식 하나 지금 둘째놈 여기 충주시청에.}

10201 # 모여 그뚜 저기저 츠:매년 제천 아 다냥 대강며느루 가따가 으:○춘며느루 가따  
가 여기 엄정으루 와따가 충주 시내루다 머 장판장판 땡겨쓰유 메딸씨개. {뭐야  
그것도 저기 저 처음에는 제천 아 단양 대강면으로 갔다가 영춘면으로 갔다가 여  
기 엄정으로 왔다가 충주 시내로 뭐 잠깐잠깐 다녔어요 몇 달씩.}

10201 # 그래가주 충주시청 와 가주 시:청애 드러간재가 인년재가 지끔 엄청 오래 되년대.  
{그래 가지고 충주시청 와 가지고 시청에 들어간 지가 있는 지가 지금 엄청 오래  
되는데.}

10201 # 무어, 무어 게:장잉가 과장잉가 나두 확실히개 모르구. 그래 지끔 저 그누미 그래  
두 널:두 또 올 꺼유. {뭐, 뭐 계장인가 과장인가 나도 확실하게 모르고. 그래 지  
금 저 그놈이 그래도 내일도 또 올 거예요.}

10201 # 주:일마딩 와유, 주:일마딩 오구, 오년 날 오머년 꼭: 머글꺼 가주오구. 아주 이누  
미 참 잘해유. {주말마다 와요, 주말마다 오고, 오는 날 오면 꼭 먹을 것 가져오  
고. 아주 이놈이 참 잘해요.}

10201 # 그래 그거 하나 미찌. {그래 그거 하나 믿지.}

10201 # 큰누무 자시건 제일 크대능건 나이가 육십비 가차운대, 머 공사한다구 사:분 여그  
저 어디여 여 서울루 사:방 도러댕기구 그래다가 공사한다구 머 마터가주 헨다구  
그래면 실패해따 우트개구 우트개구 이래가주서년 그누문 머 아무거뚜 아니유 허  
허허. {큰놈의 자식은 제일 크다는 것은 나이가 육십이 가까운데, 뭐 공사한다고  
사방 여기 저 어디야 여 서울로 사방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공사한다고 뭐 말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실패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래 가지고 그놈은 뭐  
아무것도 아니예요 허허허.}

10201 # 손자덜두 저기 대해꼬 땡긴다구 해서 지끔 머 어디 직짱얼 땡긴대년대 땡기년지  
모:르구유. {손자들도 저기 대학교 다닌다고 해서 지금 뭐 어디 직장애 다닌다는  
데 다니는지 모르고요.}

10201 # 아이구 그리개 이러개 사러와씨유, 난. {아이고 그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난.}

10201 # 그래 인재 어디루 가두 모태구. {그래 이제 어디로 가지도 못 하고.} #1 질령나시  
겐내. {진력나시겠네.}

10201 # 으:~? {응?}

10201 @ 아니요. {아니오.}

10201 #1 질령나시개씨. {진력나시겠어.}

10201 @ 아이 제가 여쭙보능개 그렇건대요 머. {아니 제가 여쭙보는 것이 그런 건데요  
뭐.}

10201 @ 소떠라 그래서짜나요? {소떠라고 그러셨잖아요?}

10201 # 네:. {네.}

10202 @ 할머니는 무슨 띠요? {할머니는 무슨 띠예요?}

10202 #1 토끼띠. {토끼띠.} @ 토끼띠. {토끼띠.}

10202 @ 할머니는 저기 금가면? {할머니는 저기 금가면?}

10202 #1 네. {네.}

10202 @ 무슨 무슨 동네요? {무슨 무슨 동네예요?}

10202 #1 원:포리. {원포리.}

10202 #1 아이 오서기여 인젠. {아니 오석이야 이제는.}

10202 @ 원포리 지그믐 오석? {원포리 지금은 오석?}

10202 #1 아이 인재 다 청주루 가구 읍:씨유. {아니 이제 다 청주로 가고 없어요.}

10202 #1 부모님 다 도러가구 조카덜: 저 청주루 다 가구 고향엔 읍씨 아무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조카들 저 청주로 다 가고 고향에는 없어 아무도.}

10202 @ 원포리? {원포리?}

10202 #1 예, 옴:나레 워포리씨. {예, 옛날에 월포리였어.}

10202 # 그때년 그때 시지보기 저내 그때년 그 원포리래년 데가 배:코두 넘씨유. {그때는 그때 시집오기 전에 그때는 그 원포리라는 데가 백 호도 넘지요.}

10202 # 전:부가 전수 저 경준 이씨내여 전:부가. {전부가 전부 저 경주 이씨네야 전부가.}

10202 # 내가 겨로널 저 겨론하구선 가니까루 육춘 처나미 으:트개 마:는지 말캉 노인더란 태 육춘 처남 땡기민서 쟁:일 땡기민선 저래너라구 인사해녕개 쟁:일 대기민선 저를 해유. {내가 결혼을 저 결혼을 하고서 가니까 육춘 처남이 어떻게 많은지 모두 노인들한테 육춘 처남 다니면서 종일 다니면서 절하느라고 인사하는 것이 종일 다니면서 절을 해요.}

10202 # 그러캐 엄청난대가 지금 싹: 썰판나구 다: 가구 읍씨 아무거뚜 읍씨. {그렇게 엄청난 데가 지금 모두 결단나고 다 가고 없어 아무 것도 없어.}

10202 # 세:상이 그러캐 변해유 그췌 그러캐 엄청난대. {세상이 그렇게 변해요 글췌 그렇게 엄청난대.}

10202 # 거기 왜:가리 하:야캐 마간평게 그거뚜 읍씨지구. {거기 왜가리 하얏게 막 앓던 거 그것도 없어지고.}

10202 # 히안해. {희한해.} #1 거긴 강하씨비 이씨서 강이 수해가 나가주 다 썰판나씨, 그래서 다:들. {거기는 강이 있어서 강이 수해가 나 가지고 다 망가졌어, 그래서 다들...}

10202 # 수해두 나구 시대가 이러캐 되니까. {수해도 나고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1 절문 사람들 다: 도시루 가구 머. {젊은 사람들 다 도시로 가고 뭐.}

10202 #1 인재는 친정두 읍씨유 청주가 친정이지여 인재. 조카더리 청주루 다 가구. {이제는 친정도 없어요 청주가 친정이야 이제. 조카들이 청주로 다 가고.}

10201 @ 하라부지 형제는 어트개 되셔유? {할아버지 형제는 어떻게 되셔요?}

10201 # 네? {네?}

10201 @ 형제. {형제.}

10201 # 나 혼차유. {나 혼자예요.}

10201 # 사:춘더런 여러:시 이씨유. {사촌들은 여럿이 있지요.}

10201 #1 누님 기시구... {누님 계시고...} # 단 다냥 이씨유. {다 단양 있어요.}

10201 # 사춘덜두 다: 주꾸, 머 읍써유, 산 사라미 허허. {사춘들도 다 죽고, 뭐 없어요, 산 사람이 허허.}

10201 @ 아 그저내. {아니 그 전예요.}

10201 # 야 그저네닌 사춘더리 네:시 이써써유, 사춘더런. {예 그전에는 사춘들이 넷이 있었어요, 사춘들은.}

10201 @ 그럼 하라버지는. {그러면 할아버지는} # 나 나 혼자구. {나 나 혼자고.} @ 외아드리어써요? {외아들이셨어요?}

10201 # 야. {예.}

10201 # 누:님 한 분 이따가 서울 가서 이따가 도리가구. {누님 한 분 있다가 서울 가서 있다가 돌아가고.}

10201 @ 그러면 저기 부모님도 부모님도 원래는 고향은 여긴대 다냥애 잠시 가따가 또 일루 오신거내요? {그러면 저기 부모님도 부모님도 원래는 고향은 여긴데 단양애 잠시 갔다가 또 이리로 오신 거내요?}

10201 # 그러치유. {그렇지요.}

10201 @ 예:. {예.}

10201 @ 부모니든 머 하써써요, 농사? {부모님은 뭐 하셨어요, 농사?}

10201 # 네? 다: 농사유 농사. {네? 다 농사예요 농사.}

10201 # 엔:나랜 농사배끼 다릉개 더 이써유, 농초내 헤헤헤헤. {옛날에는 농사 밖에 더르게 더 있어요, 농촌에 헤헤헤헤.}

10201 @ 무슨 농사 지써써요? {무슨 농사 지으셨어요?}

10201 # 아이 논 부치구 받 부치고 그저 이래서 그저 간시니 해머꾸 사녕거지유 머. {아니 논 부치고 밭 부치고 그저 이렇게 해서 간신히 해 먹고 사는 것이지요 뭐.}

10201 # 지금처럼 머 돈:나오녕거 머 벨거벨거 다렁거 헬쭈두 모르구, 팔 때두 우:꾸. {지금처럼 뭐 돈 나오는 거 뭐 별거 별거 다른 것 할 줄도 모르고, 팔 때도 없고.}

10201 #1 죽개따구 자식 하나 그 대하교 갈키구 대하권꺼지 갈키너라구 이날 이때까지 아이구. {죽겠다고 자식 하나 그 대학교 가르치고 대학원까지 가르치느라고 이날 이때까지 아이고.}

10201 #1 그르케 해 해써두 그췌 그지경이 돼:. {그렇게 해 했어도 글췌 그 지경이 되어 (가지고).}

10201 #1 그거 대하권 조러패구서 저기 머여 대우전자 삼성전자에서 큰 회사에서 이 원서 내구말구 겨냥 원서덜 아주 가주와써유, 췌:내면 된다구. {그거 대학원 졸업하고서 저기 뭐야 대우전자 삼성전자에서 큰 회사에서 이 원서 내고 말고 그냥 원서를 아주 가지고 왔어요, 췌서 내면 된다고.}

10201 #1 그런대두 양 가구 이 저 제 고지벌 피우다가 저러캐 아이구. {그런데도 안 가고 이 저 제 고집을 피우다가 저렇게 아이고.}

10201 @ 지금 머췌린대요? {지금 몇 살인데요?}

10201 #1 마흔다서신대 여태 장:개두 모:까써유. {마흔 다섯인데 여태 장가도 못 갔어요.}

10201 #1 그 대하권 대해교 땡길찌개 자꾸 청호니 드러오년대, 보머닌: 머: 승:미가 암 마깨때넌둥 뭐 자꾸 이래가주구서닌 안 해구. {그 대학원 대학교 다닐 적에 자꾸 청혼이 들어오는데, 보면 뭐 성미가 안 맞겠다는 둥 뭐 자꾸 이래 가지고는 안 하고.}

10201 #1 지:가 되면 모:든지 헬:꼴 해:쓰면 참 돼:썰텐대, 헬:꼴 모태니까 직장이 읍씨니  
와유, 누가 지그면. {자기가 되면 뭐든지 할 것을 했으면 참 되었을 텐데, 할 것  
을 못 하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와요, 누가 지금은.}

10201 #1 그러니까 저건 죽뽀룩 갈켜가주구 저 여태 장:개두 모떠리구 큰 걱쟁이여 지금.  
{그러니까 저건 죽도록 가르쳐 가지고 저 여태 장가도 못 들이고, 큰 걱쟁이야  
지금.}

10201 @ 다 큰 큰사람 될라그러능 거지요 머. {다 큰 큰사람 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뭐.}

10201 # 큰사람 되긴 나이가 인녕거류, 그건 어려워... {큰사람 되긴, 나이가 있는 걸요, 그  
건 어려워...}

10201 # 나:이가 인너거류, \*\*\*\*\*. {나이가 있는 걸요, \*\*\*\*\*.}

10201 # 그 모야 재:경고시래능 거 다름 고시릴 바쓰머넌 머:던지 돼:썰런지 모르넌대 재:  
경고시래닝 거. {그 뭐야 재경고시라는 것, 다른 고시를 봤으면 뭐든지 됐을런지  
모르는데 재경고시라는 거.}

10201 # 일러네 항:끄태야 열파션 명 시무 명 보녕거, 수:시 그: 모두 장과내 자식떨 모두  
홀:통하니덜 자식떠리 마캉 그 거 드러올라구 그래넌대 아 거기 그거 똥꾸 드러  
갈래이 거기 어 어:렵찌, 일차에 되면 이:차에 안 되구. {일년에 한껏 해야 열다  
섯 명 스무 명 뽑는 거, 수십 그 모두 장관의 자식들 모두 홀룡한 이들 자식들이  
모두 그 거기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아 거기 그거 똥고 들어가려니 그게 어 어렵  
지, 일차에 되면 이차에 안 되고.}

10201 # 그거 재:경고시래닝 거넌 정부 기과내 저기저 머여 정부 살림해내넌 대서 거기서  
뽑녕거래넌대. {그거 재경고시라는 것은 정부 기관에 저기 저 뭐야 정부 살림하  
는 데에서 거기에서 뽑는 거라는데.}

10201 # 차라리 판드루 거 판 고시릴 봐:쓰머넌 이 모를텐대 마:이 뽀꾸 다 그런대. {차라  
리 판 데로 그 다른 고시를 봤으면 이 모를텐데 많이 뽑고 다 그런데.}

10201 # 이건 거길 들라구, 정부 살림해넌델 드러갈라 그래니 그개 그러케 시워유. {이것  
은 거기를 들어가려고, 정부 살림하는 데를 들어가려고 그러니 그개 그렇게 쉬워  
요.}

10201 # 그른대 지금 인재 저 텔레비 나오닝 걸 보머넌 참: 그 미리미리 머: 하마 그이  
참: 무 조은 유지에 인넌 사람드리 다 다 증:해저 인녕걸 그누무걸 뽀꾸 드러갈  
썩가 이썩. {그런데 지금 이제 저 텔레비전 나오는 것을 보면 참 그 미리미리 뽀  
벌써 그 참 뽀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 정해져 있는 것을 그놈을 똥고  
들어갈 수가 있어.}

10201 # 그래가주 고만 아주 지금두 머 저기저 거냥 아무거뚜 아내구 하:수걸 해넌지 머하  
넌지 자:꾸 향군대만 그러케 이썩유. {그래 가지고 그만 아주, 지금도 뽀 저기 저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하숙을 하는지 뽀 하는지 자꾸 한 군데만 그렇게 있어  
요.}

10201 # 그래서 지금두 자꾸 내가 대:조유 지금두 이러케 해:가주구. {그래서 지금도 자꾸  
내가 대줘요 지금도 이렇게 해 가지고.}

10201 #1 아이 남부꾸루워 애:기두 해지마. {아이 남부끄러워, 애기도 하지 마.}

10201 # 머 이 선상니면 머 허허허 알지 어티개 얘기해두. {뭐 이 선생님은 뭐 허허허 알지 어떻게 얘기해두.}

10201 @ 저두 머 하꼬 다니구 대하권 다니구 다: 알:지요, 그렇 거 그런 사정들 알지요. {저도 뭐 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다 알지요, 그런 거 그런 사정들 알지요.}

10201 #1 아시개짜: 아시깐는대 난 내가 남부꾸롭따구. {아시겠지, 아시겠는데 난 내가 남부끄럽다고.}

10201 @ 아이구 아이 요새 그런 사람들 태바니예요, 그런 사람드리 마:나요. {아이고 아니 요새 그런 사람들 태반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10201 # 으트개다 지비 오머년 머 애:기해녕거 보면 아 배워따구 그랜지 우트개선지 마:래 능거 보면 네끼 머 우리구 말: 헬쭈두 우꾸 아:무 말두 헬쭈두 모르구 그러치유. {어떻게 하다가 집에 오면 뭐 얘기 하는 거 보면 아 배웠다고 그런지 어떻게서인지 말 하는 것 보면 네기 뭐 우리가 말 할 수도 없고 아무 말도 할 줄도 모르구 그렇지요.}

10201 # 그런대 예:기 제:가 해리럴 해이지. {그런데 제기 제가 할 일을 해야지.}

10202 @ 할머니는 그 금가면 월포리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크시고? {할머니는 그 금가면 원포리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에서 크시고?}

10202 #1 거기서 커 가주구 왜정 때애. {거기에서 커 가지고 왜정 때애.}

10202 #1 그래잉까 우리 나 열려덜싸린대 그 때 역씨두 여자 모집 뵈낸다구 일본 놈... {그러니까 우리 나 열여덟 살인데 그때 역시 여자 모집 보낸다고 일본 놈...} # 만날 테래비에 나오자너유 여 저 위안부 머. {만날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여 저기 위안부 뭐.}

10202 # 거기에 뵈버 뵈버갈라 그래가주서 거기 앙 갈라구. {거기에 뵈아, 뵈아 가려고 그래 가지고 거기 안 가려고.}

10202 # 그뻬개 웅 거유. {급하게 온 거예요.}

10202 #1 응 우떠던지 거 머여 거기서 여:자더리 여:자 남자 한 삼십 밍 명 되유. 맨 이스방내가 다: 청년더리 시집까구 장:개오구 다: 그래썬. {응 어떻든지 거기 뭐야 거기서 여자들이 여자 남자 한 삼십 몇 명 되요. 맨 이 서방네가 다 청년들이 시집가고 장가 오고 다 그랬어.}

10202 #1 그래가주구 시집 올 맘:두 암머건넌대 이러캐 다: 오구가구 그래짜너유. {그래 가지고 시집 올 마음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다 오고 가고 그랬잖아요.}

10202 # 아이 일본누미 더리 지금두 자:꾸 테래비 나오닝 거 그거 위안분지 머 모지팡거 강제루 데리가구서 안 해따구 자꾸 그래넌대. {아니 일본놈이 들이 지금도 자꾸 텔레비전 나오는 거 그거 위안분지 뭐 모집한 것 강제로 데려가고서 안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10202 # 안 해긴 이기 우리가 다 저꾸 다 봉거 아능 거럴 이 아니라구 자:꾸 그눔더리 그래구. {안 하긴 이게 우리가 다 겪고 다 본 것, 아는 것을 이 아니라고 자꾸 그눔들이 그러고.} #1 그래니까 그때넌 시집 안 보내면 다: 데리간다 그래썬유. {그러니까 그때는 시집 안 가면 다 데려간다 그랬어요.}

10202 @ 네. {네.}

10202 #1 그래서넌 마캥 그때 \*\* 모두 쉬:깨들 장:개들구 쉬:깨 가구 그래썬유. {그래서 모두 그때 \*\* 모두 쉽게들 장가 들고 쉽게 가고 그랬지요.}

10203 @ 그를 어트개 만나서썩요? {그럼 어떻게 만나셨어요?}

10203 #1 중매루 만내썩유.{중매로 만났지요.}

10203 #1 중매. {중매.}

10203 @ 누가? {누가?}

10203 #1 저 양반 그르니까... {저 양반 그러니까...}

10203 # 어머니 외사추니여. {어머니 외사촌이야.}

10203 # 어머니 외사촌. {어머니 외사촌.}

10203 #1 외::당수기지, 그르치? {외당숙이지, 그렇지?}

10203 #1 외::당숙뿌니 우리동내 사시꺼든뇨. {외당숙분이 우리 동네 사셨거든요.}

10203 #1 그래서 그 양바니 중맬해썩. {그래서 그 양반이 중맬했지.}

10203 @ 큰 그 중매해서부터 거론할때까지 그 얘기를 좀 함 번 해조시 해바 줘요, 예저 네... {그 그 중매해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셔 해봐 줘요, 예전에...}

10203 # 아:이 거로해가주구 얘기헬꺼뚜 아무그뚜 읍썩유 얘기래능개. {아니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얘기라는 것이.}

10203 @ 그래니까... {그러니까...}

10203 @ 중매 중매해서부터 이케 만나가주구... {중매 중매해서부터 이렇게 만나 가고...}

10203 # 아니 중매해넌 중매해넌 우트개 해너냐 하머넌. {아니 중매하는 중매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203 # 내가 나무털 해가주 해:서 지구 오니까 아:주 오시구 머구 행편 읍:썩유 머, 나이 스무살 머거가주:. {내가 나무를 해 가지고 해서 지고 오니까 아주 옷이고 뭐고 형편 없지요 뭐, 나이 스무살 먹어 가지고.}

10203 # 지구 오니까루 아 우편 부니 두 부니 와 방애 안저떠라구, 나 인넌 방애. {지고 오니까 아 어떤 분이 두 분이 와 방애 앉았더라고, 나 있는 방애.}

10203 # 그래 저래라 그래서매 거 저털 해떠니, 거:서 보구서넌, 한 부넌 내한테 어머니 외사촌 부니 되넌 부니 한 부넌 자:인 되넌 부넌 데리구 웅거여. {그래 절 하라고 그래서 그 절을 했더니, 거기에서 보고는, 한 분은 나한테 어머니의 외사촌 분이 되는 분이 한 분은 장인 되는 분을 데리고 온 거야.}

10203 # 데리 와 가주서넌 보구서넌 아 가가주 그질루다 대반 그냥, 와서 보구서넌 그길루다 고만 머 중매구 머 모구 말구 여러날 \*\*\* 바루 고만 모야 잔치라구 해넌거유 그냥. {데려 와 가지고는 보고는 아 가서 그 길로 대번에 그냥, 와서 보고는 그 길로다 그만 뭐 중매고 뭐 뭐고 말고 여러 날 \*\*\* 바로 그만 뭐야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10203 # 머 헬썩두 모르구. {뭐 할 줄도 모르고.} #1 그래니까 그땐 그땐 바다기니까 한 다리 함 팔 병신만 아니면 그저 원만 해면 다 가구 오구 그래썩요. {그러니까 그때는 급한 판이니까 한 다리 한 팔 병신만 아니면 그저 어지간하면 다 가고 오고 그랬어요.}

10203 # 그래 누:니 정월 시무여더래 음력 정월 시무여더랜나린대, 아 지끄른 눈:두 시대 가 변:해서 눈:두 아노곤 그래 이러케 엄청나지만. {그래 눈이 정월 스무여드레 음력 정월 스무여드렛날인데, 아 지금은 눈도 시대가 변해서 눈도 안 오고 그래

이렇게 엄청나지만.}

10203 # 그땐 누:니 이르케 썰연는데, 저기 저 선상님 오시다가 여 금가면서 오시다가 여기 고 마꼬개래넌 데 받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저기 저 선상님 오시다가 저 금가면에서 오시다가 여기 고 막고개라는 데 봤는지 모르지만.}

10203 # 그거 마꼬개래넌 데가 엔:나래 충주: 그 죄:인더리 이런데서... {그거 막고개라는 데가 옛날에 충주 그 죄인들이 이런 데서...}

10203 # 죄:인더리 이런데서 부뜨러서매 충주루 가머넌 그 길루 그 길배끼 움넌데 가넌데, 그길 너머가면 다시 모도는 고개여. {죄인들을 이런 데서 붙들어서 충주로 가면 그 길로 그 길 밖에 없는데 가는데, 그 길을 넘어 가면 다시 못 오는 고개야.}

10203 # 그래 마꼬개란마리여 마지막 까는 고개라구. {그래 막고개란 말이야 마지막 가는 고개라고.} @ 마지막이라구. {마지막이라고.}

10203 # 야. {예.}

10203 # 그 길루 너머가면 죄:인두 저 잘모태가주 죄:인더리 가머넌 그골 너머가머넌 거: 가서 사형 당하넌 거여. {그 길로 넘어 가면 죄인도 있지만 뭐 잘못 해 가지고 죄인들이 가면 그 길 넘어 가면 거기 가서 사형 당하는 거야.}

10203 # 그래이까루 머여 막, 그래서 마꼬개래넌데루 양 가구서 이:짜 산길루 가너라구 누:니 썰인데, 이래 가가서넌 그 무어... {그러니까 뭐 막, 그래서 막고개인데 그 막고개라는 데로 안 가고서 이쪽 산길로 가느라고 눈이 쌓인데, 이렇게 가서는 그 뭐...}

10203 # 지끄면 머 예식장 머 어찌구 그래지만 머 거냥 가서 인사... 행내라구 해서 인재 술 서루 이래노쿠 그래구선 여 잔치구 말:구 그냥 겨로니구 말:구 이러케 가주 그냥 춤:버텀 상: 거유. {지금은 뭐 예식장 뭐 어찌고 그러지만 뭐 그냥 가서 인사... 행례라고 해서 이제 술 서로 이렇게 놓고 그리고고서는 그 잔치고 말고 그냥 결혼이고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산 거예요.}

10203 # 머 해쑈... 지끄면 머 예:무리구 그거뚜 우:꼬:. {뭐 했으면... 지금은 뭐 예물이고 그것도 없고.}

10203 # 머 올찌게 우티개서매 이불 쪼끄만 이불 하나 그냥 가... 해서 띠 느 지구 오구 그 그래 그르개 지내쑈유. {뭐 올 적에 어떻게 해서 이불, 조그만 이불 하나 그냥 가... 해서 넣어 지고 오고, 그 그래 그렇게 지냈어요.}

10203 @ 그럼 머 야콘도 업쑈겐내요? {그럼 뭐 약혼도 없었겠네요?}

10203 # 업:쑈유 야콘이구 머구 누구 행거뚜 우:꾸 그장 와서 보구서넌 보구서넌 고만 허 라걸 해 가주서넌 그냥 바루 날버더가주서넌. {없지요, 약혼이고 뭐고 누구 한 것도 없고 그냥 와서 보고는 보고는 그만 허락을 해 가지고서 그냥 바로 날 받아 가지고서.}

10203 @ 사주는? {사주는?}

10203 # 네? {예?}

10203 @ 사주는 보내자나요 그래두. {사주는 보내잖아요 그래도.}

10203 # 사:주넌 머 그거 저기저 그: 중매헨니가 그 쑈 가주 와때유, 사:주릴 중매헨니가 사:주 쑈가주 와때유. {사주는 뭐 그거 저기 저 그 중매한 이가 그것을 쑈 가지고 왔대요, 사주를 중매한 이가 사주 쑈 가지고 왔대요.}

10203 @ 사주나 며 궁하비나 이러거 다 볼 보기는 하자너요 그래두? {사주나 뭐 궁합이나 이런 것은 다 보 보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10203 # 그새 그렇걸 현대년대 그거뚜 모르구 더퍼노쿠 이르캐 아무거뚜 더퍼노쿠 그냥 그래썬유. {글세 그런 것을 한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이렇게 아무것도 덮어놓고 그냥 그랬어요.}

10227 # 누구여? {누구야?}

10227 #1 자그내. {작은애.}

10227 # 자그내? 왜? {작은애? 왜?}

10227 #1 태우기 아버지가 도리가떠여. {태욱이 아버지가 돌아갔대.}

10227 # 어:? {응?}

10227 #1 태우기 아버지가 도리가때. {태욱이 아버지가 돌아갔대.}

10227 # 어:, 아 자그내한테루 즈:나가 가썬? {응, 아니 작은애한테 전화가 갔어?}

10227 #1 가:가 알구 저:나 헨년대, 태욱 아버지 도리강거 아느냐 그래자너. {개가 알고 전화 했는데, 태욱 아버지 돌아간 것 아느냐고 하잖아.}

10227 # 어, 아이 우트캐 개:가 아나? {응, 아니 어떻게 개가 아나?}

10227 # 시:청에 누가 인나? 그 모르겐내. {시청에 누가 있나? 그 모르겠네.}

10227 #1 아이 열라기 돼:깨썬. {아니 연락이 돼었썬지.}

10227 #1 병:우내 가따 쏘린 드러두 모뜨런는데 이래뜨이. {병원에 갔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못 들었는데 이랬더니.}

10227 # 어? {응?}

10227 #1 내:리 장사래요. {내일이 장사래요.}

10227 # 응:. {응.}

10227 # 지:누넨 알테지. {진우는 알테지.}

10227 #1 알티지 며. {알테지 뭐.}

10203 @ 그 상:방이래능 거 이썬유 상방? {그 상방이라는 것 있어요 상방?} # 예? 예? {예? 예?}

10203 @ 상:방. {상방.}

10203 # 향방? {향방?}

10203 #1 상:방. {상방.}

10203 @ 상:방. {상방.}

10203 #1 상:방이 떠여. {상방이 뭐야.}

10203 # 으? {응?}

10203 #1 상방. {상방.}

10203 #1 상:방:. {상방.}

10203 # 상방이 떠여? {상방이 뭐야?}

10203 #1 몰:러. {몰라.}

10203 @ 그렇 거 몰러유? {그런 거 몰라요?}

10203 @ 싸헿?

10203 # 애? {예?}



10203 @ 신행 간다 그래지요? 겨로나구 나서 신행 간다구. {신행 간다고 그러지요? 결혼 하고 나서 신행 가다고.} #1 어어:, 신행 가능 거. {응, 신행 가는 것.}

10203 # 어? {응?}

10203 @ 저기 흘레 치르구 나서:. {저기 혼례 치르고 나서.}

10203 # 예. {예.}

10203 @ 신행 간다 그르자나요? {신행 간다고 그러잖아요?}

10203 # 야. {예.}

10203 @ 그러거... {그런 거...} # 지금 지끄면 신희여행이라구 해년대 그땐 그거뚜 읍씨 유. {지금 지금은 신희여행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것도 없어요.}

10203 # 인재 향:끄태야 저기저 애덜 자 자양간다구 사밀마내, 저기저 머 처가찌비 대녀오 녁거 그거 자양가녕거 그거지. {이제 한껏해야 저기 저 애들 자 자양 간다고 삼 일만에, 저기 저 뭐 처갓집에 다녀오는 것 그거 자양가는 거 그것이지.} #1 사밀 또비기. {삼일도박이.}

10203 @ 그건 어트개 하능거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203 # 모이 저이 저 와따가 인재 가치 데리구선 사밀마내 친 친정으루 인저 와따가 인재 친... 사밀마내 두:리서 친정에 가서 그애이까 처가찌 가서매 모야. {뭐 저기 저 왔다가 이제 같이 데리고서 3일만에 친 친정으로 이제 왔다가 이제 친... 삼 일만에 둘이서 친정에 가서 그러니까 처갓집에 가서 뭐야.}

10203 #1 하루뺨 자구:. {하룻밤 자고.}

10203 # 허허허 자구선 인재 거 일가:, 처가찌 일가덜 땡기민서 전부 생며내 인사해구 그 래구 오녕거지유 머. {허허 자고서 이제 그 일가, 처갓집 일가들 다니면서 전부 상면해 인사하고 그리고 오는 거지요 뭐.}

10203 # 어디 가녕거뚜 우:꾸.. {어디 가는 것도 없고.} @ 갈때 머 준비 해가능 거 이써 요? {갈 때 뭐 준비 해 가는 것 있어요?}

10203 #1 그리치유 가년 사라면 머 해년 사람 대중 읍씨유 잘해년 사람. {그렇지요 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대중 없지요 잘하는 사람.}

10203 #1 버선 지꾸, 열 싸구, 인절미 해가주구. {버선 짓고, 열 사고, 인절미 해 가지고.}

10203 # 채반녀시라구 그레녕건대 여 열뚜 사구 인재 그레년대. {채반엿이라고 그러는 것 인데 여 엿도 사고 이제 그러는데.}

10203 # 읍:년 사라면 아머거뚜 읍:씨니까 그걸 모태여 그뚜 호호호호.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것을 못 해요, 그것도 호호호호호.}

10203 # 이써야 해지유. {있어야 하지요.}

10203 @ 인는 사람드른 그럼 어트개 해씨요?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10203 #1 왜 그런 인년 사람더런 그쎄:. {왜 그런 있는 사람들은 글쎄.}

10203 @ 채반열뚜 하구... {채반엿도 하고...}

10203 #1 그럼 열뚜: 한 되 사구: 또 인절미두 또 대: 대바구니에 저기 대: 상자에다 해서 당:꾸 고기 사구 이래지유. {그럼 엿도 한 되 사고 또 인절미도 또 대 대바구니 에 저기 대 상자에다 해서 담고 고기 사고 이러지요.}

10203 #1 술 사구: 버선 지꾸: 해년 사람 그러케 해유. {술 사고 버선 짓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해요.}

10204 @ 결혼 할 때 예:무른 뭘 준비해서 누구한테 주구 그래요? {결혼할 때 예물은 뭘 준비해서 누구한테 주고 그래요?}

10204 #1 예:물 업써유. {에이 예물 없어요.} # 예:물두 업써유 우리넌 그때서는 예:물두 업써유 아무거뚜. {예물도 없어요 우리는, 그때는 예물도 없어요 아무 것도.}

10204 #1 머시긴 날태기 해구 인재 겨론날짜 받짜너유? {뭐야 날택일하고 이제 결혼 날짜 만잖아요?}

10204 #1 그래민 인재 홍실청실 해가주구 함:… {그러면 이제 홍실청실 해 가지고 함…}

10204 #1 하:매다가 이런: 하미 인넌대 인재 치마: 치마 두 진만 보내유 조고리두 업써유 양:바내 지배넌: 치마 두진만 해서 느:요. {함에다가 이런 함이 있는데 이제 치마, 치마 두 갓만 보내요 저고리도 없어요, 양반네 집에는 치마 두 갓만 해서 넣어요.}

10204 #1 저기저 홍소지하구 신 머… 한:지에다 싸서 하매다 느:유, 그르케 와유. {저기 저 홍수지하고 신 뭘… 한지에다 싸서 함에다 넣어요, 그렇게 와요.}

10204 #1 머 그거뚜 여러찌리유. {뭐 그것도 여러 종류예요.}

10204 #1 중인더런 그저 머 반:지니 뭘: 반:지니 뭘 머이 여러가지 해지마넌 반명언 그 초마 두진빠끼 안 느유. {중인들은 그저 뭘 반지니 뭘, 반지니 뭘 뭘 여러 가지 하지만 반명은 그 치마 두 갓 밖에 안 넣어요.}

10204 @ 반명은 머구 중이는 머요? {반명은 뭘고 중인은 뭘예요?}

10204 #1 시방 그른얘기해두 안 듣찌만 양:반. {지금은 그런 얘기해도 안 듣지만 양반.}

10204 # 선상님한테야 그른 얘기해두 되지. {선생님한테야 그런 얘기해도 되지.}

10204 # 바 저: 양:바니래녕 거넌 예전버텀 참 선대애서버텀 머 그리나 배우고 모 일: 그르케 안 해구 살:기두 인재 갠창쿠 이래서 내려오민서넌 해넌 분더리, 어디 가서 나무 크니래 장사찌비래두 가서 무슨 일 안해구 이 겨론시개두 머 가:마두 암매구 행성두 암 매, 신체 그 생애 이짜너유. 생애두 암 매구 사:무 이러케 해넌 사람드리 그 인재 양반짬 니리오녕거구. {저 양반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참 선대에서부터 뭘 글이나 배우고 뭘 일 그렇게 안 하고, 살기도 이제 괜찮고 이래서 내려오면서 하는 분들이, 어디 가서 남의 큰일에 장삿집이라도 가서 무슨 일 안 하고 이 결혼식에도 뭘 가마도 안 메고 행상도 안 메, 신체 그 상여 있잖아요. 상여도 안 메고 사뭇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양반집 내려오는 것이고.}

10204 # 인재 중이니라구 해구 거 양 상누미래녕 거넌 그른대만 땡겨유 그냥. {이제 중인이라고 하고 그 상놈이라는 것은 그런 데만 다녀요 그냥.}

10204 # 장:사지내넌 데구, 잔치해넌 데두 머야 가:마 미구, 머: 그저 머하구 그래 그래가 주서 인재 양:바니니 상누미니 예:전버터 그래 내려오넌대. {장사 지내는 데고, 잔치하는 데도 뭐야 가마 메고, 뭘 그저 뭘하고 그래 그래 가지고 이제 양반이니 상놈이니 예전부터 그래 내려오는데.}

10204 # 예:전, 그 예:물해녕거뚜 양:바니라구 해머넌 다룽거 아:무거뚜 업써. {예전, 그 예물하는 것도 양반이라고 하면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이.}

10204 # 그 인재 저 여자치개선 안 해구, 남자치개서 채다니라구 해가주서넌 치마 두:가미여 그냥, 멩길지두 앙쿠 멩길지두 앙쿠 가무루다 두:감 치마 두:감만 청홍으루다가 해구. {그러니까 이제 저 여자측에서는 안 하고, 남자측에서 채단이라고 해 가지고 치마 두 감이야 그냥, 만들지도 앓고 만들지도 앓고 감으로 두 감, 치마

두 가만 청홍으로 하고.}

10204 # 제 저 쌍... 머여 장... 머 승 승침 지금 얘기하넌데, 쌍누미래넌 사람더런 거기에 머 조고리두 해구 버선두 해구 머 벨거 여러가지 다: 해느:. {이제 저 상... 뭐야 장... 뭐 성 성침 지금 얘기 하는데, 상눔이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 저고리도 하고 버선도 하고 별걸 여러 가지 다 해 넣어.}

10204 # 그래가주구 마냐개 그 양반 상눔 이래가주서넌 인재 그 호니들 땔때애 하:덜 바더 보구서넌, 그 양반치개서 쌍눔치그루 오넌 수가 이꺼렁유, 글 몰:러가주구. {그래 가지고 만약애 그 양반 상눔 이래 가지고 이제 그 혼인을 할 때에 함을 받아 보고서, 그 양반측에서 상눔측으로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몰라 가지고.}

10204 # 오면 거기서 채 저 치마 두 진만 이쓰머닌 이 신랑치개서매 막 야다니지 그양, 색:씨찌배서 색:씨찌배서 글 바더... {오면 거기에서 채, 치마 두 벌만 있으면 이 신랑측에서 막 야단이지 그냥, 색시집에서 색시집에서 그걸 받아...} #1 색:씨찌배서 야다니지. {색시집에서 야단이지.}

10204 # 머여 이개 치마 두 지시 머냐구, 자기넌 그기 아니거렁, 자기내루넌. {뭐야 이게 치마 두 벌이 뭐냐고, 자기네는 그게 아니거든, 자기네로는.}

10204 # 그래가주 거그서 판명이 나: 하마 대번.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판명이 나 벌써 대번에.}

10204 # 그개 그러타구유 그때 시건. {그게 그렇다고요 그때 방식은.}

10204 #1 그 때는 또: 머여 여자찌비 츠게 그러캐 마:니 행개 오머넌 또 그걸 가주 시러해 짜너. {그때는 또 뭐야 여자 집이 (여자)측에 많이 한 게 오면 또 그걸 가지고 싫어했잖아.}

10204 @ 그러면 저기 그: 오히려 양반드리 더 쪼끔하구 그 아래쪽 사람드리 더 마:니 항 거내요? {그러며 저기 그 오히려 양반들이 더 조금하고 그 아래쪽 사람들이 더 많이 한 거내요?}

10204 # 그러치유 그때넌 예:무리라능개 그러치유. {그렇지요 그때는 예물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10204 #1 호호흥 옐:나렌 그래때유. {호호 옛날에는 그랬대요.}

10204 @ 그러면 저:기 심부츠개서넌 머 해요? {그러면 저기 신부측에서는 뭐 해요?}

10204 # 심부츠개서넌 인재 그 자기에 당항 거 이제 농: 이:불 모 자기탱거. {신부측에서는 이제 그 자기에 대한 것 이제 장롱 이불 뭐 자기한테 것(자기가 쓰는 것).}

10204 #1 용:떡 식기애다가 이 요 다머노쿠 왜 대:래 지내자너유? {용떡 식기애다 이 요 담아 놓고 왜 대래 지내잖아요?}

10204 #1 응 저기저 대:래 지내구서넌 그 용떡 다머서 인재 하:매 느쿠 되루 가주와유 인재 거 하:매 느:서. {응 저기 저 대래 지내고서 그 용떡 담아서 이제 함에 넣고 도로 가져와요 이제 그 함에 넣어서.}

10204 #1 느:가주구서 인재 와가주 인재 사밀랄 시집와서 사밀랄 아치매 꼬리명녕 거유 떡국. {넣어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이제 삼 일 (되는)날 시집 와서 삼일날 아침에 끓여 먹는 거예요 떡국.}

10204 # 그 해능거시 심부츠개서넌 모두 잘 해넌 사람 만:치 머 농:하구 이불 모 그저 자기, 자기 온 이불꺼 점부. {그게 하는 것이 신부측에서는 모두 잘 하는 사람 많지 뭐, 장롱하고 이불 뭐 그저 자기, 자기 옷 입을 것 전부.}

10204 # 실랑치개꺼 실랑치개: 모시넌 별루 안해유 예:저넌 자기 해꺼 자기꺼만 헬꺼만.  
 {신랑측의 것 신랑측의 뒷은 별로 안 해요 예전에는 자기 할 것 자기 것만 할 것  
 만(하지).}

10204 #1 서루가 다: 그래쥬 머: 남자나 여자나. {서로가 다 그랬지 뭐, 남자나 여자나.}

10204 @ 예저넌 머 머꾸사능거뚜 바쁘자너요? {예전에는 뭐 먹고 사는 것도 바쁘잖아요?}

10204 # 예, 그러므뉴. {예, 그럼요.}

10204 @ 이부른 어떤 이불들 해요? { 이불은 어떤 이불들 해요?}

10204 # 이부른 명인지유, 저저 명: 명: 저: 소무루 해서 참 모카 길러가주구 숨: 해가주.  
 {이불은 무명이지요, 저저 무명 무명 저 숨으로 해서 참 목화 길러 가지고 숨 해  
 가지고.}

10204 # 그걸루다가 인재... {그것으로 이제...}

10204 #1 잘해넌 사:라미 명지지. {잘 하는 사람이 무명이지.}

10204 # 맹 저... 명: 명:니부리유 주로. {역시 저... 무명 무명이불이에요 주로.}

10204 @ 명:하구 명지가 달라요? {무명하고 명주가 달라요?}

10204 # 그러치유. {그렇지요.}

10204 #1 명:지넌 뉘애꼬치 이짜너요, 고서 실: 켜서 짜:능개 명지구. {명주는 누에고치 있  
 잭아요, 거기에서 실 켜서 짜는 것이 명주고.}

10204 #1 인재 무명언 모카 송이에서 인재 이 실: 뽀버가주 짜능개 무명이구. {이제 무명  
 은 목화 송이에서 이제 이 실 뽑아 가지고 짜는 게 무명이고.}

10204 @ 무명이 명이내요, 그럼? {무명이 명이네요, 그럼?}

10204 #1 야, 그러니 거기다 인재 까망물 디리구 그래가주구 이불 해구 머, 광:모그루두  
 하구. {예,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검은 물 들이고 그래 가지고 이불 하고 뭐, 광  
 목으로도 하고.}

10204 @ 그 이부를 어떤 거뜨리 이썬요, 어떤 종뉴가 이썬요 이불도? {그 이불은 어떤 것  
 들이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이불도?}

10204 #1 어떤 종뉴가 그르 그르태니까유. {어떤 종류가 그렇 그렇다니까요.}

10204 #1 그저내넌 일정때넌 비:다니구 빨래빼누구 시수빼누구 배:그비유 배:급. {그전에는  
 일정때는 비단이고 빨랫비누고 세숫비누고 배급이에요 배급.}

10204 #1 그뚜 맘:대루 모:싸썬유. {그것도 마음대로 못 샀어요.}

10204 #1 그래니 멀: 맘:대루 해유. 시지볼썰두 거먹썬 하나 배:금나오능 거 으:더 싱꾸 그  
 랜는대유 머. {그러니 뭇 맘대로 해요. 시집 올 때도 검은 신발 하나 배급 나오  
 는 것 얻어 신고 그랬는데요 뭐.}

10204 #1 배:급 준대능개 이 저기저 혼수, 혼수루다 이불까멀 짱:모기불 꺾떠기 해라구 과:  
 목 다선마 나와유. {배급 준다는 것이 이 저기 저 혼수, 혼수로 이불감을 광목  
 이불 꺾떼기 하라고 광목 다섯 마 나와요.}

10204 #1 그래 인재 그걸 가주구 지비선 미영 짜가주 그걸루다가 인재, 인재 속:싸구 인재  
 이래 숨:느쿠 이래가주 해가주 오지 아이구:. {그래 이제 그걸 가지고 집에서는  
 명 짜 자가고 그걸로 이제, 이제 속 싸고 이제 이렇게 속 넣고 이래 가지고 해  
 가지고 오지 아이고.}

10204 #1 엔나렌 머:가 이썬유. {옛날에는 뭐가 있어요.}

10204 @ 이불두 저기 껌떼기만 한 이불두 이꾸, 여름애 덤능거, 겨우래 솜:능거꾸 이꾸.  
{이불도 저기 껌떼기만 한 이불도 있고, 여름애 덮는 거, 겨울애 솜 넣은 것도  
있고.}

10204 #1 그림뉴, 그거꾸 인재 체체대루지. {그럼요, 그것도 이제 켜켜대로지.}

10204 @ 그렇거 그렇:거 이르미 또 다르자나요. {그런 거, 그런 거 이름이 또 다르잖아  
요.}

10204 #1 그래잉간 누비이불 인재 인재 여름애 임녕건 또 인재 삼베루다가 인재 여름애  
호결루 해구 더꾸 인재, 또 인재 봄 가을루넌 누비이불 누빙거 이꾸. {그러니까  
누비이불 이제, 이제 여름애 입는 것은 또 이제 삼베로 이제 여름애 홑것으로 하  
고 덮고 이제, 또 이제 봄 가을로는 누비이불 누빈 것 있고.}

10204 #1 솜: 겨울겐 솜:이부리지. {솜, 겨울에는 솜이불이지.}

10204 # 부:자... {부자...}

10204 @ 그러면 여름애는 호결루, 그건 머라구, 호결루 만등건 무슨니부리라고래요? {그  
러면 여름애는 홑것으로, 그것은 뭐라고, 홑것으로 만든 것은 무슨 이불이라고  
그래요?}

10204 #1 혼니부리라고래지. {홑이불이라 그러지.}

10204 @ 예, 혼니불. {예, 홑이불.}

10204 #1 봄: 가을루는 인재 춘추루넌 인재 저기 누비이불. {봄 가을로는 이제 춘추로는  
이제 저기 누비이불.}

10204 @ 누비이부른 이러캐 저:기... {누비이불은 이렇게 저기...}

10204 #1 누빙거유. {누빈 것이요.}

10204 @ 누빙거지요. 소 솜:느쿠유? {누빈 거지요. 솜 솜 넣고요?}

10204 #1 자리부루다 쪼그마:치 느:서 누빙건 거지유. {자립으로 조금만큼 넣어서 누빈 것  
이지요.}

10204 @ 멀: 녀요 거기? {뭘 넣어요, 거기에?}

10204 #1 솜:. {솜.}

10204 @ 솜:, 쪼끔 능거? {솜, 조금 넣은 것.}

10204 @ 겨우래는 인재 소물 두투마매 는... {겨울애는 이제 솜을 투툼하게 넣은...}

10204 #1 예, 그르치유 머. {예, 그렇지요 뭐.}

10204 @ 그거는 무슨 이부리요? {그것은 무슨 이불이에요?}

10204 #1 손:니부리유, 솜:니불. {솜이불이에요, 솜이불.}

10204 @ 솜니불. {솜니불.}

10204 #1 예. {예.}

10204 @ 그러면 혼니불, 누비이불, 솜:니불 그러내요? {그러면 홑이불, 누비이불, 솜이불  
그러내요?}

10204 #1 그르치유 머. {그렇지요 뭐.}

10204 @ 그거꾸 두: 두: 저부루 땡거 이짜너요, 이르캐 둘 두:겨부루. {그것도 두 두 겹으  
로 된 것 있잖아요, 이렇게 둘 두 겹으로.}

10204 #1 그개 기 두:겨부루 해지유. 누비이불두 솜:느꾸. {그개 그 두 겹으로 하지요, 누  
비이불도 솜 넣고.}

10204 #1 혼니부리라고 해야 혼니불두 이 아남파글 누비지, 저 이르캐 해:가주 해지유 인

재. {홀이불이라고 해야 홀이불도 이 안팎을 누비지, 저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요 이제.}

10204 #1 이 인년 지븐 인재 베루다 시워나개. {이 있는 집은 이제 베로 시원하게.}

10204 @ 여르매? {여름에?}

10204 #1 야. {예.}

10204 @ 베는 멀:루 짜능거요? {베는 뭘로 짜는 거예요?}

10204 #1 그 대:마추 이짜너유, 왜 저 삼 길르닝거. {그 대마초 있잖아요, 왜 저 삼, 기르는 것.}

10204 @ 예. {예.}

10204 #1 그거 가주구서 이래 빼껴 가주구 쌀머서 빼껴 가주 아서 가주구 쟈무래 쌀머 가주 하야캐 시:덜 맹그러서 물레에 자: 가주구 이래 헨대유. {그것 가지고서 이렇게 벗겨 가지고 삶아서 벗겨 가지고 앓아 가지고 찻물에 삶아 가지고 하얹게 실을 만들어서 물레에 자아 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10204 #1 그거넌 저: 절라도서 마이 해자너유. {그것은 저기 전라도에서 많이 하잖아요.}

10204 @ 아 아서서요? 얻 안 안는개 어트캐 하능개 안는거요? {아 앓아서요? 어 앓 앓는개 어떻게 하는 것이 앓는 거예요?}

10204 #1 그래잉개 인재 그 사덜 이르캐 빼끼자너유. {그러니까 이제 그 삼을 이렇게 벗기잖아요.}

10204 @ 예. {예.}

10204 #1 빼껴서 이리:캐 해가주구서넌. {벗겨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

10204 # 삼 삼베넌 여기서넌 머 별루 안해써유. {삼 삼베는 여기서는 뭐 별로 안 했어요.}

10204 #1 저:그서 해자너유, 여기선 항끄태여 미영. {저기서 하잖아요, 여기서는 한껏 해야 무명.}

10204 # 여긴 여긴 모쾌루다 무명배긴 안헨는데. {여기서는 여기는 목화로 무명 밖에 안 했는데.} #1 어 무명 배끼 읍써 그런대. {응 무명 밖에 없어 그런대.}

10204 #1 그르캐 쪽:쪽 빼껴 가주구 쟈무래 쌀머 가주구 하야캐 해 가주구서넌 또 요르캐 요르캐 아서 이래 찌개 가주구 고거 죄: 이서 가면서 여기다 이래 비벼 가주구 그래 가주 자: 가주 이래 해닝거. {그렇게 쪽쪽 벗겨 가지고 찻물에 삶아 가지고 하얹게 해 가지고, 또 요렇게 요렇게 앓아서 이렇게 찢어 가지고 고것을 모두 이어 감아서 여기에다 이렇게 비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10204 @ 아 그 안:는다능개 껌떼기 베껴 가주구 이르캐 실 만들라구 요:러캐... {아 그 앓는다는 것이 껌떼기 벗겨 가지고 이렇게 실 만들려고 요렇게...}

10204 #1 하야캐 안:닝거. {하얹게 앓는 것.}

10204 @ 껌떼기 베끼능거지요 그러니까? {껌떼기 벗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1 예, 예. {예, 예.}

10204 @ 아 그걸 안:는다 그래요, 껌띠기 빼끼능거지요 그러니까? {아 그것을 앓는다 그래요, 껌떼기 벗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10204 #1 야. {예.}

10204 #1 그랜대 몰러유, 그거넌 우리 여기 안 해니까. {그런데 몰라요, 그것은 우리 여기는 안 하니까.}

10204 @ 그 저기 이불 맨들라면 소:개 는능거는. {그 저기 이불 만들려면 속에 넣는 것은.}

10204 # 소:미지유 머 숨. {숨이지요 뭐 숨.} @ 소:미자나요? {숨이잖아요?}

10204 #1 야, 모카쑈:미유. {예, 목화숨이에요.}

10204 @ 모카쑈:. {목화숨.}

10204 @ 그럼 모카:, 모카:라 부르나요 그거? {그럼 목화, 목화라고 부르나요 그거?}

10204 #1 야 그저넨 모칼 다: 가라쑈유, 으 바테다. {예 그전에는 목화를 다 갈았어요, 응 밭에다.}

10204 @ 예. {예.}

10204 #1 그래가주 따 가주구서는 가을개 따 가주구 인재 씨 아서 가주구 숨:트래 가서 타면 구름가치 아주 폭신평신힐개 그렇길 해서 해구 그래자너유. {그래 가지고 따 가지고, 가을에 따 가지고 이제 씨 앓아 가지고 숨틀에 가서 타면, 구름같이 아주 폭신평신힐개 그런 것을 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10204 @ 숨: 숨: 탄다구 하능거 하구요. {숨 탄다고 하는 것 하고요.}

10204 # 예. {예.}

10204 @ 그: 탄다구 하능 개 어트개 하능 길 탄다 그래능 거요 그개? {그 탄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을 탄다고 하는 거예요 그개?}

10204 #1 모카쑈이럴 인재 이래 씨럴 빼:야 되유. {목화 송이를 이제 이렇게 씨를 빼야 돼요.}

10204 #1 췌:애다가... {씨아애다가...}

10204 # 췌 췌:라구 해서 인재 느:머넨 씨가 빠지구 모칸 꺾떠긴, 참 그 터런 털대루 나가구 그래만 그걸 가주구선 인재 촌:애서넨 이런 화털 커:단 화털 매가주 활랄 안저서 여자더리 이러케 이러케 해머넨 그개 마캥 퍼:유, 모와가. {씨아 씨아라고 해서 이제 넣으면 씨가 빠지고 목화는 꺾떼기, 참 그 털은 털대로 나가고 이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촌:에서는 이런 활을 큰 활을 매 가지고 활활 앓아서 여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개 모두 퍼요, 목화가.}

10204 # 퍼:머넨 그거 인재 아주 폭:파개 퍼:진거넨 인재 따루 내노코 또 하구 또 하구 이래구, 또 그래구선 숨: 숨:트래 기계에 가서 숨:트래 숨:트래 가따해만 거기서 인재 또 소:물 맹기러서 나오머넨 그거가주 해구 인재 그래지유, 그걸 인재 이러케 퍼:노쿠. {퍼면 그거 이제 아주 폭하게 퍼진 것은 이제 따로 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고, 또 그리고 숨 숨틀에 기계에 가서 숨틀에 숨틀에 갖다 하면 거기에 서 이제 또 숨을 만들어서 나오면 그것 가지고}

10204 #1 인재 그르 타가주구 자리에다가 죽: 이 퍼노쿤 요러케 요러케 노쿠서. {이제 그것을 타 가지고 자리에 죽 퍼 놓고는 요렇게 요렇게 놓고서.}

10204 # 무 털 머: 음료수두 아무거뚜 읍쑈 우트개 해여. {뭐 저 뭐 음료수도 아무 것도 없어서 어떻게 해.} @ 아니요, 돼쑈요 갠차너요. {아니요, 됐어요 갠찮아요.}

10204 #1 여기저 이 이양바니 또... {여기 저 이 이 양반이 또...}

10204 @ 아까 여기 오다가 보니까 장나린대 팔길래 마땅한 건뚜... {아까 여기 오다가 보니까 장날인데 팔기에 마땅한 것도...}

10204 # 네, 여기 장이 안 되유 인재넨. {네, 여기 장이 안 돼요 이제는.}

10204 # 그저넨 참: 장이 그냥 머 전:부가 그냥 머 제천 다냥 저기저 그쪼개서 마캥 나오

구 여기서 서울서 오구 그래가주 사:라미 땡길쭈두 읍씨 엄청나게 마넨넨대. {그 전에는 참 장이 그냥 뭐 전부가 그냥 뭐 제천 단양 저기서 그쪽에서 모두 나오고 여기서 서울서도 오고 그래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10204 # 지끄먼 아 집집마둥 자가용이 이썬서 마강 시:내루 나가구 머 \*\*\* 그 삼 장두 아 니구 아무거뚜 아니유, 날짜만 장이지. {지금은 아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어서 모 두 시내로 나가고 뭐 \*\*\* 그 장 장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예요, 날짜만 장이 지.}

10204 @ 그러면 예저내 저 원주루 갈때는 요길루 지나가썬요, 지금 저쪽 차다니는 대루 길 이 이썬썬요? {그러면 예전에 저 원주로 갈 때는 요 길로 지나갔어요, 지금 저 쪽 차 다니는 데로 길이 있었어요?}

10204 # 인제 이 길일랑거시 머여 자세인 몰러두, 이 세창불이라구 모께 그 강가에서 이루 도러서매 나간재가 머 엄청 오래 안 되유, 옴나래넨 이루만 점부 땡겨땡유. {이 제 이 길이 난 것이 뭐야 자세히는 몰라도, 이 세창벌이라고 목계 그 강가에서 이리로 돌아서 나간 지가 뭐 엄청 오래 안 돼요, 옛날에는 이리로만 전부 다녔대 요.}

10204 @ 어딜루 다녀요? {어디로 다녀요?}

10204 # 요 용상고개래는대루 일루 해서매 충주루다가. {요 용상고개라는 데로 이리로 해 서 충주로.}

10204 #1 그르잉까 이 질 질랑거뚜 께오래 대썬유. {그러니까 이 길 길 난 것도 꽤 오래 되었지요.}

10204 #1 십사년째대... {십사년째인데.}

10204 @ 새 새질 랑거가요? {새 새 길 난 것이요?}

10204 #1 예. {예.}

10204 # 지끄먼 머 아주 기리 머머 여간, 어디던지 교퐁이 조으니까 머 아주 그냥. {지금 은 뭐 아주 길이 뭐 여간, 어디든지 교통이 좋으니까 뭐 아주 그냥.}

10204 # 그래 선상니면 승:씨가 누구세여? {그래 선생님은 성씨가 뭐예요?}

10204 @ 미량 바까요. {밀양 박가예요.}

10204 #박씨. {박씨.}

10204 @ 예. {예.}

10204 # 예:. {예.}

10204 # 조은 씨로군뇨. {좋은 성이구먼요.}

10204 @ 아까 이불애기 해짜너요? {아까 이불 애기 했잖아요?}

10204 #1 네. {네.}

10204 @ 이불 이불 이쓰른 잘라그러면 또 머가 필요해요, 머: 이썬야 되요? {이불 이불 있으면 자려고 하면 또 뭐가 필요해요, 뭐 있어야 돼요?}

10204 #1 요대기지 머. {요지 뭐.}

10204 @ 그건 어뜨개 만드러요? {그건 어떻게 만드러요?}

10204 #1 근 이불보다 쪽:썬유 머, 두리 잘만:치, 두리 잘만:해유. {그건 이불보다 작지요 뭐, 둘이 잘 만큼, 둘이 잘 만해요.}



10204 #1 이불 가든 요대기 따라가능 거지유. {이불 가면 요 따라가는 것이지요.}

10204 @ 머리에 또 이르게 하능거뚜 이짜나요, 이러:캐. {머리에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요렇게.}

10204 #1 쪽, 비너쪽. {쪽, 비너쪽.}

10204 @ 비너, 그 잘 때 마리오, 잘 때. {비너, 그 잘 때 말이에요, 잘 때.}

10204 #1 잘:땀 푸르노쿠 자자너유, 아파서. {잘 때는 풀어놓고 자잖아요, 아파서.}

10204 # 비:개. {베개.}

10204 @ 예. {예.}

10204 #1 베:개. {베개.}

10204 #1 벼, 삐부루엔 금:치미여 워낭금침. {벼, 이불위에는 금침이야 원앙금침.}

10204 #1 비개, 워낭금:침 두:리 비자, 비구 자능거지. {베개, 원앙금침 둘이 베고 자는 거지.}

10204 @ 하나가주 두:리 자능거요? {하나 가지고 둘이 자는 거요?}

10204 #1 야. {예.}

10204 #1 월래 혼수헬 이부런 그르캐 해자너유. {원래 혼수할 이불은 그렇게 하잖아요.}

10204 @ 예. {예.}

10204 #1 비:개 이만:해개 해가주 두:리 비녕거. {베개 이만하게 해 가지고 둘이 베는 것.}

10204 @ 예. {예.}

10204 #1 그레이까 그거넌 워낭금침이라구 이불하:구 해서 인재 그르캐서 워낭금침. {그러니까 그것은 원앙금침이라고 이불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원앙금침.}

10204 @ 그건 어트개 맨드능거요? {그것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10204 #1 그래니 엔:나랜 다 수 노쿠 해자너유. {그래닌 옛날에는 다 수 놓고 하잖아요.}

10204 @ 여페? {옆에?}

10204 #1 마:구리. {마구리.}

10204 @ 예. {예.}

10204 #1 예, 마:구리 여기 수릴 와:가주구 터걸 이르기 크:다캐 해 가주구 두:리 비구. {예, 마구리 여기 수를 놓아 가지고 턱을 이렇게 커다랗게 해 가지고 둘이 베고.}

10204 @ 양쪼게 마구리에다 수노쿠. {양쪽에 마구리에다 수 놓고.}

10204 #1 야, 그래가주 거기다가 인재 머: 메물 껌띠길 느턴지, 또 이러캐 해: 가주구서넌 혼니불 이래 시치구 그르치유. {예,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메밀 껌테기를 넣든지,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훌이불 이렇게 시치고 그렇지요.}

10204 @ 메물 껌띠기두 느쿠 또 먼 저기 머지요, 벼... {메밀 껌테기도 넣고 또 뭐 저기 뭐지요, 벼...}

10204 #1 예, 벼 껌띠기, 왕개 껌띠기두 느쿠. {예, 벼 껌테기, 왕겨 껌테기도 넣고.}

10204 @ 왕개. {왕겨.}

10204 #1 예. {예.}

10204 #1 아이구 더워, 아이구 그 선풍기 내오구... 내:오시래이칸 안 내오구 아이구. {아이고 더워, 아이고 그 선풍기 내오고... 내오시라니까 안 내오고 아이고.}

10204 #1 아이구 나리 오늘 더 더운거 거태. {아이고 날이 오늘 더 더운 것 같아.}

10207 @ 그저내 그 요새는 인제 예식짱에서 결혼하자나요? {그전에 그 요즘은 이제 예식

장에서 결혼하잖아요?}

10207 # 네? {네?}

10207 @ 예식장에서 거론해지요? {예식장에서 결혼하지요?}

10207 # 예저내유? {예전예요?}

10207 @ 요새. {요새.}

10207 # 네. {네.}

10207 @ 근대 예저내는 지배서 해짜너유? {그런데 예전에는 집에서 했잖아요?}

10207 # 예:, 지비서 해써유. {네, 집에서 했어요.}

10207 @ 그거 어트개 해요? 어떤 절차루? {그것 어떻게 해요? 어떤 절차로?}

10207 # 절차가 인재 이 남자치개 실랑이라구 해서 인재 남자치개서 그 여자 지부루다 가  
자너유? {절차가 이제 이 남자측에 신랑이 가서, 이제 남자측에서 그 여자 집으  
로 가잖아요?}

10207 @ 예. {예.}

10207 # 인재 가:마릴 타구 이래 가:말 타구 가가주구. {이제 가마를 타고 이렇게 가마를  
타고 가 가지고.}

10207 # 세째빵이라구 인재 방얼 하나 인재 그 여자치개서매 방얼 하나 지금 인재 거가  
이쓰머년 봉:채 디린다구 해가주구. {셋째방이라고 이제 방을 하나 이제 그 여자  
측에서 방을 하나 \*\* 인재 거기에 가 있으면 봉채 들인다고 해 가지고.}

10207 @ 어딜 온다구요? {어디를 온다고요?}

10207 # 봉:채 디린다구. {봉채 들인다고.}

10207 # 하:매다가 그: 아까 해는 채:단 그 치마 두:진탱거 그걸 하:매다가 함:지내비가 지  
구 가유. {함에다 그 아까 한 채단 그 치마 두 벌 한 것 그것을 함에다 함진아비  
가 지고 가요.}

10207 # 지구 가서 이 책쌍얼 노픈 책쌍얼 노쿠서년 거:가서 이러캐 인재 지구서 서쓰머  
년. {지고 가서 이 책상을 높은 책상을 놓고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지고 서  
있으면.}

10207 @ 함지내비가? {함진아비가.}

10207 # 야, 지구 서쓰머 여자치개서매 여자 부인네더리 여자더리 나와 가주서년 그걸, 지  
구 선녕걸 빼끼유, 지구 선녕걸. {예, 지고 서 있으면 여자측에서 여자 부인네들  
이 여자들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지고 서 있는 것을 벗겨요, 지고 서 있는 것  
을.}

10207 # 빼끼머년 암: 빼실라구리야. {벗기면 안 벗으려고 그래.}

10207 # 허허허 암: 빼슬라구, 그래 인재 그걸 그거 해녕거년 머 두부 사시오 두부 사시오  
그래넌대, 암:빼실라구 그러면 인재 억찌루 인재 빼껴 가주서년 그걸 가주서년  
그 사:멀 가주구 고만 방으루 드러가지유. {허허허 안 벗으려고, 그래 이제 그것  
을, 그거 하는 것은 뭐 두부 사시오 두부 사시오 그러는데, 안 벗으려고 그러면  
이제 억지로 이제 벗겨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는 그 함을 가지고 그만 방으로 들  
어가지요.}

10207 # 그거 드러가머년 인재 드러간 뒤에 인재 상애다가 양:쪼개다 인재 초뿌릴 키고 초  
뿌릴 키고 대애애다가 무릴 한대애 해노코 그 상애다 노코. {그거 들어가면 이제  
들어난 뒤에 이제 상애다가 양쪽에다 이제 쫓불을 켜고 쫓불을 켜고 대야애다 물

을 한 대야 해 놓고 그것을 상에다 놓고.}

10207 # 인재 실랑이 먼저 가서 그거 예:보걸, 지금두 저 예식장, 머 저 이쨌유 왜, 남 남 자임넌 예 예복. {이제 신랑이 먼저 가서 그거 예복을, 지금도 저 예식장, 뭐 저 있지요 왜, 남 남자 입는 예 예복.}

10207 # 그걸 이꾸가서 저럴 두:버닐 해유, 저럴. {그것을 입고 가서 절을 두 번을 해요, 절을.}

10207 @ 어디다가? {어디에다?}

10207 # 그 상 차리논대다가. {그 상 차려 놓은데다.}

10207 # 저럴 두:버닐 해머넌 여자치개서 인재 그제서 나오거렁, 방에서. {절을 두 번을 하면 여자측에서 이제 그제야 나오거든, 방에서.}

10207 # 방에서 나와가선, 저자츠건 네:버닐 헨다구. {방에서 나와 가지고, 여자측은 네 번을 한다고.}

10207 # 그개 왜그러냐하머넌 남자넌 이러:캐 소닐 올려따가 여기다 대따가 이러:캐 노민 서룬 업떠러 저럴 해거래요. {그개 왜 그러냐하면 남자는 이렇게 손을 올렸다가 여기에 대었다가 이렇게 놓으면서 엎드려 절을 하거든요.}

10207 # 근대 여자넌 소닐 이걸 분뜰구선 겨냥 사:뭇 저럴헨다구. {그런데 여자는 손을 이것을 붙들고 그냥 사뭇 절을 한다고.}

10207 # 게 남자넌 소닐 이러:캐 올려따가 이러캐 니리닝개 그개 함 번 행거여. {그개 남자는 손을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는 것이 그개 한 번 한 거야.}

10207 # 그래서 남자넌 두:버닐 해구. {그래서 남자는 두 번을 하고.}

10207 @ 네. {네.}

10207 # 여자넌 네:버닐 헨다구 사:배 네:번. {여자는 네 번을 한다고, 사배, 네 번.}

10207 # 그래서 인재 그개 끈, 저 서루 끝나머넌 생머니라구 해서 침:보넌 얼구리지. {그래서 이제 그개 끝, 저 서로 끝나면 상면이라고 해서 처음 보는 얼굴이지.}

10207 # 나두 저 식꾸릴 끝 그저넌 모:빠씨니까 그때 인재 춤:보녕거니까. {나도 저 식꾸를 그 그전에는 못 봤으니까 그때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10207 # 인재 저짜개서 보라구 수 인재 얼... 이래 소닐 네리리구 이래서매 이캐지만 얼구래 이래: 서루 인재 보머넌 그제서야 보구서넌 인재 안저유, 안즈머넌 머야 술짜닐 바가지에 해서매 남자치개서 인재 여자치개서 뵤: 뵤: 가주선 수털짜닐 들구와서 남자털 주거렁. {이제 저쪽에서 보라고 이제 얼... 이렇게 손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하면 얼굴을 이렇게 서로 이제 보면 그제야 보고서 이제 앉아요, 앉으면 뵤야 술잔을 바가지에 해서 남자측에서 이제 여자측에서 부어 부어 가지고 술잔을 들고 와서 남자를 주거든.}

10207 # 그 인재 대:머넌 멍넌치루: 캐구선 암 머거 암 머꾸 겨냥 부꾸 또 해구 그 또 그래구. {그 이제 대면 먹는 척하고서 안 먹어, 안 먹고 그냥 붓고 또 하고 그 또 그러고.}

10207 # 이쨌거선 또 여자츠개서 또 그래구, 그래면 그개 인재 예:시기 끝나녕거지유, 그러캐 해머넌. {이쪽에서는 또 여자측에서 또 그러고, 그러면 그개 이제 예식이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10207 @ 그랴때 오슨 어터캐 이버요, 여자는 어터캐 이꾸 남자는 어터캐 이꾸? {그럴 때 웃은 어떻게 입어요, 여자는 어떻게 입고 남자는 어떻게 입고?}

10207 # 예? {예?}

10207 @ 오시요. {옷이요.}

10207 # 온, 저기저 지금 저 모:헬찌게 그 여 여자 온 니꾸 이 쪽또리 씨구 해넌 그 이짜  
너유. {옷, 저기 저 지금 저 뭐 할 적에 그 여 여자 옷 입고 이 족두리 쓰고 하  
는 그 있잖아요.}

10207 # 느 테레비구 어디든 무슨, 예:식짱애 지금 다 이씨유 그거. {그 텔레비전이고 어디  
든 무슨, 예식장에 즈금 다 있어요 그거.}

10207 @ 치마저고리? {치마저고리?}

10207 # 야, 저 여장봉 남장보기. {예, 여장복 남장복이.}

10207 # 그애 그걸 여자넌 저 여장봉 니꾸 남자넌 남장복 이꾸. {그 그것을 여자는 저 여  
자옷 입고 남자는 남자옷 입고.}

10207 @ 그 이르믄 머:라 그래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10207 # 꼬애 여자넌 쪽뚜리관대라 그래고 남자넌 사:모관대라 그래고. {그 여자는 족두리  
관대라 그러고 남자는 사모관대라 그러고.}

10207 # 게 엔:나래 거 과닌더런 나라애 정치 해넌 그 과닌더런 그 과니 과니 모두 관씨구  
나오녕거 이짜너요. {그 옛날에 그 관인들은 나라애 정치 하는 그 관인들은 그  
관이 관이 모두 관 쓰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10207 # 관 씨구 나오능개 뿌리 읍씨유. {관 쓰고 나오는 게 뿔이 없어요.}

10207 # 그른대 이 예:시켈찌개 이거는 양:쪼개 뿌리 이짜너, 그래가주 그개 틀리다구. {그  
런데 이 예식할 적에 이것은 양쪽에 뿔이 있잖아, 그래 가지고 그개 다르다고.}

10207 # 뿔 읍녕건 뿌리 이씨야지 저기 저 그 남자보기 그 예:시켈찌개 그래 가주구 그때  
예:시켈찌만 남자 여자 예시켈찌만 그 춤: 마주 참 어, 처:매 머시 해녕거라구 그  
래 가주구 참 하난니미라구 하까 이르케 인사디리녕거 인재 그거여 인재 그 부모  
버덤두 그래 가주서넌 인재 그. {뿔 없는 것은, 뿔이 있어야지 저기 저 그 남자  
옷이 그 예식할 때, 그래 가지고 그때 예식할 때만, 남자 여자 예식할 때만 그  
처음 마주 참 어, 처음에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래 가지고 참, 하느님이라고 할까  
이렇게 인사 드리는 거 이제 그거야, 이제 그 부모보다도 그래 가지고 이제 그.}

10207 #1 인재 으:른더리 다: 시키자너 인재. {이제 어른들이 다 시키잖아 이제.}

10207 @ 네. {네.}

10207 #1 우트개 해라구 우트개 해라구 그른대 아이구...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아이고...]

10207 #1 마썸... 우리내넌 손:두 모:뽀구 가씨유. {맞선... 우리네는 선도 못 보고 갔어요.}

10207 # 그래 여자넌 여자넌 이 소닐 이거 만날 대:구 이씨니까 절해, 절헬찌개두 여자더  
리 양:쪼개서 부뜰구서넌 이르케 가치 저릴 하자너, 소닐 디밀구. {그래 여자는  
여자는 이 손을 만날 대고 있으니까 절 할, 절 할 적에도 여자들이 양쪽에서 불  
들고 이렇게 같이 절하잖아, 손을 들이밀고.}

10207 # 남자넌 혼차서 인재 해녕거지 혼차. {남자는 혼자서 이제 하는 것이지 혼자.}

10207 # 그래머넌 인재 그 그래면 인재 예:시기 끝나녕거지, 예:시기래녕거넌. {그러면 이  
제 그 그러면 이제 예식이 끝나는 것이지, 예식이라는 것은.}

10207 @ 그때 머 저기 청실 흥시른... {그때 뭐 저기 청실 흥실은...}

10207 # 그개 인재 술 잔 불찌개 거기 손 손모개다가 저 그, 수:털 이걸 가머유 손모개다,

손모 소내다 그래 가주 그걸 가주 도러가서 주구 주구 그래유. {그게 이제 술 잔 부을 때 거기 손 손목에다 저 그, 술을 이것을 감아요 손목에다, 손목 손에다 그 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 주고 주고 그래요.}

10207 @ 누가? {누가?}

10207 @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10207 # 술... 땡기, 양:쪼개서 인재 해 해주넌 사라미 이꾸 여자더리 여패서. {술이... 다 니, 양쪽에서 이제 해 해주는 사람이 있고 여자들이 옆에서.} #1 여자더리 다 해 줘... {여자들이 다 해줘...}

10207 @ 여패서? {옆에서?}

10207 # 예. {예.} #1 다 해. {다 해.}

10207 @ 아 그 사라미 손모개다가. {아 그 사람이 손목에다가.}

10207 #1 어 술잔 돌리넌 사람, 술잔 가따... {술잔 돌리는 사람, 술잔 갖다...}

10207 @ 거기다 청실홍시를 건다구요? {거기에다 청실 홍실을 건다고요?}

10207 # 예. {예.}

10207 @ 왜 그래요? {왜 그래요?}

10207 # 모르지 그: 아:치넌 옴:나래 서루 인재 그:... {모르지 그 이치는, 옛날에 서로 이제 그...}

10207 #1 그개 어냐걸 맨닝거개찌. {그개 언약을 맺는 거지.}

10207 # 저: 이"녀넌 맨넌다구 해가주서넌, 뽕넌해로하구 살:라구 이제 이녀넌 맨넌다구 해서 게:야캐닝거지 게:약. {저 인연을 맺는다고 해 가지고, 뽕넌해로 하고 살라고 이제 인연을 맺는다고 해서 계약하는 것이지 계약.} #1 그러잉까... {그러니까...}

10207 @ 치마저고리는 머 이버요? {치마저고리는 뭐 입어요?}

10207 # 치마저고리넌 머 그 {치마저고리는 뭐 그} #1 빨:간 치마... {빨간 치마...} # 여 장 여장복 이꾸, 그 여장복 이거 지끔두 이찌마넌 그거 이꾸 소:개넌 머: {여장 여장복 입고, 여장복 이거 지금도 있지마는 그것 입고 속에는 뭐.} #1 원사미지 원삼. {원삼이지 원삼.}

10207 # 어, 자기 인재 임닝거선 근 자기네 그 모시대루다가 파랑치마두 이꾸 빨강치마두 이꾸 머 호호호 . {응, 자기 이제 입는 것은 그 자기네 그 멋대로 파란 치마도 입고 빨간 치마도 입고 뭐 호호호 .}

10207 #1 아이 미태는 빨간 치마, 우애넌 연두 조고리, 옴:나래 우리찌겐 그르캐썬. {아니 밑에는 빨간 치마, 위에는 연두 저고리, 옛날에는 우리 적에는 그렇게 했어.}

10207 @ 빨간 치마 연두 조고리. {빨간 치마, 연두 조고리.}

10207 #1 빨간 치마, 연두 조고리에다 이꾸. {빨간 치마, 연두 저고리에다 입고.}

10207 #1 또 인재 겨우에다 원사멀 이버유, 쪽또리 낭자 해구 원삼 이짜너유 이르캐 두루 매기 거통거. {또 이제 그 위에다 원삼을 입어요, 쪽두리 낭자 하고 원삼 있잖아 요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10207 @ 쿵: 거, 팔 팔 이르캐 충 느러지능거? {큰 것, 팔 팔 이렇게 축 늘어지는 것이 요?}

10207 #1 원사미구 큰: 낭자 찢르구. {원삼 입고 큰 낭자 찢르고.}

10207 #1 쪽 찢르넌대다가 비너 찢르넌대따가 또 큰 낭자 이만 행개 이썬 그걸 해구. {쪽 지른

데다가 비너 지른 데다가 또 큰 남자 이만한 것이 있어 그걸 하고.}

10207 #1 이르캐 쪽뚜릴 쓸라먼 여기다 인재 그 머라그래 다리. {이렇게 족두리를 쓰려면 여기에다 이제 그 뭐 다리.}

10207 @ 예. {네.}

10207 #1 여자덜 인재 머리 진:머리가주 다리 징:개 이써유, 그걸 여기다 이러:캐, 쪽뚜릴 여기다 부터이개 해너라구, 연지곤지 찌꾸 허허허. {여자들 이제 머리 긴 머리 가지고 다리 긴 게 있어요, 그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족두리가 여기에 붙어 있게 하느라고, 연지곤지 찍고 허허허.}

10207 @ 연지 쨍능건 어디다 찌꾸, 곤지는 어디다 쨍능거요? {연지 찍는 것은 어디에다 찍고, 곤지는 어디에다 찍는 거예요?}

10207 # 여기 양짜개 하구 여기 하구. {여기 양쪽에 하고 여기 하고.}

10207 @ 그림... {그림...}

10207 # 양:쪼카구, 여기 하구 여기 이마하구. {양쪽 하고, 여기 하고 여기 이마 하고.}

10207 @ 이마애 쨍능개 그개 머요? {이마에 찍는 게 그게 뭐예요?}

10207 # 곤지. {곤지.}

10207 @ 곤지구, 여... {곤지고, 여...}

10207 # 연지. {연지.}

10207 @ 보:래 쨍능개 연지구? {볼에 찍는 게 연지고?}

10207 # 예. {예.}

10207 #1 몰러유, 다 이저부리써유.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10207 @ 요샌 그렇거 잘 안 하자나요? {요새는 그런 것 잘 안하잖아요?}

10207 # 안: 해지유 지끄른 머 그개 이써유. {안하지요 지금은 뭐 그게 있어요.} #1 야애 나가 해넌 사라먼 더러 이써유. {야외에 나가서 하는 사람은 더러 있어요.}

10207 # 으? {응?}

10207 #1 야애, 저 야애 바께 나가서 해넌 사라먼 더러 이르캐, 구시그루 해넌 사사라미 더러 이써. {야외, 저 야외 밖에 나가서 하는 사람은 더러 이렇게 구식으로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 # 아이 그거뚜 여간해 읍써:. {아이 그것도 여간해서 없어.}

10207 @ 그때 먼 찌기 상 상 차리자나요. 큰 큰상이라 그래요 그거?{그때 뭐 저기 상 상 차리잖아요. 큰 큰상이라 그래요 그거?}

10207 # 상 차리녕거 읍써유. {상 차리는 거 없어요.}

10207 @ 거기 큰 그 대레청이라 그래쪼요? {거기 그거 그 대레청이라고 그러지요?}

10207 # 야. {예.} #1 야. {예.}

10207 # 그개 대레청이유. {그게 대레청이야.} #1 그개 인재 머: 쌀 한: 시끼 떠 노코 또 파신지 콩인지 한 시끼 떠 노코. {그게 이제 뭐 쌀 한 식기 떠 놓고 또 팔인지 콩인 한 식기 떠 놓고.}

10207 # 용떡, 용떡뚜 실랑태다 용떡... {용떡, 용떡도 신랑 앞에다 용떡...}

10207 @ 용떠근 어트개 멀:루 만드러요? {용떡은 어떻게 뭘로 만들어요?}

10207 #1 쌀 찌어 가주구 빠: 가주구. {쌀 찧어 가지고 빵아 가지고.}

10207 # 쌀 쌀루다 맵그러여 지금 흰... {쌀 쌀로 만들어요 지금 흰...} #1 인재 이래 치대 가주구. {이제 이렇게 치대 가지고.}

10207 # 저기 흰뎡 모냥으루 그거덜 커:다캐서 사:람 형농 맵기능거유 사:람 형농. {저기

흰떡 모양으로 그것을 커다랗게 해서 사람 형용 만드는 거예요 사람 형용.}

10207 @ 아 사람가치 사람 모양으로요? {아 사람같이, 사람 모양으로요?} # 야, 사람 야  
야 사람 모양으루. {예, 사람 예 예 사람 모양으로.} #1 맹기러가주구. {만들어  
가지고.}

10207 #1 밤: 밤: 물리구 대:추 물리구 인재 사람 맹그능기유. {밤 밤 물리고 대추 물리고  
이제 사람 만드는 거예요.}

10207 # 사:람 형농이유. {사람 형용이예요.}

10207 @ 떠개다가 이러캐 밤 꼭 이러캐 너가주구? {떡에다가 이렇게 밤 꼭 이렇게 넣어  
가지고.}

10207 #1 얼굴처름. {얼굴처럼.}

10207 #1 얼굴형처럼 이러:케 맨드러 가주구 시끼에다 당:꾸 이르케 인재 짝 바:무루다.  
{얼굴형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식기에다 담고 이렇게 이제 짝(어) 밤으로.}

10207 #1 바:무루다 여기 찢리노쿠 사람 눈하구 여 이거이 해: 논녕거여 그르케. {밤으로  
여기 찢러 넣고 사람 눈하고 여 이것 해 놓는 거야 그렇게.}

10207 @ 그걸 용떠기라 그래요? {그것을 용떡이라고 그래요?}

10207 # 예:. {예.}

10207 @ 저버내 어디서 제가 용떠칸다구 드런는데 딸: 용떠기라구 그래는지 몰란데 오  
늘 알아 줘 아라씨유, 저. {저변에 어디에서 제가 용떡 한다고 들었는데 뭘 용떡  
이라고 그랬는지 몰랐는데 오늘 알았 처음 알았어요, 저.}

10207 #1 그르케 해씨유. {그렇게 했어요.}

10207 @ 요새 애들 머 그거 먼:지 아려야지요 머 모르자나요. {요새 애들 뭐 그거 뭇지  
알아야지 뭐 모르잖아요.} @ 아이구 몰:러유 몰:러. {아이고 몰라요 몰라.}

10207 @ 폐배근 어트개 해요? {폐백은 어떻게 해요?}

10207 # 폐배건 인재 시 시지배 여자가 시지배 와 가주구서넌 그 시부모한테다가 줘: 생머  
니지 머. {폐백은 이제 시 시집에 여자가 시집에 와 가지고는 그 시부모한테 처  
음 상면이지 뭐.}

10207 # 처:으무루다가 인재 인사디리너라구 저럴 해머넌 시어머이 시아버지가 안저가주서  
넌 밤:... {처음으로 이제 인사 드리느라고 절을 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앉아  
가지고 밤...}

10207 #1 대:추. {대추.}

10207 # 대:추두 아니지? {대추는 아니지?}

10207 #1 왜 밤: 대:추. {왜 밤, 대추.}

10207 # 밤: 대:추럴 인재 가주구 이따가 마:니 저 씨: 마니... 저 자손 마:니 나라고 신 신  
부한테다가 이르케 막 댤지주녕거 허허허 그개 폐:배기유. {밤 대추를 이제 가지  
고 있다가 많이 저 씨 많이... 저 자손 많이 낳으라고 신 신부한테다 이렇게 막  
던져주는 거 허허허 그개 폐백이예요.}

10207 # 그 춤: 이제... 처:으무루다가 인사 디리녕개. {그 처음 얘기... 처음으로 인사 드  
리는 것이.}

10207 #1 아이 시방두 예식짱에서 다: 해유. {아니 지금도 예식장에서 다 해요.}

10207 #1 피백 드릴찌개 밤: 대:추 댤지주구. {폐백 드릴 때 밤 대추 던져 주고.}

10207 #1 시방은 아들딸 둘만 나라 이래자너 허허허허. {지금은 아들 딸 둘만 낳아라 이러  
 잼아 허허허허.}

10207 @ 아 지금도 마니 날쭈 이쭈 마니 나능개 조치요. {아 지금도 많이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낳는 게 좋지요.}

10207 #1 아이구 고상은 되두유 여러 누미니까 조킨 조어. {아이고 고생은 되어도, 여러  
 놈이니까 좋기는 좋아.}

10207 @ 예. {예.}

10207 #1 잘해는 놈 이꾸 모태는 놈... 아 모태는 누면 움써 모태지. {잘하는 놈 있고 못하  
 는 놈... 아 못하는 놈은 없어서 못하지.}

10207 #1 아이 여러 누미니까 조킨 조태유, 오면 와 모으머넌 그뜩캐구. {아니 여러 놈이  
 니까 좋기는 좋대요, 오면 와 모으면 그득하고.}

10207 #1 그래 올찌겐 조꾸, 갈찌겐 또 서운::형개 또... {그래 올 때는 좋고, 갈 때는 또  
 서운한 것이 또...}

10207 @ 썩썩파지요? {썩썩하지요?}

10207 #1 어: 아주 혼자 떠러진 캄나무까찌 새안증거처럼 허전::하구. {어, 아주 혼자 떨어  
 진 캄나무 가지 새 앓은 것처럼 허전하고.}

10207 # 그래 두:리 이래구 이썩두 그래 땡기민서는 하다모태 머 깨:구 머 고추구 이렇게  
 해 가주구 해: 놈따가. {그래 둘이 이러고 있어도 그래 다니면서 하다못해 뭐 깨  
 고 뭐 고추고 이런 것 해 가지고 해 놔다가.}

10207 # 해: 가주 즈:덜 오머넌 먼:대서 오면 즈:덜 그저 머그라구 주넝거 그거 재미유 그  
 거 재미여 허허허. {해 가지고 저희들 오면 먼 데서들 오면 저희들 그저 먹으라  
 고 주는 것 그거 재미예요, 그거 재미야 허허허.}

10207 @ 그썩, 어:르신드리 다: 그러싱거 가터요. {글썩요, 어르신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  
 요.}

10207 # 어: 그거 재미유. {어, 그거 재미요.}

10207 @ 저두 이러:캐 보든 안 조두 대는대 썩: 머 머래두 하나 조 보넨라 그래자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안 쥐도 되는데 썩 뭐 뭐라도 하나 쥐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10207 # 예: 그래유. {응 그래요.}

10207 #1 정이지유 그개: 부모자식썩 정이지: {정이지요 그게 부모 자식 간에 정이지요.}

10203 @ 그래서 인제 그 홀레식 치루고 나면 시낭간다그래지요 시낭. {그래서 이제 그 혼  
 레식 치르고 나면 신행간다 그러지요, 신행.}

10203 # 예. {예.}

10203 # 신행이 움써유, 옴:나래넌. {신행이 없어요, 옛날에는.}

10203 # 그냥 저 자양 가녕거트면... {그냥 저 자양 가는 것같으면...}

10203 @ 자양... {자양...}

10203 # 그기 근:친간다그래구 자양간다그래구. {그 근친간다 그러고 자양간다 그러고.}

10203 @ 근:친, 자양. {근친, 자양.}

10203 # 예 예. {예 예.}

10203 # 친정가따가 오능거라구. {친정 갔다가 오는 거라고.}

10203 @ 고거는 갈 때 머 준비해 가주 어트개 가요? {그것은 갈 때 뭐 준비해 가지고 어  
 땡게 가요?}



10203 #1 그쵸 아까 내가 말:행거거치. {글쵸 아까 내가 말한 것 같이.}

10203 #1 근:친갈라면 그른대 그 또 그 옐:나래넌 근:치널 갈라면 시지봐서넌 바루 안 보내유. {근친 가려면 그런데 그 또 그 옛날에는 근친을 가려면 시집 와서는 바로 안 보내요.}

10203 #1 바루 안 보내따 인재 으: 숙:딸마니던지 인재 일련마니던지 가머넌. {바로 안 보냈다가 이제 응 석 달 만이든지 이제 일 년 만이든지 가면.}

10203 #1 그쵸 찹쌀: 인절미 해가주구 이 대나무: 상자애다가 하:나 해구 또 저:기 뭐여 버선 지꾸 그 친정 줄 싸람덜. {글쵸 찹쌀인절미 해 가지고 이 대나무 상자애다가 하나 하고 또 저기 뭐야 버선 짓고 그 친정에 줄 사람들.}

10203 #1 모: 되는대루지 여러찌리지 그래 그때 그거 인재 그때: 지내가구서넌 인재 또 인젠 고다음애넌 인재 그뚜 신시기지 또. {뭐 되는대로지 여러 질이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지나가고서는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도 신식이지 또.}

10203 #1 사밀 도비길 가자너. {삼일 도비비를 가잖아.}

10203 @ 네? {네?}

10203 #1 사밀, 시지본제 사밀마내 도비길 가유, 사밀도비기. {삼일, 시집온 지 삼일 만에 도박이를 가요, 삼일 도박이.}

10203 #1 처가찌비... {처갓집이...}

10203 @ 사밀도비기? {삼일도박이?}

10203 #1 야, 사밀 도비기라구 시방 사밀라리든 친정가유 마캉. {예, 삼일도박이라고 요즘 3일(째 되는) 날이면 친정에 가요 모두.}

10203 @ 예. {예.}

10203 #1 그 그르케 대찌, 그르케 해능거유. {그 그렇게 됐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203 @ 그니까 고때, 고:때 인재 사밀 도비기 할때: 그때는 어트개 하능건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이제 삼일도비기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10203 #1 마창가지유. {마찬가지예요.}

10203 #1 머: 인재 그 열 싸 가주가넌니 열 싸구, 떠캐가주가 떠캐구 인재 그르케 버선 지꾸 옐나래 그래쵸유, 옐타구. {뭐 이제 그 열 싸 가지고 가는 이 열 싸고, 떡 해 가지고 가는 이 떡 하고 이제 그렇게 버선 짓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옧하고.}

10203 # 그래니까 그저내넌 처가애두 누가누군지 어티기 누가 사:넌지 모 거뚜 몰르구 그래니까 찼: 인재 인사디리러 가녕거유, 인사 디리러 가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처가애도 누가 누군지 어디 누가 사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인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인사 드리러 가서.}

10203 # 자:인 장모한테두 해지마넌 그 가족 처가찌비 친척캐 전부 인사 디리러 가녕거여, 생면. {장인 장모한테도 하지만 그 가족 처갓집 친척에게 전부 인사 드리러 가는 거야, 상면.}

10203 @ 그럴때 인재 아까가치 채 채반년뚜 가주가구. {그럴 때 이제 아까처럼 차 차반엿도 가져가고.} #1 야 그래유. {예 그래요.}

10203 @ 버선두 지꾸 또 머 찹... 저기 인절미두 해가구. {버선도 짓고 또 뭐 찹... 저기 인절미도 해 가고.}

10207 @ 그러면 인재 대래청에서 글 저:기 신부찌배서 하자너요? {그러면 이제 대래청에서 그 저기 신붓집에서 하잖아요?}

10207 # 예? {예?}

10207 @ 신부찌베서... {신붓집에서...}

10207 # 예 신부찌베서 해유. {예 신붓집에서 해요.}

10207 @ 예. {예.}

10207 @ 신부찌배 근 저기 대례청에 그 상에 머: 올려놔요? {신붓집에 그 저기 대례청에 그 상에 뭐 올려 놔요?}

10207 # 츠:메 판.. 저기저 이 저 커던 양푸니라구 하까, 양 여기다가 물 물 한 그릇 크게 떠노코. {처음에 판... 저기저 이 저 커다란 양푼이라고 할까, 양 여기에다가 물 물을 한 그릇 크게 떠 놓고.}

10207 # 그래구 한조개 머야 쌀 한 사발 다마 노코, 한 조개는 콩인가? {그리고 한쪽에 머야 쌀 한 사발 담아 놓고, 한쪽에는 콩인가?}

10207 # 머 뚜 자꼭 자꼬칸사발 이래 다마 노코. {뭐 또 잡곡 잡곡 한 사발 이렇게 담아 놓고.} #1 판. {팔.}

10207 #1 양짜개 인재... {양쪽에 이제...}

10207 # 그래구 양짜개 인재 용똥노코 그 초뿔 키노코. {그리고 양쪽에 이제 용똥 놓고 그 초뿔 켜 놓고.}

10207 #1 양:짜개 소나무 노쿠 대나무 노쿠. {양쪽에 소나무 놓고 대나무 놓고.}

10207 # 어. {응.}

10207 # 그래구 그... {그리고 그...}

10207 @ 한 조개는 소나무 한 조개 대나무? {한쪽에는 소나무 한쪽에 대나무?}

10207 # 야. {예.}

10207 @ 어느 조개 소나무 놔요? {어느 쪽에 소나무 놔요?}

10207 #1 우리가 파나 머 그르케 해는 싱만 알지. {우리가 파나 뭐 그렇게 하는 식만 알지.}

10207 #1 그래구 인재 신부 실랑 인재 큰절 해구 이래가면 또 왜 수타긴지 모: 암타긴지 가따 날리구 그래대. {그리고 이제 신부 실랑 이제 큰절 하고 이려고 가면 또 왜 수탉인지 뭐 암탉인지 갖다 날리고 그러대.}

10207 # 다걸 양조개서 인재 하나 하나씩 수탁 암탁 한쪽씩 인재 이르게 들구 이따 고만 그개 끝나면 황 날리며년 이누머 다기 신부한테 가서 안는 수뚜 이꾸 판두루 날러가는 수뚜 이꾸 대중 읊찌유 머. {닭을 양쪽에서 이제 하나 하나씩 수탁 암탁 한 쪽씩 이제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만 그개 끝나면 확 날리면 이놈의 닭이 신부한테 가서 앉는 수도 있고 판 데로 날아가는 수도 있고 대중 읊지요 뭐.}

10207 # 그래 그기 그래먼 꼬치 나넣겨유. {그래 그개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10207 @ 꼬 왜 왜 다글 날리나요? {그 왜 왜 닭을 날리나요?}

10207 # 그래이겐 남녀가 춤: 만나서 인재 서루 인재 잘 살:래년 그런 으:미지 머 그개. {그러니까 남녀가 처음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잘 살라는 그런 의미지 뭐 그개.}

10207 # 그래서 지끄면 머 살:다가두 머 이호니니 머니 하구 머 뵈지시 다 나구 그러치만 예:나런 함 번가면 고만 아니유. {그래서 지금은 뭐 살다가도 뭐 이혼이니 뭐니 하고 뭐 별짓이 다 생기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 번 가면 그만 아니예요.}

10207 # 으:○워니 주거두 느지비 가 주꾸 거가선 머두 주거두 거기서 죽찌, 저꼳 머 근 판두루 모:까능거 아니여 그냥. {영원히 죽어도 이 집에 가 죽고 거기에서 뭐 해

도 죽어도 거기에서 죽지, 저쪽 뭐 탄 데로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냥.}

10207 # 지끄먼 시대가 변:해서 그저 머.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저 뭐.}

10208 @ 그때는 그 잔친날-이자나요, 잔치자나요 그개? {그때는 그 잔칫날이잖아요, 잔치  
 잼아요 그개?}

10208 # 예. {예.}

10208 @ 잔치때 음식근 머: 해요? {잔치 때 음식은 뭐해요?}

10208 # 으 국쭈유, 국쭈. {응 국수예요, 국수.}

10208 @ 국쭈: 어트개 해요? {국수 어떻게 해요?}

10208 # 국쭈찌비나 국쭈찌비 가서 밀가루 자주 가서 국쭈 놀:러 자주구 지비서 동:내사람  
 썩람더리 말강 모여 자주구 큰: 소태다 살머 자주구 동:내 썩람덜 다 오라 그래  
 서 잔치덜 인재 국쭈덜 해 대저패녕거지 머 살머 자주구. {국수집이나 국수집에  
 가서 밀가루 가져가서 국수를 놀:러 가지고 집에서 동네 사람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가지고 큰 술에다 삶아 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해서 잔치를 이제 국수를  
 해서 대접 하는 거지 뭐 삶아 가지고.}

10208 #1 오래자나두 날만 바들 다: 와유. {오라고 하지 않아도 날만 받으면 다 와유.}

10208 #1 다: 오개 대써, 친처기니 일가구 머 동네 썩라미구 동네 썩라미 다: 해 주녕거지  
 유 머. {다 오게 됐어요, 친척이고 일가고 뭐 동네 사람이고, 동네 사람이 다 해  
 주는 것이지요 뭐.}

10208 # 지끄먼 고대 저기저 모아 누가 주거따구 열라기 우리애한테서 와꾸마년, 가머년  
 상가찌비두 가머년 거냥 모:까유. {지금은 이제 막 저기 저 뭐야 누가 죽었다고  
 연락이 우리 애한테서 왔구면, 가면 상갓집에도 가면 그냥 못 가요.}

10208 # 예:식, 저기저 결혼식 캐년대 누가 와두 거냥 모:까유. {예식, 저기 저 결혼식 하  
 는데 누가 와도 그냥 못 가요.}

10208 # 꼭 봉토 자주 가이지, 양 자주 가면 누가 와따 간년지 그뚜 모르구, 지금 표시가  
 그런대. {꼭 봉투 가지고 가야지, 안 가져가면 누가 왔다 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표시가 그런대.}

10208 # 엔:나랜 그거 하나두 우:꺼렁, 봉투래녕거 도 돈: 자주 가능거 하나두 우:꾸. {옛날  
 에는 그거 하나도 없었거든, 봉투라는 거 도 돈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고.}  
 #1 그리여 우:꾸. {그래 없고.}

10208 # 향끈내 인재 이우:채서 헨대녕거년 향끄태머년 머 수리나 한 한 통 사다 주두 되  
 구, 또 머 썩리나 한 말 주든지 이렇거지, 움:년 사람 도와주너라구 그래지, 머  
 주녕개 우:꺼렁. {겨우 이제 이웃에서 한다는 것은 한껏하면 뭐 술이나 한 한 통  
 사다 줘도 되고, 또 뭐 쌀이나 뭐 한 말 주든지 이런 것이지, 없는 사람 도와 주  
 느라고 그러지, 뭐 주는 것이 없거든.}

10208 # 서루 머그러 오... 장마내노코 오라그래면 와서 먹꾸서 그저 가고 그러치, 이 지금  
 모양으루다가 머 봉투 가따 주능거 읍짜너유, 연통 그건 읍써유. {서로 먹으러  
 오... 장만 해 놓고 오라 그러면 와서 먹고서 그저 가고 그렇지, 이 지금처럼 뭐  
 봉투 갖다 주는 거 없잖아요, 전혀 그것은 없어요.}

10208 #1 상가찌비닝 거냥 파쭈기나 다, 바매 밤차늘 내야 되자너, 밤새기 해기 때매. {상  
 갓집에는 그냥 팔죽이나 다, 밤에 밤참을 내야 되잖아, 밤 새우기 하기 때문에.}

10208 #1 그르니 그사람 머께 해너라구 인재 판쭈걸 한 동이 끄리다 주구. {그러니까 그

사람 먹을 것 하느라고 이제 팔죽을 한 동이 끓여다 주고.}

10208 #1 술 한 초롱 해다 주구. {술 한 초롱 해다가 주고.}

10208 #1 그땐 순:저니 다: 지비서 맨드러서 해여지유. {그때는 순전히 다 집에서 만들어서 해야지요.}

10208 #1 어디 시방거치 양주장이 이꾸 머 이썸. {어디 지금처럼 양조장이 있고 뭐 있어.}

10208 @ 그럼 국쭈는... {그럼 국수는...}

10208 # 예. {예.}

10208 @ 저기 지배서 하능개 아니구 다 눌러오나요? {저기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눌러오나요?}

10208 # 눌러오능거뚜 이꾸 지비서들두 사람 마느면 지비서두 칼루다가 멍기러유, 지비서두. {눌러 오는 것도 있고 집에서도 사람 많으면 집에서도 칼로 만들어요.}

10208 # 사람 만:치 아는대는. {사람 많지 않은 데는.}

10208 @ 그 국쭈가 다르자나요, 그거 눌룽거 하구? {다르잖아요, 그거 누른 것 하고.}

10208 # 달르지유. {다르지요.}

10208 @ 지배서 항거는 머라 그래요? {집에서 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10208 # 궁 칼국쭈라 그래지 머, 누룽구기라 그래기두 하구 칼국쭈라구두 하구, 누룽구기라 그래지유. {그건 칼국수라고 그러지 뭐, 누른국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칼국수라고도 하고, 누른국수라고 그러지요.}

10208 @ 아 누룽구기라구두 하구 칼국쭈라구두 하구. {아 누른국수라고도 하고 칼국수라고도 하고.}

10208 # 예. {예.}

10208 @ 거기 국쭈애두 머 이캐 위에 언치자녀요? {거기 국수에도 뭐 이렇게 위에 얹지 않아요?}

10208 # 야 그 꾸미 그기 계란 봉거가주 쓰러스매 인재 언지구 그래지유 머. {예 그거 고명이에요 그거, 그 계란 부친 것 가지고 썰어서 이제 얹고 그러지요 뭐.} #1 고명, 고명. {고명, 고명.}

10208 @ 꾸미? {꾸미?}

10208 #1 냐, 꾸미. {예, 꾸미.}

10208 @ 꾸미하구 고명하구는 달룽거요 가통거요. {꾸미하고 고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은거예요.}

10208 #1 다 그개 그거유. {다 그개 그거예요.}

10208 #1 그개 그건대 이래 마:리 달러 그러치:. {그개 그것인데 이렇게 말이 달라서 그렇지.}

10208 #1 인재 계란 인재 전 부쳐서 썰: 채: 쓸구, 실:고치 채 쓸구, 또 저 서기버섯 채: 쓸구 이래 가주구 국쭈 우애다 언닝거여. {이제 계란 이제 전 부쳐서 채 썰고, 실고추 채 썰고, 또 저 석이버섯 채 썰고 이래 가지고 국수 위에 얹는 거야.}

10208 @ 아 그걸 고명이라구두 하구, 꾸미라구두 하구? {아 그것을 고명이라고도 하고, 꾸미라고도 하고?} #1 예 예. {예 예.} @ 가통 거요, 고명하구 꾸미가? {같은 거예요, 고명하고 꾸미가?} # 예 예. {예 예.}

10208 @ 지:문 안나요? {김은 안 놓아요?}

10208 # 기:미 그때 머 기:미 그르케 머 머글케 이썬요. {김이 그때 뭐 김이 그렇게 뭐 먹을 것이 있어요.}

10208 # 근 여가내서 제:사 지낼래두 기:멀 여가내서 모싸두... {그건 여간해서 제사 지내려고 해도 김을 여간해서 못 사도...} #1 아 김:두 올라가지유, 머 올라가진, 지:른 너무 그래두 지지분 해지 머. {아 김도 올라가지, 뭐 올라가기는, 김은 너무 그래두 지지분하지 뭐.}

10208 #1 김:두 드리가유. {김도 들어가요.}

10208 # 아이 드리가넌데 이썬여지:, 움녕걸 머 그냥. {아 들어가는데 있어야지, 없는 것 뭐 그냥.}

10208 @ 그건뚜 하구 또 저기두 하자너요, 솔뚜경 뒤지버노쿠 그 그거 머예요? {그것도 하고 또 저기도 하잖아요, 솔뚜경 뒤집어 놓고 그 그거 뭐예요?}

10208 #1 부침. {부침.}

10208 @ 예? {예?}

10208 #1 부침개, 부침기. {부침개, 부침개.}

10208 #1 전: 부친다 그래자너유, 전: 부친다구. {전 부친다고 그러잖아요, 전 부친다고.}

10208 @ 예 예. {예 예.}

10208 @ 그걸 볼 볼 머라구요? {그것을 부 부 뭐라고요?}

10208 #1 부치기. {부침개.}

10208 @ 부치기? {부침개.}

10208 # 예. {예.}

10208 #1 저:나라구두 해구 부치기라구두. {전이라고도 하고 부침개라고도.}

10208 # 아 부치기라구 그뎌 다: 그래썬 머머 어디 저:나라구 한 사라미 머가 이썬. {아 부침개라고 그때는 다 그랬지 뭐뭐 어디 전이라고 한 사람이 뭐가 있어.}

10208 # 유시 유시캔 사람더리나 이르게 글자나 배우구 유시캔 사람더리나 그른 얘기해지, 촌싸람더리야 다 이기 부치기지 머. {유식 유식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글자나 배우고 유식한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하지, 촌사람들이야 다 이게 부침개지 뭐.}

10208 @ 예. {예.}

10208 #1 아니여, 그러나마나 유시캐구 모 모가 다 고장, 이 고장 이 저 어리디 고꼬시 틀리유, 마:리:. {아니야, 그러나마나 유식하고 뭐 뭐가 다 고장, 이 고장 이 저 어디든 곳곳이 달라요, 말이.}

10208 # 마리 틀린데. {말이 다른데.}

10208 @ 그러치요. 예. {그렇지요. 예}

10208 # 그래서 표준마리 옰:나래넌 사문 내려오녕개 서우리 표준마리라 그랜넌데, 그 운:재버터밍가 충봉 마리 표준마리여, 충봉 마리. {그래서 표준말이 옛날에 그 사뭇 내려오는 게 서울이 표준말이라고 그랬는데, 그 언제부터인가 충북 말이 표준말이야, 충북 말이.}

10208 # 왜그래냐 하머넌 애:덜 교과서애두 그저내넌 일본 시대 모두 돼 도야지그렇 도야지, 도야지 쓰는데 이 충부건 돼:지라구 그냥 돼:지, 돼:지라 그래니까 그래 가주선 고만 표준마리 충봉 마리라구 해간 교과서애서두 돼:지 아니유 그냥, 도야지 애가 읍짜너유.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교과서에도 그전에는 일본 시대 모두 돼

도야지거든 도야지, 도야지 쓰는데 이 충북은 돼지라고 그냥 돼지, 돼지라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만 표준말이 충북 말이라고 해서 교과서에도 돼지 아니에요 그냥, 도야지가 없잖아요.}

10208 # 그저내년 사물 교과서애두 도야지거렁. {그전에는 사물 교과서에도 도야지거든.}

10208 # 그런대 도:야지가 읍써지구 돼:지라구 표준마리 충북 마리 표준마리유 그래서. {그런데 도야지가 없어지고 돼지라고 표준말이 충북 말이 표준말이에요 그래요.}

10208 #1 말:두: 다: 꼬꼬시 다: 달리. {말도 다 곳곳이 다 달라.} # 그럼 다: 다르지 머. {그럼 다 다르지 뭐.}

10208 # 꼬꼬시 도두 도마둥 다: 다르구. {곳곳이 도도 도마다 다 다르고.}

10208 @ 그 잔치할때두 돼:지두 잡쪼요? {그 잔치할 때도 돼지도 잡쪼요?}

10208 # 네, 아 잡쪼유. {네, 아 잡쪼요.}

10208 @ 그어 어트개 자버요? {그것 어떻게 잡아요?}

10208 # 허허허허 도 동네 싸라미 모여 가주구 때려 자버유. {허허허허 도 동네 사람이 모여 가지고 때려 잡쪼요.}

10208 #1 시방이니까 동네 싸라미 모여서 자꾸 이래지, 청년더리. {지금이니까 동네 사람이 모여서 잡고 이러지, 청년들이.}

10208 #1 옴:나래 우리 클쪼개는 그: 동:내서 그른 해는 사라미 따루 이쪼유, 한 집. {옛날에 우리 클 적에는 그 동네에서 그런 (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한 집.}

10208 #1 인재 큰닐 헬쪼 돼:지 자꾸 머, 거 동네서 또 개 거통거뚜 길러다 머글라면, 그 사람 주구서넌 인재 통만 으더머꾸 우리 가따 주면 그 사람내 대가리 으더머꾸... {이제 큰일 할 때 돼지 잡고 뭐, 거기 동네에서 또 개 같은 것도 길러다 먹으려면, 그 사람 주고서 이제 통만 얻어먹고 우리 갖다 주면 그 사람네 대가리 얻어먹고...}

10208 # 옴:나래 아:무나 안 몬 안 자버유. {옛날에는 아무나 안 못 안 잡아요.}

10208 #1 안자버요, 옴:나래넌 아주 증:해논 지비 이쪼유. {안 잡아요, 옛날에는 아주 정해 놓은 집이 있어요.}

10208 # 그 양:바니니 상누미니 그래서 그래... {그 양반이니 상놈이니 그래서 그래...}

10208 @ 고거만 따루 하는 사라미 이쪼요? {그것만 따로 하는 사람이 있쪼?}

10208 #1 뒤:유 아주, 동네 그런 사라미 이쪼유 하나. {뒤요 아주, 동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

10208 @ 떠근 무슨 떡 캐요, 그 잔치할 때, 옴:나래? {떡은 무슨 떡 해요, 그 잔치할 때, 옛날에?}

10208 #1 옴:나래 이러키 인재 그거뚜 인재 상 인재 상차리구 헬라면 퍼니유. {옛날에 이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상 이제 상 차리고 하려면 편이요.}

10208 #1 인재 저 하이:야캐 인재 곱무럴 하야캐 기필 해 가주구 하야캐서 퍼니라구 해유. {이제 저 하얏게 이제 고물을 하얏게 기피를 해 가지고 하얏게 해서 편이라고 해요.}

10208 #1 이 쌀 향 캐 노쿠 고물 향 캐 노쿠 이래 가주 쪼: 가주구서넌 해:녕거지유. {이 쌀 한 켠 놓고 고물 한 켠 놓고 이래가지고 쪼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10208 #1 머 개피떡뚜 해구, 개피떡뚜 해구 물디리 가주구. {뭐 개피떡도 하고, 개피떡도

하고 물 들어 가지고.}

10208 # 부:자찌비나 그러케 잔치 장마널 그러케 해지, 그 움:넌 사라미 해긴 물: 해여.  
{부жат집이나 그렇게 잔치 장만을 그렇게 하지, 그 없는 사람이 하긴 뭘 해여.}  
#1 머 부자찌비 우트개 머 우트개 해여. {뭘 부жат집이 어떻게 뭘 어떻게 해여.}

10208 # 어? {응?}

10208 #1 그러케 행건 해자너, 움넌 지비구... {그렇게 하는 것은 하잖아, 없는 집이고...}

10208 # 그쎄 해넌 시진, 시근 그런데 움넌 사라면 예기 머머 국쭈두 항그를뚜 우티기...  
허허허. {글쎄 하는 식은, 식은 그런데 없는 사람은 네기 뭘뭘 국수도 한 그릇도  
어떻게...}

10208 @ 개피떠근 어트개 하능 거요? {개피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208 #1 그건 인재 저:기 저 머여 흰떡처럼, 흰떡처럼 이러케 빼: 가주구서넌 가루를 해  
가주구 찌 가주구서넌 이러케 빼: 가주구서넌 미:러 가주구 요기다 고물 느쿠서  
넌 요르케 저버가주 뜨녕거유. {그것은 이제 저기 저 뭘야 흰떡처럼, 흰떡처럼  
이렇게 빼 가지고 가루를 해 가지고 찌 가지고 이렇게 빼 가지고 밀어 가지고 요  
기에다 고물을 넣고서 이렇게 접어 가지고 뜨는 거예요.}

10208 #1 머 종채기나 머 요령걸 가주 요리케 쪼끄망 걸루, 벨거 다: 해찌 머. {뭘 종치나  
뭘 요런 것을 가지고 요렇게 조그만 것으로, 벨거 다했지 뭘.}

10208 @ 돼지 자쁠때는 어트개 자바요? {돼지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요?}

10208 # 예? {예?}

10208 @ 돼지넌 어트개 자바요? {돼지는 어떻게 잡아요?}

10208 # 허허허. {허허허.} #1 헤헤헤헤, 우리 그때... {헤헤헤헤, 우리 그때...}

10208 #1 무릎 끄려. {물을 끓여.}

10208 #1 물 끄리는데 인재 이 잡끼저내 모걸 따더라구, 여기 모걸 칼루 따더라구, 피를  
빼구. {물 끓이는데 이제 이 잡기 전에 목을 따더라고, 여기 목을 칼로 따더라고,  
피를 빼고.}

10208 #1 그래구 인재 큰:: 도나무 통애다 가따 노쿠 뜨그운 무릎 펄펄 끌렁걸 가따 찌언  
떠라구, 거가따 디굴디굴 굴리더라구, 그래가주 털 뿜꾸 인재 모두 그래더라구.  
{그리고 이제 큰 드럼통애다 갖다 놓고 뜨거운 물을 펄펄 끓는 것을 갖다가 끼었  
더라고, 거기에 갖다 데굴데굴 굴리더라고, 그래 가지고 털 뿜고 이제 모두 그러  
더라고.}

10208 @ 근대 돼:지고기두 그러케 자븐 돼지고기가 마시짜나요? {그런데 돼지고기도 그렇  
게 잡은 돼지고기가 맛있잖아요?}

10208 # 어 그래유. {어 그래요.}

10208 #1 그래유. {그래요.}

10208 @ 요새 요새꺼보다 더 마신능거 가편대... {요새 요새 것보다 더 맛있는 거 갇던  
데...}

10208 # 인재 그 그거보덤두 마시 인재 그저내넌 에 돼:지 미기녕개 게:하구 머 이 뜨물  
찌끼기, 머 이렇거 마캥 아무거나 지비서 이래 메기넌데, 지끄면 사료만 메기기  
때때 사료래녕기시, 마캥 그 사료만 메기기 때때 고기가 마시 읍써유 지끄면.  
{이제 그 그것보다도 맛이 이제 그전에는 음 돼지 먹이는 게 개하고 뭘 이 뜨물

찌꺼기, 뭐 이런 거 모두 아무 거나 집에서 이렇게 먹이는데, 지금은 사료만 먹이기 때문에 사료라는 것이, 모두 그 사료만 먹이기 때문에 고기가 맛이 없어요 지금은.}

10208 # 그저내 그렇거 메기 마시찌. {그전에 그런 거 먹어서 맛있지.}

10208 #1 비가 올래나, 장:항아릴... {비가 아직 더 오려나, 장 항아리를...}

10208 # 음? {응?}

10208 #1 비가 올래나 약 장:항아릴 다더여지. {비가 오려나 장 항아리를 닫아야지.}

10210 @ 이 그저내 저기 그 잔치할 때 재미 이써편 일 머 이렇거 이써요? 왜 장난 치는 사람들 이짜나요? {이 그전에 저기 그 잔치할 때 재미있었던 일 뭐 이런 거 있어요? 왜 장난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10210 @ 큰 흘래시개서두 머, 저 쪼꼬말 때 보니까 쟁:가 재:를 머 이르케 느:가주구 지버 편지기두 하구 그러능거 가편대. {그 혼례식에서도 뭐, 저 조그만 할 때 보니까 쟁가, 재를 뭐 이렇게 넣어 가지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10210 @ 저 함 번 그거 본 적 이써요. {저 한 번 그거 본 적 있어요.}

10210 # 그렇건 모르고 인재 처:으매 인재 장:개들러 인재 여자찌개 가머넌 그 대:래, 대래 지낸다 그래지유. {그런 것은 모르고 이제 처음에 이제 장가 들러 이제 여자쪽에 가면 그 대래, 대래 지낸다 그러지요.}

10210 # 먼저 인재 춤 드러갈 찌개, 장난하너라구 초석짜리릴 이러케 까러난넌대 상차린 대, 까는데 그 미태다가 콩얼 까리유, 그래구 콩 우애다가 자릴 칸다구. {먼저 이제 처음 들어갈 적에, 장난하느라고 초석 자리를 이렇게 깔아 놔는데 상 차린 데, 까는데 그 밑에다가 콩을 깔아요, 그리고 콩 위에다가 자리를 칸다고.}

10210 # 그래서 머리가 으-ㅇ:니해구 야근 사라면 이래: 바가 실랑이, 이래: 바가주서넌 콩이랑 머가 드룽거 가트면 발루다 고만 자릴 툭 무러치우구. {그래서 머리가 영리하고 약은 사람은 이렇게 봐서 신랑이, 이렇게 봐 가지고 콩이랑 뭐가 들은 것 같으면 발로 그만 자리를 툭 밀어 치우고.}

10210 # 으-ㅇ:니해지 모탄 사라문 고만 나가다 그만 쭈루룩 미끄러져서 나가자빠진다구.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 나가다가 그만 주르룩 미끄러져서 나가자빠진다고.}

10210 # 그 자 으-ㅇ:니행가 머여 멍청이 거통가 그거 보너라구, 그래서 그 보너라구 그런 소리가 헨다구유. {그 영리한가 뭐야 멍청이 같은가 그것 보느라고, 그래서 그 보느라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요.}

10210 @ 그러 그런 얘기 하대요, 그 콩까러 뇌가주구 잘모타면 그냥 나자빠진다구. {그런 그런 얘기 하대요, 그 콩을 깔아 뇌 가지고 잘못 하면 그냥 나자빠진다고.}

10210 # 거냥 더퍼노쿠 거 드러가다가넌 고만 쭈루루 미끄러져서 나가자빠지니까. {그냥 덮어놓고 거기 들어가다는 그만 주르룩 미끄러져 나가자빠지니까.}

10210 @ 그러구 또 천날빠매 저기 처가찌배서 자자나요? {그리고 또 첫날밤에 저기 처갓 집에서 자잖아요?}

10210 # 처가찌비서 안 자유. {처갓집에서 안 자요.}

10210 #1 처가찌비서 자넌 사람두 이써유. {처갓집에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 처 처가찌 비 자넌 자넌 사람두 이찌 인재. {처 처갓집에서 자는 자는 사람도 있지 이제.}

10210 # 예, 자넌 사람두 이꾸, 대:게 돈: 마는 사라미나 처가찌비서 자지, 돈 우꼬 어려운 농초내서넌 처가찌배서 여간 안 자유 대반 그냥 바루 오지. {예, 자는 사람도 있



고, 대개 돈 많은 사람이나 처갓집에서 자지, 돈 없고 어려운 농촌에서는 처갓집에서 여간해서 안 자요 대번에 그냥 바로 오지.}

10210 @ 그러면 하이튼 그래두 지배 오면 천날빔 저기 열뿐다구 문 뚫꾸 막 그러자나요? {그러면 하여튼 그래도 집에 오면 첫날밤 저기 엇본다고 문 뚫고 막 그러잖아요?}

10210 # 예. {예.}

10210 @ 거 어트개 해요, 그럴때 어트개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10210 # 멀 우트개유, 인재 츠:메 저 츠:메, 처:메 인재 방애 드러가머넌. {뭘 어떻게 해요, 이제 처음에 저 처음에, 처음에 이제 방애 들어가면.}

10210 @ 동네 싸람들두 새 새새닥 구경온다구 머 그러자나요. {동네 사람들도 새 새 새닥 구경온다고 뭐 그러잖아요.}

10210 # 여서 동네 싸라먼 여가내, 동네 싸라먼 여가내 우:꼬 인재 친치기 인재 우떠게 하나 보너라구 인재 그래넌데. {여기 동네 사람은 여간해서, 동네 사람은 여간해 없고 이제 친척이 이제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이제 그랬는데.} #1 다 찌저 나유 다 찌저 나. {다 찢어 놔요, 다 찢어 놔.}

10210 # 상:애다가 술쌍얼 주머넌 인재 그걸 보구서 인재 머거라 그래다가 암 머그먼 인재 미러노쿠서넌. {상애다가 술상을 주면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먹으라 그러다가 안 먹으면 이제 밀어 놓고서는.}

10210 # 머야 남자가 여자 뒤에 가서매 안저 가주구 이종또리버텀 빼구. {뭐야 남자가 여자 뒤에 가서 앉아 가지고 이 족두리부터 빼고.}

10210 # 또 이 원삼 그거 꼬 꼬 꼬 꼬걸 끈 풀르구 그개 그래능거지유 머. {또 이 원삼 그거 그 그 그 그것 끈 풀고 그개 그러는 것이지요 뭐.}

10210 # 그래서 인재 그거만 풀러서 해노면 자기 소느루 다 버서빠리유 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풀어서 해 놓으면 자기 손으로 다 벗어 버려요 다.}

10210 @ 근대 그거 인재 사람드리 열뿐다구 문 무내 디리다보자너요. {그런데 그거 이제 사람들이 엇본다고 문 문에 들여다 보잖아요.}

10210 # 야. {예.}

10210 #1 다: 찌개나요. {다 찢어 놓아요.}

10210 @ 그러때 머 재미인는 널 업써요? {그럴 때 뭐 재미있는 일 없어요?}

10210 # 그개 왜... {그게 왜...}

10210 #1 재미인는 이른 우리넌 다: 쏹마까찌 말: 아러유 멍텅구리릴. {재미있는 일은 우리네는 다 숙맥같지 뭘 알아요 멍텅구리를.}

10210 # 그개 예전버텀 내려오넌 얘기가, 천날빔애 그르개 신방애 두 내우릴 주머넌 이거 모두 해지 모태 가주구 무시켄 사람더런 고만 사고가 나넌 이리 마:너때여. {그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첫날밤에 그렇게 신방애 두 내외를 주면 이거 모두 하지 못해 가지고 무식한 사라들은 그만 사고가 나는 일이 많았대요.}

10210 # 그래서 인재 그렇거 우:릴 보너라구, 우터개 갠차능가 보너라구 그래가주, 천날빔매 쥐기넌 수가 만:태유 연나랜 이걸 헬쫑 몰러 가주구 여자릴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느라고, 어떻게 괜찮은가 보느라고 그래 가지고, 첫날밤에 죽이는 수가 많대요 옛날에는 이걸 할 줄 몰라 가지고 여자를 막.}

10210 # 그래 가주선 그거 그래서 그개 방시기 문 뚫구서 으~ㄷ:보넌 거여 그개. {그래 가지고 그거 그래서 그개 방식이 문 뚫고서 엿보는 거야 그개.}

10210 @ 그저내 보니까 머 하:두 바까태서 잠두 모짜개 해 가주구 머 물두 확: 찌언저따구 머 그른 애기두 이쁜대요. {그전에 보니까 뭐 하도 바깥에서 잠도 못 자게 해 가지고 뭐 물도 확 끼엿었다고 뭐 그런 애기도 있던대요.}

10210 # 네, 그래유. {네, 그래요.}

10210 @ 그런 그 동네에서 그런 거는 업써썩요? 판사람들두 왜 장난치구 그러자나요 그거. {그런 그 동네에서 그런 것은 없었어요? 판 사람들도 왜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그거.} # 판사라면 안해유. {판 사람은 안 해요.}

10210 # 아이 저 타 승언 판 승언 와서 양 그래유, 자기네 친척끼리 그래지. {아니 저 타성은 판 성은 와서 안 그래요, 자기네 친척끼리 그러지.}

10210 @ 친척끼리. {친척끼리.}

10210 # 동기가내. {동기간에.}

10210 @ 그 자앵가면뇨. {그 자행가면요.}

10210 # 네. {네.}

10210 @ 저 처갓집에 가면 실랑 달귀멍는다구 안 해요? {저 처갓집에 가면 신랑 달귀 먹는다고 한 해요?}

10210 # 왜유, 그 이찌유. {왜요, 그거 있지요.}

10210 @ 그건 어트개 하능 거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210 # 그거 인재 사람 다, 서루 머야 똑또캉가 안 또캉가 그렇거 저거 다 모두 보ներ라 그래넌대. {그거 이제 사람 다, 서로 뭐야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 그런 거 저거 다 모두 보느라고 그러는데.}

10210 # 그거 머머 말:두 시키구 그저 머 장난 시키구 그저 머 벤지설 그렇거 다 해녕거지, 저 그 가튼 또래 치구더리 와 가주구. {그거 뭐 뭐 말도 시키고 그저 뭐 장난 시키고 그저 뭐 별짓을 그런 것 다 하는 것이지, 저 그 같은 또래 친두들이 와 가지고.}

10210 @ 그거 어트개 하능건대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10210 # 그걸 머 어트간다 그러까유, 와선... {그걸 뭐 어떻게 한다 그럴까요, 와선...}

10210 @ 발빠닥뚜 때리구 그래다면서요? {발바닥도 때리고 그러다면서요?} # 냐? {예?}

10210 @ 꺼꿀로 매다러노쿠. {거꾸로 매달아 놓고.}

10210 # 아이 저 머여 저 그... {아니 저 뭐야 저 그...}

10210 #1 장난꾼 시:맨대넌... {장난꾼 심한 데는...}

10210 # 장나하너라구 여 이 바털 홀거매서매 발빠등두 뚜딜기두 해구 그저 때리기두 해구 머 그래넌대 그렇거 허허허 이썩유. {장난 하느라고 여 이 발을 움아 매서 발바닥도 두드리기도 하고 그저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 허허허 있어요.}

10210 @ 하라부진 앙그르서썩요? {할아버지는 안 그러셨어요?}

10210 # 앙 그래썩유. {안 그랬어요.}

10210 @ 그저내 드러보니까 그러 그러캐 해 가주구 발빠닥뚜 만꾸 머 그래민서 술 가주오라 그러구 머... {그전에 들어보니까 그러 그렇게 해 가지고 발바닥도 맞고 뭐 그러면서 술 가져오라 그러고 뭐...}

10210 #1 그런대유 처가찌비두 그 가튼 또래가 마녀야 해년대 내름 지바니구, 또 마캉: 우애 우더튼더리니까 처남더리래야 마캉 나이 망:쿠 그래이 줌:자넨 이더리니깐 누가 그렐 싸라미 이써유. {그런데요 처갓집에도 그 같은 또래가 많아야 하는데 모두 집안이고, 또 모두 위에 웃어른들이니까, 처남들이라야 모두 나이 많고 그러니 젊잖은 이들이니까 누가 그럴 사람이 있어요.}

10210 # 친구드리 마녀야 되유. {친구들이 많아야 돼요.}

10210 @ 그 친구드리 그래능거지요? {그 친구들이 그러는 것이죠?}

10210 # 예:, 칭 친구드리 그래능거유. {네, 칭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10210 #1 동:네 친구더리 이쓰니까. {동네 친구들이 있으니까.}

10210 # 여 으더기 저기저 매영, 제천닌넨 사람두 이리 장:개 와 거주서넨 우리한테 움:마나 혼난넨지 아러. {여 우덕이 저기 저 매형, 제천 있는 사람도 이리 장가 와 가지고는 우리한테 얼마나 혼났는 지 알아.}

10210 @ 어트개 하셔썬요? {어떻게 하셨어요?}

10210 # 허허허. {허허허.}

10210 @ 어트개 헐는대요. {어떻게 했는데요.}

10210 # 지끔 그런 애:기지유 머: 그양. {지금 그런 애기지 뭐 그냥.}

10210 # 술 먹꾸 그저 장난하너라구 막, 막 그냥 발바닥 그야말루 발빠닥 뚜디리 보구 나중엔 징징 막 우런넨대 머. {술 먹고 그저 장난 하느라고 막, 막 그냥 발바닥 그야말로 발바닥 두드려 보고 나중에는 징징 막 울었는데 뭐.}

10210 #1 그런대 그 발빠당 뚜디리닝개, 그개 야기리여. {그런데 그 발바닥 두드리는 게, 그개 약이래요.}

10210 # 흐흐 약? {흐흐 약?}

10210 #1 이 발빠당이 때리주닝개 조태여, 그개 그개 야기래유. {이 발바닥이 때려 주는 게 좋대요, 그개 그개 약이래요.}

10210 # 야:긴지두 모르구 그저 해넨 시그루다 해대닝거 그거 해닝거지 머 멀:아러 알기는 머. {약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는 식으로 해대는 것 그거 하는 것이지 뭐 뭘 알아 알기는 뭐.}

10210 #1 장나니 시:매서. {장난이 심해서.}

10210 @ 그러면 그 나매 동네에서 오는, 주로 그래지요? 몰르는 사람. {그러면 그 남의 동네에서 오는, 주로 그러지요? 모르는 사람.}

10210 # 네:. {네.}

10210 # 그래유. {그래요.}

10210 @ 그 어트개 해요? {그 어떻게 해요?}

10210 # 머유? {뭐요?}

10210 @ 그랭까 인재 그런 사람 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오면.}

10210 @ 그 실랑 다러 멍는다 그래자나요. {그래 실랑 다구쳐 먹는다 그러잖아요.} #1 아이 인재 자꾸 내이지유, 술 거텅거 이렇 거 머걸 꺼 자꾸 마거이지, 이르케 대조이지. {아이 이제 자꾸 내야지요, 술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것을 자꾸 (줘서) 막아야지, 이렇게 대 줘야지.}

10210 @ 그래닝까. {그러니까.}

10210 # 왜 술 으더 머걸라구 그래닝거유, 술 으더 머걸라구. {왜 술 얻어 먹으려고 그러

는 거예요, 술 얻어 먹으려고.}

10210 #1 장난꾸니. {장난꾸이.}

10210 # 칭구더리 술 으더 머걸라구. {친구들이 술 얻어 먹으려고.}

10210 @ 그래잉까 고거 어트개 하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10210 #1 여태 얘기 해짜너유. {여태 얘기 했잖아요.}

10210 #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10210 @ 발 그냥 발몽만 무꺼요? {발 그냥 발목만 묶어요?}

10210 # 예? {예?}

10210 @ 발몽만 무꺼요? {발목만 묶어요?}

10210 # 아니 그 인재 대강 그래따가 인재 저 그 머여 그래니까 그 처가찌비서 인재 거 그래능거 보구서 인재 머 술쌍이나 머 머글꺼 가따주면 글루 끈나유, 그거 머 따 룡 거 아니여 그 술 으더 멍너라구 술 멍너라구 그래녕 거유 그개. {아니 그제 이제 대강 좀 그랬다가 이제 저 그 뭐야, 그러니까 그 처갓집에서 이제 그 그러는 것을 보고서 이제 뭐 술상이나 뭐 먹을 것 갖다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거 뭐 다른 게 아니야 그 술 얻어 먹는라고 술 먹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개.}

10205 @ 할머니 처으매 시집 오셔쓸때, 시댁 시댁 식꾸들 누구누구 이써써요, 시대애? {할머니 처음에 시집 오셨을 때, 시댁 시댁 식구들 누구누구 있었어요, 시대애?}

10205 #1 끄래닝간 양: 시부몬 시부몬님 시동상덜 그러치유, 시누 하나 이꾸. {그러니까 양 시부모, 시부모님, 시동생들 그렇지요, 시누이 하나 있고.}

10205 @ 시부몬니몬, 시부모니미면. {시부모님은, 시부모님이면.}

10205 #1 시어무니, 시아부니. {시어머님, 시아버님.}

10205 @ 시어머님, 시아버님. {시어머님, 시아버님.}

10205 # 예, 시동생덜 시누 하나. {예, 시동생들 시누이 하나.}

10205 @ 시누 하나 시동생. {시누이 하나 시동생.}

10205 @ 시할아버지나 시할아버지 시할머니는... {시할아버지나 시할아버지 시할머니는...}

10205 #1 모:빠써유, 도러가찌 머 다. {못 봤어요, 돌아가셨지 뭐 다.}

10205 @ 그르구 인재 하라부지 계셧꾸.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계셨고.}

10205 @ 시동상을 머라구 불러써유, 그때? {시동생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때?}

10205 #1 도련님. {도련님.}

10205 @ 도련님? {도련님?}

10205 #1 네. {네.}

10205 #1 자그나씨. {작은아가씨.}

10205 @ 자그나씨. {작은아가씨.}

10205 #1 시누는 자그나씨. {시누이는 작은아가씨.}

10205 @ 그렇까 하라버지 손 아래:를 그르케 불릉거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아래를 그렇게 부른 거죠?}

10205 #1 예. {예.}

10205 @ 그 장가가두 그르케 불러써요? {그 장가 가도 그렇게 불렀어요?}

10205 #1 장개가른 서방님. {장가 가면 서방님.}

10205 @ 장개 가른 서방님. {장가 가면 서방님.}

10205 #1 예. {예.}

10205 @ 그럼 하라번님 손위: 누니든 머라구 불려요? {그럼 할아버님 손위 누님은 뭐라고 불려요?}

10205 #1 시눈니미라 그래지유. {시누님이라고 그러지요.}

10205 @ 시눈님. {시누님.}

10205 # 시아주번님, 시누, 시눈님 그래유. {시아주버님, 시누, 시누님 그래요.}

10205 @ 시눈님. {시누님.}

10205 @ 그래구 하라버지에 형니미면? {그리고 할아버지의 형님이면?}

10205 #1 하라부지:… {할아버지…}

10205 @ 그랜깐 남편내 형니미지요. {그러니까 남편의 형님이지요.}

10205 # 그쵸 그건 시아주버이 시아주버이. {글쵸 그것은 시아주버니, 시아주버니.}

10205 #1 시숙. {시숙.}

10205 @ 시숙. {시숙.}

10205 #1 아주번니미라 그래지. {아주버님이라고 그러지.}

10205 @ 아주번님. {아주버님.}

10205 @ 미태는 시동생? {밑에는 시동생?}

10205 #1 네. {네.}

10205 @ 여자는? {여자는?}

10205 #1 시누니깡 인재 자그나씨라구 시지까기저내. {시누니까 이제 작은아씨라고 시집가기 전에.}

10205 @ 자그나씨. {작은아씨.}

10205 @ 그럼 시누가 할머니한테는 머라구 불려요? {그럼 시누이가 할머니한테는 뭐라고 불려요?}

10205 # 올캐. {올캐.} #1 형니라 그래지, 올캐, 올캐라구. {형님이라고 하지, 올캐, 올캐라고.}

10205 @ 올캐. {올캐.}

10205 #1 예. {예.}

10205 @ 형님, 올캐. {형님, 올캐.}

10205 #1 형니미라래지 머. {형님이라고 하지 뭐.}

10205 @ 그럼 하라버지가 처가찌배 가면 처가찌배 누구누구 이씨요? {그럼 할아버지가 처갓집에 가면 처갓집에 누구누구 있어요?}

10205 # 머 변:장으:른 변:장 병:몬님 처남덜 머 처제 모두 이씨유. {뭐 장인어른 장인 장모님 처남들 뭐 처제 모두 있지요.}

10205 @ 처제 남편는 머라그래요? {처제 남편은 뭐라고 해요?}

10205 # 동서, 처제애 남편는 동서. {동서, 처제의 남편은 동서.}

10205 #1 매제라구두 해구. {매제라고도 하고.}

10205 @ 매제. {매제.}

10205 #1 매제라구두 해구 동서라구두 해구. {매제라고도 하고 동서라고도 하고.}

10205 @ 처제 남편늘? {처제 남편을?}

10205 # 매제라건건 어디 내가 저기저 동설 가주구 매제라그리야. {매제를 어디 내가 저기저 동서를 가지고 매제라고 그래.}

10205 #1 어, 내가 그래녕거지 참. {아, 내가 그러는 거지 참.}

10205 #1 내가 동상에 남편을 내가... {내가 동생의 남편을 내가...}

10205 # 매제가 어디 동서지. {매제가 어디여 동서지.}

10205 #1 어 동서라 해... {아 동서라고 하지...}

10205 @ 그러니까 할머니 동생애 남편. {그러니까 할머니 동생의 남편.}

10205 #1 으: 근 내가 인재 자매 매제라 그래지. {응 그러면 내가 이제 매제라 그러지.}

10205 @ 여동생애 남편? {여동생의 남편?}

10205 #1 어 매제. {어 매제.}

10205 @ 그러면 할머니 할머니 동생애 남편은 동서? {그러면 할머니 할머니 동생의 남편은 동서?}

10205 # 네. {네.}

10205 @ 동서. {동서.}

10205 @ 소위 손아래가 이짜나요. {손위 손아래가 있잖아요.}

10205 # 예:, 손아래나 손우애나 다 동서유, 동서. {네, 손아래나 손위나 다 동서예요, 동서.}

10205 @ 그럼... {그럼...}

10205 # 손아래: 여자넌: 처제구, 손우애넌: 처형이구. {손아래 여자는 처제고, 손위에는 처형이고.}

10205 @ 예.

10205 # 그래구 불르지유. {그렇게 부르지요.}

10205 @ 손우애는 처형 미태는 처제. {손위에는 처형, 밑에는 처제.}

10205 # 예. {예.}

10205 @ 그러면 누나매 남편? {그러면 누님의 남편?}

10205 # 누님 매형. {누님은 매형.}

10205 @ 여동생애 남편은요. {여동생의 남편은요.}

10205 # 여동생 매제. {여동생은 매제.}

10205 @ 매제. {매제.}

10205 @ 위:는 그래잉까. {위는 그러니까.}

10205 # 매형. {매형.}

10205 @ 소위는 매형이구 손아래는 매제구 그러내요? {손위는 매형이고 손아래는 매제고 그러내요?}

10205 # 예:. {예.}

10206 @ 지그믄 누구누구 이씨요? {지금은 누구누구 있어요?}

10206 #1 여기유? {여기요?}

10206 @ 여기 인재 시대개. {여기 이제 시택에.}

10206 #1 아이구 시대개 저기... {아이고 시택에 저기...} # 읍씨유. {없어요.}

10206 #1 사:춘 시숙 한 분 기시구, 사:춘 동선님 함 분 기시구 다: 도러가구. {사춘 시숙 한 분 계시고 사춘 동서님 한 분 계시고, 다 돌아가고.}

10206 @ 다 도러가시구? {다 돌아가시고?}

10206 #1 저: 다냥 두:분 배끼 양 계시유, 그래구 마캥 인재 당질덜 마캥 당질드리유. {저 단양 두 분 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모두 이제 당질들 모두 당질들이요.}

10206 #1 사:추내 모매서 나:씨니까 당질더리지유. {사촌의 몸에서 낳았으니까 당질들이지요.}

10206 @ 오초니내요? {오촌이네요?}

10206 #1 예. {예.}

10206 #1 당질:러덜, 당질 머:마:너유. {당질너들, 당질 뭐 많아요.}

10206 @ 그래잉까 사초내 자식들? {그러니까 사촌의 자식들?}

10206 #1 네 예. {네 예.}

10206 @ 당질. {당질.}

10206 @ 그거 남자하구 여자하구 불르능개 달라요, 당질? {그것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르는 것이 달라요, 당질?}

10206 # 당질여::라 그래구 당지리라 그래구 그래여 되유. {당질너라 그러고 당질이라 그러고 그래야 되요.}

10206 @ 당질 그러면 남자고? {당질 그러면 남자고?}

10206 # 여자. {여자.}

10206 @ 당질러 그러면 여자고? {당질너 그러면 여자고?}

10206 # 야. {예.}

10206 @ 예예:. {예.}

10211 @ 그럼 결혼 하구서어 시논 살림 할때요, 처:매 겨론 하면 신흔 살림 하자나요? {그럼 결혼 하고서 신흔 살림 할 때요, 처음에 결혼 하면 신흔 살림 하잖아요?}

10211 @ 그럼 딸:머:마려나면서 시자캐썬요, 인제 하나씩 하나씩 이르게 준비하면서 살꺼 아네요. {그럼 뭘 뭐 마련하면서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10211 # 머 머라 그래나. {뭐 뭐라 그러나.}

10211 @ 처:으매 저 결혼하구. {처음에 결혼하고.}

10211 # 야. {예.}

10211 @ 시논살림하 하면서 준비항거요. {신흔살림 하면서 준비한 것이요.}

10211 # 준:비구 말구 읍썬유. {준비고 말고 없어요.} #1 가마니 처썬유, 가마니. {가마니 쳤어요, 가마니.}

10211 #1 가마니 처따구. {가마니 쳤다고.}

10211 # 우리넌 가마니 가주, 가마니라구 선상니몬 보구 아시개썬유? {우리는 가마니 가지고, 가마니라고 선생님은 보구 아시겠지요?} #1 옴:나레. {옛날에.}

10211 @ 예. {예.}

10211 # 가마닐 두:시꾸가 새끼 파:서 해가민선 사:백꺽 처썬, 사:백꺽, 한해 꺽우레. {가마니를 두 식구가 새끼를 파서 해 가면서 사백 개를 쳤어, 사백 개, 한 해 겨울에.}

10211 @ 항겨우래요? {한 겨울에요?}

10211 # 야:. {예.}

10211 @ 아이구... {아이고...}

10211 # 바:덜 잠두 모짜요. {밤에 잠도 못 자요.}

10211 # 내가 내가 땀:라무 해러가머넌 혼자 안저 새끼 꼬구, 두:리 밤새두룩. {내가 내가 땀나무 하러 가면 혼자 앉아서 새끼 꼬고, 둘이 밤새도록.}

10211 @ 아까 그 나무가 시보전, 십뽕 머 십삼전 이르게 한다구 그래짜나요? {아까 그 나

무가 십오 전, 십 전 뭐 십삼 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10211 # 야: {예.}

10211 # 그건 열레살버텀 장사헐찌개 그래구. {그리고는 열네 살부터 장사를 할 적에 그러고.}

10211 @ 나무 한지매? {나무 한 짐에?}

10211 # 야아. {예.}

10211 @ 그때 시보저니면 쌀:로 하면 얼마나 돼써요? {그때 십오 전이면 쌀로 하면 얼마나 됐어요?}

10211 # 쌀:루 해머닌 한:되, 한:되두 태 안대써유, 한 되 한 되. {쌀로 하면 한 되, 한 되도 채 안 됐어요, 한 되 한 되.}

10211 # 인제 그 후에는 사:십전 해머닌 한 되릴 해고, 그땐 한 되. {이제 그 후에는 사십전 하먼은 한 되를 하고, 그때는 한 되예요.}

10211 @ 그럼... {그럼...}

10211 # 한 한 되두 안 되써유. {한 한 되도 안 됐어요.}

10211 @ 그럼 하루에 나무 얼마나 할쥬 인는데요? {그럼 하루에 나무 얼마나 할 수 있는 데요?}

10211 # 하 한 짐, 한 버니유. {하 한 짐, 한 번이요.}

10211 @ 하루에 나무 한 짐 해오면... {하루에 나무 한 짐 해 오면...} #1 여기서두 저기 저 어디여, 저 망네이꼬개래넌 데가 이십닌가 삼십닌가 거기 가서 새복밥 해먹꾸 가서 한 짐 해가주 오는대유, 술 술까루 그거 차곡:차곡 해가주구. {여기에서도 저기 저 어디야, 저 망녕이고개라는 데가 이십 리인가 삼십 리인가 거기 가서 새복밥 해 먹고 가서 한 짐 해 가지고 오는데요, 술 술가리 그거 차곡차곡 해 가지고.}

10211 # 술림만 해오대, 빨:간 술림만. {술잎만 해야 돼요, 빨간 술잎만.}

10211 # 그래여지 가따 파러유, 다른 나무넌 안 안 팔리유. {그래야지 갖다 팔아요, 다른 나무는 안 안 팔려요.}

10211 # 빨:간 손님만 해와유. {빨간 술잎만 해 와요.}

10211 #1 하루 열개덜 치면 아루 아러 볼꺼유, 하루 두리 열개를 쳐써유. {하루 열 개를 치면 알아 볼 거예요, 하루 둘이 열 개를 쳤어요.}

10211 @ 가마니? {각마니?}

10211 #1 야. {예.}

10211 #1 그래니 사:람꼬리 되개써유. {그러니 사람풀이 되겠어요.}

10211 #1 아:이구 나 가마이 치능거 친정에서 그쎄 일짱때 억찌루 시키유, 처라구 머 가마이 치라구 서기더리 나와 시키구 그랜대. {아이고 나 가마니 치는 거 친정에서 글쎄 일정 때 억지로 시켜요, 처라고 뭐 가마니 치라고 서기들이 나와서 시키고 그러는데.}

10211 #1 이:거 저기저: 아부지하구 모두 메팔리서 쥬:일 처야 가마이 한짝뚜 간시이 열거 나유. {이 그 저기 저 아버지하고 모두 매달려서 종일 처야 가마니 한 쪽도 간신히 엮어 놓아요.}

10211 #1 그저내는 철찌개 아이구 아이구 난 가마이 모칠쥬 아러떠니 와서 치니까유 매:일 달구 치면 안마즐싸람 읍써. {그전에는 칠 때 아이고 아이고 나는 가마니 못



칠 줄 알았더니 와서 치니까요 매일 달고 치면 안 맞을 사람 없어.}

10211 #1 아이 그러케 해니까 또 따러 해개 되유. {아니 그렇게 하니까 또 따라 하게 돼요.}

10211 #1 아:이고 그래가주 하루 열짜걸 치면 자구 인나서 새보개 불키노쿠 등잔빨 키노쿠, 또 한뼘 치노쿠서는 또 아침 해머꾸 또 치구 이래가주구 하루 바매 치구 어신 새벽 처가주구 비료 까마이 열짜걸 처써유, 열짜. {아이고 그래 가지고 하루 열 쪽을 치면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불 켜 놓고 등잔불 켜 놓고, 또 한 쪽 처 놓고서 또 아침 해 먹고 또 치고 이래 가지고 하루 밤에 치고 이른 새벽 처 가지고 비료 가마니 열 쪽을 쳤어요, 열 쪽.}

10211 #1 그래니 사:라미 전디나요. {그러니 사람이 견뎌내요.}

10211 @ 그거 해서 머:해써요? {그거 해서 뭐 했어요?}

10211 # 파러유, 정부에서 사녕거. {팔아요, 정부에서 사는 것.}

10211 # 여 저 모개 모개서 여기서두 안 사구 모개서 인제 정부에서 사녕개 이써유. {여 저 목계 목계에서 여기에서도 안 사고, 목계에서 이제 정부에서 사는 게 있어요.}

10211 # 거기서 파러요, 그때년 배당얼 해유, 메깨릴 처라 메깨릴 내라, 막 배당얼 해유. {거기에서 팔아요, 그때는 배당을 해요, 몇 개를 처라 몇 개를 내라, 막 배당을 해요.}

10211 # 그이 배당 모태년 사람드두 망코. {그 배당 못 하는 사람들도 많고.}

10211 # 그 여기서 인제 가마이를 이방에서 처가주구서넌 오:일만큼 가따 파넌대, 오일만큼 파넌대 나흘똥아내 사시꼰 처가주구 하루 꾸며 또 꾸매야거렁. {그 여기에서 이제 가마니를 이 방에서 처 가지고서 닷새만큼 갖다 파는데, 닷새만큼 파는데 나흘 동안에 마흔 개를 처 가지고 하루 꿔매 또 꿔매야 하거든.}

10211 # 하루 사:시꼰 꾸며가주구 사:시꼰을 지구선 모꼰 가야지유, 그래가 파러유. {하루 마흔 개를 꿔매 가지고 마흔 개를 지고서 목계를 가야지요, 그렇게 가 팔아요.}

10211 @ 저두 쪼끄말 때 가마니 치능거 받는데요, 여팩서 한번 해보기두 하구. {저도 쪼끄만할 때 가마니 치는 거 봤는데, 옆에서 한 번 해 보기도 하고.}

10211 @ 근데 그:. {그런데 그:}

10211 #1 생강 나실꺼여. {생각 나실 거야.}

10211 @ 예. {예.}

10211 @ 그 찌기 바디라 그래지요, 그개? {그 저기 바디라고 그러지요, 그개?}

10211 # 예. {예.}

10211 @ 거기 저 구멍애다가 새끼줄 쪽 꼬여가주구. {거기 저 구멍애다가 새끼줄 쪽 꼬아 가지고.}

10211 # 예. {예.}

10211 @ 게 이르케 틀 맨드러 가주구 거기다가 줄 거 저 새끼줄 거러서 그거 하자나요? {그게 이렇게 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줄 그 저 새끼줄 걸어서 그거 하잖아요?} # 예, 그러유, 네. {예, 그래요, 네.}

10211 @ 그 이르미 다 다르지요, 이거 줄 하구 이 틀 하구 또 이르케... {그 이름이 다 다르지요, 이거 줄하고 틀하고 또 이렇게...}

10211 # 트리 이꾸 바디가 이꾸 인제 바느... 가마니 바누리 이꾸:. {틀이 있고 바디가 있

고 이제 바느… 가마니 바늘이 있고.}

10211 # 꾸미는 바누리 이꾸 인재 그 또 이르미 달때두 이꾸 머이. {꽤매는 바늘이 있고 이제 그 또 이름이 달대도 있고 뭐.}

10211 @ 달때요? {달대요?}

10211 # 인저 저 새끼털 으—:거털 해가주선 여기 감:넌 거 달때. {이제 저 새끼를 여기털 해 가지고서 여기 감는 것은 달대.}

10211 @ 어디다, 어디 쓰능 건대요? {어디에다, 어디 쓰는 건대요?}

10211 # 그 저 트래다 이래 냉겨가주구. {그 저 틀에다 이렇게 넘겨 가지고.}

10211 @ 예. {예.}

10211 # 여 가느댕거 가주구 이르그 해서 새끼털 그걸 가머애 해자나. {여기 가느다란 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끼를 그것을 감아야 하잖아.} @ 아 미태 이르캐? {아 밑에 이렇게?}

10211 # 야:. {예.}

10211 @ 새끼 무꺼논능거요? {새끼 묶어 놓는 거요?}

10211 # 야. {예.}

10211 @ 그거 달때라구 한다구요? {그것을 달대라고 한다고요?}

10211 # 야:. {예.}

10211 # 그래구 뒤:애 또 이제 켁기녕건 빔짱이라 그래고. {그리고 뒤에 또 이제 켁기는 것은 빔짱이라고 하고.}

10211 @ 예예. {예.}

10211 # \*\* \*\* \*\*\*. {\*\* \*\* \*\*\*.}

10211 @ 저 팽팡하개 이르캐 새끼줄… {저 팽팡하개 이렇게 새끼줄…}

10211 # 네. {예.}

10211 @ 팽팡하개… \*\* \*\* 거. {팽팡하개… \*\* \*\* 것.} # 예:. {예.}

10211 @ 비짱, 그 트리 이꾸 미태 새끼줄 몽능거는 달때구, 그다매. {빔장, 그 틀이 있고 밑에 새끼줄 묶는 것은 달대고, 그 다음에.}

10211 # 바디. {바디.}

10211 @ 바디가 이꾸. {바디가 있고.}

10211 # 인재 바늘. {이제 바늘.}

10211 @ 바누리 이꾸, 뒤에 비짱이 이꾸. {바늘이 있고, 뒤에 빔짱이 있고.}

10211 # 예. {예.}

10211 @ 예예. {예.}

10211 @ 지프루 하능 거자너요, 집뚜 그거 그냥 안 하구 저기… {짚으로 하는 거잔항요, 짚도 그거 그냥 안 하고 저기…}

10211 # 때리… 뚜디려이지유. {때려… 두드려야지유.}

10211 # 두 지펄 이거 다:널 무꺼가주서넌 그: 저: 나무루다가 이 망치 땡매 해 가주구 뚜디리유, 부드러께. {짚을 이거 단을 묶어 가지고서 그 저 나무로 이 망치 딱매 해 가지고 두드려요, 부드럽게.}

10211 @ 망… 뭇 해가주구유? {망… 뭇 해 가지고요?}

10211 # 땡매를 맵기러 가주구. {딱매를 만들어 가지고.}

10211 @ 땡매. {딱매.}

10211 # 해헤헤. {해헤헤.}

10211 # 그걸 뚜디리유. {그것을 두드려요.}

10211 @ 그 저 물 물 추겨가꾸 하지요, 그 저 암 뿌서지개. {그 저 물 물 축여 가지고 하지요, 그 저 안 부서지개.}

10211 # 음 모여:… 말르머년 무럴 추기지만 그러차능 물 안추겨유. {뭐야… 마르면 물을 축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 안 축여요.}

10211 # 그개 사물 다: 이쨌넌대 우리 사:우가 머 꼰똥푸무루다가 가따 준다구 가주가구 모두 그래 가주서넌 호호 안 나머쨌유. {그개 사뭇 다 있었는데 우리 사위가 뭐 골동품으로 갖다 준다고 가지고 가고 뭐 그래 가지고 호호 안 남았어요.}

10211 #1 다: 주서가쨌. {다 주워갔어.}

10211 #1 다디미똥, 박달나무 다디미똥조차 다: 가주강걸, 허허허. {다듬잇돌, 박달나무 다듬잇돌조차 다 가지고 간 걸, 허허허.}

10211 #1 다디미 방패이 머 다: 주서강걸. {다듬이방망이 뭐 다 주워간 걸.}

10211 @ 요새 그러거 안 쨌요? {요새 그런 것 안 쨌요?}

10211 #1 안: 쨌유. {안 쨌요.}

10212 @ 그러면 인제 할머니가 큰 크나들 크나들 크나드리 맨 마지지요, 젤: 크지요, 젤: 위지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큰 큰아들 큰아들 큰아들이 맨 만이지요, 제일 크지요, 제일 위지요?}

10212 @ 크나들 가져쨌 때 그 가져서부터 날 때까지 트키 머 생강나능거 이쨌유, 그때 이쨌똥 이리? {큰아들 가졌을 때 그 가져서부터 날 때까지 특히 뭐 생각나는 것 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이?}

10212 #1 몰:러유, 일: 해는대 정시니 골몰해서 머: 생강나능거뚜 읍쨌유. {몰라요, 일 하는 데 정신이 골몰해서 뭐 생각나는 것도 없어요.}

10212 #1 머꾸 일:만 해쨌니까유. {먹고 일만 했으니까요.}

10212 @ 그때 머 저기 입떠타구 그러셔쨌… {그때 뭐 저기 입땃 하고 그러셨을…}

10212 #1 예, 그러건 이쨌 이쨌유 쪼끄마름. {예, 그런 것은 있어 있어요 조금.}

10212 @ 어떤 어떤는대요. {어떻 어뻤는대요.}

10212 #1 그래니깐 머:똥 음식기 시룽개 이꾸. {그러니까 뭐 어떤 음식이 싫은 게 있고.}

10212 #1 또 뭐, 줌 꼬치장 거튼대다 발가캐 비비머꾸 십끼두 해구. {또 뭐, 줌 고추장 같은 데다 발갥게 비벼 먹고 싶기도 하고.}

10212 #1 이 시구, 머 살구거통 거뚜 머끼 시꾸 이러치유. {이 시고, 뭐 살구같은 것도 먹고 싶고 이렇지요.}

10212 # 그리니까 워낭 머 읍:쨌니까 그냥 그래구 사:니까, 우리능 그러캐 사니까, 머 머꾸 시붕거뚜 몸: 머꾸 머 허허허 그래구 지내쨌유. {그러니까 워낙 뭐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뭐 허허허 그러고 지냈어요.}

10212 @ 하라부지가 줌 저기 마려내주시면, 허허허 먹꾸시픈거 줌 마려해… {할아버지가 줌 저기 마려해 주시면, 허허허 먹고 싶은 것 줌 마려해…}

10212 #1 아이구 그랴 쳐라리 어디쨌유. {아이고 그럴 경황이 어디 있어요.}

10212 @ 입떠타면 어때요, 어떻게 되능거요? {입땃 하면 어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212 #1 그르가 바벌 한동안 몸:먹쨌유. {그러니까 밥을 한동안 못 먹지요.}

10212 @ 예:. {예.}

10212 #1 예:, 바짔 안해서:. {예, 받지를 얹아서.}

10212 #1 그래두 인젠 서너달 너더딸 되면 도러스지유. {그래도 이제 서너 달 네댓 달 되면 돌아서지요.}

10212 # 아이구 해필 니리가주 질: 고생시루께 이러개 사:넌 사라만테 오셔 가주구서넌. {아이고 하필 이래 가지고 제일 고생스럽게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오셔 가지고 서.}

10201 # 머이 여지캐 머:래유, 나 저 크민서넌 그때 나이 지금 기어기 안나넌데, 장:사찌비 아까 얘기했넌데 여기저 머여 거 미실 태동이라넌 사람 관:도 성장한 사람이, 그 지비 그 윤보관이라네 이가 주건넌데. {뭐 여북해 뭘해요, 나 저 크면서 그때 나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장삿집이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저 뭐야 그 미실 태동이라네 사람 간도 성장한 사람이, 그 집에 그 윤보관이라네 이가 죽었는데.}

10201 # 장:사찌비 바번, 아침두 몸머꾸 증:심두 몸머꾸 저녁두, 시:끼 네:끼 몸:머그니까 배가 고프니까 장사찌브루다 바블 으더머그러 간는데. {장삿집이 밥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못 먹고), 세 끼 네 끼 못 먹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장삿집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10201 # 바블 으더머그러 가넌데 조: 우애럴 올라가니까루, 차마 모까개떠라구유, 바블 으더는 모까개써유. {밥을 얻어 먹으러 가는데 저 위예로 올라가니까, 차마 못 가겠더라고요, 밥을 얻어 (먹으려는) 못 가겠어요.}

10201 # 그래 혈:쑤웁씨 되루 니리워서 자구서넌 그 이튼날, 그이 저녁두 몸머꾸 그치언날 두 아침두 몸머거찌, 사문 머글께 업써 굴므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도로 내려와서 자고서 그 이튼날, 그 저녁도 못 먹고 그 이튼날도 아침도 못 먹었지, 사문 먹을 게 없어서 굶으니까.}

10201 # 그래가주 장사찌배를... {그래 가지고 장삿집에를...}

파일 번호 : 03

SCB\_CJ\_03

과 일 내 용: 구술발화 논농사, 밭농사

조 사 자: 박경래(1958년 2월 17일생)

제 보 자: 이종근(李鍾根, 1927년생, 女, 81세 토끼띠, 초등 4년 중퇴, 농업)

보조 제보자: 김성묵(金成默, 1925년 8월 11일생, 男, 83세 소띠, 한글해독, 농업)

전 사 자: 김남정, 박경래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용현 토산부락

조 사 장 소: 제보자의 집

조 사 일 시: 2007년 8월 4일

## 1.7. 질병과 민간 요법

10705 # 겨울게 아:주 이짜 이 귀가, 이가 아퍼유, 그냥. {겨울에 아주 이쪽 이 귀가, 이가

아파요, 그냥.}

10705 # 지금 이 이럴 다: 빼구선 틀리럴 행건대. {지금은 이 이를 다 빼고서 틀니를 한 건데.}

10705 # 아파가주서넌 그이 느그이드라구 가치 화토릴 인재 해구 이런대, 쥘:일 거냥 해야 머 아무거뚜 아니구 거냥 놀기만 헬라구 해넌대. {아파 가지고는 그 늙은이들하고 같이 화투를 이제 하는데, 종일 그냥 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놀기나 하려고 하는데.}

10705 # 이가 아파가주 이래구 이씨니까루 저: 가춘니 이때넌 노이:니, 나부더 나이가 마:는대. {이가 아파 가지고 이려고 있으니까 저기 가춘리 있다는 노인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10705 # 그부니 아이 이가 아파 그래느냐구, 아 이가 이르케 아파서 그러타구. {그 분이 아니 이가 아파서 그러느냐고, 아 이가 이렇게 아파서 그렇다고.}

10705 # 그래머넌 이가 아파거런 이짜개다 해:구 이짜기 아푸른 이짜개다 해구, 소:규를 줌 귀애다 느:라구. {그러면은 이가 아프거든 이쪽에다 하고 이쪽이 아프면 이쪽에다 하고, 석유를 줌 귀애다 넣으라고.}

10705 # 그래니 그래드머뉴. {그러니 그러더구먼요.}

10705 # 그레이니 그래서 내가 갑작씨리 머 소규 그때 아주 소규, 그때 그렐췌 소규가 우:꾸 구이해씨유. {그러니 그래서 내가 갑작스레 뭐 석유 그때 아주 석유, 그때 그럴 때 석유가 없고 귀했어요.}

10705 # 갑작씨리 소규릴 구헬쑤가 인나 그래뜨니, 아 봉 이봉아니래넌 사:라미, 아이 내가 가주오지. {갑작스레 석유를 구할 수가 있나 그랬더니, 아 봉 이봉안이라는 사람이, 아이 내가 가져오지.}

10705 # 아이 쪼처가더니마넌 자기내 지비 가 가선, 저 해... 궁민해꼬 뒤에 저: 인넌대, 가 더이마넌 병애다가 소규를 가주구 숨:하구 가주 와씨유. {아니 쫓아 가더니 자기네 집에 가서는, 저 학... 국민학교 뒤에 저기 있는데, 가더니만 병애다 석유를 가지고 숨하고 가지고 왔어요.}

10705 # 그래서 그나런 쥘:일 거냥 자구서넌. {그래서 그날은 종일 그냥 자고는.}

10705 # 야 자능 자능 개 아이라 와서 창:꾸선 와 가주구 지녀길 명는대루 먹꾸선. {아니 자는 자는 것이 아니라 와서 참고서는 와 가지고 저녁을 먹는 대로 먹고서는.}

10705 # 병:애다가 소:멸 이거 쭈서 느:가주 흙:뺨 적췌 가주 이짜기 아프니까 이짜개다 쥘:구구서넌 이래 두러노:씨씨유. {병애다 숨을 이렇게 쭈서 넣어 가지고 흙뺨 적췌 가지고 이쪽이 아프니까 이쪽에다 끼우고서는 이렇게 드러 누웠었어요.}

10705 # 아 한참 이쓰니까루 머 와글와글 머리 머리통이 그래유. {아 한참 있으니까 뭐 와글와글 머리 머리통이 그래요.}

10705 # 아 왁췌왁췌 해구 그래드니, 아 한참 이쓰니까 머 아:퍼서 전딜 쑤가 업췌 그냥 막 그냥 둘러빠지능거 가터. {아 왁췌왁췌 하고 그러더니, 아 한참 있으니까 뭐 아파서 전딜 수가 없어 그냥 막 그냥 다 둘러빠지는 걸 같아서.}

10705 # 그래 빼:내비리구 흔들구 그래구선 잠 못짜구서넌 시:내 병원으루다가 자구나서 쪼처가씨유. {그래서 빼 내버리고 흔들고 그리고는 잠 못 자고서는 시내 병원으로다가 자고 나서 쫓아갔어요.}

10705 # 거 가서넌 아 이 당채 이 귀가 이러케 아프다구, 그래 그 이사가 이래 보더니마넌

그 금:사 머 기개루 대보구 그래더이 아이 귀털 너무 후벼가주 귀 저기저 고마기 다: 터져따구 읊따구. {거기 가서는 아 이 당최 이 귀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 그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만 그 검사 뭐 기계로 대보고 그러더니, 아 귀를 너무 후벼서 귀 저기 저 고막이 다 터졌다고 없다고.}

10705 # 아 그래유. 그래니 이게 알지두 모태구 확씨라게 모르넌 그러케 얘기해따구 참 머 여 소금 느:라 그래따구 그 애길 헬 쭈가 업꺼령. {아 그래요. 그러니 이게 알지도 못하고 확실하게 모르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참 뭐야 석유를 넣으라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10705 # 그 머야 암만 머 노인 아니라 아무거래두 잘모다니여 그냥. {뭐야 아무리 뭐 노인 아니라 아무것이라도 잘못 아니야 그냥.}

10705 # 그래서 그 애:기두 모태구 그냥 치를 바더, 그 후루다가 이년 아나프구 뿌서지넌 대 이가 뿌서지구 아나폰대 귀가 안들리여. {그래서 그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로 이는 안 아프고 부서지는데 이가 부서지고 안 아픈데 귀가 안 들려.}

10705 # 귀가 머여 고마기 터:저따구 그러드이. {귀가 뭐야 고막이 터졌다고 그러더니.}

10705 # 그래 가주구 하두 아프구 인재 그래다가 인재 고만 나:중예, 이년 그길루 아나퍼 씨유, 다 빠:지구 인재 그러키 된넌대. {그래 가지고 하도 아프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만 나중예, 이는 그길로 안 아팠어요, 다 빠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10705 # 그래 가주 인재 귀가 이거 안 들끼구 그래 가주구 이거 우땡가 검:사릴 해러 가 검:사릴 해떠니, 머 안 들린다구 삼급 장애이느루다가, 지금 허허허허 그르케 나오구... {그래 가지고 이제 귀가 이거 안 들리고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떤가 검사를 하러 가서 검사를 했더니, 뭐 안 들린다고 삼급 장애인으로다가, 지금 허허허허 그렇게 나오구...}

10705 # 그래 가주 귀를... 저: 든녕거릴 잘 모뜨러유, 그: 잘모태가주서넌. {그래 가지고 귀를... 저 듣는 것을 잘 못 들어요, 그렇게 잘못 해 가지고는.}

10705 # 그래 그다매 만내 가주서넌 그 노이늘 만나가주구 만낸는데, 아이구 그때 잘모태 따구. {그래 그 다음에 만나 가지고서는 그 노인을 만나 가지고 만났는데, 아이고 그때 잘못 했다고.}

10705 # 거냥 뭇루다 쪼:끔 쪼:끔 쪼:끔만 느:라구 이르케 애:기 헬건대 그 소릴 안 해가 주서넌 너머 마이 느:가주서 크:일란다구, 허허허 그르자너유. {그냥 무엇으로 조금 찍어서 조금만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소리를 안 해 가지고는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큰일 난다고, 허허허 그러잖아요.}

### 1.3. 생업활동

10307 @ 예, 어제 논농사 얘기 해짜너요? {예, 어제 논농사 얘기 했잖아요?}

10307 # 예:. {예.}

10307 @ 오느른 반농사 얘기 하께요. {오늘은 밭농사 얘기 할게요.}

10307 # 예:. {예.}

10307 @ 반농사:는 어떤 어떤 건뜨를... 곡썩뜨리 이써요? {밭농사는 어떤 어떤 것들을...

곡식들이 있어요?}

10307 # 지끄먼 쥐 몰르지만 그저내년 주로 이 명녕거시 주로: 음 음시니까루 밀:, 버리, 콩:, 팔 모두 주로 그렇거지유 며. {지금은 모르지만 그전에는 주로 이 먹는 것이 주로 없 없으니까 밀, 보리, 콩, 팔 모두 주로 그런 것이지요 뭐.}

10307 # 그 깨 심:꾸 며 이래구. {그 깨 심고 뭐 이려고.}

10307 # 지끄먼 특수작무럴 마캉 돈: 헬라구 고추 며 오이: 말캉 돈 나오능거만 해지마넌 그저넌 만날 명녕거배끼 모르니까 그러케 해찌유. {지금은 특수작물을 모두 돈을 마련하려고 고추 뭐 오이, 모두 돈 나오는 것만 하지만 그전에는 만날 먹는 것 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요.}

10307 # 근대 지끄먼 모두 참 선생님더리 박싼님드리 으-ㄴ:구해서 종자구: 해넌 농사방 시기구 그러치만. {그런데 지금은 모두 참 선생님들이 박사님들이 연구해서 종자 고 하는 농사 방식이고 그렇지만.}

10307 # 그때에넌 농사릴 며 누가 우트케 해능 거뚜 모르구 종자두 그전 종자 그대루, 고 추두 그냥 지비서 해:가주구선 씨릴 바더가주 그 씨루 가따 거냥 바태다 거냥 뿌 리구, 지끔 애더런 참 그렇건 생각 모텔꺼여. {그때는 농사를 뭐 누가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종자도 그 전 종자 그대로, 고추도 그냥 집에서 해 가지고서 씨 를 받아 가지고 그 씨를 갖다 그냥 밭에다 그냥 뿌리구, 지금 애들은 참 그런 것 은 생각 못 할 거야.}

10307 # 지그매더런 그 꼬추씨를 바더가주구서넌 호개다 가따 뿌려가주 그거 나머넌 그거 길러 가주서넌 머여 따구 이래넌 그래넌건 그건 저넌 보지두 모태구 애기두 모뜨 러쓰려유 그래 그러케 해구. {지금 애들은 그 꼬추씨를 받아 가지고는 흙에다 갖 다 뿌려 가지고 그게 나면 그것을 길러 가지고서 뭐야 따고 이렇게 그런 것은 전 혀 보지도 못하고 애기도 못 들었을 거요 그래 그렇게 하고.}

10307 # 인저 콩:하구 며 팔 밀 버리 이 그거루다 주로 인재 명넌 싱냥이지유. {이제 콩하 고 뭐 팔 밀 보리 이 그것으로 주로 이제 먹는 식량이지요.}

10307 @ 그 저기두 이짜나요, 쪼끄망 거, 노:랑 거. {그 저기도 있잖아요, 조그만 것, 노란 것.}

10307 # 녹뚜유. {녹두요.}

10307 @ 아이 더 쪼끄망 거 아주 잔자:낭 거. {아니 더 작은 것 아주 잔잔한 것.}

10307 @ 줍 줍쌀, 저:기 하능 거요. {줍 줍쌀, 저기에 하는 거요.}

10307 # 며 조 조유? {뭐 조 조요?}

10307 @ 예. {예.}

10307 # 조:. {조.}

10307 @ 예. {예.}

10307 # 예:. {예.}

10307 # 조넌 건 보매 심:찌유, 보매. {조는 그것은 봄에 심지요, 봄에.}

10307 @ 근 보매 심꾸... {그것은 봄에 심고...}

10307 # 예. {예.}

10307 # 그거두 다: 그때넌 씨 이 종자 거냥 지비서 해 가주서넌, 이래 해: 매다러나따 뿌 서 가주서너 그 씨루다 가따 뿌리유. {그것도 다 그때는 씨 이 종자 그냥 집에서 해 가지고는, 이렇게 해 매달아 놓았다가 바쉬 가지고는 그 씨로 갖다 뿌려요.}

10307 # 지끄면 말캉 그냥 여 선생님들 으느구해 가주서넌 종자두 개량해구 또 해넌 방식뚜 마:캉 기개루다 해구 모: 소도캐구 퇴:비해구 이러캐 다: 해지만. {지금은 모두 그냥 그 선생님들 연구해 가지고 종자도 개량하고 또 하는 방식도 모두 기계로 하고 뭐 소독하고 퇴비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

10307 # 그땐 말캉 거냥 그 종자루다 그기그 되넌대루다 그러캐 행거지유 머, 게 수화기 읍:씨유. {그때는 모두 그냥 그 종자로 그게 그 되는데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 수확이 없지요.}

10307 @ 네. {예.}

10307 # 수화기 읍:씨유. {수확이 없어요.}

10307 @ 그거 저기 땀:때는 어뜨게 매요? {그거 저기 땀 때는 어떻게 매요?}

10307 # 호미루다 거냥 매유, 푸리 이르캐 이썸두 호미루다 거냥 매유. {호미로 그냥 매요, 풀 이렇게 있어도 호리미 그냥 매요.}

10307 # 머 제초제 이렇거 읍씨니까. {뭐 제초제 이런 것 없으니까.}

10307 @ 그거뚜 이꾸 저기두 이짜너요, 비짜루 매능 거. {그것도 있고 저기도 있잖아요, 빗자루 매는 것.}

10307 # 예? 비짜루 매능 거유? {예? 빗자루 매는 거요?}

10307 @ 예. {예.}

10307 # 예, 수수유. {예, 수수요.}

10307 # 수수라 그래유. {수수라 그래요.}

10307 @ 그거뚜 종류가 이찌요? {그것도 종류가 있지요?}

10307 # 네. {예.}

10307 @ 빨강거뚜 이꾸. {빨간 것도 있고.}

10307 # 예:, 하양거뚜 이꾸, 그기 장목수수라 그라구 이제 거냥 메수수라구 이제 그라구, 수수두 그 종자가 예 장목수수하구 이 한 메:까지 되유 그거뚜. {예, 하얀 것도 있고, 그게 장목수수라 그러고 이제 그냥 메수수라고 이제 그러고, 수수도 그 종자가 예 장목수수하고 이 한 몇 가지 돼요 그것도.}

10307 @ 머머 이씨요, 장목쭈수하구? {뭐 뭐 있어요, 장목수수하구?}

10307 # 인재 저: 몽타캔 그게 저 머라 그러까 이르미, 그런거뚜 이꾸 인재 커서 꾸 꾸부러지닝 건 수수두 이꾸. {이제 저 몽탁한 그거 저 뭐라고 그럴까 이름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커서 구 꾸부러지는 것 수수도 있고.}

10307 @ 꾸부러지닝 건 이르미 머요? {꾸부러지는 것은 이름이 뭐예요?}

10307 # 그게 거냥... {그게 그냥...}

10307 # 거냥 우리넌 그냥 그저내 수수라구 그냥 불러씨유 머. {그냥 우리네는 그냥 그전에 수수라고 그냥 불렀지요 머.}

10307 # 그래구 인재: 명넌 걸 주루 해기때매 미리 또 호미리라구 밀 호밀 키카 크구 그랭 거 그렇거뚜 이제 해구. {그리고 이제 먹는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밀이 또 호밀이라고 밀, 호밀, 키가 크고 그런 것 그런 것도 이제 하고.}

10307 @ 또 감 감자, 감자두? {또 감 감자, 감자도?}

10307 # 예. {예.}

10307 # 감자는 보매 지끔두 심:짜너유. {감자는 봄에 지금도 심잖아요.}

10307 @ 그거뚜 저 꼬치 머 하양거뚜 이꾸 줌... {그것도 저 꽃이 뭐 하얀 것도 있고



좀...}

10307 # 예:, 지끄먼 종자라 개량이 되:가주 마캥 이거 똥구러쿠 그런데 그저내넌 버리감 자라구 해서 보매 나가주구 찌:다캐서 뽕그스름 행개 이꾸유, 또 누니 쑥쑥 뜨러 가서 자주감자라구 그거뚜 이꾸, 감자두 그저내두 세:가지 네:가지 되유 그거. {예, 지금은 종자 개량이 되어 가지고 모두 그거 둥그렇고 그런데 그전에는 보리 감자라고 해서 봄에 나 가지고 기다란 것이 불그스름 한 것이 있고요, 또 눈이 쑥쑥 들어가서 자주감자라고 그것도 있고, 감자도 그전에도 세 가지 네 가지 돼 요 그제.}

10307 # 머 능금감주라구 하넝거 뽕:경거, 이르게 콩::거뚜 이꾸. {뽕 능금감자라고 하는 거 뽕진 것, 이렇게 큰 것도 있고.}

10307 # 그거 겨냥 지끄먼 머 시대가 벼개서 마캥 싸걸 티워 가주구 노쿠 또 비니루 씨우 구 그래지만 그때넌 더퍼노구 그냥 땅 파가주 그냥 종 종자가따 는넝거지유. {그 거 그냥 지금은 뽕 시대가 변해서 모두 싹을 틔워 가지고 놓고 또 비닐 씌우고 그러지만 그때는 덮어 놓고 그냥 땅 파 가지고 그냥 종자를 넣는 것이지요.}

10307 # 그 수화기 읊:찌유 머. {그(러니) 수확이 없지요 뽕.}

10308 @ 그러먼 그 콩 이짜나요? {그러먼 그 콩 있잖아요?}

10308 # 예. {예.}

10308 @ 그 인제 시저래 마춰서 농사두 해야 되자나요, 반농사두. {그 이제 시절에 맞춰서 농사도 해야 되잖아요, 밭농사도.}

10308 # 예? {예?}

10308 @ 그 시저래 마춰서 {그 시절에 맞춰서}

10308 # 예. {예}

10308 @ 밭농사를 지짜너요? {밭농사를 짓잖아요?}

10308 # 예:. {예.}

10308 @ 그럼 인제 고: 언제 씨를 심꾸:, 씨는 어트캐 심꾸:, 푸른 어트캐 뽕꾸:, 또 머 속 끼두 하구 이래야 되자너요? {그럼 이제 그 언제 씨를 심고, 씨는 어떻게 심고, 풀은 어떻게 뽑고, 또 뽕 숨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10308 # 속꾸넝거넌 그때, 인제 그 심:넝거넌 대:개 콩얼 그저내넌 버리나 밀얼 싱:꾸선 그 소:개다 시머유, 그소개, 그래 인제 보매 심:찌유, 보매 시머 호미루다가 싱:꾸, 호미루다 인제 소느루다 해서 호미루다 이르게 골:러나가머 싱:꾸. {숨는 것은 그때, 이제 그 심는 것은 대개 콩을 그전에는 보리나 밀을 심고서 그 속에다 심어요, 그 속에, 그래 이제 봄에 심지요, 봄에 심어 호미로 심고, 호미로 이제 손으로 해서 호미로 이렇게 골라 나가머 심고.}

10308 # 푸리 나머넌 안저서 그 호미루다 그걸 매:유 콩얼. {풀이 나면 앉아서 그 호미로 그것을 매요 콩을.}

10308 # 그래구 머 다른 손질해넝거 우:꾸, 씨두 안소꾸구 겨냥 나면 나넌대루, 또 크면 크넌대루 그대루 이러캐 그저넌 수화걸 해:찌유 머. {그리고는 뽕 다른 손질 하는 것 없고, 씨도 안 숨고 그냥 나면 나는 대로, 또 크면 크는 대로 그리고 이렇게 그전에는 수확을 했지요 뽕.}

10308 @ 그 사 사이에 심:능거지요, 고 고:래? {그 사 사이에 심는 것이죠, 고 골에?}

10308 # 예 예:. {예 예.}

10310 @ 버리는 어트개 해썬요? {보리는 어떻게 했어요?}

10310 # 예? {예?}

10310 @ 버리는 어트개 시머요? {보리는 어떻게 심어요?}

10310 # 버리넨 고:렐 키 가주구선 소 소루다가 이: 가려서 고:렐 키구선 고:레다가 씨렐 뿌리구 흐 저 머여 고물개래넨거 그그 그걸루다가 그냥 더퍼유 기냥. {보리는 골을 켜 가지고 소 소로 이 갈아서 쿨을 켜고서 골에다가 씨를 뿌리고 흙 저 뭐야 고무래라는 그그 그것으로 그냥 덮어요 그냥.}

10310 # 더프면, 예 더프면 그저 그기 또 나오자너유, 나와유. {덮으면, 예 덮으면 그저 그것이 또 나오잖아요, 나와요.}

10308 @ 그러면 저기 조:는? [그러면 저기 조는?]

10308 # 예? {예?}

10308 @ 조요. {조요.}

10308 # 조유? {조요?}

10308 @ 예, 조를 스수기라구두 해요? {예, 조를 수숙이라고도 해요?}

10308 # 그거 조렐 가따 스:스기래넨 말두 그르개 이르미 이꾸, 조두 인재 찰조가 이꾸 메조가 이꾸 이런데, 차조래넨건 이사기 그 이사기 거므민서넨 차지지유 엄청. {그조를 가지고 수숙이라는 말도 그렇게 이름이 있고, 조도 이제 차조가 있고 메조가 있고 이런데, 차조라는 것은 이삭이 그 이삭이 검으면서 차지지유 엄청.}

10308 # 예 그렇거 이꾸 인재 메:조가 인넨대 주로 싱냥얼 해너라구 메조렐 마니 하구, 차조넨 그 인재 모 떠기나 좀 해머걸라구 그래가주구 조금씩 해구 그래넨대 그거뚜다 소느루다 거냥 씨렐 뿌려서 시머유. {예 그런 것 있고 이제 메조가 있는데 주로 식량을 하느라고 메조를 많이 하고, 차조는 그 이제 뭐 떡이나 좀 해 먹으려고 그래 가지고 조금씩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손으로 그냥 씨를 뿌려서 심어요.}

10310 @ 금 받 가:려야 되자너요? {그럼 밭 갈아야 되잖아요?}

10310 # 예. 가려이지유, 가:넨건 다: 가려이지. {예. 갈아야지요, 가는 것은 다 갈아야지요.}

10310 @ 그 어트개 골:려요, 그렇거? {그 어떻게 골라요, 그런 것?}

10310 # 고르넨건 저 머여 고물개라구 나무루다 이러케 맹깁거, 그걸루다가 인재 소루다 두러걸 맹길면 그걸루다가 고 골:르지유 퍼:나게. {고르는 것은 이 뭐야 고무래라고 나무로 이렇게 만든 것, 그것으로 이제 소로 두둑을 만들면 그것으로 고 고르지요 판하게.}

10310 @ 그 고물개는 어트개 생겨썬요? {그 고무래는 어떻게 생겼어요?}

10310 # 송파넨 이러케 송파넨 이러케 넙쭈깁거 이썬면 여 구녀글 툇러가주 작때기, 자루 이러케 소느루 쥐넨 작때, 자루렐 고기다가 바거가주구 그래 맹기넨거지유. {송판을 이렇게 송판을 이렇게 넓죽한 거 있으면 여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작대기, 자루 이렇게 손으로 쥐는 작대기, 자루를 고기에다 박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10310 @ 넙썬카개 항거요? {넙적하게 한 거요?}

10310 # 예. {예.}

10310 @ 예. {예.}

10315 @ 그러면 저기 감자는뇨? {그러면 저기 감자는요?}

10315 # 감자넌 그 머여 고:털 키구선 거냥 나가민선 이 이르니까 종자털 칼루다가 인제 오려가주구선 나가민서 노쿠 그냥 퇴:비 뿌리구선 거냥 흐그루 덩찌유. {감자는 그 뭐야 꼴을 켜고 그냥 나가면서 이 이르니까 종자를 칼로 이제 오려 가지고 나가면서 놓고 그냥 퇴비 뿌리고 그냥 흙으로 덮지요.}

10315 @ 칼로 왜 오려요? {칼로 왜 오려요?}

10315 # 그 누넌 감자눈 그 지끔두 그 눈 오리지만 감자 누니 하나쌍만 올라와야 하거렁. {그 눈을 감자눈 그 지금도 그 눈 오리지만 감자 눈이 하나씩만 올라와야 하거든.}

10315 # 그이 하나 왕:거 하날 노머넌 싸기 마이 나구 또 종자두 마이 드러가구 그래니까 루 쫘 눈 하나씩 오리느라구 칼루다 오리지유, 그 감자 누넌. {그 하나 온 것을 하나를 놓으면 싹이 많이 나고 또 종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쫘 눈 하나씩 오리느라고 칼로 오리지유, 그 감자 눈을.}

10315 @ 꼬추는 어트개 시머요? {고추는 어떻게 심어요?}

10315 # 고추넌 갠차너유? 애기해두? {고추는... 꽤찮아요, 애기해도?}

10315 # 고추넌 지끔두, 지끄먼 이 저 개량시그루다 참 이러캐 해지만 그저넌 고추두 종자털 바다가주 뿌려유, 그저내넌. {고추는 지금도, 지금은 이 저 개량식으로 참 이렇게 하지만 그전에는 고추도 종자를 받아 가지고 뿌려유, 그전에는.}

10315 # 이 소느루다 뿌려 가주구 인제 그거, 예 나 땅에서 호개서 나머넌 그걸 인제 씨럴 세워가민선 죄: 뽑꾸서넌 씨만 될 만침 간겨걸 마쳐서 세:우구선 다 뽀버 내버리지유. {이 손으로 뿌려 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나 땅에서 흙에서 나면 그것을 이제 씨를 세워 가면서 죄다 뽑고서 씨만 될 만큼 간격을 맞춰서 세우고 다 뽑아 내버리지요.}

10315 @ 요새는 그르캐 안하지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지요?}

10315 # 요샌 안 해지유, 요샌 전부가 과학이구 머이 발달되 가주구 뭐: 하우스 소개다가 포:투 해 가주구, 포:투 인제 그 질러서 퇴:비해가 질러가주 그걸 가따 심꾸 그래지만, 그때넌 그르캐 해 가주구 잘되넌 사라민 잘되구, 머 요만:침 크머넌 그저 자기 재:간 모두 명넌 나 명녕거만 생가캐니까 그때넌 머 그르캐 해찌유. {요새는 안 하지요, 요새는 전부가 과학이고 뭐 발달되어 가지고 뭐 (비닐)하우스 속에다가 포트 해 가지고, 포트 이제 그 질러서 퇴비 해 가지고 질러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심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뭐 요만큼 크면 그저 자기 자우간 모두 먹는 나 먹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했지요.}

10315 @ 마 마느른? {마 마늘은?}

10315 # 네, 마누런 쪼개서매 그거뚜 마창가지유, 근 재 두러걸 가러가주구 골:러 두러걸 매길구서넌 마누런 거냥 가따가 소느루 꾸:쑤 꼬버유 그냥 건 두러그루. {네, 마늘은 쪼개서 그것도 마창가지예요, 그것은 이제 두둑을 갈아 가지고 골라 두둑을 만들고서 마늘은 그냥 갖다가 손으로 푹푹 뽑아요 그냥 그것은 두둑에다.}

10315 # 지끄먼 비니루 아니면 머 농사 모찌니까, 비니루 지끄서면. {지금은 비닐 아니면 뭐 농사 못 지으니까, 비닐 \*\*\*\*.}

10315 @ 아까 고물개가 이거요? {아까 고무래가 이거예요?}

10315 # 예 예. {예 예.}

10309 @ 버리:두 종류가 이짜너요? {보리도 종류가 있잖아요?}

10309 # 예, 종류가 이써유. {예, 종류가 있어요.}

10309 @ 어떤 게 이써요? {어떤 것이 있어요?}

10309 # 그때 말:루다가 그 머 조선빠리라 그래유. {그때 말로 그 뭐 조선보리라고 그래요.}

10309 # 조선빠리라닝거넌 쉬어미 아주 지:드라캐 올라와유, 지:드라캐 올라오구. {조선보리라는 것은 수염이 아주 기다랗게 올라와요, 기다랗게 올라오고.}

10309 # 또 머 왜버리라닝거 씨가 저 머여 쉬어미 찰꾸 이사기 국:꾸 그런대, 조선빠리라닝 거넌 그 수하길 해가주구 방아릴 머야 찌어가주 바벌 해먼 아주 차지구 마시조코, 또 왜버리랑 건 메저유, 그래가주서넌 그 수황 마:닝걸루 해너라구 자꾸 왜버리라구 인재 해닝거 그걸루다가 인재 마니 해써찌유. {또 뭐 왜보리라는 것은 씨가 저 뭐야 수염이 짧고 이삭이 굵고 그런데, 조선보리라는 것은 그 수확을 해가지고 방아를 뭐야 찌어 가지고 밥을 하면 아주 차지고 맛이 좋고, 또 왜보리라는 것은 메저요, 그래 가지고 그 수확 많은 것으로 하느라고 자꾸 왜보리라고 이제 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많이 했었지요.}

10309 # 야 이건 조선빠리라구. {예 이게 조선보리라고.}

10309 @ 이기 조선빠리예요? {이게 조선보리예요?}

10309 # 예:. {예.}

10309 @ 수염 길:구. {수염 길고.}

10309 @ 근대 버리에두 머 겹빠리, 쌀버리 이렇거 이써요? {그런데 보리에도 뭐 겹보리, 쌀보리 이런 것 있어요?}

10309 # 예:, 그거 이써유. {예, 그거 있어요.}

10309 # 겹빠리라닝 거넌 머여 저러캐 땡거 저거 겹빠리구. {겹보리라는 것은 뭐야 저렇게 된 것 저게 겹보리고.}

10309 # 쌀버리라닝 거넌 털:머넌 그: 꺼푸리 읍:씨 그 알매이만 나와유, 그래능거 인재 쌀버리구. {쌀보리라는 것은 털면 그 껍질이 없이 그냥 알맹이만 나와요, 그러는 것이 이제 쌀보리고.}

10309 @ 또 보매 심능거뚜 이꾸 가:래 심능거뚜 이짜나요? {또 봄에 심는 것도 있고 가을에 심는 것도 있잖아요?}

10309 # 예, 봄버리가 이꾸 인재 갈:버리가 인넌대, 보매 심능거뚜 또 머: 저: 생긴 모양언 머: 봄버리두 보매 가러두 갈:버리 턱 마창가지 되닝거 되기두 해구 그래유. {예, 봄보리가 있고 이제 가을보리가 있는데, 봄에 심는 것도 또 뭐 저 생긴 모양은 뭐 봄보리도 봄에 갈아도 가을보리 턱 마창가지(가) 되는 거 되기도 하고 그래요.}

10309 @ 그 종류가 다름건가요? {그 종류가 다른 것인가요?}

10309 # 예, 달라유. {예, 달라요.}

10309 @ 갈:버리를 보매 시르면 안 되능거요 그럼? {가을보리를 봄에 심으면 안 되는 거 예요 그럼?}

10309 # 안 되지유, 그건 안 되유.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돼요.}

10309 @ 그럼 범버리 가:을개 시르면. {그럼 봄보리를 가을에 심으면.}

10309 # 그건 월래 심:쩔 아느니까 머 되넌지 안 되넌지 모르지유 머. {그것은 원래 심지를 얹으니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요 뭐.}

10310 @ 밀롱사는 어트개 지어요? {밀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10310 # 예? {예.}

10310 @ 밀롱사. {밀농사.}

10310 # 미리유? {밀이요?}

10310 @ 예. {예.}

10310 # 그거뚜 버리하구 또까치 농살 해유 그냥, 가러 소루다 가러 가주구 골: 맹기러가 주구 거냥 거따 씨 뿌리구 더꾸. {그것도 보리하고 똑같이 농사를 지어요 그냥, 갈아 소로 갈아 가지고 골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에다 씨를 뿌리고 덮고.}

10310 @ 고:레다 뿌려요? 그... {골에다 뿌려요? 그...}

10310 # 고:레다 뿌리유 그건. {골에다 뿌려요 그것은.}

10310 @ 그거 이르케 갈:면뇨, 이리:케 갈면 요리:케 올라오구 쏙 드러가구 그르자너요 가... {그거 이렇게 갈면요, 이렇게 갈면 요렇게 올라오고 쏙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10310 # 그르칠 안치유 인재, 갈:찌개넌 거냥 이 땅얼 바설 삭 까너라구 갈:구선, 함 번 갈:구선 그다매넌 그 고:렐 맹기너라구 또 재:벌 또 이 댕 고:렐 맹길지유 고 타 민서넌, 그러캐유. {그렇지 않지요 이제, 갈 때는 그냥 이 땅을 받을 삭 가느라고 갈고서, 한 번 갈고서 그 다음에는 그 골을 만드느라고 또 두벌 또 이 골을 만드지요 그 타면서, 그렇게 해요.}

10310 @ 그러면 골: 이 밭 저기 환 바다개다가 가:능건가요? {그러면 골 이 밭 저기 환 바닥에다 가는 것인가요?}

10310 # 네. {예.}

10310 # 우무카개 패인 데다가 씨 씨 예 씨 씨릴 그냥 뿌리면 나가유. {우묵하게 패인 데에다 씨 씨 씨 씨를 그냥 뿌리면서 나가요.}

10310 @ 그거 보면 밭 보면 이르케 돼 이짜너요, 이리:케 간: 데가 이르케 저 고:리자너요? {그거 보면 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간 데가 이렇게 저 골이잖아요?}

10310 # 예. {예.}

10310 @ 호기 이르케 노픈대두 이짜너요? {흙이 이렇게 높은 데도 있잖아요?}

10310 # 예. {예.}

10310 @ 여긴 머라 그래구, 여긴 머라 그래요? {여기는 뭐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10310 # 이진 고:리구, 이거 뚜기구. {이것은 골이고, 이것은 두둑이고.}

10310 @ 아 이 위에는? {아 이 위에는?}

10310 # 독:. {두둑.}

10310 # 인재 이걸루 더퍼여 해니까. {이제 이것으로 덮어야 하니까.}

10310 @ 아 두개 인는 흐그루? {아 두둑에 있는 흙으로?}

10310 # 예. {예.}

10310 @ 고:를 덮는다구요? {골을 덮는다고요?}

10310 # 예. {예.}

10310 @ 그럼 요건 요건 바꼬리라 그래유, 바꼐? {그럼 요것은 요것은 밭꼐이라고 해요, 밭꼐?}

10310 # 예 예, 바꼬리라구. {예 예, 밭꼐이라고.}

10310 @ 요건 받뚜둑, 받뚝? {요것은 받뚜둑, 받뚝?}

10310 # 예. {예.}

10310 @ 받뚜카구 받뚜두기 달릉 거예요? {받뚝하고 받뚜둑하고 다른 거예요?}

10310 # 머어: 땅애 하닝건 마창가지 그러치만, 멍기러서 그거릴 종자릴 뿌리구 덩꾸 인채 그렐레이까 그러클 멍길지유. {뭐 땅애 하는 것은 마창가지로 그렇지만, 만들어서 그것을 종자를 뿌리고 덮고 이제 그러려니까 그런 것을 만들지요.}

10310 @ 받뚜카구 받뚜두카구 가통거예요 다릉거예요? 받뚜카구 받뚜두기요. {받뚝하고 받뚜둑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받뚝하고 받뚜둑이요.}

10310 # 땅이유? {땅이요?}

10310 @ 예. {예.}

10310 # 머:가유? {뭐가요?}

10310 @ 여기 저 바태:. {여기 저 밭애}

10310 # 예. {예.}

10310 @ 두두기 이짜나요.{두둑이 있잖아요}

10310 # 예. {예.}

10310 @ 그 두두카고 받뚜카고. {그 두둑하고 받뚝하고.}

10310 # 다: 가통거지유. {다 같은 것이지요.}

10310 @ 가통거지유. {같은 것이지요.}

10310 # 예. {예.}

10310 @ 받 반니랑이라구두 해요, 받 고랑이라거나? {밭 밭이랑이라고도 해요, 밭 고랑이라거나?}

10310 # 그걸 그 이르미 어디던지 이르미 변:되서매, 여기는 바꼬랑이라 그래구 머 두러기가 그래는데 또 이랑이라 그래는 데두 이꾸, 머 여 이르미 그 여러 가지유 허허. {그것을 그 이름이 어디든지 이름이 변해서, 여기는 밭고랑이라 그러고 뭐 두럭이라 그러는데 또 이랑이라 그러는 데도 있고, 뭐 그 이름이 그 여러가지예요 허허.}

10310 @ 머:를 이랑이라 그래요? {뭐를 이랑이라고 그래요?}

10310 # 예? 이 저 두럭 멍강걸 이랑이라 그래지유. {예? 이 저 두둑 만든 것을 이랑이라고 그러지유.}

10310 @ 그거 두럭 요 요 두렁만? 요거 요거. {그거 두둑 요 요 두둑만? 요것 요것.}

10310 # 아이 그 전체릴. {아이 그 전체를} @ 요거하구 요거를... {요것하고 요것을...}

10310 # 전체릴 그르케 얘길 해유 그냥.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10310 @ 전체를? {전체를.}

10310 # 예. {예.}

10310 @ 그러면 이개 바치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를 이랑이라구 한다구요? {그러면 이개 밭이면 이것 이것 이것 이것 모두를 이랑이라고 한다고요?}

10310 # 예, 으 저 멍기런 두: 꼐. {예, 저 만든 두 꼐.(두둑과 고랑 각각을 모두 꼐이라고 함. 따라서 두 꼐이 한 이랑.)}

10310 @ 그저내는 저기 버리 시르면 보매: 가서 밭버짜나요? {그전에는 저기 보리 심으면 봄에 다 가서 밭았잖아요?}

10310 # 거 밤:넌대녕 거넌 겨울개 어려주글까봐서 인재 사, 죽찌 말라구 그거 밤:넌대, 그 거넌 다: 말: 해자머넌 월래 그러캐면 조타구 해니까 얘가지, 형식찌기 누가 그거 털 무슨 수루 땡기민서 밭 밭버유, 그냥 내비나두지. {그 밭는다는 것은 겨울에 얼어 죽을까 봐 이제 사, 죽지 말라고 그거 밭는데, 그것은 다 말하자면 원래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니까 얘가지, 현실적으로 누가 그것을 무슨 수로 다니면서 밭아요, 그냥 내버려두지.}

10310 # 갈, 아 버릴 가려두 머 쪼:끔 가려유, 머 엄:청나개 마:니 가녕걸 먹꾸 살라구 마:니 가녕걸 그걸 바:끼넌 무튼 수루 다 밭버유, 암밭버 바써유. {갈, 아니 보리를 갈아도 뭐 조금 갈아요, 뭐 엄청나게 많이 가는 것을 먹고 살려고 많이 가는 것을 그 밭기는 무슨 수로 다 밭아요, 안 밭아 봤어요.}

10310 # 으 밤:넌다구 으래 밭:땡구리여. {어 밭는다고 \*\* 밭더군 그래.}

10310 @ 왜 왜 밭녕거예요, 그건? {왜 왜 밭는 거예요, 그것은?}

10310 # 인재 겨울기머넌 요즘 눈:넌 앙그러치만 그저내넌 춤기루 엄청 추꾸 누:니 마니 오그래유. {이제 겨울이면 요즘 눈은 안 그렇지만 그전에는 춤기도 엄청 춥고 눈이 많이 오거든요.}

10310 # 누:니 마:니 올찌개 누:니 마:이 췌이머넌 버리가 아너러주꾸. {눈이 많이 올 적에 눈이 많이 쌓이면 보리가 안 얼어 죽고.}

10310 # 마:냐개 누니 자:깨 와쓸췌넌 이 땅이 소서울르자너 어려서, 그래먼 그거털 가라 안치너라구 사 버리 뿌리 사르라구, 그래 밤:능 거지유. {만약에 눈이 작게 왔을 때는 이 땅이 솟아 오르잖아 얼어서, 그러면 그것을 가라얏히느라고 보리 뿌리 살라고, 그래 밭는 것이지요.}

10310 @ 아까 버리는 요런데 심녕거라구요 여기? {아까 보리는 요런 데 심는 것이라고요 여기?}

10310 # 예. {예.}

10310 @ 그 요거는 요거는 머라 그래요, 요거, 요걸 두럭? {그 요것은 요것은 뭐라고 그래요, 요것, 요것을 두둑?}

10310 # 두럭, 똑. {두둑, 둑.}

10310 @ 요기는? {요기는?}

10310 # 골:, 고:리... 야. {골, 골이... 예.}

10310 @ 요기는 쪽 드리간대 요기는 골:~? {여기는 쪽 들어간 데 요기는 골?}

10310 # 야 그 오모칸대 고:리구 두러기구 그래유. {예 그 오목한 데는 골이고, 두둑이고 그래요.}

10310 @ 이거 전체를? {이거 전체를?}

10310 # 그냥 밭 치라 그래 그래이지유. {그냥 밭이라고 그러고 그래야지요.}

10310 @ 바치라 그래구, 그러먼 아까 이랑은 밭: 이랑이라구... {밭이라 그러고, 그러먼 아까 이랑은 무엇을 이랑이라고...}

10310 # 그걸 가주구서 이랑이라 그래유, 여 똑 맹긴대 거기가. {그것을 가지고서 이랑이라고 그래요, 여기 두둑 만는 데 거기가.}

10310 @ 여기 이거요? {여기 이것이요?}

10310 # 예. {예.}

10310 @ 이 두리기로, 이거? {이 두둑이요, 이것?}

10310 # 예. {예.}

10312 @ 받태 머 곡씩 심짜나요? {밭에 뭐 곡식 심잖아요?}

10312 # 네. {예.}

10312 @ 그러면 매자나요? {그러면 매잖아요?}

10312 # 예. {예.}

10312 @ 머뻔 매요? {몇 번 매요?}

10312 # 예? {예?}

10312 @ 받 머뻔 매요? {밭 몇 번 매요?}

10312 # 그건 메뻔나래넌 그: 저거는 우:꾸 푸리 이쓰머넌 풀 인넌대루다가 함 번두 매구 두 분 매구 풀 뽑너라구 매닝거니까, 그 풀 매 매닝거유. {그것은 몇 번이라는 그 저거는 없고 풀이 있으면 풀 있는 대로 한 번도 매고 두 번 매고 풀 뽑느라고 매는 거니까 그것은 풀 매 매는 거예요.}

10312 # 그 메뻔나래넌 그 저거신 읍:씨유. {그 몇 번이라는 그 저것은 없어요.}

10312 # 풀 뽑, 푸리 나면 인재 풀라닝거 자꾸 뽑너라구 매지. {풀 뽑, 풀이 나면 이제 풀 나는 것 자꾸 뽑느라고 매지.}

10313 @ 그저내는 저:기 먹을 꺼뚜 우꾸 그래가주구, 밀:서리 콩:서리 닥씨리 이렇거 서리 해찌요? {그 전에는 저기 먹을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밀서리 콩서리 닭서리 이런 것 서리 했지요?}

10313 # 예? {예?}

10313 @ 밀:서리. {밀서리.}

10313 # 야: 예. {야 예.}

10313 @ 콩서리. {콩서리.}

10313 # 예. {예.}

10313 @ 그렇거 얘기 좀 해조 보세요, 어트개 하능건지, 어떤 언제 머 그런 거. {그런 거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언제 뭐 그런 거.}

10313 @ 저도... {저도...}

10313 # 인재 콩언 누:러캐 인재 콩이 여무러쉴 때예. {이제 콩은 누렇게 이제 콩이 여물었을 때.}

10313 @ 예. {예.}

10313 # 니 마른 누무럴 주:다가 노쿠서넌 거기다 부릴 싸노쿠선 노쿠서넌 콩얼 누:령 콩얼 뽀버다가 그 부래다가 꾸어유. {마른 나무를 주워다가 놓고서는 거기에다 불을 싸놓고는 싸놓고서는 콩을 누런 콩을 뽑아다가 그 불에다가 구워요.}

10313 # 느:서 으:서 그러면 인재 그거덜 머여 누:러캐 콩얼 거기다 꾸머넌 이거유 콩이. {넣어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뭐야 누렇게 콩을 거기에다 구우면 익어요 콩이.}

10313 # 그러면 인재 그거 꺾디길 까서 그 안저서 도러안저서 명능개 인재 콩서리고. {그러면 이제 그것 꺾데기를 까서 그 앉아서 돌아앉아서 먹는 게 이제 콩서리고.}

10313 # 미:런 밀 그 커가주서넌 이사가 나옇거 여물거덜 그걸 나스루 찢러 가주구 그거뚜 부래다 노쿠서 부래다 뛰유 흐흐. {밀은 밀 그 크면 이삭이 나온 것 여문 것을 그것을 낫으로 잘라 가지고 그것도 불에다 놓고서 불에다 구워요 흐흐.}



10313 # 그래가주 그거시 숨빠다개다 이래 비비머년 비벼 가주구 후: 불면 다: 나가구 알  
매이만 숨빠다개 나머유, 그거 그냥 안저 멍능 거유.{그래서 그것을 손바닥에 이  
렇게 비비면 비벼 가지고 후 불면 다 나가고 알맹이만 손바닥에 남아요, 그거 그  
냥 앉아서 먹는 거요.}

10313 # 그래 밀:서리구 콩서리지유. {그게 밀 서리고 콩 서리지요.}

10313 @ 그건 왜: 머거썬요, 그냥 장나느루 항경가요 아니믄... {그것은 왜 먹었어요, 그냥  
장난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10313 # 그러치유 그러치유, 저 인저 장난사마두 해구 머: 배고퍼서 그걸 머 속: 채올라구  
멍녕기 아니구 그냥 장난사마 그냥 여러시 모이머년 헬릴 우:꾸 그래니까 해지.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 이제 장난 삼아도 하고 뭐 배고파서 그것을 뭐 속 채우  
려고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장난 삼아 그냥 여럿이 모이면 할 일 없고 그러니까  
하지.}

10313 @ 탁썬리는 언제 해요? {답: 서리는 언제 해요?}

10313 # 예? {예?}

10313 @ 탁썬리. {답: 서리.}

10313 # 탁썬린 해보질 아년년대 그거년 머여 장난하너라구 어디 모여서 놀:다가 나매 다  
걸 가서. {답: 서리는 해 보지는 았았는데 그것은 뭐야 장난 하느라고 어디 모여  
서 놀다가 남의 답을 가서.}

10313 # 다기 말캉 머: 한대 모두 이러케 이 우애 살:구 이 지끔모냥 탁 우리가 우:꾸 그  
래이까 그거 부뜨러다가 모여서매 이래 장나느루다가 그래 해: 멍녕거지유. {답:  
이 모두 뭐 한대 모두 이렇게 이 위에 살고 이 지끔처럼 답의 우리가 없고 그러  
니까 그거 붙들어다가 모여서 이렇게 장난으로 그렇게 해 먹는 것이지요.}

10313 # 그래두 머 그저내년 그러케 그래 탁썬릴 해서 이저버린 사람두 나:중에 이저버린  
거릴 알:구 해: 머근주 아러두 또 고만 거냥 지:내가구 그래두 인시미 그 조은 포  
기치유, 지끔 가트먼 월래 어름두 우꾸... {그래도 뭐 그전에는 그렇게 답서리를  
해서 잃어버린 사람도 나중에 잃어버린 것을 알고 해 먹은 줄 알아도 또 그만 그  
냥 지나가고 그래도 인심이 좋은 편이지요, 지금 같으면 원래 어림도 없고...}

10313 @ 주로 겨우래 해썬요? {주로 겨울에 했썬요?}

10313 # 예:, 겨우래 인전 모여 놀썬개유. {예,겨울에 이제 모여서 놀 적예요.}

10314 @ 버리썬과구 밀썬 이썬요, 버리썬. {보리썬하고 밀썬 있썬, 보리썬.}

10314 # 예. {예.}

10314 @ 밀썬. {밀썬.}

10314 # 예. {예.}

10314 @ 근 머: 하는대 썬요? {그것은 뭐 하는 데 썬요?}

10314 # 때:유, 하 저 화:모그루다 나무 저, 이 저: 방 뜨시개 해라구. {때요, 화 저 확목으  
로 나무 저, 이 저 방 따뜻하게 하라고.}

10314 # 인재 해 뒤:따가 싸:서 그걸 싸:서 인재 베 암 마꾸 안 썬뚜룩 해서 해두뜨라가  
나무루다가 때:유, 이 저 보키 지비다가. {이제 해 두었다가 썬아서 그것을 썬아  
서 이제 비 안 맞고 안 썬도록 해서 해 두었다가 나무로 때요, 이 저 부엌에 집  
에다가.}

10314 @ 모자 가통건 암만드러요, 그걸루? {모자 같은 것 안 만들어요, 그것으로?}

10314 # 예? {예?}

10314 @ 모자는 암만... {모자는 안 만...}

10314 # 모자유? {모자유?}

10314 @ 예. {예.}

10314 # 뭐:... {뭐...}

10314 @ 밀짚... {밀짚...}

10314 # 밀짚모:자니 머 매꼬자 먼저 그거 해녕건대 그걸루다가 땡기르는 인재 머 사람두  
이찌마닌 여가내서 그거 읍썩유. {밀짚모자니 뭐 맥고모자 먼저 그거 하는 건데  
그걸로 만드는데 이제 뭐 사람도 있지마는 여간해서 그거 없어요.}

10314 @ 여기선 그저네 암만드러썩유, 그거는? {여기서는 그전에 안 만들었어요, 그  
것은?}

10314 # 예 예, 암만드러썩유. {예 예, 안 만들었어요.}

10314 @ 방석뚜 만든대면서요? {방석도 만든대면서요?}

10314 # 예:, 땡길지유 그뚜. {예, 만들지요 그것도.}

10314 @ 버리찌브루요? 밀찌브루? {보리짚으로요? 밀짚으로?}

10314 # 버리찌부룬 아무 때두 쓰능거 우꾸, 서 썩그머닌 퇴:비 해구 썩:끼저네 때:능거 배  
끼 읍:썩유. {보리짚으로는 아무 데도 쓰는 것이 없고, 썩 썩으면 퇴비 하고 썩기  
전에 때는 것 밖에 없어요.}

10314 @ 밀찌폰뇨? {밀짚은요?}

10314 # 밀찌폰 인재 사용해녕게시 그게 버리찌뽀다 달려 가주구. {밀짚은 이제 사용하는  
것이 그게 보리짚보다 달라 가지고.}

10314 # 예 으—○:모냥으루 여 여꺼가주구 이 지붕 가통거뚜 여 무슨 저 변소래던지 그저  
소: 오양까니래던지 이런대 우:애다가 지붕얼 마:니 이:썩유, 그걸루다 밀찌프루  
다. {여기 이영처럼 엮어 가지고 이 지붕 같은 것도 여기 무슨 저 변소라든지 그  
저 소 외양간이라든지 이런 데 위에다가 지붕을 많이 이지요, 그것으로 밀짚으  
로.}

10315 @ 꼬추농사는 어트개 지어요? {고추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10315 # 그췌 아까 마썩해신 대루다가 고:럴 땡기러서 파구서닌 고추썩릴 썩 그 썩릴 지비  
서 인재 바등거니까, 장사 사질 안쿠 지비서 바등거니까 그걸 가따 마:느니까 그  
냥 마:니 뿌리유 그냥. {글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곶을 만들어서 파고서 고추썩  
를 썩 그 썩를 집에서 이제 받은 거니까, 장사(한테) 사지를 앓고 집에서 받은  
거니까 그걸 갖다가 많으니까 그냥 많이 뿌려요 그냥.}

10315 # 마:니 뿌리구선 인재 이러캐 머야 고물개루다가 더퍼 노머닌 그개 나유, 죽: 인재  
호개서, 인재 보매 해니까. {많이 뿌리고서 이제 이렇게 뭐야 고무래로 덮어 놓  
으면 그개 나요, 죽 이제 흙에서, 이제 봄에 하니까.}

10315 # 중: 나머닌 난: 뒤에 그거릴 썩, 저 간겨걸 마썩서 가꾸구선 췌: 뽀버내비리닝 거  
지유. {죽 나면 난 뒤에 그것을 썩, 저 간격을 맞춰서 모두 뽑아 버리는 거지요.}

10315 # 그래먼 인재 그개 거기다가 지금 모냥으루다가 무슨 지금 하군 향끈 틀리니까 저  
임 농초내서 마캥 농사진너라구 저 화장시리 마캥 거이 소대변 다 거기다 바짜너  
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거기에다가 지금 모양으로 무슨 지금 하고는 많이 다르  
니까 저 이 농촌에서 모두 농사 짓는라고 저 화장실이 모두 그 소대변을 다 거기

에다 받잖아요?}

10315 # 저러캐 저 머여 콩고리루다가 해서 맹기른 제두 엄청 오래 안 되지유. {저렇게 저 뭐야 콘크리트로 해서 만든 지도 엄청나게 오래 안 되지요.}

10315 # 그저내넌 그기 읍:씨니가 저 향아리, 향아리 무더노쿠 소대벼닐 거기다 바짜너유. {그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저 향아리, 향아리를 묻어 놓고 소대변을 거기에다 받잖아요.}

10315 # 그걸 말캉 저다가 머여 오줌짱구니라구 이제 장구누루다 그거 지개루 저다가 그 고추애다 가따가 주구, 그걸루 거름 해너라구. {그것을 모두 저다가 뭐야 오줌장군이라고 이제 장군이라고 그것을 지개로 저다가 그 고추애다 갖다가 주고, 그것으로 거름하느라고.}

10315 # 그래구 인재 도 그걸 가꿀래머넌 암:모냐라구 저 이:복씨 나오넌 그 암모냐, 여머 이 지끔 여기 비료넌 엄청나지만.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꾸려면 암모니아라고 저 이북에서 나오는 그 암모니아, 여기 뭐 이 지금 여기 비료는 엄청나지만.}

10315 # 그때넌 이:복씨 함경북똥가 거기서 나오넌 암모냐, 그 암모냐라넌 비료 그거, 그거 돈: 인넌 사라미나 사지 읍:넌 사라문 그거뚜 모:싸유 그때넌. {그때는 이북에서 함경북도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그 암모니아라는 비료 그거, 그것은 돈 있는 사람이나 사지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사요 그때는.}

10315 # 그래가주 주로 그냥 지비서 머여 퇴:비 맹길구 인분 바더가주구 주구 그래서 인재 키우지유. {그래 가지고 주로 그냥 집에서 뭐야 퇴비 만들고 인분 받아 가지고 주고 그래서 이제 키우지요.}

10315 # 그런대 꼬추가 크진 양:쿠 짜:거두 그때 그래 그걸 조선꼬추라 그래자너유, 자다: 해개 달리면 그래두 자기 머글꺼넌 해너라구. {그런데 고추가 크지는 않고 작아도 그때 그래 그것을 조선고추라 그러잖아요, 잘게 달리면 극래도 자기 먹을 것은 하느라고.}

10315 # 머 파너거 그거넌 여간해 읍:씨유, 팔라구 자 시:장애 가주가면 고추럴 해:서, 그머: 지끔 모냥으루다가 준:기루 저런 기계두 우꾸 태양애 말려두 그 잘 말려유, 저기 저 짜다:해구 이 꺼푸리 알꾸. {뭐 파는 것 그것은 여간해서 없어요, 팔려고 시장에 가져가면 고추를 해서, 그 뭐 지금처럼 전기로 저런 기계도 없고 태양애 말려도 그 잘 말라요, 저기 저 자잘하고 이 껍질이 얇고.}

10315 # 그래면 인재 시:장애 가주 가면 장날루다 시:장애 가주 가면 저울 그렇거 우:꾸 되빠그루다 돼: 가주구, 되루다 되:구 말:루 돼:서 거뚜 팔구 그래바씨유. {그러면 이제 시장에 가져가면, 장날에 시장에 가져가면 저울 그런 것 없고 뒷박으로 되어 가지고, 되로 되고 말로 되어서 그것도 팔고 그렇게 해봤어요.}

10315 # 아 엔:날 머 마련웁넌 때지유 그뎐. {옛날 뭐 마련이 없는 때지요 그때는.}

10315 @ 그러면 이거는 머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10315 # 그거 옥썴수 아니유. {그거 옥수수 아니예요.}

10315 @ 이걸 어트개 시머요, 어트개 길러요? {이건 어떻게 심어요, 어떻게 길러요?}

10315 # 여 옥썴수럴 농산 마:니 안해 반넌대 그저 아:무대나 공지가 이쓰면 가따 이르게 파구선 씨루다 시므머넌 나서 크지유 그개. {그 옥수수를 농사는 많이 안 해 봤는데 그저 아무 데나 빈 땅이 있으면 갖다 이렇게 파고 씨로 심으면 나서 크지요 그개.}

10315 @ 그냥 시머노키만 하면 잘 자라요? {그냥 심어 놓기만 하면 잘 자라요?}

10315 # 예. {예.}

10315 @ 고구마는뇨? {고구마는요?}

10315 # 고구마:… 나는 지끔두, 고구마두 마창가지유 농촌시킨 그냥 뚜겅 멍기러 노쿠서  
 년 이 그 뚜개다가 싸겅 그 크능겅 찢러 가주구, 그거 고구만 찢러 가주선 시므  
 니까. {고구마:… 나는 지금도, 고구마도 마창가지예요 농촌식은 그냥 독을 만들  
 어 놓고서 이 그 독에다 싸을 그 크는 것을 잘라 가지고, 그거 고구마는 잘라 가  
 지고 심으니까.}

10315 # 찢러가주 가따 씨, 이러개 꼬꾸선 무털 주구 그래구 비니루털 지끄면 씨우니까루  
 비니루털 씨우구선 비니루털 뿔꾸서년 싸겅 느치유, 그래가주 해유. {잘라 가지  
 고 갖다가 씨, 이렇게 꽃고서 물을 주고 그리고 비닐을 지금은 씨우니까 비닐을  
 씨우고 나서 비닐을 뿔고서 싸을 넣지요, 그래 가지고 해요.}

10315 @ 그냥 시머노키만 하든 대유, 그거는? {그냥 심어 넣기만 하면 돼요, 그것은?}

10315 # 예. {예.}

10315 # 그저내 이 비니루 아 안 해썰찌개년 고구마 나완넌대 그냥 호개다 시므머년 마:니  
 달리지두 앙쿠, 찌::당거시 소:개 그 시미라구 할까 소:개 그 아주 이 이 이배 드  
 러가머년 찢기개 그러개 막 이씨씨유, 지::다크매개 고구마가. {그전에 이 비닐  
 아 안 했을 때는 고구마 나왔는데 그냥 흙에다 심으면 많이 달지도 않고, 기다란  
 것이 속에 그 심이라고 할까 속에 그 아주 이 이 입에 들어가면 질기게 그렇게  
 막 있었어요, 기다랗게 고구마가.}

10315 # 그런대 지끄면 비니루루 해서 그런지 종자가 그런지 쪼꾸마두 그냥 소:개 아무거  
 뚜 우:꾸 그러케 되자너유. {그런데 지금은 비닐로 해서 그런지 종자가 그런지  
 조그마해도 그냥 속에 아무 것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10315 # 선 그거 다: 선상님더리 다 으~:구해서 그러케 마:던지 개바를 머여 멍기러내  
 서 지금 그러케 조치유 머. {선 그것 다 선생님들이 다 연구해서 그렇게 개발을  
 뭐야 만들어 내서 지금 그렇게 좋지요 뭐.}

10316 @ 수방 농사는 어트개 해요? {수박 농사는 어떻게 해요?}

10316 # 지금, 예:날 애기루 마캉 해녕거지유? {지금, 옛날 이야기를 모두 하는 것이지요?}

10316 @ 예. {예.}

10316 # 수:방농사두 인재 이러케 대기민선 두러겅 이러케 멍기러유. {수박농사도 이제 이  
 령게 다니면서 두독을 이렇게 만들어요.}

10316 # 두러겅 멍기러 요 뿔고라케 여기저 고기다 거르멀 느쿠선 호겅 이르케 모으구 거  
 기다 씨릴 시머유. {두독을 만들어 이 동그렇게 저기 저 거기에다 거름을 넣고서  
 는 이렇게 모으고 거기에다 씨를 심어요.}

10316 # 모:두 씨루 심:찌 지금처럼 이거 읍씨니까, 씨루 시머가주 인재 씨가 나머년 고겅  
 가꺼 노머년 인재 나가 커까주구서년 달리넌대, 머 허허 수화기구 말:구 그래유  
 그거 그때… {모두 씨를 심지, 지금처럼 이것 없으니까, 씨로 심어 가지고 이제  
 씨가 나면 그것을 가꿔 놓으면 이제 커 가지고서 달리는데, 뭐 허허 수확이고 말  
 고 그래요 그것 저기 그때…}

10316 @ 그 두러근 뿔그라케 하능거요? {그 두독은 동그랗게 하는 거예요?}

10316 # 예. {예.}

10316 # 아니 그 저저 인재 머여 심 심:는 자리, 심:는 자리털 똥그라캐 봉... 거기 저 퇴: 비 는너라구. {아니 그 저저 이제 뭐야 심 심:는 자리, 심:는 자리를 동그랴게 (만 들어) 거기에 저 퇴비 넣느라고.}

10316 @ 네:. {네.}

10316 @ 차:퇴는뇨? {참외는요?}

10316 # 예? {예?}

10316 @ 차:퇴. {참외.}

10316 # 차퇴두 마창가지 시기유. {참외도 마창가지 방식이에요.}

10316 @ 사과나 복숭아는뇨? {사과나 복숭아는요?}

10316 # 사과:: 복숭아년 묘, 그저내두 그러치만 그건 묘머걸 해 가주구 묘머걸 가따가 씨 시 시머가주구 준:지하구 인재 키워가주구 해녕거지유. {사과 복숭아는 묘, 그전 에도 그러히만 그것은 묘목을 해 가지고 묘목을 갖다가 시 시 심어 가지고 전지 하고 이제 키워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10316 @ 그 농사 어트개 지어요, 그러면? {그것은 농사 어떻게 지어요, 그러면?}

10316 # 예? {예?}

10316 @ 거 어트개 지어요, 봄 보매서부터 그 딸 때까지 머 이:리 소니 마:니 가자나요? {그것 어떻게 지어요, 봄 봄에서부터 딸 때까지 뭐 일이 손이 많이 가잖아요?}

10316 # 복숭아두 그르쿠 사과두 그르쿠 인재 남... 묘머걸 시머서 크자너유? {복숭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이제 남... 묘목을 심어서 크잖아요?}

10316 # 거 가:생이다가 돌려서 그 나무마둥 돌려서 파구서년 퇴:비릴 고기다 느:유, 비:류 두 느쿠. {그 가에다가 돌려서 그 나무 마당 파고서 퇴비를 거기에다 넣어요, 비 료도 넣고.}

10316 # 그래 두구서 인재 그누미 나무가 크머년 거: 자체 나무 자체털 봐: 가주구, 요거 년 달릴루미다 안 달릴루미다 요거털 자체털 봐 가주구 죄: 찢러내구서 윈 머시 만 고거 냉기나두자너유. {그렇게 두고서 이제 그놈이 나무가 크면 그 자체 나무 자체를 봐 가지고, 요것은 달릴 놈이다 안 달릴 놈이다 요것을 자체를 봐 가지고 죄다 잘라 내고서 원래 무엇만 그것 남겨 두잖아요.}

10316 # 그래구선 인재 소도걸 이제 노방 인재 해구 그래서 인재 나중애 마:니 인재 꼬치 퍼:서 달리머년 또 봐: 가주구 요거년 클루미다 안 클루미다, 마:니 달리니까 다: 따내비리구 인재 그 크 클룸만 클룸만 냉기 나도유. {그래서 이제 소독을 이제 노상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애 많이 이제 꽃이 피어서 달리면 또 봐 가지고 요것은 클 놈이다 안 클 놈이다, 많이 달리니까 다 따내 버리고 이제 그 크 클 놈만 클 놈만 남겨 놓아요.}

10316 # 그래서 요즈매년 그 인재 클럼 나두러면 그걸 인재 종이루다 봉질 씨우자너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이제 클 놈 놔 두러면 그것을 이제 종지로 봉지를 씨우잖아 요?}

10316 # 그래가주 새까리가 나구 이제 크쿠 그래면 그재서 수화캐녕거지유. {그래 가지고 색깔이 나고 이제 크고 그러면 그 때 수확하는 것이지요.}

10316 @ 사과:를 능그미라구두 그래요? {사과를 능금이라고도 그래요?}

10316 # 예? {예?}

10316 @ 능금. {능금.}

10316 # 야: 능그미라구 그저내 그래쥬유, 사과래녕건 중년 애:기유. {예 능금이라고 그전  
에 그랬지요, 사과라는 것은 중년 애기예요.}

10316 # 이르미 그래유. {이름이 그래요.}

10316 @ 사과나 능그미나 근대 또까통 거요? {사과나 능금이나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10316 # 예:, 또까통 거지유. {예, 똑같은 것이지요.}

10316 @ 복썰아두, 복쌍이라구두 해유? {복숭아도, 복상이라고도 해요?}

10316 # 예:: 그러치유, 복쌍이지유. {예 그렇지요, 복상이지요.}

10316 # 마리 자꾸 병경대 그래유, 복썰이유. {말이 자꾸 변경 되어 그래요, 복상이에요.}

10316 @ 금 이 그저내는 어뎜마:를 더 마니 썩썩요? {그럼 이 그전에는 어떤 말을 더 많  
이 썩어요?}

10316 # 예? {예?}

10316 # 복쌍이라 그래구 능금, 머 배: 머 그러치유. {복상이라 그러고 능금, 뭐 배 뭐 그  
렇지요.}

10316 # 그개 그거라그렇 마창가지유 다. {그개 그것이나 그것이나 마창가지예요 다.}

10317 @ 그: 받뚝 이짜나요, 받뚝. {그 받뚝 있잖아요, 받뚝.}

10317 # 네. {예.}

10317 @ 우리 바타구 다른사람 바타구 요로캐 경개, 고걸 머라 그래요? {우리 받하고 다  
른 사람 받하고 이렇게 경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10317 # 근: 경개뚜기지. {그것은 경계둑이지.}

10317 # 경개니까 경개뚜기지.{경계니까 경계둑이지.}

10317 @ 경개뚜기요, 그렇까 이쪽썩 빠타구 이쪽썩 바타구 그 사이에 인녕 거 그지요?  
{경계둑이요, 그러니까 이쪽 집 받하고 이쪽 집 받 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 그렇  
지요?}

10317 # 예 예. {예 예.}

10317 @ 골로 요로:캐 거러가기두 하구 그르자나요? {그리로 이렇게 걸어 가기도 하고 그  
러잖아요?}

10317 # 예? {예?}

10317 @ 글루 가자나요 이러캐 다니지요? {그리로 가잖아요 이렇게 다니지요?}

10317 # 예 예. {예 예.}

10317 @ 거기애 머 푸리나 쏜 까통거뚜 이르캐 나지요? {거기에 뭐 풀이나 꽃 같은 것도  
이렇게 나지요?}

10317 @ 머:... {뭐...}

10317 # 풀, 풀 이렇거유? {풀 이런 것이요?}

10317 @ 예, 풀 풀 이르미 머 어떻거뜨리 이썩요? {예, 풀 풀 이름이 뭐 어떤 것들이 있  
어요?}

10317 @ 그럼 인재... {그럼 이제...}

10317 # 아이구, 풀 이르미래녕건 머 그 수:가 만:치유, 바랭이두 이꾸 망초때두 이꾸 머  
거기. {아이고, 풀 이름이라는 것은 뭐 그 수가 많지요, 바랭이도 있고 망초도 있  
고 뭐 거기.}

10317 # 머라구 하까, 아주 푸리 머 명:아주 때두 이꾸 머 여:러가지 푸리래녕거 이르미

마:너유, 그거 아주 그저. {뭐라고 할까 아주 풀이 뭐 명아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풀이라는 것이 이름이 많아요, 그것이 아주 그냥.}

10317 # 그래 주루 여기저 바랭이가 마이 나구: 바랭이, 망초때가 마이 나구 그래지유. {그래 주로 여기는 저 바랭이가 많이 나고 바랭이, 망초가 많이 나고 그렇지요.}

10317 @ 이렇건 머예요, 이런 푸른? {이런 것은 뭐예요, 이런 풀은?}

10317 @ 요 요 열매인은 이쭈기 요기 요기서, 요기 요로:캐 인능건대 뽀바 농거거든요. {요기 요기 열매 있는 이쭈기 요기 요기에서, 요기 요렇게 있는 것인데 뽑아 놓은 것이거든요.}

10317 # 그췌유, 그췌유, 그게... {글췌요, 글췌요, 그것이..}

10317 @ 보매 머 마:니... {봄에 뭐 많이...}

10317 # 그췌, 그 이르미 자스 모르겐대유. {글췌, 그 이름이 자세히 모르겠네요.}

10317 @ 풀: 푸리 팽장이 만:치요? {풀 풀이 팽장히 많지요?}

10317 # 예. {예.}

10317 @ 머 망초때 아까 말쓰마싱 거뚜 이꾸, 그렇거 말구두 또 마니 이짜나요? {뭐 망초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런 것 말고도 또 많이 있잖아요?}

10317 # 예, 만:치유. {예, 많지요.}

10317 @ 어떻거뜨리 이췌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10317 # 풀 이르믈, 그 일리리 다 기어걸 모태... 모르겐대유. {풀 이름을, 그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 모르겠는데요.}

10317 @ 꼬냥 머 아:시는 대루. {그냥 뭐 아시는 대로.}

10317 @ 끝 피능거뚜 이짜나요? {꽃 피는 것도 있잖아요?}

10317 # 예? {예?}

10317 @ 끝 피능거. {꽃 피는 것.}

10317 # 예. {예.}

10317 # 꼬핑 거넌 그냥 대개 풀두 다 그: 종자 씨릴 저내느라구 다: 풀, 꼬슨 다: 피유 어떤 푸리던지. {꽃 핀 것은 그냥 대개 풀도 다 그 종자 씨를 전하느라고 다 풀, 꽃은 다 피어요 어떤 풀이든지.}

10317 # 하: 머던지 다 이 저:, 이런 식물두 제 씨릴 저내느라구 다 이 씨릴 맹길자너유 기냥, 그레이 꼬선 다: 피넌데 으: 받둑가튼대 이런대 나넌 푸른 머 별 이름 인넌 꼬시 움:췌유. {아 뭐든지 다 이 저, 이런 식물도 제 씨를 전하느라고 다 이 씨를 만들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꽃은 다 피는데 어 받둑 같은 데 이런 데 나는 풀은 뭐 별 이름 있는 꽃이 없어요.}

10317 @ 하라버지 조아하시는 꼬춘 머예요, 어떻 끝 조아하시요?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꽃은 뭐예요, 어떤 꽃 좋아하세요?}

10317 # 나넌 머 꼬설 조아해닝개 별루 움:넌대유. {나는 뭐 꽃을 좋아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요.}

10317 @ 요새 요로:캐 드:래 나가면 피는 꼴뜰 머:가 이쓰까요? {요새 이렇게 들에 나가면 피는 꽃들 뭐가 있을까요?}

10317 # 요즈매넌 꼬치 머: 별루 피능거 우:겐대유, 여 드:래넌. {요즘에는 꽃이 뭐 별로 피는 것 없겠는데요, 이 들에는.}

10318 @ 예:저내 예:저내 저기: 곡췌 떨:자너요? {예전에 예전에 저기 곡췌 떨잖아요?}

- 10318 # 예? {예?}
- 10318 @ 예:저내 곡씩 떨:지요? {예전에 곡식 떨:지요?}
- 10318 # 예:. {예.}
- 10318 @ 요즈마는, 요즘 떠:는 방벼과구 달라져쨌요, 마니? {요즘에 하는, 요즘 떠는 방법 하고 달라졌지요, 많이?}
- 10318 # 달:러지구 말구지유. {달라지고 말고지요.}
- 10318 # 그저내넌 버리::나 미리나 이런 반꼭씩 떨:찌개넌 다:널 무꺼 가주 무꺼 가주구, 거 또: 자리개쏘나라구 새끼루두 해서 손잡넝거 하구 그걸 맹기러가주선 이견만 침 징:결루 해서 그 다:널 돌려 가머유. {그전에는 보리나 밀이나 이런 밭곡식 떨 때는 단을 묶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그 또 자리개라고 새끼로도 해서(묶어서) 손 잡는 것 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 긴 것으로 해서 그 단을 돌려 감 아요.}
- 10318 # 돌려가머가주곤 이르깁 태:기릴 처가주 버리두 그러쿠 미리 그르구 다: 그래 뚜드려서 해가주 인재 그결루 뚜드리구 이 저 절구통이나 머 도:리나 노쿠서 거기다 뚜드려서 이사걸 어지가니 떼: 뒤에 지편 고만 쪽 피노쿠 도리깨루두 뚜드려서 이러케 수화걸 해구. {돌려감아 가지고 이렇게 태기를 쳐서, 보리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다 그렇게 두드려서 해 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두드리고 이 저 절구통이나 뭐 돌이나 놓고서 거기에다 두드려서 이삭을 어지간히 떼 뒤에 짚은 그만 쪽 피 놓고 도리깨로 두드려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
- 10318 # 또 베:넌 벼:서 다:널 무꺼서 세:우기두 해구 이래 겨냥 벼:서 노키두 해구 이래구 말른 뒤에 또 그뚜 다:널 무꺼서 가가주서넌. {또 벼는 베어서 단을 묶어서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베어서 놓기도 하고 이러고 마른 뒤에 또 그것도 단을 묶어 가지고서.}
- 10318 # 기계가 베:떠넌 기계가 여 탈곡끼라구 밭 밤:너, 밭벼서 해넝거 그결루다가 떨:구, 갠대 하루 베:를 그걸 떠를래머넌 밤: 자구나서 새벽 세:시 경 다굴찌개 다기 울머넌, 천막 울머넌 하마 베를 떨:기 시자캐유. {기계가 벼 터는 기계가 그 탈곡기라고 밭 밟는, 밟아서 하는 것 그것으로 떨고, 그런데 하루 벼를 그것을 떨려면 밤에 자고 나서 새벽 세 시 닭 울 때 닭이 울면, 첫 닭 울면 벌써 벼를 떨기 시작해요.}
- 10318 # 사:라미 인재 이 베가 마를때는 여:러 사라미 인재 해는데, 그걸 기계에다 떠러가주구 인재 다 떠르머넌 이 저: 너까래 그 루다가 이러케 냉기민선 사람 그 전까... {사람이 이제 이 벼가 많을 때는 여러 사람이 이제 하는데, 그것을 기계에다 떨어 가지고 이제 다 떨면 이 저 녀까래 그것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사람 그 저 까...}
- 10318 # 곡씨 까부르는 키가 이짜너유 키유, 키릴 동네서 으:더다가 뺑: 돌려 서가주서넌 그결루다 이러케 부쳐유 베릴, 그러면 재 너깨루다가 이 양:썉썉 떼지구 그래가주구 그저넌 해:찌유 머. {곡식 까부르는 키가 있잖아요 키요, 키를 동네에서 얻어다가 뺑 돌려 서 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부쳐요 벼를, 그러면 이제 녀까래로 이 양쪽에서 던지고 그래 가지고 그전에는 했지요 뭐.}
- 10318 # 그래구 인재 담:넝거넌 마릴 가따가 머여 서:매애다가, 지푸루다가 섬 맹그러서 서매다가 느: 스무말씩 한 서미 스무말씩 그냥 그래 되: 당:꾸 그르케 해찌유.



{그리고 이제 담는 것은 말을 갖다가 뭐야 섬에다가, 짚으로 섬을 만들어서 섬에다가 넣어 스무 말씩, 한 섬이 스무 말씩 그냥 그렇게 되어 담고 그렇게 했지요.}

10318 @ 보리는 어트개썬요, 버리하구 미:른, 그르개 태기쳐서 해가주구 그 다으매 그 떠:룽거는? {보리는 어떻게 했어요, 보리하고 밀은, 그렇게 태기 쳐서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떠 것은?}

10318 # 예? {예?}

10318 @ 땡:거. {떠 것.}

10318 # 땡:거넌 인제 그냥 여르미 인제 인젠 그땐 더웁꾸, 버리 비구 까부를제는 더워유, 그래이 쥬일 해구 나머넌 진 다: 해서 인제 떠러가주구 꼬리 마:노머넌 부:인내더리 부인내더리 지너개 모여가주구서는 그거덜 \*\*서 까부러유, 키루다가 그걸 까불러유, 키루 까불러유. {떠 것은 이제 그냥 여름이 이제 이제는 그때는 덤고, 보리 베고 까부를 때는 더워요, 그래서 쥬일 하고 나면 다 해서 이제 떨어 가지고 끌어모아 놓으면 부인네들이 부인네들이 저녁에 모여 가지고서 그것을 \*\*서 까불러요, 키 키로 그것을 까불러요, 키로 까불러요.}

10318 @ 그래서 어따가 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넣어요?}

10318 # 근 인제 무슨 저: 가마니애두 당:꾸 그저 자루애 당:꾸 이래 담:썬유. {그것은 이제 무슨 저 가마니애도 담고 그저 자루애 담고 이렇게 담지요.}

10318 @ 콩이나 파튼노, 콩, 팔? {콩이나 팔은요, 콩, 팔?}

10318 # 콩언 콩두 그러쿠 파뚜 그러쿠 바태서 인제 그이 수화 저: 결씨리 되머넌 그걸 뽀버 말려 가주구선 가따가 저 마당애다 쪽: 까라노쿠 도리깨루 뚜드러서, 이 저기 저 다른 기계가 읍씨니까. {콩은 콩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밭에서 이제 그 수확 저 결실이 되면 뽀아 말려 가지고 갖다가 저 마당애다 죽 깔아놓고 도리깨로 두드러서, 이 저기 저 다른 기계가 없으니까.}

10318 # 도리깨루 뚜드려 가주서넌 그걸 아렐 빼자너유. {도리깨로 두드려 가지고 그것을 알을 빼잖아요.}

10318 @ 뽀: 다으맨뇨? {뽀 다음에는요?}

10318 # 갠대 이제 치루다 까불러 가주서넌 수하걸 해지유. {그런 다음에 이제 키로 까불러 가지고 수확을 하지요.}

10318 # 그래서 부인내덜 이리 그 까부르닝개 마:너유, 전부 그 농사라구 지:구 해면. {그래서 부인네들 일이 그 까부르는 것이 많아요, 전부 그 농사라고 짓고 하면.}

10318 @ 그렇걸 머:한다 그래요? {그런 것을 뭐 한다고 그래요?}

10318 # 예? {예?}

10318 @ 그렇걸 머:한다 그래요? {그런 것을 뭐 한다고 그래요?}

10318 # 머 키루 까부르렁거유? {뭐 키로 까부르는 것이요?}

10318 @ 다:, 그거 전체를. {다, 그것 전체를요.}

10318 # 타:자기라구. {타작이라고.} #1 타:자기라구 그래지유, 타:작. {타작이라고 그러지, 타작.}

10318 # 타:자기라 그래유. {타작이라고 그래요.}

10318 @ 타:작. {타작.}

10318 # 콩 타작 버리 타작 머 베: 타작 타:자기라 그래유. {콩 타작 보리 타작 뭐 버 타작 타작이라고 그래요.}

10318 @ 근데 그거 이르게 보면뇨, 하다가 보면 이런대 막 드러가갸꾸 따:구웅 거뚜 이짜 나요? {그런데 그것 이렇게 보면요, 하다가 보면 이런 데 막 들어가서 따가운 것도 있잖아요?}

10318 # 예. {예.}

10318 @ 그건 머:가 드러가서 그래요? {그것은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10318 # 거기 그 여: 곡씨개 먼지하구 머 이거시 따구워유, 그걸 까:래기라 그래지유 까:래기, 그거 뿌서징개. {그것이 이 곡식에 먼지하고 뭐 이것이 따가워유, 그것을 까끄라기라고 하지요, 까끄라기, 그것 부서진 것.}

10318 @ 예. {예.}

10318 # 여 곡씨개 뿌서징개 까:래기라 그래는데 까:래기가 인재 드러가면 막 따구꾸래유. {곡식이 부서진 것이 까끄라기라고 그러는데 까끄라기가 이제 들어가면 막 따잡고 그래요.}

10318 @ 그거는 쪼끄망거지요, 그지요? {그것은 조그만 것이지요, 그렇지요?}

10318 # 예:. {예.}

10318 @ 그 이르게 수부:강건 머라 그래요? {그 이렇게 수복한 것은 뭐라고 해요?}

10318 # 수복: 행거유? {수복한 것이요?}

10318 @ 예. {예.}

10318 # 그거 까 부 수부:랭거유? {그거 까 부 수복한 것이요?}

10318 # 그거뚜... {그것도...}

10318 @ 이르게 글거 글러서 깔키나 머 이릉걸루 글러가주구. {이렇게 굵어 굵어서 깔키나 뭐 이런 것으로 굵어 가지고.} #1 깍:찌 깍:찌. {깍지 깍지.}

10318 #1 깍:찌라 그래지, 깍:찌. {깍지라고 그러지, 깍지.} @ 가따 때기두 하구 저 또 따로 모으자나요. {갓다 때기도 하고 저기 또 따로 모으잖아요.}

10318 # 무어 그 저: 곡씩 떠러가주군 거칭거 나오녕거? {뭐 그 저 곡식 떨어 가지고 거친 것 나오는 것?}

10318 # 그거럴 머 북때기라구두 그래구 이르미, 또 머라 그래나 그머. {그것을 뭐야 북때기라고도 그러고 이름이, 또 뭐라고 그러나 그것을.}

10318 #1 콩언 깍찌라 그래고. {콩은 깍지라고 그러고.}

10318 # 아 콩깍찌넌 머여 저기저 아디 빠져야 그거지. {아 콩깍지는 뭐야 저기 저 알이 빠져야 그것이지.}

10318 #1 됴모기라 그래자너 됴:목. 그 땡거넌 인재 뒤에 인재 저기저 영크렁거... {뽕목이라고 그래잖아 뽕목. 그 땡 것은 이제 뒤에 이제 저기 저 영크런 것...}

10318 # 머두 깍:찌구 깍:찌라구두 그래구 까:래기라구 그래구 그래유. {모두 깍지고 깍지라고도 그러고 까끄라기라고 그러고 그래요.}

10318 @ 됴모기라구 한다구요? {뽕목이라고 한다고요?}

10318 # 됴모건 인재 원 머시릴 마:니 해구 냉개지 인재 비루다 자꾸 쓸구 이래머넌 그 흑뚜 이꾸 머 여러가지 그 아주 이릉 모:씨넝거시 마이 새깁거 그거럴 인재 따루요로근 해서 따루 까불자너유, 그걸 됴모기라 그래지유. {뽕목은 이제 원래 무엇

을 많이 하고 남겨야 이제 비로 자꾸 쓸고 이러면 그 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아주 이런 못 쓰는 것이 많이 섞인 것 그것을 이제 따로 이렇게 해서 따로 까부르잖아요, 그것을 뒷목이라고 그러지요.}

10318 @ 알맹이 안 드렁거뚜 이짜나요? {알맹이 안 들은 것도 있잖아요?}

10318 # 예, 그래잉까 키루 까불러유, 알매이 안드렁 거. {예, 그러니까 키로 까불러요, 알맹이 안 들은 것.}

10318 @ 그 알맹이 안 드렁걸 머라 그래요? {그 알맹이 안 들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10318 # 근 그 머 쪽째이지 그 까:래기지유, 그뜨유. {그것은 그 뭐 쪽정이지 그 까끄라기지요, 그것도요.}

10318 @ 쪽정이, 까:래기. {쪽정이, 까끄라기.}

10318 # 예:. {예.}

10318 @ 그거 저기 버리나 밀 가통 거 보면뇨, 벼두 그러쿠 곡씨기 쎄카망거 이씨유 왜 몸머께 씨:궁거 가치. {그거 저기 보리나 밀 같은 것 보면요, 벼도 그렇고 곡식이 새카만 것 있어요 왜 못 먹게 썩은 것 같이.}

10318 # 예:, 그 캄 캄:비기. {예, 그 그거 캄부기.}

10318 @ 캄:비기. {캄부기.}

10318 # 예:. {예.}

10318 # 버리 캄:비기라 그래구 밀: 캄부기라 그래구 벼두 저 그 흑씨 그런 수가 이씨유, 캄:비기라 그래유. {보리 캄부기라고 그러고 밀 캄부기라고 그러고 벼도 저 흑씨 그런 수가 있어요, 캄부기라고 그래요.}

10318 @ 베:애 인능거는 머라 그래요? {벼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10318 # 예? {예?}

10318 @ 보리는 보리캄배기라 그래구. {보리는 보리 캄부기라고 그러고.}

10318 # 예:. {예.}

10318 @ 베는? {벼는?}

10318 # 베는 베캄비기 그개 베캄비긴 여가내 우:꾸 밀: 하구 버리 하구가 지투루 캄비기가 만치유. {벼는 벼 캄부기, 그런데 벼는 여간해서 없고 밀하고 보리하고 제일 캄부기가 많지요.}

10318 @ 그: 인재 베 타자카자나요? {그 이제 벼 타작 하잖아요?}

10318 # 예. {예.}

10318 @ 그러면 인재 묵짜나요? {그럼 이제 묵잖아요?}

10318 # 예. {예.}

10318 @ 고 무꿍걸 베따니라 그르지요? {그 묵은 것을 벧단이라고 그러지요?}

10318 # 네. {예.}

10318 @ 그걸 마:니 싸노면 머라 그래요? {그것을 많이 쌓아 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10318 # 그건 베까리. {그것은 벧가리.}

10318 @ 베까리? {벧가리?}

10318 # 예. {예.}

10318 @ 그저내 그거 저기 이캐 마당애다 드러서 싸:짜나요? {그전에 그것 저기 이렇게 마당애다 들어서 쌓았잖아요?}

10318 # 예. {예.}

10318 @ 그래 가주구 말르면 인재... {그래 가지고 마르면 이제...}

10318 # 말 말러야 가따 인재 싸:치유. {말 말러야 갖다가 이제 쌓지요.}

10318 @ 예. {예.}

10318 # 싸:르는 인재 싸:나따가 저 사:람 으:더가주 여:러 사라미 떠:녕거지유. {쌓으면 이제 쌓아 놓았다가 사람 얻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떠는 것이지요.}

10318 #1 마:니 쌓:거닌 노:저까리. {많이 쌓은 것은 노적가리.}

10318 # 어? {응?}

#1 베 짝, 베: 마:니 터러 싹닝거, 수부카게 싹닝건 노:저까리. {벼 쌓, 벼 많이 털어서 쌓는 것, 수북하게 쌓는 것 노적가리.}

10318 # 노:저까리는 니기 머 그기 노:저까리여. {노적가리는 네기 뭐 그것이 노적가리야.}

10318 @ 그거는 뽕따늘 마니 싸:농거 얘기하능 거요, 노저까리는? {그것은 뽕단을 많이 쌓아 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노적가리는?}

10318 # 아이 베평, 베평까리라 그래유. {아니 뽕단, 뽕가리라고 그래요.} #1 베평까마니, 베평까마니. {뽕가마니, 뽕가마니.}

10318 @ 베평까마니 마니 싸:농거? {뽕가마니 많이 쌓아 놓은 것?}

10318 # 야, 베평 야. {예, 벼 예.}

10318 @ 베평까마니 마니 싸:농걸 노저까리라고 한다구요? {뽕가마니 많이 쌓아 놓은 것을 노적가리라고 한다고요?}

10318 # 예:. {예.}

10318 @ 날까리라고두 이써요? {날가리라고도 있어요?}

10318 # 예? {예?}

10318 @ 뽕까리 말구 날까리두 이써요? {뽕가리 말고 날가리라고도 있어요?}

10318 #1 그개 그걸꺼유 아마. {그것이 그것일 거요 아마.}

10318 # 나, 여 이른데서서는 그런 마를 안써써유. {난, 여기 이런 데서는 그런 말을 안 썼어요.}

10318 @ 근대 베평따늘 무꺼가주구 두 개씩 이러:캐 쪽: 세우기두 하자너요? {그런데 뽕단을 묶어 가지고 두 개씩 이렇게 쪽 세우기도 하잖아요?}

10318 # 야:, 그건 줄가리 치닝거. {예, 그것은 줄가리 치는 것.}

10318 @ 아: 두리 서루 기대서 쪽: 하능거 줄가리 치능거구. {아 둘이 서로 기대서 쪽 하는 것 줄가리 치는 것이고.}

10318 # 예, 줄. {예, 줄.}

10318 @ 또 어디... {또 어디...}

10318 # 말 말르라고 그러능거유. {마 마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318 @ 네. {예.}

10318 @ 어디는 가니까 베평따늘 또 여프루 죽:: 느러노태유, 이러캐 누여서. {어디는 가니까 뽕단을 또 옆으로 죽 늘어 놓데요, 이렇게 누여서.}

10318 # 예. {예.}

10318 @ 그건 또 머라 그래요? {그것은 또 뭐라고 그래요?}

10318 # 근 이르미 별리름 움는데. {그것은 이름이 별 이름 없는데.}

10318 @ 그래가꾸 또 이르키 열망큼씨 이르키 무디기 무디기 싸:논대두 이꾸. {그래 가지고 또 이렇게 얼마 만큼씩 이렇게 무디기 무디기 쌓아 놓은 데도 있고.}

10318 # 예. {예.}

10318 @ 지여개 따라 다르대요, 그 싸:논능건 머라 그래요, 쪼끄망거시, 말르 말릴때. {지역에 따라 다르대요, 그 쌓아 놓은 것은 뭐라고 그래요, 조그만 것, 말 말릴 때.}

10318 # 말... {말...} #1 다: 말리가주 인재 고러캐 싸노치유, 며판씩. {다 말려 가지고 이제 그렇게 쌓아 놓지요, 몇 단씩.}

10318 @ 아, 그건 머라 그래요? {아,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10318 #1 베티미라 그래지 머. {벳더미라고 그러지 뭐.}

10318 @ 베티미? {벳더미?}

10318 # 베티:미 지베 가따 싸:면 베티미지, 노네다 그러카면 가리리여 가리. {벳더미 집에 갖다 쌓으면 벳더미지, 눈에다 그렇게 하면 가리리야 가리.}

10318 # 베:까리라 구래유. {벳가리라고 그래요.}

10318 @ 노네 하능건 베, 그럼 베티미는 멀 베티미라구? {눈에 하는 것은 벳, 그럼 벳더미는 무엇을 벳더미라고?}

10318 # 마:니 가따 싸:논능거, 통단노닐 한:, 노닐 베:릴 해: 가주구 말려가주 항군대다 싸: 논녕거지. {많이 갖다가 쌓아 놓는 것, 통단논을 한, 논을 벳를 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 한 군데에다 쌓아 놓는 것이지.}

10318 #1 옴:나렌 타자걸 헬라면 둥:그러캐 싸:노차너유, 드려 가주. {옛날에는 타작을 하려면 둥그렇게 쌓아 놓잖아요, 들여 가지고.}

10318 @ 예. {예.}

10318 # 전부 드려다 싸:노쿠서 인재 사:람 으더가주 여러 사라미 모여서 떨:구. {전부 들여다 쌓아 놓고서 이제 사람 얻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떨고.}

10318 @ 마당애 이꺼 싸:논능거요? {마당애 있는 쌓아 놓은 것이요?}

10318 # 예, 마당에서 \*\*. {예, 마당에서 \*\*.}

10318 @ 그걸 그걸 머라 그랜다구요? {그것을 그것을 뭐라고 그랜다고요?}

10318 # 타:자캐구 그기... {타작하고 그것이...}

10318 @ 타:자칼래면... {타작하려면...}

10318 # 베까리구. {벳가리고.}

10318 @ 베까리? {벳가리?}

10318 # 예. {예.}

10318 @ 베티미는뇨? {벳더미는요?}

10318 # 베티미 가튼 이르미유 가튼. {벳더미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10318 @ 가통거예요? {같은 거예요?}

10318 # 예. {예.}

10318 # 이르미 하 항:가지를 가주구 멘, 이르미 여:러 가지가 나오녕거래유. {이름이 하한 가지를 가지고 몇,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예요.}

10318 @ 그저내는 왜 저 머글개 부조캐 가주구 베가통거 이그면 미리 따다가 이르게 흘:터서 머거짜나요? {그전에는 왜 저 먹을 것이 부족해서 벳 같은 것 익으면 미리 따다가 이렇게 흘어서 먹었잖아요?}

10318 # 예:. {예.}

10318 @ 그건 머라 그래요?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10318 # 베릴... {벼를...}

10318 @ 베 홀 홀터, 홀릉거 이짜너요? {벼 홀 홀어, 홀는 것 있잖아요?}

10318 # 홀:렁거 그개 저: 아이구. {홀은 것이 그것이 저기 아이고.}

10318 @ 이르캐 맨드렁 거. {이렇게 만든 것.}

10318 @ 이르캐 맨드렁 거뚜 이꾸.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10318 # 예, 이거 찌깨가치 이르캐 되거뚜 이꾸. {예, 이거 집게같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10318 @ 예, 이거. {예, 이것.}

10318 # 예. {예.}

10318 @ 수수깡이 까꾸 해능거지요? {수수깡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10318 @ 이르캐 수수깡이루두 만들구 이르캐... {이렇게 수수깡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10318 # 야, 수수깡인데 머 그걸... {예, 수수깡인데 뭐 그것...}

10318 @ 찌리까지나 머 이렇걸루... {찌리 가지나 뭐 이런 것으로...}

10318 #1 그래니깐 인재 급패개 머글라구 인재:: 쪼끄마큼 홀터가주구 찌:서 말리서 찌: 머꾸 이래써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먹으려고 이제 조금 홀어 가지고 찌서 말려서 찌 먹고 이랬어요.}

10318 # 그췌:. {글췌.}

10318 @ 그럴때 홀틀 때 멀루 홀터유? {그럴 때 홀을 때 무엇으로 홀어요?}

10318 #1 그래잉칸 쪼끔 해닝거넌 참말루 인재 찌깨 맨드려 가주구두 홀꾸. {그러니까 조금 하는 것은 참마로 이제 집게 만들어 가지고도 홀고.}

10318 # 수수 수수때릴 여기저 이르캐 해서 반: 꺼꺼가주서너 해면서 이러캐 눌르면 이거 이러나따 이러나따 해자너유, 그래 이르키 머여 홀른 찌 찌깨라 그래지유 머, 찌: 깨라구. {수수, 수수대를 여기 저 이렇게 헛 반 꺾어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누르면 이것이 일어났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뭐야 홀는 집 집게라고 그러지요 뭐, 집게라고.}

10318 @ 쪼끔 더 마:니 하면 이런대다 하자너요? {조금 더 많이 하면 이런 데에다 하잖아요?}

10318 # 예:, 거기다 또 해구유. {예, 거기에다 또 하고요.}

10318 @ 이건 머예요, 이르미? {이것은 뭐예요, 이름이?}

10318 # 그거 머 홀치기래딩가, 여기선 저렁거 사용 함번두 안 해바써유, 탄:대서 해더라구 유. {그것 뭐 홀이기에라던가, 여기서는 저런 것을 사용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다른 데서 하더라고요.}

10318 # 야 여긴. {예 여기는.} 10318 #1 여기넌 왜롱 아니여 기개. {여기는 \*\*아니야, 기계.}

10318 # 저걸 베루 베릴 이러캐 내부댕기 자부댕겨 홀렁거. {저것을 벼로, 벼를 이렇게 내부댕기고 잡아 당겨 홀는 것.}

10318 @ 예 예. {예 예.}

10318 # 이 저거뚜 홀렁 기개지유, 홀치기지유 머. {저것도 홀는 기계지요, 홀이지요 뭐.}

10318 @ 홀치기? {홀이?}

10318 # 예. {예.}

10319 @ 방아 찌짜너요, 인젠? {방아 찼잖아요, 이제?}

10319 @ 타자캐쓰면 방아 찌어이지 먹지요? {타작했으면 방아를 찼어야지 먹지요?}

10319 # 예. {예.}

10319 @ 방아는 어떤 방아드리 이쨌요? 방아두 여러 가지가 이쨌너요. {방아는 어떤 방아들이 있어요? 방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0319 # 야. {예.}

10319 # 그저내는 디딜빵아라구 해:서 나무루다가 인젠 맵기러 가주구 이: 찢넝 거털 공이, 방아공이럴 맵기러서 이래 가주구 사:라미 이 바리 두:룬대 두:리서 박:꾸 그 방아를 이르게 이르게 찢:따가 이리개 니리서 자꾸 찢:유, 디딜방아라구. {그전에는 디딜방아라고 해서 나무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찢는 것을 공이, 방앗공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이 이 발이 둘인데 둘이서 밟고 그 방아를 이렇게 이렇게 찢다가 이렇게 내려서 자꾸 찢어요, 디딜방아라고.}

10319 # 그래만 인재 부인내가 안저서매 그거털 연실: 파내가민서 찢: 징거넝 까:불러 가주구 거기서 까불러 가주 또: 지버너쿠 또: 지버너쿠, 그래 뽕뽕씩 캐서 그거털 버 베가 다: 까지머넝 인재 완저니 인재 까지머넝 머여 명넝 그르새다가 당:꾸 그러캐 찢꾸. {그러면 이제 부인내가 앉아서 그것을 연방 파내면서 찢어진 것은 까불러 가지고 거기에서 까불러 가지고 또 집어 넣고 또 집어 넣고, 그렇게 몇 번씩 해서 그것을 버가 다 까지면 이제 완전히 이제 까지면 뭐야 먹는 그릇에다가 담고 그렇게 찢고.}

10319 # 그래군 머 인재 기개애다가 찢:넝거넝, 지끄면 저 도중해서 하지만, 그저내는 동: 니루다가 땡기민서넝 발:똥기러 가주 땡기민서넝 쪼:끄만 통얼 가주 대기민선 그 발똥기루다 해 가주서넝 인재 찢키두 해구 그래썬유. {그리고는 뭐 이제 기개애다 찢는 것은, 지금은 내가 도정해서 하지만(정미소에 가서 도정을 하지만), 그전에는 동네로 다니면서 발동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그만 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발동기로 해 가지고 이제 찢기도 하고 그랬어요.}

10319 #1 매:방아두 이꾸. {연자방아도 있고.}

10319 # 매:방아넝 베넝 여가내서 안 찢꾸 보리 마:이 찢썬유. {연자방아는 벼는 여간해서 안 찢고 보리를 많이 찢지요.}

10319 @ 매방아는 어트개 생겨썬요? {연자방아는 어떻게 생겼어요?}

10319 # 매방아넝 이동내넝 움:넝대, 땡겨보머넝 돌:루다가 커::다캐 이르게 맵기러거 해: 가주구 저기 거기다가 나무랄 이리개 대:서 그래가주 소애다가 메워가주구 빙:: 도르문 그머 도:리 뽕뽕 도러땡기면 찢어지넝거지. {연자방아는 이 동네에는 없는데, 다녀보면 돌로 커다랗게 이렇게 만든 것 해 가지고 저기 거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대서 그래 가지고 소애다가 메워 가지고 빙 돌면 그러면 돌이 뽕뽕 돌아다니면 찢어지는 것이지.}

10319 @ 이거요? {이것이요?}

10319 # 이거 그거넝 여 여여 꼭때기 여 꼭때기 야, 그거시 이개 소애다 해 가주선 도러땡기머넝 그개 이 꼭썬기 찢어저유. {이것 그것은 여기 여기여기 꼭대기 여기 꼭대기 응, 그것이 이것이 소애다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 그것이 이 꼭식이 찢어져요.}

10319 #1 소릴 미워:가주 끌구 나가면 사라미 기대면 이래 씨러느쿠 그래서 인재 도러가넝 바라매 놀리키서 인재 까지지. {소를 메워 가지고 끌고 나가면 사람이 기대면 이렇게 쓸어 넣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바람에 놀려서 이제 까지지.}

10319 # 그런데 부인내더리 주루: 그냥 저령거뚜 맨:날 키루다 까부녕거지 머. {그런데 부인네들이 주로 그냥 저런 것도 만날 키로 까부는 것이지 뭐.}

10319 # 까:불러 또 느쿠 또 느쿠. {까불러서 또 넣고 또 넣고.}

10319 @ 물루 돌리능거 이짜너요, 이러캐 큰: 통. {물로 돌리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큰 통.}

10319 # 물 물방아래녕거. {물 물레방아라는 것.} 10319 #1 물레방아. {물레방아.}

10319 # 물방아 그거뚜 머여 기개가 이르캐, 물방아 저 머여 그 물 저거 해넌 대다가 머여 나무릴, 나무루다가 인제 개 찢:녕거릴 맹기러노쿠 그개 도라가머닌. {물레방아 그것도 뭐야 기개가 이렇게, 물레방아 저 뭐야 그 물 저것 하는 데에다가 뭐야 나무를, 나무로 이제 그것이 찢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돌아가면.}

10319 # 비가 오닌 소리 때때. {비가 오는 소리 때문에.}

10319 # 나무루다 이르캐 줌 머 저 행 거루다가, 부릴 머야 무리 내리가면 그누미 이러캐 이러캐 눌러머닌 그 나무루 맹기 그기 이르게서 자꾸 찌저유, 사라무루 바 발루 밤:넌 모양으루다. {나무로 이렇게 줌 뭐 저 한 것으로, 물을 뭐야 물이 내려가면 그놈이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그 나무로 만든 그것이 이렇게 자꾸 찢어저유, 사람으로 바 발로 밟는 모양으로.}

10319 # 그래먼 그거 연실 까불르, 치루다 까불러서 느: 가주구 그러캐두 물방아두 해구. {그러면 그것 연방 까불러, 키로 까불러서 넣어 가지고 그렇게도 물레방아도 하고.}

10319 # 또: 기개릴 해: 가주구두 그걸루 해구 그러, 그러치유. {또 기계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하고 그러, 그렇지요.}

10319 @ 그거뚜 이르미 달르자나요, 아까 그 디딜빵아도 발:루 밤:는대두 이꾸, 이르캐 끼워가주구 췌:기가치 해논대두 이꾸, 이르캐 뺀는 거뚜 이꾸, 이르캐 기둥가통거 이꾸, 미테두 요:러캐... 이르미 다 달르자나요? {그것도 이름이 다르잖아요, 아까 그 디딜방아도 발로 밟는 데도 있고, 이렇게 끼워 가지고 췌기같이 해 놓은 데도 있고, 이렇게 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기둥 같은 것 있고, 밑에도 요렇게...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10319 # 야. {예.}

10319 # 절, 방아 화:기라구두 그래고, 절 절구-때라 그래구, 그래구 인제 그 방아-공이라구, 찢능건 저 방아-공이라 그래구 그래유 이르미. {절, 방아확이라고도 그러고, 절 절긱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방앗공이라고, 찢는 것은 또 방앗공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이름이.}

10319 @ 그 아파 이르캐 목찌카개 이르캐 내리가능 거 이진 머라 그래요, 요건? {그 앞에 이렇게 목직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것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요것은?}

10319 # 그걸 그냥 방아라 그래지유. {그것을 그냥 방아라고 그러지요.} #1 \*리라 그래지. {\*이라고 그러지.}

10319 # 거냥 방아유. {그냥 방아요.}

10319 #1 방아 그개 \*:너는 다리 그 사لامي 이거 발:버서 올라가개. 그거는 인제 다리 방아따리. {방아 그개 \*\*\* 다리 그 사람이 이거 밟아서 올라가개. 그것은 이제 다리 방앗다리.}

10319 @ 사람이 밤:녕건 방아따리. {사람이 밟는 것은 방앗다리.}



10319 @ 이리 가가이 오셔유. {이리 가가이 오세요.}

10319 @ 비가 오니까 물소리 마니 나네요.{비가 오니까 물소리가 많이 나네요.}

파일 번호 : 04

SCB\_CJ\_04

과 일 내 용: 구술발화 의생활, 식생활

조 사 자: 박경래(1958년 2월 17일생)

제 보 자: 이종근(李鍾根, 1927년생, 女, 81세 토끼띠, 초등 4년 중퇴, 농업)

보조 제보자: 김성묵(金成默, 1925년 8월 11일생, 男, 83세 소띠, 한글해독, 농업)

전 사 자: 김남정, 박경래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용현 토산부락

조 사 장 소: 제보자의 집

조 사 일 시: 2007년 8월 4일

## 1.4. 의생활

10424 #1 그거는 다디미 빵매이, 이건 빨:래 빵매이. {그것은 다듬잇방망이, 이것은 빨랫방망이.}

10424 #1 빨래 두드릴기능건 빨:래빵매이. {빨래 두드리는 것은 빨랫방망이.}

10424 #1 인재 빨래 잔:물 빠지라구 때웁씨 빠지라구 두드리자너, 비비 빠러다가. {이제 빨래 젓물 빠지라고 때없이 빠지라고 두드리잖아, 비벼서 빨아다가.}

10424 @ 으음:, 잔물 빠지라구 그래능거애요? {응, 젓물 빠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10424 #1 그런 때꼭찌 빼:너라구, 인재 저기 풀 해 가주구 인재 다디미또래 따뜸능건 인재 뽀뽀해개 해너라구. {예, 그 그림 땀국 빼느라고, 이제 저기 풀 해 가지고 이제 다듬잇돌에 다듬는 것은 이제 뽀뽀하게 하느라고.}

10424 @ 예. {예.}

10424 #1 다디미, 다디미빵매이. {다듬이, 다듬잇방망이.}

10424 @ 그럼 빨래할 때: 그 빨래 하는대를 머라 그래요? {그럼 빨래할 때 그 빨래하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10424 #1 빨:래터지유 머. {빨래터지유 뭐.}

10424 @ 그거두 함번 빨구 두번 빨구 그르자너요? {그것도 한 번 빨고 두 번 빨고 그러잖아요?}

10424 #1 그러잉까 아:이 빨구 또 쌀머가주 또 빨구 그르치유. {그러니까 애벌 빨고 또 삶아 가지고 또 빨고 그러지유.}

10424 @ 아이 빨구, 고다매 두번째 빠능건? {애벌 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빠는 것은?}

10424 #1 쌀머가주 빨지유. {삶아 가지고 빨지유.}

10424 @ 예, 그거는 그 머라 그래요, 이 이듬 뽀다 그래요, 두번 두벌 뽀다 그래요, 두벌 빨래라 그래요? {예, 그것은 그 뭐라고 그래요, 두벌 뽀다고 그래요, 두벌 두벌

- 빨다고 그래요, 두벌 빨래라고 그래요?}
- 10424 #1 거냥 이룬대서넌 아:이 빨래, 이듬 빨래 그래유. {그냥 이런 데서는 애벌 빨래, 두벌 빨래 그래요.}
- 10424 @ 이듬빨래. {두벌 빨래.}
- 10424 #1 예:. {예.}
- 10424 @ 양젼물하구 젼물하구 달라유? {양젼물하고 젼물하고 달라요?}
- 10424 #1 양:젼무리야 도캐지유, 야 달르지유. {양젼물이야 독하지요, 예 다르지요.}
- 10424 #1 양:젼무른 인재: 도캐구, 이: 나무 때서 젼:무른 야캐구 그르치유. {양젼물은 이제 독하고, 이 나무를 때서 젼물은 약하고 그렇지요.}
- 10424 @ 양:젼무른 어트개, 사능거요? {양젼물은 어떻게, 사는 것이예요?}
- 10424 #1 그러므뉴, 사지. {그럼은요, 사지.}
- 10424 #1 옴:나랜 사구말구 그렇거뚜 읍써서 그췌 젼:무를 네리 가주 썸때니까. {옛날에는 사고 말고 그런 것도 없어서 글췌 젼물을 내려 가지고 썸다니까.}
- 10424 @ 집 가툽거 태웅겘루, 재루? {짚 같은 것 태운 것으로, 재로?}
- 10424 #1 네. {예.}
- 10425 @ 빨래해서 말린 다으매요, 말릴 때 어디 가따 말려요? {빨래 해서 말린 다음에요, 말릴 때 어디 갖다 말려요?}
- 10425 #1 주릴 매찌: 이러캐. {줄을 땀지 이렇게.}
- 10425 #1 에 주릴 매구 올따리가 그저넌 올따릴 해짜너유 수수깁이루 여꺼서, 올타리 까애 두 가따 널:구 그저 주래두 널:구 이러치유 머. {예 줄을 매고 올타리가, 그전에는 올타리를 했잖아요 수수깁으로 엮어서, 올타리 가에도 갖다가 널고 그저 줄에도 널고 이렇게요 뭐.}
- 10425 @ 무슨 주리요? {무슨 줄이요?}
- 10425 #1 빨래쭈릴 매지유. {빨랫줄을 매지요.}
- 10425 @ 아 빨래쭈를 매구. {아 빨랫줄을 매고.}
- 10425 #1 야:, 저기저 머 주릴 디리가주 매:지. {예, 저기 저 뭐 줄을 드려 가지고 매지.}
- 10425 @ 멀:루 맨드러썸요, 그 빨래쭈른?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그 빨랫줄은?}
- 10425 #1 빨래쭈른 호니 저:기저 왜 칙 꼬너다가 그 동가리 동가리 내: 가주구 요만큼 동가리가 이찌유, 고거덜 요르캐 폭: 당귀따가 그거뚜 이러캐 빼끼유, 빼끼서 이래 해 아서 가주구 그걸 인재 해서 파:가주구 디려서 해지유. {빨랫줄은 흔히 저기저 왜 칙 끊어다가 그 동강 동강 내 가지고 요만큼 동강이 있지요, 그것을 요렇게 폭 담갔다가 그것도 이렇게 벗겨요, 벗겨서 이렇게 해 앓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서 파 가지고 드려서 하지요.}
- 10425 @ 그래서 인재 말리가꾸 여기다가 노쿠 이거 하지요? {그래서 이제 말려 가지고 여기에다가 놓고 이것 하지요?}
- 10425 #1 그건 푸릴 해이지, 말린 뒤:애 푸릴 쏘: 가주구 또 풀 쏘:가 주 이래 죄: 뭇개 가주구 무릴 부꾸 뵤만치, 풀 드릴만치 해 가주 또 빨랴 다 거더 느쿠 박:빠 이래 츠대가주구선 또 짜: 너러따가 비득비드:캐개 인재 그 물마초서, 뚜디리기 조을만 침 물마초서 가따가 투죄: 요러캐 퍼 가주군 요러캐 개: 가주구서넌 다디미뽕매이 저기 다디미뽕매다 노쿠 다디미뽕매이루 막 뚜디리자너유, 그개 파:나개 폐이라구. {그것은 풀을 해야지, 말린 뒤에 풀을 썬어 가지고 또 풀 썬어 가지고 이

렇게 죄다 뭉개 가지고 물을 붓고 될 만큼, 풀이 들 만큼 해 가지고 또 빨래를 다 걸어서 넣고 박박 이렇게 치대 가지고서 또 짜서 널었다가 구덕구덕하게 이제 그 물 맞춰서, 두드리기 좋을 만큼 물 맞춰서 갖다가 \*\* 요렇게 퍼 가지고는 요렇게 개어 가지고 다듬잇방망이 저기 다듬잇돌에다 놓고 다듬잇방망이로 막 두드리잖아요, 그것 팬하게 퍼지라고.}

10425 @ 네. {네.}

10425 #1 그래가주.{그래 가지고 (해요).}

10425 @ 다디미 빵매이루 이르케 두드리능 걸 머:한다 그래요? {다듬잇방망이로 잃게 두드리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래요?}

10425 #1 다디미해, 다디미한다구. {다듬이해, 다듬이한다고.}

10425 @ 다디미 한다. {다듬이 한다.}

10425 #1 야:. {예.}

## 1.5. 식생활

10522 # 수 아이 술 안 해시나, 술 저 쏘주 한 잔 해시구 해유. {술 아니 술 안 하신, 술 저기 소주 한 잔 하시고 해요.}

10522 @ 저는 술 모태요. {저는 술 못 해요.}

10522 # 예? {예?}

10522 @ 수를 모태요. {술을 못 해요.}

10522 # 예:. {예.}

10522 #1 시방덜 술 안자셔. {지금은 술 안 자시여.}

10522 # 차 가주구 땡기시넌 분더런 안 더러 자시기 때무내.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안 자시기 때문에.}

10522 @ 아니, 그래서 모타능개 아니라 수를 아애 모태요, 저는. {아니, 그래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수를 아애 못 해요, 저는.}

10522 # 예. {예.}

10522 @ 술 마시면 아:무거뽀 모태요. {술 마시면 아무 것도 못 해요.}

10522 #1 잘 해시찌, 머. {잘 하셨지, 뭐.}

10425 @ 그리구 나서 인재 저기 수태다가 이러케 해야 되자너요, 그거 이러케?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솥에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 이렇게?}

10425 #1 다리미질? {다리미질?}

10425 @ 예:. {예.}

10425 #1 예. {예.}

10425 #1 다리미::가 요 요기 요리:캐 똥:그라쿠 여기 자:루 이꾸, 거기다 순뿌럴 퍼: 가주구 인재 미태 다:르른 인재, 저:기서 불짜꾸 여기서 불짜꾸 이:개 한짝 따리는 놀:르구 한짝 따린 불짜꾸 다리 허허허 이래구 다리 입짜너. {다리미가 요 요기 요렇게 둥그랗고 여기 자루 있고, 거기에다 솥불을 피워 가지고 이제 밀이 달면 이제, 저기에서 불잡고 여기에서 불잡고 이렇게 한쪽 다리는 누르고 한쪽 다리는 불잡고 다리 허허허 이렇게 하고 다려 입잖아.}

10425 @ 예애. {예.}

10425 @ 그거 할 때 아까 쪼끄맏개 머라구요? 이만:항 거? 온 온 만들때 눌르능거, 꼬:멜 때 아까, 술기 팬:하라구 눌르능거. {그것 할 때 아까 조그만 것이 뭐라고요? 이만한 것? 옷 옷 만들 때 누르는 것, 꿔멜 때 아까, 술기 판판하라고 누르는 것.}

10425 #1 아: 인두판. {아 인두판.}

10425 @ 인두판?

10425 #1 예 요만:행거 이제 물과개 노쿠 이래 홈:지릴 해 가주구서 이: 등쏘른 요러캐 발:디헨다구 실빠블, 그래가주 거기다 노쿠 이래 치믈 애: 발러 가주구 여기다 노쿤 화:리에서 인두를 끄내다가 싹: 소카릴 이래 문질르믈 판:해유, 그러케 해유. {예 요만한 것 이제 무릎에 놓고 이렇게 홈질을 해 가지고 이 등술은 요렇게 발리한다고 실밥을,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놓고 이렇게 침을 애(하고) 발라 가지고 여기에다 놓고는 화로에서 인두를 꺼내다가 싹 술기를 이렇게 문지르면 판해요, 그렇게 해요.}

10425 @ 그럴 발:리한다 그래요? {그것을 발린다고 그래요?}

10425 #1 여 어깨뚱언 이래 흥 거릴 요르케 독:뚱 끝거서 발리야 되고. {이 어깨등은 이렇게 혼 것을 요렇게 독독 굽어서 발려야 되고.}

10425 #1 어 이런 술카리넨 이 술카리두 여기 술카리는 서루가 이:짜근 이리 꺼꾸 이:짜근 이리 꺼꾸 이래유, 그래가주 술카리는 또 술카리넨 항호 가넨대넨 또 요러케 꺼꺼 가주구서넨 또 이러케 다리구 이래유. {응 이런 술기는 이 술기도 여기 술기는 서로가 이쪽은 이리로 꺾고 이쪽은 이리로 꺾고 이래요, 그래 가지고 술기는 또 술기는 \*\* 가는 데는 또 요렇게 꺾어 가지고 또 이렇게 다리고 이래요.}

10425 @ 아 발리능거는 그래까 이케 찌:기 접 접칭거를 펴:서 펴능 거네요? {아 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겹 겹친 것을 펴서 펴는 것이네요?} 10425 #1 그르치유, 바느질 바느질 바벌. {그렇지요, 바느질 바느질밥을.}

10425 @ 예, 펴:가주구 요러케 파:나게 하능 거... {예, 펴 가지고 요렇게 판하게 하는 것...}

10425 #1 그거뚜 등 여기 어깨쪽찌 등언 그러케 해, 등쏘른 그러케 해구, 인재 여기 등췌하구 여 배:래기 하구는 꺼 꺼꺼거서 눌르구 이래유. {그것도 등 여기 어깨쪽지 등은 그렇게 해, 등술은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등술하고 여기 배래기하고는 꺾 꺾어서 누르고 이래요.}

10425 #1 아주 해넹개 만:치. {아주 하는 것이 많지.}

10425 @ 그 다디미 할 때 이러케 미태 논 그, 그 돌두 이꾸 나무두 이짜너요? {그 다듬이질 할 때 이렇게 밑에 놓은 그, 그 돌도 있고 나무도 있잖아요?}

10425 #1 예. {예.}

10425 @ 근 머라 그래요?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10425 #1 다드미또리라 그래지, 다디미-돌:. {다듬잇돌이라고 그러지, 다듬잇돌.}

10425 @ 그거는 멀루 맨드러요?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10425 #1 그래잉까 돌:루두 까꺼 해구, 또 박팔라루 단단행 거, 박팔랑구루두 해구 대추나무루두 해구 이래능가버유. {그러니까 돌로 깎아 하고, 또 박달나무 단단한 것, 박달나무로도 하고 대추나무로도 하고 이러는가봐요.}

10426 @ 그러구 그러면 온 깔 가지고 인재 하야차나요 그거, 물두 디리자나요, 그저내?

{그러면 그러면 옷감 가지고 이제 하얗잖아요 그것, 물도 들이잖아요, 그전에?}

10426 #1 예. {예.}

10426 @ 그 무를 디릴 때는 멀:루 디려요? {그 물 들일 때는 무엇으로 들여요?}

10426 #1 그래잉까 사다가 해:지유, 엔:나렌 다: 사다 해유 물까덜. {그러니까 사다가 하지요, 옛날에는 다 사다가 해요 물감을.}

10426 @ 물까믈료? {물감을요?}

10426 #1 예. {예.}

10426 #1 사다가 물 그 오감 드를만:치 보가주구 인재 주머이럴 지:가주 고기다 터러 보:가주구 조물락조물락 무래다 풀자너유, 그래가주 인재 지 푸러저쓰면 골고루 즈:가주구 인재 빨래를 느쿠 조물락조물라캬 무리 드려유. {사다가 물(감을) 그 옷감 들을 만큼 부어 가지고 이제 주머니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털어 부어 가지고 조물락조물락 물에다 풀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죄다 풀어졌으면 골고르 저어 가지고 이제 빨래를 넣고 조물락조물락하면 물이 들어요.}

10426 @ 그거 저 풀두 인찌 아나요, 풀? {그것 저기 풀도 있지 않아요, 풀?}

10426 #1 아이 지그면 다: 여 자연산 저거루 맨드려유. {아니 지금은 다 여기 자연산 저것으로 만들어요.}

10426 @ 그렇까 그저내 풀, 푸링가요 그걸 비다가 그걸 물디리능거뚜 이짜나요? {그러니까 그전에 풀, 풀인가요 그것 베어다가 그것으로 물 들이는 것도 있잖아요?}

10426 #1 쎄:찌유, 만:치유 머:. {쎄지요, 많지요 뭐.}

10426 @ 그거 머애요, 그걸 머:라 그래요, 그 이르미 이짜나요, 머 쪽? 쪽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있잖아요, 뭐 쪽? 쪽물?}

10426 #1 자연산 물까미지 머 그개, 자연산 물까미라 그래지 시방은. {자연산 물감이지 뭐 그것이, 자연산 물감이라고 그러지 지금은.}

10426 @ 그거 푸르스름: 항거 이쁜대 이르게, 쪽무리라 그래나요? {그것 푸르스름한 것 있던데 이렇게, 쪽물이라고 그러나요?} @ 남 남, 남: 남 남색? {남 남, 남 남 남색?}

10426 @ 남생물, 이 이런색 나능거요. {남색물, 이 이런 색 나는 것이요.}

10426 #1 자주색:? {자주색?}

10426 @ 예. {예.}

10426 @ 이른생 나능거, 그 풀 푸리 인능거 가때요. {이런 색 나는 것, 그 풀 풀이 있는 것 같데요.}

10426 #1 그쎄 시방언 마캉 글 풀: 머 뜨더 가주구덜 해능가바유, 엔:나렌 다: 사서 헨꺼 등. {글쎄 지금은 모두 그 풀 뭐 뜯어 가지고들 하는가 봐요, 옛날에는 다 사서 했거든.}

10427 @ 그: 빨래할 때:, 빨 빨래, 그른 까튼거 따:루 따갈 때 기와짱 뽀: 가루 가통 걸루 두 빨:래해요? {그 빨래할 때, 빨 빨래, 그릇 같은 것 따로 닦을 때 기와장 뽀은 가루 같은 것으로도 빨래해요?}

10427 #1 아:니유, 노끄를 따:꺼유. {아니요, 닳그릇 닦아요.}

10427 @ 기와장 뽀걸루? {기와장 뽀은 것으로?} #1 노끄룩... 야. {닳그릇... 예.}

10427 #1 그걸 빠:서 고:운 체루 쳐 가주구, 엔:나렌 다 노끄를 빠다머겨짜너유? {그것을 뽀아서 고운 체로 쳐 가지고, 옛날에는 다 닳그릇을 이용해서 먹었잖아요?}

10427 @ 네. {예.}

10427 #1 그래서 인재 그걸 집주새이다 해: 자주 그걸 찌거서 보:야캐 딱찌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집 수세미에다 해 가지고 그것을 찍어서 보양게 닭지요.}

10427 @ 기 소니 마니 가깨썬유? {그 손이 많이 갔겠어요?}

10427 #1 하:주 여 여잔 죄:가 마나 여자가 돼썬유 그썬:, 아이구 말두 모태지 머. {아주 여 여자는 죄가 많아 여자가 되었어요 글썬, 아이고 말도 못 하지 뭐.}

10427 #1 남:자더런 요, 머꾸 시면 드리두 가서 크니리나 해자너, 으: 국쩍국쩍캥거. {남자들은요, 먹고 힘은 들어도 가서 큰일이나 하잖아, 응 굶직굶직한 것.}

10427 #1 이 여자래닌 존재닌 그저 만:날 머꾸 치우구 딱짜거리구 빨래 해이피구 머 이리 말을 썬가 이썬유, 그래잉간 칠가지 지 죄릴 썬서 여자가 돼땀유. {이 여자라는 존재는 그저 만날 먹고 치우고 달그락거리고 빨래 해 입히고 뭐 일이 마를 사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칠 가지 죄를 지어서 여자가 되었대요.}

10427 @ 허 누가 그래요? {허 누가 그래요?}

10427 #1 네리오닌 마:리. {내려오는 말이.}

10427 #1 칠가지 죄:릴 저서 여자가 돼땀여. {칠 가지 죄를 지어서 여자가 되었대.}

10427 @ 칠가지가 머머애요, 머: 머가 칠가지애요? {칠 가지가 뭐 뭘애요, 뭘 뭘가 칠 가지애요?}

10427 #1 그래잉간 시미 드니깐, 몰:르지 우린 그저닌.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모르지 우린 그것은.}

10427 @ 오:타구 빨:래하구 머 이불 꼬매구 머. {옷하고 빨래하고 뭘 이불 꿰매고 뭘.}

10427 #1 다:헨내 모. {다 했네 뭘.}

10427 @ 인재 인재 인재는 멍능 거 해야지요 허허. {이제는 이제 먹는 것 해야지요 허허.}

10427 #1 멍능거 해이지, 멍능거 밤: 머꾸 해유. {먹는 것 해야지, 먹는 것 밥 먹고 해요.}

10427 #1 밥 자썬구 해여, 국뚜 꼬리다 말구 이래구 안저썬 허허허. {밥 잡숫고 해요, 국도 끓이다 말고 이러고 앉아 있어 허허허.}

## 1.5. 식생활

10501 @ 채:소 이썬요, 채:소? {채소 있지요, 채소?}

10501 # 예:. {예.}

10501 @ 바태서 기르는 채소는 어떻거뜨리 이썬요? {밭에서 기르는 채소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10501 # 그썬 머 주로 머 무: 배추구, 거기 머 파:, 먼... {글썬 뭘 주로 뭘 무 배추고, 거기 뭘 파, 뭘...}

10501 # 여 이:르미 여:러 가지지유 머, 그 머. {그 이름이 여러 가지지요 뭘, 그것 뭘.}

10501 @ 파: 이꾸? {파 있고?}

10501 @ 하이튼 바태 심능거 다: 한번 말쓰매 보셔요 머 인, 허허 바태 심능거 머던지. {하여튼 밭에 심는 것 다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뭘 있(는지), 허허 밭에 심는 것

뭐든지.}  
 10501 # 다 얘기할 수 있나. {다 이야기할 수 있나.}  
 10501 #1 배:추 무: 상:추 또: 시금치 머 썰:찌 머 당근 양파: 대파: 당파:. {배추 무 상추  
 또 시금치 뭐 썰지 뭐 당근 양파 대파 쪽파.}  
 10501 # 머어: 수:두 읊어 말:두 모태지. {뭐 수도 없어 말도 못 하지.}  
 10501 #1 만:치:. {많지.}  
 10501 #1 머 시방은 머 치꺼리라 양배추라 머: 오:이 머어: 말:두 모태지 머:. {뭐 지금은  
 뭐 치꺼리다 양배추다 뭐 오이 뭐 말도 못 하지 뭐.}  
 10501 @ 요고 요고마:냉건 머라 그래요, 무: 돼기저내. {요것 요것만한 것은 뭐라고 그래  
 요, 무 되기 전에.}  
 10501 #1 다발, 다발짜... 다발무. {다발, 다발... 다발 무.}  
 10501 @ 다발무? {다발무?}  
 10501 #1 예. {예.}  
 10501 # 머해래유. {뭐하래요.}  
 10501 #1 알타리무, 알타리무. {총각무, 총각무.}  
 10501 @ 열... {열...}  
 10501 #1 열무 왜 미태 요만큼 무: 드능 거 알타리무. {열무 왜 밑에 요만큼 무 드는 것  
 총각무.}  
 10501 @ 열무:하구 알타리무하구 달롱거지요? {열무하고 총각무하고 다른 것이지요?}  
 10501 # 달르지유, 달르지. {다르지요, 다르지.}  
 10501 #1 열무넌 그냥 키워 뽀버멍능거구, 요건 미태 무:가 쪼끄마름 무래 드러서 알타리  
 총각짬지라 그래지. {열무는 그냥 키워 뽑아 먹는 것이고, 이것은 밑에 무가 조  
 그맣게 무가 들어서 총각무, 총각짬지라고 그러지.}  
 10501 @ 부:추라 그래요, 정구지라 그래요? {부추라고 그래요, 정구지라고 그래요?}  
 10501 #1 정구지라구두 해구, 부:추라구두 해구. {예, 정구지라고도 하고, 부추라고도 하  
 고.}  
 10501 @ 여기선 어떤 마:를 더 마니 써요? {여기서는 어떤 말을 더 많이 써요?}  
 10501 #1 여기두 정구지라구 해넌 사람두 이꾸, 그래잉간 분:추라구두 해구 이래유. {여기  
 도 정구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분추라고도 하고 이래요.}  
 10501 @ 분추? {부추?}  
 10501 #1 야. {예.}  
 10501 @ 할머니는 어쩔말 주로 써요? {할머니는 어떤 말 주로 써요?}  
 10501 # 부:추지. {부추지.}  
 10501 #1 분:추. {분추.}  
 10501 @ 으:, 분추라구. {아, 분추라고.}  
 10501 @ 그렇거 이꾸 저:기 머 매다러농거 저렁거뚜 이꾸. {그런 것 있고 저기 뭐 매달아  
 놓은 것 저런 것도 있고.}  
 10501 #1 오:이. {오이.}  
 10501 @ 오이 이꾸. {오이 있고.}  
 10501 #1 호:박 이꾸. {호박 있고.}  
 10501 @ 호:박. {호박.}

10501 #1 도마도. {토마토.}

10501 @ 도마도. {토마토.}

10501 # 허허 그기 채소여, 도마도가? {허허 그것이 채소야, 토마토가?}

10501 #1 야:채루 드러가자너 다:, 야:채라 그리여. {야채로 들어가잖아 다, 야채라 그래.}

10501 @ 호:박 도마도 또 머? {호박 토마토 또 뭐 (있어요)?}

10501 # 우리 멍녕거넌 머 쎬:찌 머. {우리 먹는 것은 뭐 쎬지 뭐.}

10501 @ 가:지. {가지.}

10501 #1 예: 가:지, 자꾸 빠:저, 마:미 이거 찌거 해능개 마는데, 빠:지능거 지금. {예 가지, 자꾸 빠져, 마음이 이것저것 하는 게 많은데 빠지는 것이 지금.}

10501 @ 저 저:기 시머농거 저렁거. {저 저기 심어 놓은 것 저런 것.}

10501 #1 피:망. {피망.}

10501 @ 피망. {피망.}

10501 #1 머어:... {뭐...}

10501 @ 바태 시믄. {밭에 심은.}

10501 #1 꼬:추:. {고추.}

10501 @ 고추:. {고추.}

10501 @ 양념 하는 저... {양념하는 저...}

10501 #1 마늘. {마늘.}

10501 @ 마늘, 또 저 생... 양념 하능거 이르게 냄새나능거 이찌요 왜? {마늘, 또 저 생... 양념하는 것 이렇게 냄새 나는 것 있죠 왜?}

10501 #1 생강. {생강.}

10501 @ 예 생강. {예 생강.}

10501 @ 쑥갓뚜 시머유? {쑥갓도 심어요?}

10501 #1 야, 그거뚜 해유. {예, 그것도 해요.}

10501 @ 시금치 머 이렁거, 저:기두 이짜나요, 저 저 토란. {시금치 뭐 이런 것, 저기도 있잖아요, 저 저 토란.}

10501 #1 예 그뚜 이찌유. {예 그것도 있지요.}

10501 #1 토란두 이꾸, 우형두 이꾸. {토란도 있고, 우영도 있고.}

10501 @ 우영, 우형? {우영, 우형?}

10501 #1 야 우영. {예 우영.}

10501 @ 우영? {우영?}

10501 #1 예. {예.}

10501 @ 또 연, 연 연근? {또 연, 연 연근?}

10501 #1 예, 영근. {예, 연근.}

10501 #1 연모새 난 시머션 왜 꼬피구: 무수거치 지:다캐 하구 쓰르면 딱딱 구녀기 뜯버져 이꾸. {연못에 나서 심어서는 왜 꽃 피고 무같이 기다랗게 하고 썰면 딱딱 구멍이 뚫어져 있고.}

10503 @ 그건 어트리 해머거요? {그것은 어떻게 해 먹어요?}

10503 #1 그거뚜 다: 쓰러 가주구 티기기뚜 해구 다: 양념 해서 반찬해멍는 거지유, 쪼리기두 해구. {그것도 다 썰어 가지고 튀기기도 하고 다 양념해서 반찬 해 먹는 것이지요, 졸이기도 하고.}



10501 @ 고구마두 이꾸, 감자두 이꾸.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10501 #1 만:치유 머, 허허허 잠:능거. {많지요 뭐, 허허허 \*는 것.}

10501 # 거 자꾸 행건대유, 머 자꾸 해유. {그것 자꾸 한 것인데요, 뭐 자꾸 해요.}

10501 @ 배:차애 이르캐 보먼 거태 시퍼러쿠 소개는 노:라차나요? {배추에 이렇게 보먼  
겉은 시퍼렇고 속은 노랗잖아요?}

10501 # 예. {예.}

10501 #1 호배차, 호:추, 꼬개이 안능거. {호배추, 호배추, 고갱이 앓는 것.} 10501 # 아이  
거 거때 꼬개이하구 걸뚜리하구 그거지 머. {아니 겉 걸대 고갱이하구 걸대하고  
그것이지 뭐.}

10501 #1 조선배추 머. {조선배추 뭐.}

10501 @ 호배차는 이거 똥그렁거요? {호배추는 이것 똥그란 것이요?}

10501 #1 아이, 꼬개이 안능거. {아니, 고갱이 앓는 것.}

10501 @ 예, 똥:그렁거? {네, 똥그런 것?}

10501 #1 야:. {예.}

10501 @ 이르캐 빠끼능거, 하나씩. {이렇게 벗기는 것, 하나씩.}

10501 #1 야. {예.}

10501 @ 그개 호배차. {그것이 호배추.}

10501 @ 그리구 저:기 짐장할 때: 무 무를 이르캐 찢르자나요, 그러면 위애 아래가 달라지  
자나요, 위애년 푸 저 이퍼리가 시퍼러차너요. {그리고 저기 김장할 때 무 무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위 아래가 다르잖아요, 위는 푸 저 잎이 시퍼렇잖아  
요.}

10501 #1 씨:라기, 무:씨래기. {시래기, 무 시래기.}

10501 @ 씨래기? {시래기?}

10501 #1 야. {예.}

10501 #1 여꺼다라따 찢머서 요:리두 해머꾸, 무수년 김장 해는대 드리가구 머 무말래이두  
해구:. {엮어 달았다가 삶아서 요리도 해 먹고, 무는 김장하는 데 들어가고 뭐 무  
말랭이도 하고.}

10501 @ 머털 해요? {무엇을 해요?}

10501 #1 무:말래이. {무말랭이.}

10501 @ 무:말래이. {무말랭이.}

10501 #1 쓰:러서 이래 말리능거. {썰어서 말리는 것.}

10501 # 쓰:래기가 드리가는대 그개 만:치유 머, 도시에서매 그 저 순대꼭캐는대 제:일 마  
니 드리가넌대. {시래기가 들어가는 데 그것이 많지요 뭐, 도시에서는 그 저 순  
대국 하는 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10501 @ 예. {예.}

10501 # 순대. {순대.}

10501 @ 무청이래능건 멀: 무청이라 그래요? {무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무청이라고  
그래요?}

10501 #1 무:청이래능개 이 미태는 무:라해구 우애 인녕거 가주구 무:청이라 그래유. {무청  
이라는 것이 이 밑에는 무라고 하고 위에 있는 것 가지고 무청이라고 그래요.}

10501 #1 무, 무:애 인녕거. {무, 무에 있는 것.}

10501 @ 짜 그 잘라쓸 때 얘기예요 부터이쓸 때 얘기예요? {잘 그 잘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501 #1 잘러썰때 얘기태지, 무청. {잘랐을 때 이야기일테지, 무청.}

10501 @ 아 무:를 잘라내구 우애꺼? {아 무를 잘라내고 위의 것?}

10501 #1 예. {예.}

10501 @ 고거 말르른 씨래기구? {그것 마르면 시래기고?}

10501 #1 예:. {예.}

10501 @ 그거 저:기 그냥 나두면 꼬피자너요, 이러:캐? { 그것 저기 그냥 놔 두면 꽃 피잖아요, 이렇게?}

10501 #1 그른대 그거뚜 갈: 무넌 꼬대이 암 피구 어끄루 갈:면, 인재 저기저 마늘 캐구 인재 어끄루 못 먹짜너유, 그 가:능건 인재 꼬시 퍼유, 오래 되면. {그런데 그것도 가을 무는 꽃이 안 피고 엇그루 갈면, 이제 저기 저 마늘 캐고 이제 엇그루 이제 못 먹잖아요, 그 가는 것은 이제 꽃이 피어요, 오래 되면.}

10501 @ 그건 머라 그래요, 끝 피능거 무, 무:가 꼬피능거?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꽃 피는 것 무, 무가 꽃 피는 것?}

10501 # 장:다리유, 장:다리. {장다리예요, 장다리.}

10501 @ 장:다리. {장다리.}

10501 #1 장:다리가 서 가주 인재 거기서 씨가 생기자너유, 끝 피 가주 장다리가. {장다리가 서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씨가 생기잖아요, 꽃 피어 가지고 장다리가.}

10501 @ 그: 저기 물까애 가튼대 가면 도 뜨더다 명능거 이짜나요, 무래서 잘: 크능거. {그 저기 물가 같은 데 가면 또 뜯어다 먹는 것 있잖아요, 물에서 잘 크는 것.}

10501 # 미:나리? {미나리?}

10501 @ 예? {예?}

10501 # 미:나리유? {미나리요?}

10501 @ 미나리, 예. {미나리, 예.}

10501 # 물까애 그 뜨더다 명능거 미나리유. {물가에 그 뜯어다 먹는 것 미나리요.}

10501 #1 미:나리. {미나리.}

10501 @ 그거 머애 조태요? {그것이 무엇에 좋대요?}

10501 #1 그기: 철부니 마:너서유, 여러 가지루 조태유. {그것이 철분이 많아서요, 여러 가지로 좋대요.}

10502 @ 그렇거 어트개 길러요, 다? {그런 것 어떻게 길러요, 다?}

10502 #1 그거넌 머 뿌래이 캐 가주구 인재 물 지적지저켄대 그른대 물: 흘러 네리가는데 시머노른 잘 사러유, 노내. {그것은 뭐 뿌리를 캐 가지고 이제 물 지적지적한 데 그런 데 물 흘러내려가는 데 심어 놓으면 잘 살아요, 논에.}

10502 @ 호:바근노, 호박근 어트개 시머요? {호박은요, 호박은 어떻게 심어요?}

10502 #1 호:박뚜 인재: 구대이릴 파구서넌 인재 거기다 거러멀 미꺼러멀 하구 호걸 더:꾸 씨:루 느:두 되구, 또 모를 일 커배다 무를 모를 또 보:따가 심끼두 해구 이래유. {호박도 이제 구덩이를 파고서 이제 거기에다 거름을 밑거름을 하고 흙을 덮고 씨로 넣어두 되구, 또 모를 컵에 모를 모를 또 부엌다가 심기도 하고 이래요.}

10502 @ 호바근 그냥 시머노키만 하면 되요? {호박은 그냥 심어놓기만 하면 돼요?}

10502 # 네. {예예.} #1 야. {예.}

10502 #1 커:서 인재 올라가면서, {커서 이제 올라가면서,} # 씨가 달려유. {씨가 달려요.}  
 달:리능거유, 그거뚜 자꾸 가지만 마:이 츠머넌 그개 들: 달리기 때때 미태 줌 저  
 기행건 차내 부리여 해유, 떠내 부리여 해유. {달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꾸 가지  
 만 많이 치면 그것이 덜 달리기 때문에 밑에 좀 저기한 것은 쳐 내버려야 해요,  
 떼어내 버려야 해요.}

10502 @ 상추는뇨, 상추는 어트개 시머요? {상추는요, 상추는 어떻게 심어요?}

10502 #1 상추두 갈:기두 해구, 모버:따 심:끼두 해구 이래유. {상추도 갈기도 하고, 모를  
 부엌다가 심기도 하고 이래요.}

10502 @ 그거는 씨:는 어트개 해요?

10502 #1 그거뚜 마창가지루 인재 오래 나:두면 이러캐 동이 서서 올라가 가주구 꼬:시  
 퍼:가주구유 고기서 인재 생기녕거유. {그것도 마창가지로 이제 오래 놓아 두면  
 이렇게 동이 서 올라가 가지고 꽃이 퍼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10502 @ 파:두 씨루 하나요? {파도 씨로 하나요?}

10502 #1 인재 대파넌 대파두 인재 저기저 시므면 그개 무거야 되유, 올해 강거 내년 보매  
 가서 이러캐 인재 조와 가주구 거기서 꼬:시 나와유. {이제 대파는 대파도 이제  
 저기 저 심으면 그것이 묵어야 돼요, 올해 간 것은 내년 봄에 가서 이렇게 이제  
 주워 가지고 거기에서 꽃이 나와요.}

10502 #1 꼬시 나와서 인재 꼬시 하이:야캐 피어 가주구 고기서 인재 새, 씨가 생겨 가주  
 구 여무르유, 여무르른 새:카매캐. {꽃이 나와서 이제 꽃이 하얗게 피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생, 씨가 생겨 가지고 여물어요, 여물면 새카맣게.}

10502 # 당파는 씨루 해구. {쪽파는 씨로 하고.}

10502 #1 응, 당파는 뿌리루 씨루. {응, 쪽파는 뿌리로 씨로.}

10502 #1 당파는 인재 요래 인재 김장 핏째 마이 쓰닝거, 이 쪽파를 여 그거넌 인재 요마:  
 큼 헨 쪼가리를 요래 하나씩 시머노면뉴 그개 인재 멘:까다리 돼유, 그러캐 아녀,  
 그래 가주구 인재 시머노면 이르캐 조으면 인재 뽀버서 먹찌유. {쪽파는 이제 요  
 령게 이 김장할 때 많이 쓰는 것, 이 쪽파 이(것), 그것은 이제 요만큼한 쪼가리  
 를 요렇게 하나씩 심어 놓으면요 그것이 이제 몇 가닥이 돼요, 그렇게 안아, 그  
 래 가지고 이제 심어 놓으면 이렇게 좋으면 이제 뽀아서 먹지요.}

10503 @ 그렇거 요리: 할때는뇨, 채소요, 채소 요리 할:때 나물 어트개 무쳐요, 나물 무치  
 능거? {그런 것 요리할 때는요, 채소요, 채소 요리할 때 나물은 어떻게 무쳐요?}

10503 #1 나물 무치닝거? {나물 무치는 것.}

10503 @ 예. {예.}

10503 #1 나물... {나물...}

10503 @ 겉절리 하자나요? {겉절이 하잖아요?}

10503 #1 예, 나:물 무치닝거넌 인재 저기저 모여 김치, 이 김치 우선 머글꺼넌 인재 겉  
 찌리 해서 인재 함번 행거 내버리구 그래가주군. {예, 나물 무치는 것은 이제 저  
 기저 뭐야 김치, 이 김치 우선 먹을 것은 이제 겉절이 해서 이제 한 번 행귀 내 버  
 리고 그래 가지고는.}

10503 # 소그르루다, 소그르루 주겨여지유 머. {소금으로 죽여야지요 뭐.}

10503 #1 어 주겨서, 슬쩍 주겨 가주구 씨: 낀찌 가주구 인재 무리 빠머넌 거기다가 인재  
 액쩍 이짜너요, 액찌설 간달만:치 풀구: 또 머: 양파두 가리 느쿠 마늘 머 양념해

서넛 꼬추까루하구 요리개 서꺼 가주구 고기다 당개당개 무치면 되녕거지. {응 죽여서, 슬쩍 죽여 가지고 씻어서 건져 가지고 이제 물이 빠면 거기에다가 이제 액젓 있잖아요, 액젓을 간이 될 만큼 풀고 또 뭐 양파도 갈아 넣고 마늘 뭐 양념 해서 고춧가루하고 요렇게 섞어 가지고 거기에다 차곡차곡 무치면 되는 것이지.}

10503 @ 그 배추김치는 어트개 해요? {그럼 배추김치는 어떻게 해요?}

10503 #1 다 그러케 해요. {다 그렇게 해요.}

10503 @ 거찌리하구 똑까치 해요? {길절이하고 똑같이 해요?}

10503 #1 김장 해능거? {김장 하는 것?}

10503 @ 예. {예.}

10503 #1 김장 해:넛 배추넛 인제 통째루, 크니까: 바:닐 쪼개자나유. {김장 하는 배추는 이제 통째로, 크니까 반을 쪼개잖아요.}

10503 #1 바:닐 쪼개 가주구서넛 인제 소그무럴 푸러유, 소금무럴 푸러 가주구 함분 이래 적써 가주군 내노쿠서는, 커:단대다 내노쿠 소금무럴, 꼬갱이럴 체키노쿠 소금무럴 후:를 뿌리유 막, 그래서 케케루 이래 노머넛 그개 인제 하루뺨 자구나면 주거유. {반을 쪼개 가지고서 이제 소금물을 풀어요, 소금물을 풀어 가지고 한 번 이렇게 적써 가지고 내 놓고서는, 커다란 데에다 내 놓고 소금물을, 꼬갱이를 쪼혀 놓고 소금물을 훌훌 뿌려요 막, 그래서 켜켜이 이렇게 놓으면 그것이 이제 하루뺨 자고 나면 죽어요.}

10503 #1 그래 인제 중:넛 다매 인제 꺼지서 씨여: 가주구 모여 죽: 씨여서 꺼지 노먼, 꺼지노쿠서 바루 인제 이 양:너믈 해 가주구 마:니 그 양너믈 마:니 해가주군 거기다 새이새이 인제, 꺼지 논 배차애다가 짹짹해게 양너믈 해:가주 발:르자나유. {그러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건져서 씻어 가지고 모두 죽 씻어서 건져 놓으면, 건져 놓고서 바로 이제 이제 양념을 해 가지고 많이 그 양념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다 사이사이 이제, 건져 놓은 배추에다가 짹짹해게 양념을 해 가지고 바르잖아요.}

10503 #1 그렇거넛 머 예:전 꺼시 아니구 지금두 자:꾸들 해 가주구 머 텔레비보구 다: 잘 해구 인넛대유 머, 그까이꺼 애:기해나마나 그러치유 마캥 \*\*\* 다 \*\*\* \*\*유 머... {그런 것은 뭐 예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자꾸들 해 가지고 뭐 텔레비전 보고 다 잘하고 있는데요 뭐, 그까짓 것 이야기하나마나 그렇지요 모두 \*\*\* 다 \*\*\* \*\*유 뭐...}

10503 @ 그 양너믈 멀:루 해요, 멀:루 어트개 만드능 거요? {그 양념은 무엇으로 해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능 거예요?}

10503 #1 아:이 주로 인제: 겨 모여, 겨울개 우선 머글꺼넛: 찹쌀풀두 줌 가러서 쏘: 느쿠, 그렇게 이 액찌타:구 고추까루 양념 뭐: 당파: 머 무:채:두 쓸:구 그러 여:러 가지 해서넛 간:, 가타구 이래 쓰:러서 버무리 가주구 버무리 가주 해: 능능거유. {아니 주로 이제 겨 뭐야, 겨울에 우선 먹을 것은 찹쌀풀도 줌 같아서 쑤어 넣고, 그러니까 이 액젓하고 고춧가루 양념 뭐 쪽파 뭐 무채도 썰고 그저 여러 가지 해서는 갓, 갓하고 이렇게 썰어서 버무리 가지고 버무리 가지고 해 넣는 거예요.}

10503 #1 해서 꼭:꼭 향아리다 느:유. {해서 꼭꼭 향아리에다 넣어요.}

10503 #1 그래두 보매, 보매 느뚜롱 멍녕거넛 저기 액찌 액찌시구 머구 통 느치 말구 겨냥 소그매만 해: 너:야 싱싱하구, 겨울개 머글꺼 그러케 해 뒤유, 그래선. {그래도

봄에, 봄에 늦도록 먹는 것은 저기 액젓 액젓이고 뭐고 전혀 넣지 말고 그냥 소금에만 해 넣어야 싱싱하고, 겨울에 먹을 것은 그렇게 해 뒀요, 그렇게 해서는.}

10503 @ 나박, 나박 무슨 김치? {나박, 나박 무슨 김치?}

10503 #1 나박김치. {나박김치.}

10503 @ 예? {예?}

10503 #1 나박김치. {나박김치.}

10503 @ 나박김치? {나박김치?}

10503 #1 예. {예.}

10503 @ 그건 어뜨개 하능거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503 #1 나박김치넌 우리가 알기루는 무:를 랍절랍절해개 김치 썬 김치 켄디기처를 랍절 랍절해때 쓰:러 가주구 양념해서 버무, 소금 느쿠 버무리서 도:따 멩능 개 나박김치라 그래는대. {나박김치는 우리가 알기로는 무를 납작납작하게 김치 저 김치 켄디기처럼 납작납작하게 썰어 가지고 양념해서 버무리, 소금 넣고 버무리서 두었다가 먹는 것이 나박김치라고 그러는대.}

10503 #1 나박김치가 또 인재 이래 당장 이래 물김치 해멍능걸 나박김치라구두 해구, 물김치. {나박김치가 또 이제 이렇게 당장 이렇게 물김치 해 먹는 것을 나박김치라고도 하고, 물김치.}

10503 @ 금 두: 가지내요 그거 나박김치가? {그럼 두 가지네요 그것 나박김치가?}

10503 #1 그러쥔 우리넌 그러개 아:는대 몰러. {그렇게 우리네는 그렇게 아는데 몰라.}

10503 @ 물김치를 나박김치라구두 하구요? {물김치를 나박김치라고도 하고요?}

10503 #1 아:이 나박김치는 무: 쓰:러 가주구 납절납절해개 해서 나, 해 버무리능개 나박짬지라구 해구, 이진 물김친 또 물김치대루 물김치라구 하지. {아니 나박김치는 무 썰어 가지고 납작납작하게 해서 나, 해서 버무리는 것이 나박짬지라고 하고, 이것은 물김치는 또 물김치대로 물김치라고 하지.}

10503 @ 금 다를꺼 아니요, 그 맨드능개? {그럼 다를 것 아니예요, 그 만드는 것이?}

10503 #1 다르지유, 무렐 보:야 해니까, 물김치넌. {다르지요, 물을 부어야 하니까, 물김치는.}

10503 #1 그거뚜: 물김치두 이기 인재 솜:, 배추렐 썬여서 썩 쓰구: 배추 쓰:러 가주구 그르새다 물 보: 미태다 노쿠서넌 소금무렐 인재 푸러 가주구 거기 썩끄래기 이짜너 푸러 가주구 가라안즈면 요리:캐 보: 나따가 보: 노쿠서 바루 인재 꼬추까루 양녀멀 썬어 가주구. {그것도 물김치도 이것이 이제 소금, 배추를 썬어서 썩 썬고 배추 썰어 가지고 그릇에다 물을 부어 밑에다 놓고서는 소금물을 이제 풀어 가지고 거기에 썩끼기 있잖아 풀어 가지고 가라앉으면 요렇게 부어 났다가 부어 놓고서 바로 이제 고춧가루 양념을 썬어 가지고.}

10503 # 난 노내 줌 가따 와야... {나는 눈에 줌 갔다가 와야...}

10503 #1 꼬추까루 양녀멀 해:서 체루 바쳐서, 그래잉까 이 김치: 켄디기가 너머 주거두편 텀병 가라안지유. {고춧가루 양념을 해서 체로 받혀서, 그러니까 이 김치 켄디기가 너무 죽어도 텀병 가라앉아요.}

10503 #1 그래잉까 고거 소금물 해서 언저노코 바루 그 양념 꼬추까루 해:서 고 무렐 걸러서 김치무렐 보:야 이기 김치가 먹뚜룩 동동 뜨구 짜:두 안 해구 조아유. {그러니까 고것 소금물 해서 얹어 놓고 바로 그 양념 고춧가루 해서 그 물을 걸러서

김칫물을 부어야 이것이 김치가 먹도록 동동 뜨고 짜지도 않고 좋아요.}

10503 @ 그개 물김치요? {그것이 물김치요?}

10503 #1 예, 물김치. {예, 물김치.}

10503 #1 물김친 빨:가캐 당구자너. 꼬추까루 물 마늘 생강. {물김치는 빨갱게 담그잖아. 고춧가루 물 마늘 생강.}

10503 @ 물김치는 빨:가캐 하고 거기 저 미나리 가통거 이르캐 쓰:러 는능거, 그거지요? {물김치는 빨갱게 하고 거기 저 미나리 같은 것 이렇게 썰어 넣는 것 그것이지요?}

10503 #1 예, 그거뚜 느쿠 여:러 가지 느:유, 파두 느쿠 그저 머. {예, 그것도 넣고 여러 가지 넣어요, 파도 넣고 그저 뭐.}

10503 @ 열무김치는 어트개 해요? {열무김치는 어떻게 해요?}

10503 #1 열무김치두 마창가지:유. {열무김치도 마창가지예요.}

10503 #1 소금 찌언저 나따가 거찌리 해가주, 그거뚜 소금 채 굴근 소머 소그멸 이러캐 후를 언저 놔따가 쪼끔 주그먼 인재 이게 어지가이 주그먼 함번 찌: 켜지개 해그등유, 소그멸 마른 소그멸 찌언저끼 때때 그거 인재 찌끄래기 흑꺼통개 이써서. {소금 끼얹어 놓았다가 겉절이 해 가지고, 그것도 소금 이제 굵은 소금 소금을 이렇게 훌훌 얹어 놓았다가 조금 죽으면 이제 이것이 어지간히 죽으면 한 번 씻어 건바게 하거든요, 소금을 마른 소금을 끼얹었기 때문에 그것 이제 찌꺼기 흡같은 것이 있어서.}

10503 #1 함번 이러캐 행귀서 켜지 가주구 물 뵈: 다때 인재 양념해서 또 버무리능거지유. {한 번 이렇게 행귀서 건져 가지고 물이 뵈 다음에 이제 양념해서 또 버무리는 것이지요.}

10503 @ 토란:-은 어트개 해머거요? {토란은 어떻게 해 먹어요?}

10503 #1 토:라넌 인재 그 소:개 아런 감자거찌유, 고건 인재 머 육개장거튼대 해구 무어 거냥 여느때두 거냥 감자거때유, 그냥 이래해서 머그먼 갠차너유. {토란은 이제 그 속에 알은 감자같지요, 그것은 이제 뭐 육개장같은 데 하고 뭐 그냥 여느 때도 그냥 감자같데요, 그냥 이렇게 해서 먹으면 괜찮아요.}

10503 @ 그 토란꼭 꼬리자나요? {그 토란국 끓이잖아요?}

10503 #1 야, 국 꼬리지 또, 그거 국 꼬리닝거지. {예, 국 끓이지 또, 그것 국 끓이는 것이지.}

10503 #1 그래서 인재 토란때 이짜너유, 그거뚜 요리캐 껍띠기 아서가주 말려간, 말려 도:따가 그거뚜 마창가지루 뽕귀따가 실쩍 쌀머너 디쳐 너러따가 인재 무래 당귀따가서넌 무래 당구먼 함 번 실쩍 쌀뜨면 벌:거캐 무리 우러나유. {그래서 이제 토란대 있잖아요, 그것도 요렇게 껍떼기 앓아 가지고 말려, 말려 두었다가 그것도 마창가지로 불렀다가 살짝 삶아 넣어 데쳐 넣었다가 이제 물에 담갔다가는 물에 담그면 한 번 살짝 삶으면 벌겉게 물이 우러나요.}

10503 #1 그거 안울구먼 아리유, 그래 가주구서 꼭: 짜 가주구서넌 양념해서 육개장 해면 조워유. {그것 안 우리면 아려요, 그래 가지고 꼭 짜 가지고 양념해서 육개장 하면 좋아요.}

10503 #1 부드리: 행개, 고사리두 드러가구 머. {부드러운 것이, 고사리도 들어가고 뭐.}

10503 @ 연근, 연근은 어트개 요리해 머거요? {연근, 연근은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요?}

- 10503 #1 영:근두 모: 이러캐 쓰:러 가주구 왜간장 느쿠 모두 해, 양념하구 해서 조리기두 하구 머 떠개두 해 서꺼머꾸 머 별거 다 해능거 가때. {연근도 뭐 이렇게 썰어 가지고 왜간장 넣고 모두 해, 양념하고 해서 줄이기도 하고 뭐 떡에도 해 섞어 먹고 뭐 별 것 다 하는 것 같데.}
- 10503 #1 티기기두 해구. {튀기기도 하고.} @ 우영이래는 거뚜 이썬요? {우영이라는 것도 있어요?}
- 10503 #1 예, 그거넌 뿌리 뿌리 멍녕 거유. {예, 그것은 뿌리 뿌리 먹는 것이예요.}
- 10503 #1 고거넌 인재 뿌리 그거뚜 까야 되거덩요, 까 가주구서넌 요망:큼 찢러 가주구 고 거뚜 요러:캐 요러:캐 빠져서넌 해 가주구 왜간장하구 조리해 머거유, 조리햄 마 시썬. {고거은 이제 뿌리, 그것도 까야 되거든요, 까 가지고서 요만큼 잘라 가지고 고것도 이렇게 이렇게 빠져서 해 가지고 왜간장하고 줄여서 먹어요, 줄이면 맛있어.}
- 10503 @ 호바근 어트개 해머글 쭈 이썬요, 호바근 여러가지 인능거 가뜰대? {호박은 어떻게 해 먹을 수 있어요, 호박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던데?}
- 10503 #1 하 여러 가지지유 모:던지 다: 그래유 다: 모:던지, 해: 멍능개 머 항가질 가주구 두 수:십까지 맨드러 먹찌유 머, 다: 드러가녕거니까. {아 여러 가지지요 뭐든지 다 그래요 다 뭐든지, 해 먹는 것이 뭐 한 가지를 가지고도 수 십 가지 만들어 먹지요 뭐,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 10503 @ 호바근 어트개 해요, 어릴 때 해멍는 거뚜 이꾸, 큼거 해멍능 거뚜 이꾸? {호박은 어떻게 해요, 어릴 때 해 먹는 것도 있고, 큰 것 해 먹는 것도 있고.}
- 10503 #1 인재 어릴 때넌 애호바기라 그래자너, 고거는 쓰:러서 거냥 새우저썬 느쿠 뽀꺼 머, 기름 느쿠 뽀꺼두 되고 소금 느쿠. {이제 어릴 때는 애호박이라 그러잖아, 고것은 썰어서 그냥 새우젓 좀 넣고 볶아 먹어, 기름 넣고 볶아도 되고 소금 넣고.}
- 10503 #1 또 인재 그러차눔 더 마시개 머글라든 아까처럼 요래 납찢납찢해개 쓰:러서 후라이팬에다 기름 느쿠 꼬:가주 무치구, 거 머 채: 쓰:러가주구 부치기두 부치구 머 그러치유 머.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 더 맛있게 먹으려면 아까처럼 요렇게 납작 납작하게 썰어서 프라이팬에다 기름 넣고 구워 가지고 무치고, 그 뭐 채를 썰어 가지고 부침개도 부치고 뭐 그렇지요 뭐.}
- 10503 @ 쿵: 거는뇨, 다 이궁거, 누:령거. {큰 것은요, 다 익은 것, 누런 것.}
- 10503 #1 다: 이궁거뚜 그거뚜 머 여러 가지 대추 밤 머 삼: 이렇거 느쿠 약뚜 해먹꾸, 파: 서 여그 똥고랑걸 이르키 꼬 꼭찌 인는 대를 오려서 내 노쿠 고 아내다 씨털 발리군, 고기다 느쿤 고거 발링걸 더퍼 가주구 폭: 찢유 소태다, 그래먼 그걸 바짝 끄내 가주구 폭: 짜서두 먹꾸. {다 익은 것도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대추 밤 뭐 삼 이런 것 넣고 약도 해 먹고, 고아서 여기 동그란 것 이렇게 꼭지 있는 데를 오려서 내 놓고 그 안에다가 씨를 발르고는, 거기에 넣고는 그것을 발린 것을 덮어 가지고 폭 찢요 솔에다, 그러면 그것을 바짝 꺼내 가지고 꼭 짜서도 먹고.}
- 10503 #1 머 호:박쪽뚜 쭈: 먹꾸. {뭐 호박죽도 쭈어 먹고.}
- 10503 @ 그건 어트개 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 10503 #1 호바근 인재 껌떼기 까 가주구 그랑칸 쌀:머 가주구 박:뽁 응켜 가주구서넌 찹쌀 느쿠 죽썬 멍녕거지유. {호박은 이제 껌떼기 까 가지고 그러니까 삶아 가지고 박

- 박 으깨 가지고 찹쌀 넣고 죽 쑤어 먹는 것이지요.}
- 10503 #1 범벅뚜 해 먹는, 밀가루 푸러서 범벅뚜 해구. {범벅도 해 먹는, 밀가루 풀어서 범벅도 하고.}
- 10503 @ 범벅카구 주카구가 다름거유? {범벅하고 죽이 다른 거예요?}
- 10503 #1 야, 주건 인재 호 호바카구 인재 쌀:르쿠 인재 팍팍 다리면 주기구. {예, 죽은 이제 호 호박하고 이제 쌀 넣고 이제 팍팍 달이면 죽이고.}
- 10503 #1 인재 범버근 그 인재 콩이나 파시나 머 이렇거 야 저기 자꼬글 느쿠 폭: 과 거주군 주거그루 제 문지름 몽거저유 호바기, 그럼 거기다 인재 밀가루덜 인재 되 지:카개 푸러 거주구 후롤하개 푸러 거주구서 이르케 주루루 보면서 주거그루 막 즈면 범버기 대유, 끄려가주 먹찌. {이제 범벅은 그 이제 콩이나 팥이나 뭐 이런 것을 저기 잡곡을 넣고 폭 과 가지고는 주격으로 죄다 문지르면 몽개저요 호박 이, 그럼 거기다 이제 밀가루를 이제 되직하게 풀어 가지고 훌훌하게 이렇게 주루루 부으면서 주격으로 막 저으면 범벅이 돼요, 끓여 가지고 먹지.}
- 10503 @ 그거 이르케 호바글 이러:케 가늘:개 쓰러가주구 주래다가 말리기두 하자나요? {그것 이렇게 호박을 이렇게 가늘게 썰어 가지고 줄에다가 말리기도 하잖아요?}
- 10503 #1 네, 호:바꼬지. {예, 호박고지.}
- 10503 #1 호바꼬지덜 해서 달자너 여꺼 달자너, 그러면 그거 인재 응 겨울개 인재 얼:찌개 가으래 얼:찌개 이래 키 너르문 다리유 아주 말르문, 그래서 인재 떠개두 느쿠. {호박고자리를 해서 달잖아 엮어 달잖아,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음 겨울에 이제 얼 때 가을에 얼 때 이렇게 켜 널면 달아요 아주 마르면, 그래서 이제 떡에도 넣고.}
- 10503 @ 가지두 그러케 해요? {가지도 그렇게 해요?}
- 10503 #1 야, 가지두 쪽:쪽 쪼개서 말려다가서 낭중에 뽀꺼머거유 그르케 반차느루. {예, 가지도 쪽쪽 쪼개서 말렸다가 나중에 볶아 먹어요 그렇게 반찬으로.}
- 10503 @ 그건 머라 그래요, 호바근 호박꼬지라 그래구, 가지는?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호박은 호박고지라고 그러고, 가지는?}
- 10503 #1 가지꼬지라 그래지유. {가지고지라고 그러지요.}
- 10503 @ 가지꼬지라 그래요? {가지고지라고 그래요?}
- 10503 @ 오이:는 어트개 해머거요? {오이는 어떻게 해 먹어요?}
- 10503 #1 오이는 인재 요망크매개 마:침마질찌개 고렐채 따 거주구서넌 인재 저기저 식초 줌 느쿠 소금 줌 느쿠 이러케 새기유, 짹짹:해개 새기여, 그러면 그개 누래 되여. 오이지, 오이지 당귀서 이래 쓰:러 머그문 아자가자캐자너. {오이는 이제 요만큼 하게 마치맛을 적에 그릴 때 따 가지고 이제 저기 저 식초 줌 넣고 소금 줌 넣고 이렇게 삭혀요, 짹짹하게 삭혀, 그러면 그것이 누렇게 돼요. 오이지, 오이지 담가 서 이렇게 썰어 먹으면 아작아작하잖아.}
- 10503 @ 그렁거뚜 이꾸, 이러케 찢러 거주구...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 10503 #1 속:빼기, 오이속:빼기, 야~. {소박이, 오이소박이 예.}
- 10503 #1 거기 인재 분추 머 실:고치 양념해서 인재 요리케 무쳐 거주구 고기다 양념해서 무치유, 요만:큼 쪼개가주 열십짜루 요로케 쪼금 네리 채군 고기다 느차너. {거긴 이제 부추 뭐 실고추 양념해서 요렇게 무쳐 가지고 거기다 양념해서 무쳐요, 요만큼 쪼개 가지고 열 십자로 요롱게 조금 내려 갈라 거기다 넣잖아.}



10503 @ 아주 얇:게 이르:캐 납작납작카게 쓰러 가주구 소그매 살짝 저려서 양녀매서 멍는 거뚜 이짜너요? {아주 얇:게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 가지고 소금에 살짝 절여서 양념해서 먹는 것도 있잖아요?}

10503 #1 야:, 그러캐두 해 머거요, 그러캐두. {예, 그렇게도 해 먹어요, 그렇게도.} @ 그건 머라 그래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10503 #1 고썰 오:이 쓰:러서 거냥 멍녕 거 오이짤지라 그래지 머. {글쎄, 오이 썰어서 그냥 먹는 것은 오이짤지라고 그러지 뭐.}

10503 @ 그거뚜 저:기 늘근 오이로 하능 거뚜 이때유? {그것도 저:기 늙은 오이로 하는 것도 있데요?}

10503 #1 예:, 그거넌 늘근 오이넌 그거넌 껍띠기 빼끼구 발리 내부리구서넌 요로캐 송송 쓰러 가주구서넌 뽀꺼 머거유. {예:, 그거는 늙은 오이는 껍질 벗기고 속을 발려서 내버리고서는 요렇게 송송 썰어 가지고서는 볶아 먹어요.}

10504 @ 사내서 나는 나물두 이짜너요? {산에서 나는 나물도 있잖아요?}

10504 #1 만:치유, 아이구 다리야, 아이구 아이구 다리야, 아이구 빼더야 되게따, 아휴 다리야, 아휴:. {많지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뺏어야 되겠다, 아이고 다리야, 아휴:}.

10504 @ 어떻 거뜨리 이썬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10504 #1 사내 나능 거유? {산에 나는 거요?}

10504 @ 예. {예.}

10504 @ \*\*게 기대셔유? {\*\*\* 기대세요.}

10504 #1 아니유, 배겨서 그리여. {아니예요, 배겨서 그래요.}

10504 #1 무어: 개감취: 머 개감 머 미역취 삼주쌈: 잔:대쌈: 머: 썰:찌유 머 독 뚝깎 할미질빵 머: 이름두 다: 몰루겐내유 마:너유 엉경끼: 머:. {뭐 개감취 뭐 개감(취) 뭐 미역취 삼주쌈 잔대쌈 뭐 많지요 뭐 독 뚝깎 할미질빵 뭐 이름도 다 모르겠네요 많어요 엉경퀴 뭐.}

10504 @ 엉경퀴두 머거요? {엉경퀴도 먹어요?}

10504 #1 야, 요로:캐 나을 썰, 두 이파리 저서 요래: 나을 썰. {예, 요랑:게 나을 때, 두 이파리가 저서 요렇게 나을 때.}

10504 @ 거 크든 까시 이짜나요? {그거 크면 가시 있잖아요?}

10504 #1 까시 이꾸 그개 약초유, 또. {가시 있으면 그개 약초예요, 또.}

10504 @ 뿌리:가 인능 거 이짜너요, 도 도라지 머 이렇 거? {뿌리:가 있는 거 있잖아요, 도라지, 뭐 이런 거?}

10504 #1 예, 도라지, 잔:대. {예, 도라지, 잔:대.}

10504 @ 잔:대. {잔:대.}

10504 #1 예. {예.}

10504 @ 도라지. {도라지.}

10504 #1 그릉개 저 우수 조치유. {그런 게 아주 좋지요.}

10504 @ 냄새 나능 거 이썬유 왜 여기 도라지가치 생깁 거, 더? {냄새 나는 거 있지요, 왜 여기 도라지같이 생긴 거, 더?}

10504 #1 더덕. {더덕.}

10504 @ 더덕? {더덕?}

10504 #1 예. {예.}

10504 @ 또 뭐? {또 뭐?}

10504 #1 고:사리:. {고사리:}

10504 @ 고사리:. {고사리:}

10504 @ 고사리가치 생김 건대 고사리 말구두 이짜너요, 왜? {고사리같이 생긴 건데 고사리 말고 또 있잖아요, 왜?}

10504 #1 뭐 고비라 그래딩가 온, 고비라 그래딩가유. {뭐 고비라고 그러던가 원, 고비라 그러던가요.}

10504 @ 고비. {고비.}

10504 @ 요 여팩도 도라지 시뭇 거 가때요? {요 옆에도 도라지 심은 거 같데요?}

10504 #1 요:기유? {여기요?}

10504 @ 예. {예.}

10504 #1 야, 내가 지비서 씨털 바다 가지구 뿌려쥬유, 그래뜨이 그거뚜유 여 태양얼 바야지 응:다랜 안 대 씨거유 다: 씨거, 그거이 지나내 뿌링 건대 제 씨거. {예, 내가 집에서 씨를 받아 가지고 뿌렸지요, 그랬더니 그것도요 여 태양을 봐야지 응달에는 안 돼 썩어요 다 썩어, 그게 지난 해 뿌린 건데 모두 썩어.}

10504 @ 꼬 퍼뜬대요? {꽃이 피었던데요?}

10504 #1 예. {예.}

10504 #1 인재 꼬시 퍼: 가지고서 인재 씨가 생기자너유 열매가 매쳐 가주구. {이제 꽃이 피어 가지고서 씨가 생기잖아요 열매가 맺혀 가지고.}

10505 @ 도라지:나 더더근 어트개 캐요? {도라지:나 더덕은 어떻게 캐요?}

10505 #1 호미루 캐야지유 뭐, 호미로 캐던지 이: 꼬째이루, 쇠꼬챙이로 캐여 되유. {호미로 캐야지요 뭐, 호미로 캐든지 꼬챙이로 쇠꼬챙이로 캐야 돼요.}

10505 @ 다른 나무른 그러캐 아나자나요? {다른 나물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10505 #1 예, 다른 나무른 소느루 마이 뜨꾸. {예, 다른 나물은 손으로 많이 뜯고.}

10506 @ 드:래서 나는 나무래는 어떻 거뜨리 이씨요? {들에서 나는 나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10506 #1 드:래서 나넝 거는 쑥, 쑥카구 나생이: 국쑥대이: 뭐: 황새나생이: 썸바구: 꼬들빼: 썸:똥 그러치유 머 미나리:. {들에서 나는 것은 쑥 쑥하고 냉이: 곱수대이: 뭐 황새냉이: 썸바귀: 고들빼기 썸:똥 그렇지요 뭐 미나리.}

10506 @ 꼬들빼하고 저기 썸, 썸? {고들빼기하고 저기 썸?}

10506 #1 썸바구. {썸바귀.}

10506 @ 썸바구하구가 다름 건가요? {썸바귀하고 다른 건가요?}

10506 #1 모양만 다르지 씨구웅 건 마찬가지로, 근대 그개 임만 읍썰 찌개 그걸 해서 초고치장애다 이래 조물라그리 무치 머그른 그개 임마시 도려난다구, 씨거웅 걸 머그먼 임마시 도려난대서 그래자너유, 그개 그래 조태유. {모양만 다르지 쓴 건 마찬가지로예요, 그런데 그개 입맛이 없을 적에 그걸 해서 초고추장에다 이렇게 조물락거려서 무쳐 먹으면 그개 입맛이 돌아난다고, 쓴 거 먹으면 입맛이 돌아난다고 해서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대요.}

10506 @ 이퍼리 녀쩍녀쩍캥 거뚜 이짜너요, 그거 딱 자버 땡기면 짹: 느러나능 거, 저 길가에 마능 거? {이파리 녀적녀적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 딱 잡아 당기면 짹: 늘

어나는 거, 저 길가에 많은 거?}

10506 #1 아:, 민들래? {아:, 민들래?}

10506 @ 민들래요? {민들래요?}

10506 #1 예:, 쏜 피구, 노랑쏜 피구 {예, 쏜 피고, 노랑쏜 피고.}

10506 @ 노랑쏜 피능 거? {노랑쏜 피는 거?}

10506 #1 노랑쏜 피구 또: 가애, 가애썸바구라구두 해여, 가애썸바구. 쪽:쪽 이러캐 썸대구 이파리. {노랑쏜 피고 또 가위썸바귀라고도 해요, 가위썸바귀. 쪽쪽 이렇게 썸대고 이파리가.}

10506 @ 민들래를 가애썸바구라고두 해요? {민들래를 가위썸바귀라고도 해요?}

10506 #1 아:니여 가애썸바구가 또 따루 이썸유, 이파리 넓 이르캐. {아니요, 가위썸바귀가 또 따로 있지, 이파리 넓 이렇게.}

10506 @ 썸:똥가치 생겨썸요? {쇠똥같이 생겼어요?}

10506 #1 예, 그러캐 가주 썸썸썸 해구. {예, 그렇게 생겨 가지고 길쭉길쭉 하고.}

10506 @ 어어:, 꼬들빼기하고도 또 다름 거내요, 그러면? {아아, 꼬들빼기하고 또 다른 거네요, 그러면?}

10506 #1 그래잉까 이개 그 가, 가새썸바구래능 거넌 이파리두 머꾸 뿌리두 멍는데 그 실:, 실:썸바구하구 다 그뚜 가, 달르지유 마카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그 가위썸바귀라는 거는 이파리도 먹고 뿌리도 먹는데 그 실썸바귀하고 다 그것도 가(새), 다르지요 모두 모양이.}

10506 @ 실:썸바구는? {실썸바귀는?}

10506 #1 어, 뿌렁가지만 죽: 이르캐. {예, 뿌리만 죽: 이렇게.}

10506 @ 그 뿌리만 죽: 인능 거? {그 뿌리만 죽: 있는 거?}

10506 #1 예:. {예.}

10506 #1 가새썸바구는 인재 이파리두 머꼬 뿌리두 머꾸, 꼬들빼두 뿌리두 머꾸 이파리두 머꾸, 건 그러치유. {가새썸바귀는 이파리도 먹고 뿌리도 먹고, 꼬들빼기도 뿌리도 먹고 이파리도 먹고, 그건 그렇지요.}

10506 @ 이, 이, 이, 이개? {이게?}

10506 #1 민들래유. {민들래요.}

10506 @ 민들래지요? {민들래지요?}

10506 #1 예. {예.}

10506 @ 그 저기 미태 마늘처럼 똥그러쿠 약간 매운 거 이짜너요, 마시 분 분 분:추가치, 그렇 거뚜 이짜너요? {그 저기 밑에 마늘처럼 둥그렇고 약간 매운 거 있잖아요, 맛이 부추같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10506 #1 뭐, 산딸롱이라구 하나, 산:달롱. {뭐, 산달래라고 하나, 산:달래.}

10506 @ 예. {예.}

10506 #1 예, 달롱, 달롱두 나지. {예, 달래, 달래도 나지.}

10506 @ 산딸롱하구 집딸롱하구 따루 이썸요? {산달래하고 집달래하고 따로 있어요?}

#1 예:, 산딸롱은 사내 나구 여 드:래서 키우, 나녕 거는 달롱이 요로캐 하이양 개 왜: 바틀콩톨거치 요로캐 하이야캐 깨:꼬타개 실뿌리가 달리구 그렇기. {예, 산달래는 산에 나고 여기 들에서 나는 거는 달래, 요렇게 하얀 게 왜: 밤톨콩톨같이 요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실뿌리가 달리고 그런 것.}

10506 @ 예. {예.}

10506 #1 으:, 저: 이파리가 가누스름:헹개 그개 달롱이여. {음, 이파리가 가누스름한 게, 그개 달래야.}

10506 @ 요로캐 생깁 거는? {요렇게 생긴 거는?}

10506 #1 예:, 그기 달롱이여. {예, 그개 달래여.}

10506 @ 그렁 거뚜 이꾸, 또 저기 이른 보매 미태 이르캐 이파리 납:짜카개 인능 거 요로 캐 뽀버다가 장:애 느: 머꾸 그러믄 향그:탕 거 이짜나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기 이른 봄에 밑에 이렇게 이파리 납:작하게 있는 거 요렇게 뽑아다가 장에 넣어 먹고 그러면 향긋:한 거 있잖아요?}

10506 #1 뭐 질경이? {뭐 질경이?}

10506 @ 질경이는 어트개 생겨썬요? {질경이는 어떻게 생겼어요?}

10506 #1 질경이: 그거뚜. {질경이 그것도.}

10506 @ 이파리 똥그렁거요? {이파리 동그란 거요?}

10506 #1 예, 똥그러유 그거 길까새이 모두 나녕 거. {예, 동그래요 그거 길가에 모두 나는 거.}

10506 @ 그릉거뚜 이꾸요, 내 나생이? 냉이? 나생이라그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요, 냉 냉이 냉이라고도 해요?}

10506 #1 예, 냉이. {예, 냉이.}

10506 @ 냉이? {냉이?}

10506 #1 냉이라구두 해구 나생이:라구두 해유. {냉이라고도 하고 냉이:라고도 해요.}

10506 @ 이거는 버리바치지요, 버리? {이거는 보리밭이쥬, 보리?}

10506 #1 바치유? {밭이요?}

10506 @ 예, 시:퍼러쳐나요, 아직 들 리거서? {예, 시:퍼렁잖아요, 아직 덜 익어서?}

10506 #1 나 안 보이자너. {나 안 보이잖아.}

10506 #1 그썬유, 보리 보리거태. {글썬유, 보리 보리갈네.}

10506 @ 이거는 인제 이금 거구? {이거는 이제 익은 거고?}

10506 #1 예:, 그래유. {예, 그래요.}

10506 @ 냉이라 그래요 나생이 나싱개라 그래요 나생이라 그래요? {냉이라고 그래요 나생이 나싱개라 그래요 나생이라고 그래요?}

10506 #1 나새이 캐루 가자 그래자너, 나새이 캐루 가자구 호호호. {냉이 캐러 가자고 그러잖아 냉이 캐러 가자고 호호호.}

10506 @ 나새이? {냉이?}

10506 @ 질경이는 이파리 이르캐 아까? {질경이는 이파리 이렇게 아까?}

10506 #1 이르캐 똥굴똥굴해유, 이러캐. {이렇게 둥글둥글해요, 이렇게.}

10506 @ 예. {예.}

10506 @ 그개 이러캐 자버땡기면 소:개서 짹: 느러나지요? {그 이렇게 잡아 당기면 속에서 짹: 늘어나오쥬?}

10506 #1 시:리 실: 딸리유. {실이, 실 딸려요.} @ 시리? {실이?}

10506 #1 예:. {예.}

10506 @ 비름두 머거요? {비름도 먹어요?}

10506 #1 먹찌유:. 야:, 머거요. {먹지요:. 예, 먹어요.}

10506 @ 쇠비름하구 비름하군 달롱 거지요? {쇠비름하고 비름하고는 다른 거지요?}

10506 #1 그럼뉴, 인제 거냥 비르문 명녕 거고. {그럼요, 그냥 비름은 먹는 거고.}

10506 @ 이퍼리가? {이파리가?}

10506 #1 야:, 씨가 요래요래 매디로만태 생기구 절차초롬:행 개. {예, 씨가 이래이래 마디마다 생기고 절차초롬한 것이.}

10506 @ 씨는 어때요, 까:망 거요? {씨는 어때요, 까만 거예요?}

10506 #1 아이 물러유, 여물먼 꺼머캐 저 엄:청나유 씨가. {아이 물라요, 여물먼 꺼떻게 저 엄:청나요 씨가.}

10506 @ 쇠비르문뇨? {쇠비름은요?}

10506 #1 그건 모: 쓰능 거유:, 푸리지유 머. {그건 못 먹는 거예요, 풀이지요 뭐.}

10505 @ 산나무른 어트개 뜨더요? {산나물은 어떻게 뜯어요?}

10505 #1 거냥 산:나무런 주루 소느루 마이 뜨더유, 어 잔대싸기라 취: 뭐 개감취 미역취 이렇 거 해면 뽀버지니까 뜨끼니까. {그냥 산:나물은 주로 손으로 많이 뜯어요, 잔대싸이나 취 뭐 개감취 미역취 이런 거 해면 뽀아지니까 뜯기니까.}

10505 @ 그저내 해: 보셔썬요, 마:니? {그전에 해 보셨어요, 많이?}

10505 #1 아:이구 배고플 썬개 그럼 보릿고개에 나물 엄청 뜨더썬유 그럼, 쑤기라 뭐 산나물이라. {아:이고 배고플 적에 그럼 보릿고개에 나물 엄청 뜯었지요 그럼, 쑤이이나 뭐 산나물이나.}

10505 #1 하야튼 나물 뜨더 가지구 반 식량을 댜:는데, 배가 고푸니까 아무거래두 보충을 해야지유. {하야튼 나물 뜯어 가지고 반 식량을 댜는데, 배가 고푸니까 아무거래도 보충을 해야지요.}

10505 @ 나물 뜨드면서 뭐 노래 불르구 그러진 아나요? {나물 뜯으면서 뭐 노래 부르구 그러지는 않아요?}

10505 #1 에이 노래는 안 불러유, 노래 불를 썬개 어디썬, 나물 하나 더 차져서 뜨들라구 누니 벌거치. {에이 노래는 안 불러요, 노래 부를 썬개 어디 있어, 나물 하나 더 찾아서 뜯으려고 눈이 벌정지.}

10505 #1 노래할 썬이 어디썬요? {노래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10505 @ 나물 뜨드면서 노래 불르고? {나물 뜯으면서 노래 부르고?}

10505 #1 아이구 한요해야 노래두 콘노래두 나오지. {아이고 한가해야 노래도 콧노래도 나오지.}

10505 @ 대개 나무른 그럼 보매 뜯능 거요? {나물은 대개 봄에 뜯는 거예요?}

#1 야, 그러치유, 보매. {예, 그렇지요, 봄에.}

10505 @ 여르메 뜯능 건 어:꾸? {여름에 뜯는 것은 없고?}

10505 #1 여르맨 몸: 머거유. {여름에는 못 먹어요.}

10507 @ 나, 저기 나새이는 멀:루 뜨더요, 멀:루 어트개 해요. 소느루 해요, 그거? {저기 냉이는 뭇로 뜯더요, 뭇로 어떻게 해요. 손으로 해요, 그거?}

10507 #1 나새인 호미 가지 캐야지유. 뿌레이꺼지 머그니까: 호미루 캐야지유. {냉이는 호미가지고 캐야지요. 뿌리까지 먹으니까: 호미로 캐야지요.}

10507 @ 민들레는뇨? {민들레는요?}

10507 #1 그거넌 가애루 오리서 이파리만 먹썬. {그거는 가위로 오리서 이파리만 먹지.}

10507 @ 그럼 썬:기 썬 썬, 썬 거 이짜너요? {그럼 저:기 저 썬 거 있잖아요?}

10507 #1 예. {예.}

10507 @ 꼬, 꼬들빼기? {고들빼기?}

10507 #1 예. {예.}

10507 @ 꼬들빼? {고들빼기?}

10507 #1 예. {예.}

10507 @ 그렇 건뇨? {그런 거는요?}

10507 #1 그거는 인재 제: 씨서 가지구 따뜨면서 씨서 가지군 말강 무래다가 한 사날 재워 봐요. 한 사날 재워 나따가 꺾저 가지구 그거뚜 저기 저 뭐여, 저까래다가 저 꾸개다가 양념해서 이래 무쳐서 그래서 인재 사근 대 멍는 거유. 쌀마서 무치 먹 끼두 하구. {그거는 모두 씻어 가지고 다듬어서 씻어 가지고는 맑은 물에다가 한 사나홀 재워 봐요. 한 사나홀 재워 놓았다가 건저 가지고 그것도 저기 저 뭐야 젓갈에다가 젓국에다가 양념해서 이렇게 무쳐서 그래서 작은 다음에 먹는 거요. 삶아서 무쳐 먹이고 하고.}

10507 @ 그거는 그럼 뜨들 땀 어트개 뜨더요? {그거는 그럼 뜯을 때는 어떻게 뜯어요?}

10507 #1 그거뚜 호미로 하여지유. {그것도 호미로 해야지요.}

10507 @ 호미로? {호미로?}

10507 #1 야:, 뿌렁가지조차 먹 뿌렁가지 멍녕 거니까. {예, 뿌리조차 먹(는) 뿌리를 먹는 거니까.}

10507 @ 그럼 찌기 씹 씹바구는뇨? {그럼 저기 씹 씹바귀는요?}

10507 #1 그거뚜 캐야 대유. {그것도 캐야 돼요.}

10507 @ 호매루? {호미로?}

10507 #1 야: 그거뚜 이래 캐면 인재 가달가다리 자꾸 실:거통 게 나오자나유. 그러니까 캐야지유. {그것도 이렇게 캐면 가닥가닥 자꾸 실같은 게 나오잖아유. 그러니까 캐야지요.}

10508 @ 나물 켤 때 그러면 피료한 도구가 머예요, 호미하구? {나물 켤 때 그러면 필요한 도구가 뭐예요, 호미하고?}

10508 #1 음, 나새이하구 보매 이른 보매 해능 건 인재 호미지유. {음, 냉이하고 봄에, 이른 봄에 하는 건 호미지요.}

10508 @ 호미로? {호미로?}

10508 #1 예. {예.}

10508 @ 또? {또?}

10508 #1 칼두 드러가구 미나리 미나리 뜨꾸 인재 오리닝 거 해녕 거넌 이파리 멍녕 건 칼두 드러야 하구 인재 그 다:매 인재 그르시지유, 그른 바구니 {칼도 들어가고 미나리 미나리 뜯고 오리는 거 하는 것은 이파리 먹는 것은 칼도 들어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릇이지요, 그릇 바구니.}

10508 @ 바구니? {바구니?}

10508 #1 예, 다래끼 바구니. {어, 다래끼 바구니.}

10508 @ 다, 다래끼, 쿵 거 가꾸 다녀요, 그러케 다래끼? {다래끼 큰 거 갖고 다녀요, 그렇게 다래끼?}

10508 #1 인재 인넌 대루 가주 가지유, 바구니 이썸 바구니두 가주 가구, 다래끼 이썸 대래끼두 가주 가구. {있는 대로 가져 가지요, 바구니 있으면 바구니도 가져 가고,

다래끼 있으면 다래끼도 가져 가고.}

10508 @ 속:-쿠리, 소쿠리? {소쿠리, 소쿠리?}

10508 #1 예, 소쿠리 대소쿠리. {예, 소쿠리 대소쿠리.}

10508 @ 그거하구 바구니하구는 어트개 달라요? {그거하고 바구니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10508 #1 대소쿠리는 대나무 가주구 맨등 게 대소쿠리구:, 뭐: 다 그 종뉴개찌 머: 바구니 라구두 해구 대소쿠리라구두. {대소쿠리는 대나무 가지고 만든 게 대소쿠리고, 뭐 다 그 종류겠지 뭐 바구니라고도 하고 대소쿠리라고도 하고.}

10508 @ 모양이 또까통가요? {모양이 똑같은가요?}

10508 #1 아이 대소쿠리 인젠 크구 즉:꾸 뭐 그렇 거뚜 이꾸 그러치유 뭐 다: 그러꾸 그러 치 뭐. {아이 대소쿠리 가 크고 작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요 뭐 다 그렇고 그렇지 뭐.}

10508 @ 요거는 머:라 그래요, 이렇 건? {요거는 뭐라 그래요, 이런 건?}

10508 #1 음:, 고개: 종다래끼 거태. {음, 그게 종다래끼 같아.}

10508 @ 종드래끼 꼬니 업써요? {종다래끼 끈이 없어요?}

10508 #1 끈 업녕 거뚜 이꾸 끈 해면 꼬니 이꾸 그르치 머. {끈 없는 것도 있고 끈을 하면 (만들면) 있고 그렇지 뭐.}

10508 @ 요렇 건 머:라 그래요? {이런 건 뭐라고 그래요?}

10508 #1 그개 대부구니유. 대 대나무루 행거 인재 여기다가 장: 당굴라면 소고멸 인재 거 기다 이래 수부카개 노쿠 무릴 자꾸 이러캐 퍼 부면 소금무리 자꾸 노가 네리가는 대루 부:면 인재 그 무릴 다: 노기 가지구 인재 미태 인재 가 지저부낭 거 다 가런 뒤에 메주 느쿠 그 물 가따 부꾸 이래능 거여. {그개 대바구니요. 대 대나무로 한 거, 여기다가 장 담그려면 소금을 거기에다 이렇게 수북하게 놓고 물을 자꾸 이렇게 퍼부으면 소금물이 자꾸 녹아 내려가는 대로 부으면 그 물을 다 녹여 가지고 밑에 지저분한 거 다 가라앉은 뒤에 메주 넣고 그 물 갖다 붓고 이러는 거야.}

10508 @ 이게 대보구니요? {이게 대바구니예요?}

10508 #1 예, 인재 그리 후루 인재 그개 그른대 쓰구 인재 메주 쏙 쥔 쥔 이러서 건지 노쿠 건지구: 떡쌀 건지구: 그른대 쓰구 머: 후뚜루 마이 쓰지유. {예, 이제 그런 (테) 두루 이제 그게 그런데 쓰고 메주 쏙 때 쥔 일어서 건져 놓고 건지고, 떡쌀 건지고 그런데 쓰고 뭐 휘뚜루 많이 쓰지요.}

10508 @ 이렇 건 머:라 그래요, 미태 구멍 쑹:쑹 뚫려 가꾸? {이런 것은 뭐라고 그래요, 밑에 구멍 쑹:쑹 뚫려 가지고?}

10508 #1 예, 광우렁가버 광우리. {예, 광주리인가 봐 광주리.}

10508 @ 여기다가 느코 굴궁 건 걸리고 가능 건 빠지게 하능 거? {여기에다가 넣고 굵은 건 걸리고 가는 건 빠지게 하는 거?}

10508 @ 이 이렇 거는 밀까루? {이런 거는 밀가루?}

10508 #1 이 이건 체. {이 이것은 체.}

10508 @ 예. {예.}

10508 @ 체보다 이르캐 엉그렁 거? {체보다 이렇게 성근 거?}

10508 #1 얼게미 중체 도두미. {어레미 중체 도드미.}

10508 @ 도두미는 머예요? {체는 뭐예요?}

10508 #1 도두미는 인재 그: 저기 그저내 떠켈 찌개 인재 편 거통 거 헬라믄뉴, 가루를 가 따가 무ړ 쯔 추겨서 비벼 가주구 쯔 쫘:금 엉근텐 체루다 처유. 그개 도두미유. 그래 가주구 저 시루애다 안쳐서 찌자너. {도드미는 그전에 떡할 적에 편 같은 거 하려면요, 가루를 갖다가 물을 쯔 축여서 비벼 가지고 조금 엉성한 체로다 처요. 그개 도드미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 시루애다 앓혀서 찌잖아.}

10508 @ 중채하구 도두미하구 어떻 게 더 고운 거요? {중채하고 체하고 어떤 게 더 고운 거예요?}

10508 #1 중채가 고:운 거지유, 중채. 또 고:운체는 또 중채보다 더 곱:꾸. {중채가 고운 거지요, 중채. 또 고운체는 중채보다 더 곱고.}

10508 @ 그러면 열게미가 켈: 쿵 거요? {그러면 어래미가 제일 큰 거예요?}

10508 #1 야, 그개 인재 그저넌 인재 머 쿵이나 파시나 이렇 거 하먼 싸래기 미태 돌 처지구 해라구 쓰녕 거유. {예, 그개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쿵이나 팔이나 이런 거 하먼 싸라기 밑에 돌 처지게 하라고 쓰는 거예요.}

10508 @ 그 열게미구? {그거 어래미고?}

10508 #1 야:. {예.}

10508 @ 고 다매는 도두미? {그 다음에는 도드미?}

10508 #1 도두미. {도드미.}

10508 @ 그 다매? {그 다음에?} #1 중채. {중채.} @ 중채. {중채.}

10508 #1 고:운채. {고운 채.}

10508 @ 고운채. {고운 채.}

10508 #1 예, 그래유. {예, 그래요.}

10508 @ 채두 여러 가지내요? {채도 여러 가지내요?}

10508 #1 예, 쓰녕 게 가정에서 쓰녕 게 그래유. {예, 쓰는 게 가정에서 쓰는 게 그래요.}

10508 @ 예. {예.}

10508 @ 그 저:기 다래끼 쫘꼬망 거를 머:라 그래요? {그 저기 다래끼 조그마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10508 #1 종다라키. {종다래끼.}

10508 @ 종다라키. 거기다가두 나물 뜨더 오구 그래요? {종다래끼. 거기에다가도 나물 뜯어 오고 그래요?}

10508 #1 아이 어려서넌 머 그림뉴. 쫘꼬마크맨 쫘끔 뜨들람 그거뚜 가주 땡지구 머, 또 애드리 크면서 머스매들두 머 올개이두 건지구 뭐: 머 고기두 잠는다구 해구 들구 땡지구 그래지유. {아이 어려서는 뭐 그림요. 조금만 뜯으려면 그것도 가지고 다니고 뭐, 또 애들이 크면서 머슴애들도 뭐 다슬기도 건지고 뭐 뭐 고기도 잡는다고 하고 들고 다니고 그러지요.}

10509 @ 나물 캐다가 머 뱀:을 만나거나 머 벌이나 이렇 거 쏘이거나 이러치는 아너유? {나물 캐다가 뭐 뱀:을 만나거나 뭐, 벌이나 이런 거에 쏘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10509 #1 여기 이씨유, 여기 이 다리 헤헤헤. 인재 우리 따리 여기 유캉너니유, 유캉넌 찌게 지낙빠느루 가짜너:, 지낙빠느루 간는데 아이구 버리꼬개니 싸릴 도시락 싸줄 싸리 읍짜너, 그래 마땅차너서 내 엄마가 고구말 캐다가 찌 가지구서넌 갖따 줄개 이래짜너.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다리 헤헤헤. 우리 딸이 그때 육학년이었어



요, 육학년일 때 진학반으로 갔잖아, 진학반으로 갔는데 아이구 보릿고개니 쌀을 두시락 싸줄 쌀이 없잖아, 그래 마땅치 않아서 엄마가 고구마를 캐다가 썰 가지고는 갖다 줄게 이랬잖아.}

10509 #1 인재 저: 크 쿵 개울 근:내 거 산전때긴대 고구말 캐루 간는데 글썽 수거널 쓰구 호밀 들구 참 바구닐 들구 이래구 간는데 여기 인재 양짜개 고구마 뿌러기구 요기 해골:아니유, 이래이래 가년대 아이 이짜개 따:꿈해녕 거유, 아주 이 직썩애 하마 머:가 무리꾸나, 그래 이래 보니까 야:무 거뚜 읍썩유, 그래 이짜글 보니까 요기서 깨물구 하마 이리 도러 와서 요기 와서 머리를 요로깨 들구 처:다 보구 이썩 이떠라니까유 배:미 독썩개. {저 큰 개운 건너 산전 빼기인데 고구마를 캐러 갔는데 글썽 수건을 쓰고 호미를 들고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 이제 양쪽에 고구마 두둑이고 요기가 헛골 어니예요, 이렇게이렇게 가는데 아이 이쪽에 따끔하는 거예요, 아주 이 직감에 벌썩 뭐가 물었구나, 그래 이렇게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 이쪽을 보니까 여기서 깨물고 벌썩 이리 돌아 와서 요기 와서 머리를 요렇게 들고 쳐다 보고 있어 있더라니까요 뱀이 독사가.}

10509 #1 아이구 요고럴 호매이루 팍 찌그먼 저걸 주글 텐데 그런대 고거 찍따가 또 물리까바서 모: 태썩 미수워서 마:미 야캐서:. {아이고 이거를 호미로 팍 찍으면 저것이 죽을 텐데 그런데 그거 찍다가 또 물릴까봐 못 했어 무서워서 마음이 약해서.}

10509 #1 그래구서넌 아주 고만 참 기우니 하나두 읍꾸 매기 읍썩 가주군, 아이구 애 즘스를 해다 조야 해는데 우트개나, 머리 썩편 수거널 그래두 그런 으:겨니 나대유. 여기럴 발모걸 꼭 썩매 가주구 오년대 그러니까 거 산전때긴대 거기서 내려와 가주 개울을 근:내 오니까 아주 다리가 점점 무구워유. {그리고서는 아주 기운이 하나도 없고 맥이 없어 가지고는, 아이구 애 점심을 해다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머리 썩던 수건을 그래도 그런 생각이 나테요. 여기를 발목을 꼭 동여매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산전빼기인데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개울을 건너 오니까 아주 다리가 점점 무거워요.}

10509 #1 아이구 그래 가주구 간시:이 여기를 조: 꼬태 신장노 저 아래 거기서 드러 오는대 여 동:내 총:가기 아이 어디가따 바른 왜 그리시썩유, 이리여. 아이구 난 배:만태 물러썩 이래짜너. 그래떠니 아이구 그름 아무개 아버지는 어디 가시썩유, 이리여. 아이 저 너매 바태 가시썩, 그래뜨이. 거기서 그 총:가기 칠그렐 꼬너 가주구 또 요기럴 썩매 조유. 이리 올라오까바 도기:. 아이 더구나 여길 썩:매이까 더 거러 올 썩가 읍:짜너유. 간:시이 썩뚜그러 거 올라오다йка 사람더리 보넌 사람더리 자꾸 배:매 물린 주릴 알:지. {아이구 그래가지고 간신:히 여기를 저: 끝에 신작로 저 아래 거기서 들어 오는데 여기 동네 총각이 어디 갔다가 발은 왜 그러셨어요, 이래. 아이고 난 뱀:한테 물렸어 이랬잖아.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아무개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이래. 아이 저 넘어 밭에 가셨어, 그랬더니. 거기서 그 총각이 침을 끓어 가지고 여길 졸라매 줘요. 독이 이리 올라올까봐 독이. 아이 더구나 여기를 졸라매니까 더 걸어 올 수 가 없잖아요, 간:신히 절뚝거리면서 거기를 올라오다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자꾸 뱀에 물린 줄을 알지.}

10509 #1 아유: 그래서 인재 동:내 총:각근 들루 인재 으:른한테 알리러 가구. 나넌 인재

지비 와서 이래구 안저쓰니까 이온싸람드리 보구 마캉 오능 겨유. 아이구 그개 머:가 야긴대 머:가 야긴대 이래 갈키 주구. {아유, 그래서 동네 총각은 들로 어른한테 알리러 가고. 나는 집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웃사람들이 보고 모두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개 뭐가 약인데 뭐가 약인데 이렇게 가르쳐 주고.}

10509 #1 아이구, 그래가주구서넌 점점 보: 가주구 이리 보: 올라오지. 저 양바넌 이래 오션는데, 저 양반 외사촌 동생이 하:으:사거딩. 요 우애 장터 우애 안꼬:리래넌 대 그때 거기 이썸넌대, 아이 이 양바니 가시더니 당채 가따 오시더니 어디 출짱 가신넌대 오시넌 대루 온다 그랜는데 당채 해가 너머가두 아노능 겨여. 아이구 사랴른 자꾸 부: 올러오구 주깁는데 아유 다른 대 가서 좀 불러 보든지: 다른 대가 불러오지 왜 거기만 미꾸 인느냐 그래뜨이. 참 해가 어둡어둡헨대 내려 오시드라구. {아이구, 그래가지고서는 점점 부어 가지고 이렇게 부어 올라오지. 저 양반은 오셨는데, 저 양반 외사촌 동생이 한의사거든. 여기 위에 장터 위에 안골이라는 데 그때 거기 있었는데, 이 양반이 가시더니 당채 갖다 오시더니 어디 출장 가셨는데 오시는 대로 온다고 그랬는데 당채 해가 넘어가도 안 오는 거야. 아이구 사람은 자꾸 부어 오르고 죽겠는데 아유 다른 데 가서 좀 불러 보든지 다른 데 가서 불러오지 왜 거기만 믿고 있느냐 그랬더니. 참 해가 어둑어둑한데 내려 오시더라고.}

10509 #1 아 그래가주구서넌 이 치무루다가 발뚱을 막: 쭈시는대 아:주 시상에 그러케 따거울 쭈가 읍썸유. 가:니 다 오그르드러. 아:주 여기다가 혼: 오까질 가따 느꾸해니까 그 치무루 찢르니까 독 빠:지라구. 피:가 망 나구 그래. {아 그래가지고서는 이 침으로다가 발뚱을 막 쭈시는대 아주 세상에 그렇게 따가울 수가 없어요. 간이 다 오그라들어. 아주 여기다가 헛 옷가지를 갖다 놓고 하니까 그 침으로 찢르니까 독 빠지라고. 피가 막 나고 그래.}

10509 #1 아 그래대 또 약뚜 마너이까 또 그 이튼나런 머 그:머릴 자버다가 시수때애다 푸러 나:주래유. 그래구 바렐 당구리여. 그래서 당거 놔:떠니 그:머리가 요래 실라깁이 거툭 게 이르케 돼유 구러 굴:거. 바 피릴 빠러 머거 가주구 그래가주구 톱툰씨러 자빠지더라구. {아 그러대 또 약도 많으니까 또 이튼날은 뭐 거머리를 잡아다가 세숫대야애다 풀어 놓아주래요. 그리고 발을 담그래요. 그래서 담귀 놓았더니 거머리가 이렇게 실날 같은 게 이렇게 돼요, 굵어 굵어. 발 피를 빨아 먹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톱툰쓰러(지더라고) 자빠지더라고.}

10509 #1 아유: 그래가주구: 한 다를 드러안저씨썸유, 한 다를. 그랜는데 우리 친정 여동생이 와서 바벌 해: 조서 이래 드러안저꾸 이랜는데. {아유 그래서 한 달을 들어앉았었어요, 한 달을. 그랬는데 우리 친정 여동생이 와서 밥을 해 줘서 이렇게 들어앉았고 그랬는데.}

10509 #1 그 외사촌 시동생이 그래두 거 가참꾸 그래잉까 누가 참 낭 거터바유 오시유 오시유 해여 오저나. 그래두 참 톱트미 와서 이러케 나:리른 날마다 와서 보룽가널 쪼쳐댕겨썸유. 보룽가널 땡기민 하루 한 차례씩 치물 놔:서 그래 해구 그랜대 한 다를 드러안저씨썸유 글썸 그래가주고 죽찢 앙꾸 사러나썸유. {그 외사촌 시동생이 그래도 가깝고 그러니까 누가 참 남 같아봐요 오세요 오세요 해야 오잖아. 그래도 톱툰이 와서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와서 보름간을 쫓아다녔어요. 보름간을 다니면서 하루 한 차례씩 침을 놓아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한 달을 들어앉았었

어요, 글썄, 그래가지고 죽지는 않고 살아났어요.}

10509 #1 그랜 모두 사람더리 그 배:덜 안 타서 그러타 그래유. 뱀 타닌 사라면 그 자리에서 땀박 땅이 노:라 가주 보이두 못 안 보이서 오지두 모 텐디여. {그랬(는데)모두 사람들이 그 뱀을 안 타서 그렇다고 그래요. 뱀 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땅이 노래 가지고 보이지도 못(하고) 안 보여서 오지도 못 한대.}

10509 #1 아유:, 뱀 쏘릴 해 가주구: 뱀: 옴:날 애기 해써유. {아유, 뱀 소리를 해 가지고 뱀 옛날 얘기를 했어요.}

10509 # 흐흐흐흐. {흐흐흐흐}

10509 @ 하라부지는 그런 적 업써유? {할아버지는 그런 적 없어요?}

10509 # 야:. {예.}

10510 @ 여기서는 주로 음식글 어떻 걸 마니 해머거요, 보통 때 머 해멍능 거? {여기에서는 주로 음식을 어떤 것을 많이 해 먹어요, 보통 때 뭐 해먹는 것?}

10510 @ 보매 해멍능 거, 여르매 해멍능 거 머, 가으래 해멍능 거, 겨우래 해멍능 거 이렇거 이짜니요? {봄에 해 먹는 것, 여름에 해 먹는 것 뭐, 가을에 해 먹는 것, 겨울에 해 먹는 것 이런 것 있잖아요?}

10510 #1 다 철처리 나녕 거 보매넌 그저 무궁 거 마이 먹찌 무근 김치:. 누가 멀 요새 이러캐 아프구 해이까 누가 나가? 그래이: 봄나물두 요 이우재서 모두 주: 바서 머거 보지 내가 나가 모 뜨더유. {다 철철이 나는 거 봄에는 그저 묵은 거 많이 먹지 묵은 김치. 누가 뭐 요사이 이러캐 아프고 하니까 누가 나가? 그러니 봄나물도 여기 이웃에서 모두 줘 바서 먹어 보지 내가 나가 못 뜰어요.}

10510 #1 나생이 머: 지칭개: 모두 주로 미나리 머: 썰찌 머:. {냉이 뭐 지칭개 모두 주로 미나리 뭐 흔하지 뭐.}

10510 #1 여르매는 머: 강자찌개 그저 머: 호:박 가지: 오이 양파 머:. {여름에는 뭐 감자찌개 그저 뭐 호박 가지 오이 양파 뭐.}

10510 @ 주시그루 멍는 건 머요, 주로 주시그로? {주식으로 먹는 것은 뭐예요, 주로 주식으로?}

10510 #1 주시그루 멍는 게 주로 머. {주식으로 먹는 것이 주로 뭐.}

10510 @ 바파구? {밥하고?}

10510 #1 바파구 머: 떠캐 머그먼 떠기나 두구 머꾸 또 시방은 아덜더리 인재 사다주니까 인재 그거 먹따 떠러지면 또 또 낭:중에 사다주믄 머꾸 이러치유. {밥하고 뭐 떡해 먹으면 떡이나 두고 먹고 또 지금은 아들이 사다주니까 그거 먹다가 떨어지면 또 나중에 사다주면 먹고 이렇지요.}

10510 @ 밥? {밥?}

10510 #1 그르치유. {그렇지요.}

10510 @ 국쭈, 또? {국수, 또?}

10510 #1 나:면 머. {라면 뭐.}

10510 @ 밀가루로 해멍는 건 머요? {밀가루로 해 먹는 것은 뭐예요?}

10510 #1 밀가루루 머 국쭈두 해머꾸 수지비두 해머꾸 부치기두 부치구 빵:두 해머꾸 머 썰:는데 귀차너서 누가 해유? 안 해유. {밀가루로 뭐 국수도 해먹고 수제비도 해먹고 부침개도 부치고 빵도 해먹고 뭐 많은데 귀찮아서 누가 해요? 안 해요.}

10512 @ 수지비는 어트개 해 멍는 거유? {수제비는 어떻게 해 먹는 거예요?}

- 10512 #1 수지비는 인제 감자하구 과하구 인제 기름 느쿠 들들 복따가 물 부꾸 인제 꼬르  
른 이 수지비럴 인제 밀까루 가따 무를 느쿠 이래 수칼루 반주글 해 가주구 그거  
뚜 되:개 해서 소느루 뜨더늬 대: 딱따캐유. 어지가:니 농누캐:서 수칼루 이래이  
래 끌른 대다 떠 느:서 먹찌 머. {수제비는 감자하고 과하고 기름 넣고 들들 복  
다가 물 붓고 이제 끓으면 이 수제비를 밀가루에다 물을 넣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반죽을 해 가지고 그것도 되게 해서 손으로 뜯어 넣으면 딱딱해요, 어지간히 녹  
녹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이렇게 끓는 데다 떠 넣어서 먹지 뭐.}
- 10512 @ 수칼로 찢러 가주구요? {손가락으로 잘라 가지고요?}
- 10512 #1 야, 그러캐두 해고 시방드런 또 이러캐 해 가주구 소느루 이러캐이러캐 자버 느:  
가즈고 이러캐이러캐 뜨더 느키두 해구 머. {예, 그렇게 하고 지금들은 또 이렇  
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이렇게 잡아 넣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뜯어 넣기도  
하고 뭐.}
- 10510 @ 그개 인제 바비나 국쭈나 수지비가 인제 주시기구 그거 머글라면 또 인제 반찬두  
부시기 피료하자너유? {그게 이제 밥이나 국수나 수제비가 주식이고 그거 먹으려  
면 또 반찬도 필요하잖아요?}
- 10510 #1 반찬 인제 그렇 거 해머년 인제. {반찬 그런 거 하면 이제.}
- 10510 @ 부시근 머가, 밤 머글 때 부시근 어떻 거뜨리 이써요? {부식은 뭐가, 밥 먹을 때  
부식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 10510 #1 머 반찬니지 머 그렇 거 채소루 행 거 그렇 거지 머 이써. {반찬이 뭐 그런 거  
채소로 한 거 그런 거지 뭐 있어.} @ 예. {예.}
- 10510 @ 고거 이름, 국뚜 이꾸? {그거 이름, 국도 있고?}
- 10510 #1 음, 장:두 이꾸 장:두 꼬리다가. {음, 장도 있고 장도 끓이다가.}
- 10510 @ 장:두 이꾸? {장도 있고?}
- 10510 #1 머 조리도 해: 머꾸 메리치뽕꿈두 해: 머꾸 머 메리치뽕꿈두 해: 머꾸 김:두 해:  
머꾸 콩조리두 해: 머꾸 머 인제 주로 농사 진넝 거 가주구 해: 먹찌유. {뭐 조림  
도 해 먹고 멸치볶음도 해 먹고 뭐 멸치볶음도 해 먹고 김도 해 먹고 콩자반도  
해 먹고 주로 농사 짓는 거 가지고 해 먹지요.}
- 10510 @ 튀 튀 튀각? {튀각?}
- 10510 #1 튀김. {튀김.}
- 10510 @ 튀가기라능 거뚜 이써유? {튀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 10510 #1 예:. {예.}
- 10510 #1 다시마 다시마 가주구 고거 인제 싹싹 인제 저증 걸래루 따꺼가, 저즌 행주루 따  
꺼 가주구 요래요래 찢러 가주 납찢납찢해 가주구 기르매 튀겨 가주구 마썬금 언  
저서 멍능 거유. {다시마, 다시마 가지고 그것을 젖은 걸레로 싹싹 닦아서, 젖은  
행주로 닦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잘라 가지고 납작납작하게 해 가지고 기름에  
튀겨 가지고 맛소금 얹어서 먹는 거요.}
- 10510 @ 말롱 걸루 향 거요 하능 거요 아니믄 저즌 다시마? {마른 것으로 한 거예요, 하  
는 거예요, 아니면 젖은 다시마?}
- 10510 #1 이게 예: 빼짱 말러짜너 다 다시마가. 그 인제 저즌 행주루다가 저증걸루다가 요  
로케 싹:싹 따꺼유 뿌:영 거 다 따꺼 내:버리구 가애루 잘러 가주구 뽕꺼 가주구  
이 마썬금 줌 찢 엉꾸 저 설탕 뿌려 언지면. {이게 바짝 말랐잖아 다시마가. 그

젖은 행주로 젖은 것으로다 이렇게 싹싹 닦아요, 뿌:연 거 다 닦아 내버리고 가 위로 잘라 가지고 볶아 가지고 맛소금 좀 끼얹고 설탕 뿌려 얹으면.}

10510 @ 자바는 멸: 자바나라 그래요? {자반은 무엇을 자반이라고 그래요?}

10510 #1 자:바니 머: 수산 수산물 가주구. {자반이 뭐 수산물 가지고.}

10510 # 조:기 가주구 자:바나라 그래유. {조기 가지고 자반이라고 그래요.}

10510 @ 조기? {조기?}

10510 # 예, 다름 건 자바니 아니지유. {예, 작은 것은 자반이 아니지요.}

10510 #1 생서니지 다름 건. {생선이지 다른 것은.}

10510 @ 아:, 다름 건 생서니고? {아, 다른 것은 생선이고?}

10510 #1 그래구 또 인재 조기 다:매는 굴비 굴비. {예, 그리고 또 조기 다음에는 굴비, 굴비.}

10510 @ 굴비하구 조기하구 다름 거요? {굴비하고 조기하고 다른 거예요?}

10510 #1 그래깸 달리지유. 조기를 질: 치자나유 조기. 그래등 그 다:맨 굴비 아니유 굴비.{그러니까 다르지요. 조기를 제일로 치잖아요 조기. 그러곤 그 다음에는 굴비 아니예요 굴비.}

10510 @ 생깸 거뭇 좀 달라유? {생긴 것도 좀 달라요?}

10510 #1 아이, 굴비는 달름 건 움:써유 좀 잘지유 조기보다. 그른대 조기는 노로꼬리: 해구 굴비는 좀 쪼끔 포로스름해구 그렇 거. {아이, 굴비는 다른 것은 없어요 좀 잘지유 조기보다. 그런데 조기는 노르스름하고 굴비는 좀 조금 푸르스름하고 그런 거.}

10513 @ 고치장, 된장 담찌요? {고추장, 된장 담그지요?}

10513 #1 예. {예.}

10513 @ 그거 어트개 담:는지, 자세히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 어떻게 담그는지, 자세히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0513 #1 아이구 나 참 호호호호. {아이고 나 참 호호호호.}

10513 #1 꼬:치장은 인재 머여 찹쌀가루를 가리 와유, 가리 오머는 버리루 질곰넹 거 이짜너유 싹 티웅 거 질곰. 그거덜 인재 또 가리 가지구 그거덜 인재 짜유. 걸러서 무얼 해서 찹쌀 가려온 데다가 이래 서꺼 놔유. 이래 미지근해개 서꺼서 인재 밤 채우믄 인재 삭짜너유. 멀거스름 멀거스름해개 그램 인재 소태다 팍:팍 꼬리유. {고추장은 이제 뭐야 찹쌀가루를 갈아 와요, 갈아 오면 보리로 엇기름넹 거 있잖아요 싹 티운 거 엇기름. 그것을 이제 또 갈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짜요. 걸러서 물을 해서 찹쌀 갈아온 데다가 이렇게 섞어 놓아요. 이렇게 미지근하게 섞어서 이제 밤 채우면 이제 삭잖아요. 멀겅게, 멀겅게 그러면 이제 술에 (넣고) 팍팍 끓여요.}

10513 #1 팍:팍 불 때서 꼬리믄 인재 사그면 말:가차너유. 그걸 인재 다 사궁 거덜 말깡 거덜 또 바치유. 잘래다가 느: 가주구 고:운 자루에다 느: 가주구선 제: 짜 가주서넨 짱 거를 팍:팍 다려 가주구 인재 큰 그르새다 퍼 노쿠서넨 꼬추까루 느쿠 메주까루 느쿠 소금 느쿠 치대서 향아리 다므면 되지. {팍팍 불을 때서 끓이면 삭으면 말깡잖아요. 그것을 다 삭은 것을 말간 것을 또 받쳐요. 자루에다가 넣어 가지고 고운 자루에다 넣어 가지고서는 전부 짜 가지고서는 짬 것을 팍팍 달여 가지고 큰 그릇에다 퍼 놓고서는 고춧가루 넣고 메줏가루 넣고 소금 넣고 치대서

항아리 담으면 되지.}

10513 @ 꼬추장은 그르케 하구, 된:장은뇨? {고추장은 그렇게 하고, 된장은요?}

10513 #1 된:장은 인재 아까처럼 고 소금무를 푸러 가지고 소그멸 대어레이다가 실래나 다여레이나 다며 가주고 무를 인재 슬슬 퍼 버:유, 놓는 대루. 그래 인재 그개 다 노거쓰면 인재 하루가 되던지 하루빠멸 자던지 해면 미태 지즈분행 거 다: 가라 양꾸 말가차너유. 그래 우애 지푸래기 뜨능 거 다 요러케 해서 거더내구 체애다 고운 체애다 받치자너유. 그래서 메주 항아리 느쿠 물 퍼다 부꾸 순명어리 썬 꼬추 썬 대추 세 개 그래 는능 거유. {된장은 이제 아까처럼 그 소금물을 풀어 가지고 소금을 대어랭이에다가 시루나 대어랭이에나 담아 가지고 물을 슬슬 퍼부어요, 녹는 대로. 그래서 이제 그개 다 녹았으면 하루가 되든지 하룻밤을 자든지 하면 밑에 지저분한 게 다 가라앉고 말갭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지푸라기 뜨는 거 다 이렇게 해서 걷어내고 체애다 고운 체애다 받치잖아요. 그래서 메주 항아리에 넣고 물 퍼다가 붓고 숯덩어리 세 개 고추 세 개 대추 세 개 그렇게 넣는 거예요.}

10513 @ 그렇 건 왜 너요? {그런 것은 왜 넣어요?}

10513 #1 그랭이까 인재 잔맛 읍쓰라구. 잔맛 들지 말구 인재 조:으라 그래지 인재 이개. 잣-꺼 읍씨지라구. {그러니까 이제 잡맛 없으라고. 잡맛 들지 말고 이제 좋으라고 그러지 이제 이개. 잡 것 없어지라고.}

10513 @ 잡맛 다른 다른 맛? {잡맛, 다른 맛?}

10513 #1 예:, 그래잉께 예:방이지유. {예, 예, 그러니까 예방이지요.}

10513 @ 그러 그 다으매는뇨? 그러케 그 다며 노면 대능 게 아니자나요? {그럼 그 다음에는뇨? 그렇게 담아 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513 #1 예:, 인재 고 다매는 그리잉간 사:시 빌 똥안 사:시빌 똥안 되머닌 그걸 인재 모우애 인재 차우 이씨쓰니까 우앤 껌:차너 인재 그걸 거더 내:구서 장덩어리를 꼬:내 노쿠 큰: 다라애다 꺾지 노쿠선 거기다 인재 꼬추씨하구 머: 버리바블 줌 폭 퍼지개 해가주구 꼬추씨 가룽 거 그래 뿔구수름헨 대 거기다 느쿠 껍:껍 치대유. {예,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사십 일 동안 사십 일이 되면 그것을 이제 뭐 위에 있었으니까 위에는 검잖아 이제 그것을 걷어 내고서 장덩어리를 꺼내 놓고 큰 함지에다 건져 놓고서는 거기에다 이제 고추씨하고 뭐 보리밥을 줌 폭 퍼지개 해가지고 고추씨 간 거 그래서 볶으스름한 데 거기에다 넣고 껍:껍 치대유.}

10513 #1 껍:껍 치대 가주구서는 항아리다 다머서 한 해 무켜야 장마시 조을거유. 한 해 무키서 머거야 폭: 사거. {껍:껍 치대 가지고서는 항아리에다 담아서 한 해 묵혀야 장맛이 좋은 거요. 한 해 묵혀서 먹어야 폭 삭아.}

10513 @ 예. {예.}

10513 #1 그리구 그 해 바루 뜨구서년 머그면 도깨유 뜯내가. {그리고 그 해 바로 뜨고서는 먹으면 독해요 뜯내가.}

10513 @ 금 무른 어트가구? {그럼 물은 어떻게 하고?}

10513 #1 근 간장으로 먹짜너요, 간장 국간장. 찌개 지지구 국 끄리는대 간장으로, 콩에서 우려낸 간장이 조치유. 야: 그거이 다 콩무린대. {그것은 간장으로 먹잖아요, 간장 국간장. 찌개 지지고 국 끓이는 데 간장으로, 콩에서 우려나온 간장이 좋지요. 예, 그개 다 콩물인데.}

10513 @ 그 곱팡이두 나고 그러덩 거 가튼대요? {그 곱팡이도 나고 그러던 것 같은데요?}

10513 #1 간장애유? {간장애요?}

10513 @ 예. {예.}

10513 #1 아이구 그 다 거더내구 체루 바치기 때때: 왜 깨끄태지유. {아이고 그거 다 걷어내고 체로 받치기 때문에 깨끗하지요.}

10513 #1 이 곱:팡이 피구 그래능 걸 거 저기 여러 노치 모태 그래유. {이 곱팡이 피고 그리는 것을 저기 열어 놓지를 못 해서 그래요.}

10513 @ 아:. {예.}

10513 @ 해, 해빠태 \*\*\*? {햇별에 \*\*\*?}

10513 #1 예, 자:꾸 여러 놔야 되유. {예, 자꾸 열어 놓아야 돼요.}

10510 @ 짱아치는 어트개 머 어떻 거뜨리 이씨요, 어떤 짱아치가 이씨요? {장아찌는 어떻게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장아찌가 있어요?}

10510 #1 장:아지 머:듣지 다: 해 인년대루 해먼 장아치유. 짱아치년 인재 머:여 무수년 인재 소:그믐 찌언저 놔파가 줌 주그내 인재 그거덜 인재 또 다시 해: 가지구서 꼬내 소금무래서 인재 씨어 건지 자주구 인재 거기다가 왜간장 왜간장얼 인재 사카루가 느야 아자자하구 으-ㄴ:해다구 사카루 느쿠 왜간장을 꼬려 자주구 시켜 자주구서는 다머서 꼭: 채워 노른 그개 인재 발:가캐 새:카마캐 되지유 익찌유 그래서 머꾸. {장아찌 뭐든지 다 해 있는 대로 하면 장아찌예요. 장아찌는 이제 뭐야 무는 이제 소금을 끼얹어 놓았다가 좀 죽은 후에 이제 그것을 또 다시 해 가지고서 꺼내 소금물에서 이제 씻어 건져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왜간장 왜간장을 이제 사카린을 넣어야 아작아작하고 연하다고 사카린 넣고 왜간장을 끓여 가지고 식혀 가지고서는 담아서 꼭 채워 놓으면 그것이 이제 발짱게 새카맣게 되지요 익지요 그래서 먹고.}

10510 #1 뭐: 머 저기 머야, 사:미구 머:듣지 다: 그러캐들 해서 당귀 먹짜너유. {뭐 저기 뭐야, 삼이고 뭐든지 다 그렇게들 해서 담가 먹잖아요.}

10510 @ 그거:는 무수루두 짱아찌하구? {그거는 무로도 장아찌하고?}

10510 #1 야, 무수루두 해구 머: 저기저기 양:과두 해구 여러 가지루다 해유. 차:미두 해구 머 또 시방은 그 장아치 당구는 차:미가 따루 이때유. 이만:행 개 딱:파깅 개 이래 갈르니까 똑 오이거치 그런대, 그걸 버, 소걸 꼬려내구 거다 소그믐 하나 채워서 이러캐이러캐 해 노트라구. {예, 무로도 하고 뭐 저기 양과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요. 참외도 하고 뭐 또 지금은 그 장아찌 담그는 참외가 따로 있데요. 이만한 게 딱딱한 게 이렇게 가르니까 꼭 오이같이 그런데, 그것을 속을 긁어내고 거기에 소금을 하나 채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 놓더라고.}

10510 @ 그걸 저기 어튼 머 꼬추장애두 바거 노쿠 된장애두 바거 노쿠 그러든, 그러키두 하던대? {그것을 저기 꼬추장에도 박아 놓고 된장에도 박아 놓고 그러던, 그렇게도 하던데?}

10510 #1 옴:나랜 그러캐 헛는대유, 시방언 그러캐 해머년 변:헛다구 안 해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변한다고 안 해요.}

10510 @ 옴:나랜 그러캐 해씨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10510 #1 야:, 그러캐 해씨유. 덴장애두 느:파 머꾸 그래먼 벨:가유. 그러쿠 꼬치장애두 느:먼 벨:가쿠 그런대 꼬치장이 무리 생기거나 머 어 변:해먼 마시 가유. 그래서 시

방은 다 시방 따루 해머겨유 그러캐. {예, 그렇게 했지요. 된장에도 넣었다가 먹고 그러면 발개요. 그렇고 고추장에도 넣으면 발갥고 그런데 고추장이 물이 생기거나 뭐 어디 변하면 맛이 가요. 그래서 지금은 다 지금 따로 해먹어요 그렇게.}

10510 @ 싸:문뇨, 찜? {찜은요, 찜?}

10510 #1 싸든 머 찜장 맨드러서 찜 느쿠 밥 느쿠 그 싸 머그면 되개찌유 머, 고기두 싸 머꾸 그저. {찜은 뭐 찜장 만들어서 찜 넣고 밥 넣고 싸 먹으면 되겠지요 뭐, 고기도 싸서 먹고 그저.}

10510 @ 그렇 거 이제 지금 밥 국수 수제비 머 이렇 거 해짜너유? {그런 거 이제 지금 밥, 국수, 수제비, 뭐 이런 거 했잖아요?}

10510 #1 예. {예.}

10510 @ 거기애 인재 반찬 애기 해짜너요? {그 다음에 반찬 애기 했잖아요?}

10510 #1 예. {예.}

10511 @ 그거 말:구 좀 트기하개 해명능 거뚜 이찌요 머, 그렇 거 말구? {그거 말고 좀 특이하게 해먹는 것도 있지요 뭐, 그런 거 말고?}

10511 #1 트기 해명능 거 우리. {특이하게 해먹는 거 우리.}

10511 @ 주싱 말구 미우미나 머 주기나 그렇 거또 이짜너요, 만두? {주식 말고 미음이나 뭐 죽이나 그런 것도 있지요, 만두?}

10511 #1 어, 그러치유 저기 저 콩두 콩두 당귀따 뽕거 가주구 실쩍 지쳐 가주구 기:피해서 가라 가주구 가:래콩주기라구 쌀 느쿠 죽뚜 쏘: 머꾸. {예, 그렇지요 저기 저 콩도 콩도 담갔다가 불러 가지고 살짝 데쳐 가지고 기피해서 갈아 가지고 가래콩 죽이라고 쌀 넣고 죽도 쭈어 먹고.}

10511 #1 머 떡 쌀 빠다 떠캐머꾸, 근대 시방 떡뜰 누가 해 머거. {뭐 떡 쌀 빵아다가 떡 해먹고, 그런데 지금 떡들 누가 해 먹어.}

10514 @ 죽뚜 여러 가지가 이찌요? {죽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10514 #1 여:러 가지지유:, 자:죽뚜 이꾸 머 콩죽뚜 이꾸 파죽뚜 이꾸 머: 호박죽: 머: 만:치유 머. {여러 가지지요, 잣죽도 있고 뭐 콩죽도 있고 팔죽도 있고 뭐 호박죽 뭐 많지요 뭐.}

10514 @ 그렇 건 어트개 만드려요? {그런 것은 어떻게 만들어요?}

10514 #1 호박 쌀머 가주: 쌀하구 이러 느쿠 꼬리면 되지유 머. {호박 삶아 가지고 쌀하고 일어 넣고 끓이면 되지요 뭐.}

10514 @ 미우문뇨? {미음은요?}

10514 #1 미우문 그개 아픈 사람 명녕 거 아니유? {미음은 그개 아픈 사람 먹는 거 아니예요?}

10514 @ 예. {예.}

10514 #1 그거넌 싸털 이러 가주구 들기르를 냄비에다 줌 부꾸 싸를 느: 가주 인재 소치 달자너유 그래민 주거그루다 박:빠 뽕까유 싸털 그래다가 인재 달달 복파가서넌 무털 부먼 보:양 게 꼬수해지유. 그개 아픈 사람 명녕 거유. {그거는 쌀을 일어 가지고 들기름을 냄비에다 줌 붓고 쌀을 넣어 가지고 이제 술이 달잖아요 그러면 주걱으로다 박박 볶아요 쌀을 그러다가 이제 달달 볶다가 물을 부으면 뽕안 게 고소하지요. 그개 아픈 사람이 먹는 거요.}

10514 @ 주카구 달러, 주근 그냥 물 부꾸 꼬리능 거구. {죽하고 달라, 죽은 그냥 물 붓고



끓이는 것이고.}

10514 #1 예. {예.}

10514 @ 이거는 들기르매 보까 가주고. {이거는 들기름에 볶아 가지고.}

10514 #1 예, 그램 더 꼬수해라 그래구 마디쓰라 그래지. {예, 그거는 더 고소하라고 그렇게 하고 맛있으라고 그렇게 하지.}

10514 @ 예:. {예.}

10514 #1 또 녹뚜죽뚜 녹뚜두 쌀머서 걸러 가주고 녹뚜죽뚜 쭈구 판뚜 쌀머서 걸러 가주고 체로 걸러 가주고 또 판쪽뚜 쭈구. {또 녹뚜죽도 녹뚜도 삶아서 걸러 가지고 녹뚜죽도 쭈고 팔도 삶아서 걸러 가지고 체로 걸러 가지고 또 팔죽도 쭈고.}

10514 @ 그럼 팔 파치나 녹뚜를 먼저 쌀머서 그걸 걸러 다오매 거기다가 쌀 느코. {그럼 팔 팔이나 녹뚜를 먼저 삶아서 그것을 거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쌀 넣고.}

10514 #1 그르치유 궁무래다가, 예. {그렇지요 국물에다가, 예.}

10514 @ 만두나 떡뚜 해머거유? {만두나 떡도 해먹어요?}

10514 #1 예:, 해: 먹찌유 스:래. 설:랄 해 먹찌유. {예, 해먹지요 설에. 설날 해먹지요.}

10514 @ 그건 어트개 해요 만두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만두는?}

10514 #1 만두는 인제 김치해 느뎡 거 이:기구 또 시방은 머 고기 머 다 유까내서 가려 주닝 거 사다가 뽀까 느쿠 또 머여 당면두 쌀머서 느쿠 양념해서넌 무쳐 가주고 밀가루 반주캐 가주고 맨드러서 쌀머 먹찌유 머 떠카구. {만두는 이제 김치해 넣 었던 거 이기고, 또 지금은 뭐 고기 다 푸줏간에서 갈아 주는 거 사다가 볶아 넣고 또 뭐야 당면도 삶아서 넣고 양념해서는 무쳐 가지고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만들어서 삶아 먹지요 뭐 떡하고.}

10514 @ 떡 어떤 떠기요, 그냥 떠카고요? {떡, 어떤 떡이요, 그냥 떡하고요?}

10514 #1 가래떡 흰떡. {가래떡 흰떡.}

10514 @ 예. {예.}

10514 #1 흰떠걸 해야지 가래떠걸 해야지 만두꾸글 꼬리지유 만두꼭. {흰떡을 해야지 가래떡을 해야지 만두국을 끓이지요 만두국.}

10514 @ 예. {예.}

10514 #1 응, 그러니까 흰떠기 드러가야지. 흰떡 썰... {응, 그러니까 흰떡이 들어가야지. 흰떡 썰(지)...}

10514 @ 그건 어트개 녀요, 흰떠글 통채루 녀요? {그것은 어떻게 넣어요, 흰떡을, 통째로 넣어요?}

10514 #1 아:유, 썰:자녀유 다. {아휴, 썰잖아요 다.}

10514 @ 납짜카개? {납작하게?}

10514 #1 예, 쓰:러 가주고서넌 꼬리지유. {예, 썰어 가지고는 끓이지요.}

10514 @ 만두하구? {만두하고?}

10514 #1 예:. {예.}

10514 @ 오:곡빠븐 어트개 하능 거요? {오곡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514 #1 오:곡-밥뚜 마찬가지지유 머. 저:기 인제 쿵: 판: 모두 이렇 거 쌀머 가주고 쌀머 가주고 인제 그렁 거릴 인제 이리 미태 자꼬걸 깔구 또 우애 쌀 깔구 케케루 이래 까러노쿠서넌 물 부꾸 꼬리븐 바비지유. {오곡밥도 마찬가지로 뭐. 저기 이제 쿵 팔 모두 이런 거 삶아 가지고 삶아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밑에 잡

곡을 깔고 또 위에 쌀 깔고 켜켜로 이렇게 깔아 놓고는 물 붓고 끓이면 밥이지요.}

10514 @ 오곡빠번 다룽 거 이걸찌건 여러 개 드러가자너요? {오곡밥은 이것저것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10514 #1 예, 그래잉간 쌀 보리 콩 머여 판 콩 머 해유 시방애는 머 줍쌀두 드러가등구만 줍쌀을 이: 줍쌀른 그른대 안 드러가능 건대 줍쌀두 드러가구 그래서 오곡빠비라 그래자니. {예, 그러니까 쌀 보리 콩 뭐야 팔 콩 뭐 아유 지금은 뭐 줍쌀도 들어가더구먼 줍쌀을 이 줍쌀은 그런 데 안 들어가는 건데 줍쌀도 들어가고 그래서 오곡밥이라고 그러잖아.}

10514 #1 수수: 머: 콩: 판: 쌀: 머 줍쌀 모두 이러케 이써 오곡밥 이르미. 아이 머 해머글 라면 머 여러 가지 다 드러여지 머, 아 머 모여 으냉두 드러가구 머 밤:두 드러가구 대:추두 드러가구 머 자래 머글라면 항:정이 이써. 밤: 대:추 이렇 거 다 찰 바패명은 대 드러가유. {수수 뭐 콩 팔 쌀 뭐 줍쌀 모두 이렇게 있어 오곡밥 이름이. 아이 뭐 해먹으려면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야지 뭐 뭐야 은행도 들어가고 뭐 밤도 들어가고 대추도 들어가고 뭐 잘 해 먹으려면 한정이 있어. 밤 대추 이런 거 다 찰밥 해먹는 데 들어가요.}

10511 @ 부치능 거는 어떻 거뜨리 이써요? {부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10511 #1 부치능 건 머 부치기 갈:랍 두부두 이러케 쓰:러서 채워 가주구 부치구 머. {부치는 것은 뭐 부침개 간납 두부도 이렇게 썰어서 채워 가지고 부치고 뭐.}

10511 @ 갈라븐 어트개 하능 거요 멀: 가지고? {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10511 #1 갈:라븐 인재 유칼라비라구 대:지고기 이강 거하구 인재 고: 개: 가주 두부하구 순:저니 두부하구 밍겨 가주구 이러 맨드러 가주구 맨드러 가주구 납찔납찔해서 년 부치능 개 그거년 갈:라비구 갈:랍부치구 머 부치기 부치구 머 두부 부치구 그래유. {간납은 이제 육간납이라고 돼지고기 이긴 것하고 이제 그 개어 가지고 두부하고 순전히 두부하고 몽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납 작납작하게 부치는 것이 그것은 간납이고 간납 부치고 뭐 부침개 부치고 뭐 두부 부치고 그래요.}

10511 @ 그 쪼꼬망 거뚜 이짜나요 요마:낭 거? {그 조그마한 것도 있잖아요 요만한 거?}

10511 #1 갈:라비지. {간납이지.}

10511 @ 그걸 갈라비라 그래능 거요? {그것을 간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511 #1 유:칼랍. {육간납.}

10511 @ 유:칼랍. {육간납.}

10511 @ 그럼 적 저카구 적 부치기하구 달라요? {그러면 적하고 적부침개하고 달라요?}

10511 #1 저기라구두 해구 부치기라구루 해구 그래유. {적이라고도 하고 부침개라고도 하고 그래요.}

10511 @ 여긴 부치기라구두 마니 하나요? {여기는 부침개라고도 많이 하나요?}

10511 #1 야:, 마:니 부치기라 그래유. {예, 많이 부침개라고 그래요.}

10511 @ 찌:은? {찜은?}

10511 #1 찌:면 머 인재 여러 가지 해 찌닝 거지 머. 조:기릴 찌대덩가 머 다걸 찌대덩가. {찜은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서 찌는 거지 뭐. 조기를 찌다든가 뭐, 닭을 찌다든

가.}

10511 @ 달걀 이르케 반:쫄 이킹 건 머라 그래요? {달걀 이렇게 반쫄 익힌 것은 뭐라고 그래요?}

10511 #1 응, 그믐 반쫄 이킹 개 경 모요, 모? {어, 그러면 반쫄 익힌 게 그건 뭐야, 뭐?}

10511 @ 달걀, 쪄 멍는... {달걀, 쪄 먹는...}

10511 #1 반:수: {반숙.}

10511 @ 반숙: {반숙.}

10511 #1 계란? {계란?}

10511 @ 예. {예.}

10511 #1 반:수: {반숙.}

10511 @ 반숙: {반숙.}

10511 @ 금 회:두 머거요 회: {그러면 회도 먹어요, 회?}

10511 #1 그르치유, 예. {그렇지요, 예.}

10511 @ 머 멀: 주로 머거요, 회는? {뭐 무엇을 주로 먹어요, 회는?}

10511 #1 회넌 우리 머 저:기 과내 가서나 머거봐:찌, 회찌비 가서나 머거봐:찌 머:, 머 상: 어니 머 송:어니 머 여:러 가지대유 그뚜. {회는 우리 뭐 저기 관에 가서나 먹어 봤지, 횃집에 가서나 먹어 봤지 뭐, 뭐 상어니 뭐 송어니 뭐 여러 가지데요, 그것도.}

10511 @ 시캐라능 거 아려요, 시캐? {식혜라는 거 알아요, 식혜?}

10511 #1 예, 식캐는 인재 제:사 때 쓰닝 건대, 인재 바벌 이래 찌자나유. 감주할 찌개 이르케 바블 되:개 해서 찌 가주구 질금무털 걸러서 부:머넌 그개 사거유, 사거서 인재 요로케 다머노:먼 그개 식캐유. {예, 식혜는 이제 제사 때 쓰는 것인데 이제 밥을 이렇게 찌잖아요. 감주할 적에 이렇게 밥을 되게 해서 찌 가지고 질금물을 걸러서 부으면 그개 삭아요, 삭아서 이제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개 식혜예요.}

10511 #1 이 양반 조:시내. 저기 허허 저기 머시기 머야 커피나 한 잔 타드리께. 잠 다리 나개. {이 양반 조시네. 저기 저기 뭐야 커피나 한잔 타드릴게. 잠 달아나게}

## 제2편 어휘

### 2.1. 농경

#### 2.1.1. 경작

20101	벼	베, 벼
20102	이삭	베이삭, 벼이삭
20103	볍씨	종자유, 벼종자, 벼씨릴, 벼씨가
20104	못자리	모자리
20105	모판	모자리판, 모파네
20106	쟁기	쟁기유
20107	보습	보스피라구
20108	벼	장기벌, 벨
20108-0-1	-이	벼시라능
20109	극쟁이	극쟁이
20110	씨레	쓰:래유
20111	번지	번지
20112	모내기	모내기
20113	흙덩어리	흑땡어리, 흑땡이라구, 흑땡이라구두
20114	고무래	고물개유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고물개
20114-2	고무래(재 용도)	복:꼬물개, 부억고물개 (의도적 발음)
20114-3	고무래(흙 용도)	곰:배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고물개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고물개
20115	쇠스랑	소시랑
20116	곡괭이	꼬:깨잉가, 고:괭이
20117	괭이	괭이
20118	삽	삽
20119	호미	호미유, 호매이라구두
20120	농기구	연:장이라구

20121	김	푸리지
20122	김매다	반맨다구, 논맨다
20123	애벌 매다	아이매구
20123-1	두벌 매다	이듬매구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
20124	논두둑	논뚝
20125	밭둑	바뚝
20126	밭두둑	밭뚜럭, 두럭
20127	밭고랑	고:랑, 받:고랑, 고:른
20128	밭이랑	항골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썰다/파다	골:캔다, 탄다구두, 매:가주, 킹걸 가주
20128-2	이랑밟기	버리받 밥:끼
20129	보리	버리, 보리
20129-1	가을보리	갈:빠리
20129-2	봄보리	봄:버리
20130	보리쌀	보리쌀
20131	가을갈이	갈:카리
20132	감부기	감:비기
20133	두엄	퇴:비유
20134	거름	퇴:비준다, 거르미라구

##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추수, 추수해디린다
20202	벇단	베판, 다:느루
20202-1	벇단(한 줌정도)	벼파니라, 다:니유
20202-2	벇단(타작할 정도)	다:니라, 벇파니라
20202-3	벇단(한 아룀정도)	다:니라
20203	가리(積)	장작 테미, 콩까리, 콩가리
20204	가리다(積)	싼는다, 가린다 (가운테를 비게 하고 가 장자리에 돌려 쌓는 것)
20205	벇가리	베까리지 (마당에 차곡차곡 쌓아 놓은 것)
20206	난가리	나까리라구 (뜰에다 쌓아놓는 것)

20207	타작	타자기라
20208	벼훑이	찌꺼라구
20208-1	그네	베훑령거
20209	개상	채:쌍
20209-1	자리개	채:끈, 자리개소니라구, 자리개라구
20209-2	자리개질	채:지리라구
20210	도리깨	도리깨
20210-1	도리깨장부	장:치, 도리깨장치라구
20210-2	도리깨열	노:리, 도리깨노리
20210-3	도리깨꼭지	도리깨꼭찌, 꼭찌
20211	벧짚	지피지유, 베찌피구
20211-0-1	-을	베찌프루
20211-0-2	-에	베찌배, 지페다
20212	새 패기	집패:기, 화:기
20213	쪽정이	쪽째이지유, 쪽그랭이
20214	티	티가
20215	까끄라기	까:래기
20216	풍구	풍구
20217	원두막	원두마기네
20218	허수아비	허재비
20219	흥년	흥년
20220	머슴	머슴사리
20220	머슴	일:꾸니라구
20221	놉	날품파리지, 품꾸너지
20221-0-1	-을	*
20222	품앗이	품마시
20223	품삿	품쌈, 품깎
20223-0-1	-으로	품쌈기래너 (품삿이라는)

###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방아
20302	디딜방아	디딜땡아

20303	방앗공이	공이
20304	방아확	방아확:
20305	물레방아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매방아유
20307	절구	절구
20308	절구통	절구라, 절구통
20309	절굿공이	절구때
20310	절구질	절구질
20311	겨	겨지유
20312	보릿겨	버리깨
20313	왕겨	왕:개
20314	등겨	등개
20315	검불	검부지기, 검부적
20316	겹질	겹쫄, 겹떠기

#### 2.1.4. 곡물

20401	곡식	곡씨기라
20402	참쌀	참쌀
20403	멥쌀	멥쌀
20404	쌀보리	쌀버리
20405	조	스:숙, 조
20406	차조	차조, 차좁쌀
20407	메조	메조, 메좁쌀
20408	좁쌀	좁쌀
20409	작다	자러, 잘다, 자르문
20410	조이삭	스승니사기라구, 조이삭
20411	수수	수수유
20411-1	붉은색 수수	수수지
20411-2	장목수수	장:목쭈수
20411-3	찰수수	찰수수
20411-4	메수수	메수수

20412	수수깡	수수때유, 수수깡이, 수수깨이
20413	옥수수	옥쭈수(+ 다), 옥씨기(+ 구)
20413-1	찰옥수수	차룩쭈수, 차룩씨기
20413-2	메옥수수	메옥쭈수, 메독씨기, 메독쭈수
20414	귀리	귀:미렁가, 귀:리라구
20415	메밀	메물
20416	콩	콩
20417	콩깍지	깍:찌, 콩깍찌
20418	메주	메주
20419	매달다	단다, 다리라, 매판다
20420	띠우다	띠운다, 띠워여
20421	곰팡이	곰:패이
20422	강낭콩	감자반콩
20423	콩기름	콩기르미라
20424	깨	깨
20424-1	참깨	창깨
20424-2	들깨	들깨
20425	고소하다	고소하구유, 구수하고

## 2.1.5. 채소

20501	채소	야:채라, 채:수(+ 구)
20502	나물	나무리라
20502-1	"나물(발 재료)"	야:채라, 채:수라
20502-2	"나물(발 반찬)"	*
20502-3	"나물(들 재료)"	들라물
20502-4	"나물(들 반찬)"	나물
20502-5	"나물(산 재료)"	산나물
20502-6	"나물(산 반찬)"	나물, 고사리나무리라, 두릅나무리(그 나 물의 이름을 붙여 말함)
20503	푸성귀	나물, 푸정거:라구
20504	다듬다	다드머이지, 다드머서
20505	반찬	차:니라구, 반차니라구, 가니라구두(+ 구)



20506	무	무:
20507	썰다	쓰:러서
20508	무청	무순넙, 무:이피라구, 무:청
20509	시래기	씨래기, 쓰래기
20510	무말랭이	무:말래이
20511	장다리무	장:다리
20512	배추	배:추, 배:차(+ 구)
20513	꼬갱이	꼬갱이, 배:추꼬갱이, 배:차꼬갱이
20514	오이	오이유
20515	오이지	오이지
20516	오이소박이	오이속빼기
20517	가지(茄子)	가지
20518	호박	호:박, 애:호박
20519	고구마	고구마
20520	감자	감자
20521	우엉	우엉
20522	파	파구(파+ 고)
20523	고추	고추
20524	시금치	시금치
20525	미나리	미:나리, 메나리
20526	부추	분:추(+ 다), 정구지(+ 구)
20527	상추	상추
20528	마늘	마늘
20529	생강	생강
20530	냉이	냉이, 나생이(+ 구)
20531	달래	달롱
20532	도라지	도라지
20533	더덕	더덕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쌀밥, 이:밥(+ 구)
20602	찬밥	시금밥, 참밥
20602-1	더운밥	뜨심밥, 더운바비라
20603	조밥	조바비라
20604	누룽지	누런지, 누룽기
20605	눌은밥	누룽기, 누룽지라구, 누룽밥(누룽지 바로 위에 노릇하게 된 밥)
20606	승냥	승냥
20607	뜨물	쌀뜨물
20608	김(蒸氣)	기:미유, 지:미
20609	갱죽(羹粥)	진넙죽(막김치를 넣고 끓임), 짬지진넙죽
20610	싱겁다	싱겁따, 싱:겍찌유, 싱:거워서
20611	국수	국쭈유
20612	칼국수	칼국쭈(삶은 것과 삶지 않은 것 모두) 누룽국(칼국수를 삶은 것)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눌룽국쭈
20613	건더기	건디기
20613-1	국물	궁물
20614	고명	고명, 꾸미
20615	꾸미	꾸미
20616	미역	미역
20617	김(海苔)	김
20618	수제비	수제비꼭
20619	끼니	끼니
20620	미음	미:음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끄린다
20621	엿기름	길금, 연길금
20622	식혜(食醴)	감주, 시체가
20623	식해(食?)	*
20624	달다(甘)	달:지유
20625	가루	가루
20625-0-1	-에	가루예

20625-0-2	-을	가루를 (의도적 발음)
20625-0-3	-도	가루가
20626	밀가루	밀까루
20627	밀기울	밀 기울
20627	밀기울	밀끼우리라구
20628	미숫가루	미수까루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장:무리라구(+ 소), 간장을(+ 다)
20702	된장	된:장
20703	고춧가루	고추까루지
20704	고추장	고추장이
20705	소금	소그미지
20706	김치	김치
20707	김장	김장
20708	깍두기	깍뚜기
20709	나박김치	나막김치
20710	담그다	한다구(김장), 당군다구(장)
20710-0-1	-고	하구(김장), 당구더라(장), 당구구(장)
20710-0-2	-어라	해라(김장), 당귀여지(장), 당구라(장)
20711	양념	양념
20712	버무리다	버무린다
20713	버섯	버섰
20713-0-1	-이	버서시
20714	콩나물(재료)	콩나물
20714-1	콩나물(반찬)	콩나물
20714-2	숙주(나물)	숙쭈나물(재료와 반찬 모두)
20715	두부	두부
20716	비지	비지
20716-1	비지떡	비지떠기라(+ ?제)
20717	달걀	달걀, 달걀
20718	가래떡	가래떡

20719	시루떡	시루떡
20720	송편	송편
20721	빻다	빈는다, 비즈라
20722	흰떡	젤편(흰떡의 하위류)
20723	고물	고물
20724	팔죽	파죽
20725	새알심	새알, 새알수지비
20726	백설기	백설기
20727	튀밥	튀밥(단모음 거)
20728	술	수리지
20729	막걸리	막걸리
20730	소주	쏘주, 약쭈라
20731	부침개	부치기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뚜막
20802	가마솥	가마솥
20802-0-1	-을	가마소슬
20802-0-2	-에	가마소태
20803	아궁이	보강이, 아궁이두, 보강지라(+ 다)
20803-0-1	-이	보강이가, 보강지가
20804	그을음	끄:름
20805	불쏘시개	불소시개
20806	연기	영:기
20806-1	내(煙氣)	영기가
20807	그을리다	끄실른다
20808	부지깻이	부지깻이
20809	부삽	부사비지
20810	냅다	내굽따구, 내구워
20811	냄비	냄빈대
20812	그릇	그륄
20812-0-1	-을	그르슬

20813	뚜껍	뛰에(+ 다), 뚜껍
20814	주발 뚜껍	뛰에가
20815	사발 뚜껍	뛰에가
20816	술뚜껍	소뚜껍
20817	밥주걱	주걱
20818	숟가락	수저
20819	젓가락	저범
20820	종지	종지
20821	보시기	바새기라구
20822	뚝배기	투가리
20823	접시	접씨지유
20824	조리	조:래이
20825	이남박	이남박
20826	바가지	바가지
20827	행주	행주
20828	행구다	행구구
20829	설거지	설거지
20830	개숫물	설거지물, 자심무리라구
20831	찌꺼기	찌끄래기, 물찌끼(물이 빠지고 난 나머 지), 밥찌끼(밥 찌꺼기)
20832	화로	화:로
20833	화롯불	화루뿌리라, 화:리뿌레다가
20834	부저가랴	부저깔, 불저깔
20834-0-1	-이	부저까리
20834-1	불숟가락	불따깨지
20835	다리쇠	삼바리
20836	석쇠	적쇠
20837	도시락	도시라기지
20838	바구니	바구니라구
20839	뒤주	두지
20840	찬합	차:납
20841	강판	강파니지
20842	개다리소반	술쌍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암뽕
20902	벽	베름빠근(막하는 말이라고 생각함) 벼기라구(비교적 순한 느낌을 주는 말)
20903	다락	다라기구
20904	벽장	벽짱
20905	감추다	승겨논다구, 감춘다구
20906	흙	허:미
20907	돌쩌귀	돌적, 돌쪼기라구, 돌쪼구라구
20907-1	암쪼	암쪼
20907-2	수쪼	수쪼
20908	미닫이	미다지구
20909	여닫이	무니지
20910	덧문	덤문, 던무넌
20911	열다	열구
20912	문고리	몽꼬리라구
20913	자물쇠	자물통
20914	간히다	가쳐이따
20915	열쇠	으ㅡ르쎄
20916	잠그다	장구구, 장겨서, 채운다
20917	구멍	구멍, 몽꾸넉
20917-1	취구멍	취구먹
20918	찢다	찢는다, 짜깁다
20919	구들	구들
20920	흙받기	흑빠디, 흑빠침
20921	흙손	흑칼
20922	흙칼	흑카리유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흑카리구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흑칼루다가

20923	바르다	발르라, 벽 빨르구
20924	장판	장파니
20925	종이	
20926	도배	되배
20927	구석	구서기라
20928	굽도리	간:또리라
20929	깨끗하다	깨끄태다
20930	문지방	문쭈방
20930-0-1	-에	문쭈방에
20931	틈	틈새가
20932	가장자리	가상이, 가생이라구
20933	가운데	가운데
20934	시렁	실광
20935	살강	살광
20936	선반	숨반
20937	서랍	서랍
20938	경대	경대
20939	거울	거울
20940	걸다	건:다, 거러라
20941	호룽	등잔, 심지뿌리라(아주까리기름이나 들 기름을 사용)

###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
21001-0-1	-에	지붕에
21002	기와	기와
21003	기와집	기와지비지
21004	수키와	마루(+ ?조)
21005	암키와	기화짱이라, 기와짱이
21006	대들보	대달뽀
21007	서까래	서까래유
21008	추녀	추녀미테(추녀와 처마를 구별하지 못함)

21009	치마	추녀예(추녀와 치마를 구분하지 못함)
		추녀끝
21010	오두막	오두막찻
21011	초가집	초가집
21012	이영	으—ㅇ:
21012-0-1	-에서	으—ㅇ:을
21013	용마름	용:구세
21014	기스락	추녀끄시라(추녀와 기스락을 구별하지 못함)
21015	낙숫물	*
21015-1	기스락물	*
21016	사닥다리	새다리
21017	용마루	댐마루
21018	토방	뜨리라구, 봉당
21019	댕돌	*
21019-1	섬돌	노:주똥
21020	마루	대:청, 마루구, 말루루
21020-0-1	-에	마루는
21021	뒹마루	쫓마루라
21022	기둥	지둥이지, 지둥을
21023	주춧돌	주춧똥
21023-0-1	-을	주춧똥을
21024	굴뚝	굴뚝

### 2.3.3. 마당

21101	뜰	화다니라(여기서 "뜰"은 "토방"을 말함)
21102	마당	마당
21103	넙다	넙따
21103-0-1	-어서	넙버서
21104	넙히다	늘리야, 넙리두, 넙피야
21105	곶간	광:
21106	외양간	오양간
21107	마구간	마구찻



21108	광	광:
21109	헛간	허간
21110	쓰레기	씨래기
21111	장독대	장팥
21112	장독 뚜껑	장뚝소래기
21113	변소	뒤까늘(+ 구), 화장시리라, 변소
21113-1	똥장군	오줌장군
21114	울타리	울타리
21115	담	담
21115-0-1	-에	다미
21115-0-2	-도	담두
21116	사립문	삼짝
21117	뒤결	뒤안
21117-0-1	-에	뒤아네서
21118	바깥	바께, 바까시라
21118-0-1	-에	바께
21119	모퉁이	모태이
21120	모서리	모솔키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마을
21202	윗마을	우똥내지
21203	이웃	이운
21203-0-1	-이	이우지
21203-0-2	-에	이우제
21204	마을가다	저녕마실, 마실간다
21205	우물	웅달샘, 두레새:미지, 바가지샘:
21206	두레박	뚜레박, 두레박
21207	샘(泉)	약쭈, 새미라
21208	가(邊)	샘까
21208-0-1	-을	가털
21208-0-2	-에	샘까에

21209	물지개	물지개, 물찌개유
21210	가개	가가라
21211	싸다	싸다
21212	비싸다	비싸다
21213	흥정	흥정
21214	중매인(거간꾼)	흥정꾸니
21215	잔돈	즈:근도느루, 잔도니구
21216	에누리	에누리
21217	거스름돈	거슬름또니지, 거실름또니지
21218	거스르다	거슬르먼, 거실러
21219	꾸다(借)	빌리다, 꼬:조요
21219-0-1	-어야, -어야	꼬:조요, 꾸:와야지
21220	구두쇠	자렁고비, 구두새
21221	말기다	마껴
21222	나머지	나머지
21223	덤	덤:
21224	몫	몫씨라, 모거치라구두
21224-0-1	-을	모거칠, 목쓸
21225	빚	빚, 비시지
21225-0-1	-을	비설
21225-0-2	-에	비세
21226	이자(利子)	이:자
21227	심부름	심:부름
21228	두름	두름
21228-1	축	축
21228-2	꽤	코, 때라구, 떼
21228-3	접	접
21228-4	쌈	쌈
21228-5	두름	간, 가시, 두름 (스무 모숨(두 갓))
21228-6	단/몫(작은 몫음)	단:
21228-7	단/몫(서너 개 몫음)	다발
21228-8	툇	축
21228-9	모숨	하노쿰

21229	컬레	항컬래, 커리
21230	마지기	마지기라구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배고시평(150평) (지역마다 다른데 이 지역은 150평)
21231	꾸러미	구러미, 꾸러미
21232	그루	그루, 그르
21233	포기	포기
21234	저울	저울
21235	자루(包袋)	자루(광목이나 면으로 만든 것) 푸대를(나일론으로 만든 것)
21235-0-1	-을	자루를
21235-0-2	-에	자루에다가
21236	하나	하나
21236-1	한-개	항:개
21236-2	한-되	한:되
21236-3	한-말	함:말
21237	둘	둘:
21237-1	두-개	두:개
21237-2	두-되	두:되
21237-3	두-말	두:말
21238	셋	센:
21238-1	세-개	세:개
21238-2	세-되	세:되, 스:되
21238-3	세-말	세:말, 스:말
21239	넷	넌:
21239-1	네-개	네:개
21239-2	네-되	니:되, 느:되
21239-3	네-말	네:말, 느:말
21240	다섯	다써
21240-1	다섯-개	다서깨
21240-2	다섯-되	다서때, 단뛰
21240-3	다섯-말	다섬말, 담:말
21241	여섯	여서

21241-1	여섯-개	여서깨
21241-2	여섯-되	열뵈
21241-3	여섯-말	여섬말, 염:말
21242	일곱	일고
21242-1	일곱-개	일고깨
21242-2	일곱-되	일곱뵈
21242-3	일곱-말	일곱말, 일곱말
21243	여덟	여덜
21243-1	여덟-개	여덜깨
21243-2	여덟-되	여덜뵈
21243-3	여덟-말	여덜말
21244	아홉	아홉
21244-1	아홉-개	아:호깨
21244-2	아홉-되	아홉뵈
21244-3	아홉-말	아홉말
21245	열	열:
21245-1	열-개	열:깨
21245-2	열-되	열:뵈먼
21245-3	열-말	열:말
21246	스물	수:무리지
21246-1	스무-개	수무개
21246-2	스무-되	수:무되
21246-3	스무-말	수무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개	서릉개
21247-2	서른-되	서:른되
21247-3	서른-말	서른말
21248	마흔	마흔
21248-1	마흔-개	마흥개
21248-2	마흔-되	마흔되
21248-3	마흔-말	마흔말
21249	쉰	쉰:
21249-1	쉰-개	쉰:개

21249-2	쥬-되	쥬:되
21249-3	쥬-말	쥬:말:
21250	예쥬	예:쥬
21250-1	예쥬-개	예:쥬개
21250-2	예쥬-되	예:쥬되
21250-3	예쥬-말	예쥬말
21251	일흔	일:흔
21251-1	일흔-개	이:룽개
21251-2	일흔-되	일흔되
21251-3	일흔-말	이른말
21252	여든	여든
21252-1	여든-개	여등개
21252-2	여든-되	여든되
21252-3	여든-말	여든말
21253	아흔	아:흔
21253-1	아흔-개	아흥개
21253-2	아흔-되	아흔되
21253-3	아흔-말	아:흙말
21254	백	백
21254-1	백-개	배:깨니까
21254-2	백-되	*
21254-3	백-말	*
21255	이백	이:배기지
21256	한둘	*
21256-1	한두-개	*
21256-2	한두-되	한:두되만
21256-3	한두-말	한:두마림
21257	두셋	*
21257-1	두세-개	*
21257-2	두세-되	*
21257-3	두세-말	*
21258	두서넛	*
21258-1	두서너-개	두:서너개가

21258-2	두서너-되	두:서너되만
21258-3	두서너-말	도:서너말
21259	서넛	*
21259-1	서너-개	*
21259-2	서너-되	*
21259-3	서너-말	서너마리나
21260	네댓	너던
21260-1	네댓-개	너더깨
21260-2	네댓-되	너더땡뽕만
21260-3	네댓-말	너덤말, 너더땡:말
21261	대여섯	대여섯
21261-1	대여섯-개	대여서깨
21261-2	대여섯-되	대여서뽕
21261-3	대여섯-말	대:여섯말
21262	예닐곱	여닐곱
21262-1	예닐곱-개	여닐고개, 예닐구개
21262-2	예닐곱-되	*
21262-3	예닐곱-말	여닐곱말, 여닐곱말
21263	일여덟	*
21263-1	일여덟-개	일구여덜깨
21263-2	일여덟-되	*
21263-3	일여덟-말	일고여덜마리라, 일구여덜말
21264	여덟아홉	*
21264-1	여덟아홉-개	*
21264-2	여덟아홉-되	*
21264-3	여덟아홉-말	*
21265	여남은	여나무
21265-1	여남은-개	*
21265-2	여남은-되	여나무되
21265-3	여남은-말	여나무말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마
21302	길이	기레기
21303	저고리	조고리
21304	색동저고리	색똥, 색똥조고리, 색똥누비
21305	두렁이	두랭이라구(+?제)
21306	무늬	무네
21307	고쟁이	고쟁이네
21308	바지	바지라구
21309	두루마기	두루마기
21310	의복	의보기지, 으:복
21311	구겨지다	꾸기진다구, 구기저따구
21312	옷고름	오꼬름
21313	단추	단추
21314	동정	동정
21315	겉	거죽, 거태니까
21315-0-1	-에	거주기지
21315-0-2	-을	거주글
21316	홀옷	호꺼, 호돈
21317	겹옷	겨본
21318	잠방이	잠:배이
21319	누더기	누더기라
21320	거지	거:지, 그:지라구, 거러지(+구), 동냥바 치
21321	구겉	동:냥
21322	조끼	쪼끼지
21323	내의	속:쩍쌈(+구), 내:보기구(겨울에 입는 것)
21324	껴입다	껴이버따
21325	소매	소매
21326	주머니	주머니

21327	호주머니	호주머이
21328	허리띠	허리띠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도:포
21331	삿갓	사갓
21331-0-1	-에	사까시유
21332	고깔	꼬:깔하구, 고:깔
21333	사모	*
21334	유건	유:건
21335	대님	댄님
21336	감발	발싸개
21337	짚신	집씨기, 집쌔기라구
21338	미투리	미투리라구, 집썸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겉다	맨든다구, 삼:는다구(+ 다)
21339	나막신	나막썸
21340	설피	*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명주유
21401-1	명주실	명주실
21402	목화	모카
21402-1	목화다래	모카 다래, 다래
21403	무명	무명, 미영
21403-1	무명실	무명실
21404	씨아	썸:
21405	자새	자:새가(명주실을 감는 것)
21406	물레	물:래
21407	베	베
21408	길쌈	질쌈
21409	골무	골무
21410	반진고리	반지끄를
21411	가위	가위



21411-0-1	-을	가위를
21411-0-2	-에	가위에
21412	마르다(裁)	마름질, 말른다구
21412-0-1	-고	마르구
21412-0-2	-어라	말리
21413	형겅	흥겹쫓각, 흥겹쫓기, 형겹
21413-0-1	-을	흥겹쫓글
21413-0-2	-에	흥거배
21414	바늘	바늘
21415	꺾다	꼬이야
21415-0-1	-고	꼬이구
21415-0-2	-어라	꼬이라
21416	바느질	바누질
21417	재봉틀	재방
21418	끈	끈
21419	노끈	노나끈
21420	참바	바:
21421	매듭	매듭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지어서
21422	보자기	보자기
21423	이불	이불
21424	숨	소:미지
21425	포근하다	포곤:하다
21426	홀이불	혼니불
21427	겹이불	검니불
21427-1	숨이불	숨:니부리지
21428	누비이불	누비이불
21429	베개	벼:개
21430	베갯잇	호칭
21430-0-1	-에	호칭에
21431	목침	토막
21432	퇴침	퇴:침
21433	방석	방서기라구

21434	담요	담:노
21435	빨래하다	빨래한다구
21436	빨랫방망이	빨래뽕매이
21437	빨래터	빨래터유
21438	빨랫줄	빨래줄
21439	다리미	다리미
21439-1	다림질	다리미질
21440	인두	인두유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디미뽕매이
21442	다듬잇돌	다디미돌:
21443	다듬이질	다디미한다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라리라
21502	설	서리라
21503	선달 그믐날	서:딸그믐
21504	목은세배	*
21505	올해	올해
21505-0-1	-는	오래는
21505-1	작년	장년
21505-2	재작년	그러께, 재장년
21505-3	내년	내년
21505-4	후년	후년
21505-5	내후년	저후년
21506	작은설	자근설
21507	웃	유:시라, 윤
21507-0-1	-을	유설
21507-0-2	-에	유:세
21507-1	웃놀이	윤:노리

21508	웃가락	유:까치라
21508-1	도	도
21508-2	개	개
21508-3	걸	걸
21508-4	웃	운
21508-5	모	모
21509	단동	*
21509-1	외동무니	*
21509-2	두동무니	*
21509-3	석동무니	*
21509-4	녁동무니	*
21509-5	막동	막동무이
21509-6	단동무니	단동무수
21510	보름	보름
21510-1	삭망	초보름, 초하루보름
21511	추석	추석
21512	망월	달마지
21513	쥐불놀이	쥐불로리
21514	자치기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메때기
21514-2	긴막대	자:때, 자:치기때
21515	수수꺼끼	수수꺼끼
21516	호미씻이	백종노리
21517	뽕과리	깽가리지
21518	장구	장:구
21519	결두리	새이참
21520	무당	무:당이구
21520-1	박수	*
21521	고수레	고시내
21521-1	고수레!	고시내
21522	점쟁이	점재이
21523	상여(喪輿)	상여, 행성
21524	굴건	굴건

21525	제사	기지사, 지사는
21526	제기	목끼
21527	귀신	귀:신
21528	도깨비	도깨비여

##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끌삐
21602	굴레	굴:레(끈 전체를 말함)
21603	멍애	멍애, 멍애
21604	길마	짐바리지, 질마, 길마
21605	부리망	소망, 소명, 쇠명, 멍
21606	구유	소구영
21607	작두	작뚜
21608	꼴	꼴, 쇠꼴
21609	여물	여물
21610	쇠죽	소죽
21611	쇠죽바가지	쇠물뺍, 소물뺍
21612	수레	마:차
21613	끌다	끄러서
21613-0-1	-고	끌:구
21614	바퀴	바퀴지유
21615	새끼(繩)	새끼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라
21616	망태기	망태
21617	떡등구미	등구미
21618	거적	꺼치, 꺼적
21619	가마니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가마니틀
21620	돛자리	돛짜리
21621	자리틀	자리틀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	맨다구
21622	왕굴	왕굴

21623	삼태기	삼태기
21623-1	쥔 삼태기	집삼태기
21623-2	싸리 삼태기	싸리삼태기
21624	명석	명석
21625	어래미	얼게미라구, 어래이라구, 얼기미
21625-1	고운채	고운채
21625-2	굵은채	얼기미
21626	대장장이	대장이, 대장쟁이가
21627	대장간	대장간
21628	폴무	풍구, 폴무
21629	모루	*
21630	모루채	망치, 멩메지
21631	갈퀴	각:찌, 갈:키
21632	집게	찌깨
21633	장도리	빠:루망치
21633-1	노루발	*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브루
21635	도끼	도:끼
21636	자루(柄)	자루
21636-0-1	-을	자루를
21636-0-2	-에	자루에
21637	갈고리	갈구자리
21638	썰기	썰:, 썰:기
21639	송곳	송곳
21639-0-1	-에	송고세
21640	뽕족하다	빠조캐지
21641	숫돌	수뜰
21641-0-1	-에	수뜨레다
21642	맷돌	매뜰
21642-1	수쇠	수쇠
21642-2	암쇠	암쇠
21643	지게	지게

21644	발채	소코리
21645	지개 작대기	지개작때기
21646	막대기	작때기라구, 막때기라구
21647	몽둥이	몽:대이

###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비, 비짜루
21702	광주리	광우리, 광주리
21703	소쿠리	대보구니
21704	함지	함지
21705	폴비	폴쏘리지, 폴빼지
21705-1	귀얄	폴쏘리유, 솔:
21706	독	도기라구
21706-0-1	-에	도게다가
21707	물독	독:, 물뜩
21708	항아리	항아리(독보다 작은 것)
21709	단지	단지라
21710	물동이	버리기(비교적 큰 것), 동이(동그란 것)
21711	또리	또아리
21712	옹기	오지(유약을 발라 구운 것) 옹:기('옹기'와 "오지"를 같다고 얹)
21713	표주박	쥬굴박, 쥬굴바가지, 쥬굴박, 쥬고리 쥬:박
21714	키(箕)	치
21715	떡살	떡판, 떡살방능거(떡살 박는 것)
21716	다식판	다식판
21717	시루	시루
21717-0-1	-을	시루를
21717-0-2	-에	시루에
21718	시룻밑	시룬민, 시루민
21718-0-1	-에	시루미세, 시루미테
21719	시룻번	시루 번, 버늘
21720	부싯돌	*

21720-0-1	-을	*
21721	부시	부시라
21722	부싯깃	*
21723	담배	담배
21724	담뱃대	담배때
21725	담배설대	담뱃대지(+ ?조), 설때
21726	담배통	대꼬바리
21727	물부리	빨뿌리, 담:배빨뿌리
21728	담배쌈지	담:배쭈머이라, 담:배쭈머니지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
21731	벼루	벼루
21732	가락지	가락찌(1개일 때) 쌍가락찌라구(2개일 때)
21733	비녀	비녀유
21734	참빗	비시유, 참빔
21734-0-1	-을	참비설
21734-0-2	-에	참비세
21735	얼레빗	얼기미빔
21736	세숫대야	대야, 세수때
21737	비누	비누가
21738	도투마리	도토마리
21739	활대	신추리
21740	잉앗대	잉아때
21741	부티	부:테
21742	도롱이	도래이

## 2.6. 인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마지
21802	이마빼기	마:빠구, 이마빠기나

21803	눈자위	눈짜리라
21804	검은자위	꺼먹똥자가
21805	흰자위	하얀동자가
21806	눈꺼풀	눔까주기
21807	거적눈	*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썹비지유
21809	속눈썹	송눈썹
21809-0-1	-이	송눈썹비
21810	눈두덩	눈탕이
21811	안경	양:경
21812	안경집	양:경집
21813	돋보기	더빠기, 도빠기느, 도뽀기
21814	주름살	주름
21814-0-1	-이	주르미
21815	엿되다	애:뽀보인다
21816	수염	쉬여미라구, 여:미라구(+ 존)
21817	구레나룻	구렌나리라구, 구렌나루
21817-0-1	-을	구렌나루
21818	코	코지
21818-0-1	-이	코가
21819	콧수염	코시염
21820	코딱지	코따지
21821	콧구멍	코꾸녕, 코꾸먹
21821-0-1	-을	코꾸머글
21821-0-2	-에	*
21822	콧물	콤물
21823	입술	입썰, 입썰
21823-0-1	-에	입썩레
21824	다물다	다물구
21825	어금니	오굼니
21826	덧니	던니
21827	휘파람	휘빠람, 휘파람, 회파람



21828	침	침
21829	삼키다	생기진다, 너머가네, 녕기구
21830	가래(痰)	가래침, 가래하구
21831	빨다	배터이지
21832	혀	세
21833	헛바늘	세빠늘
21834	꿇불	귀빠위, 귀 바위
21835	귀고리	귀거리유
21835-1	귀걸이	귀거리
21836	귀지	귀청
21837	귀이개	귀후비개
21838	소리	소리
21839	엿듣다	여:뜬능거, 여:뜨르찌
21840	귀청	귀창
21841	귀밑	귀미치라
21841-0-1	-을	귀미철, 귀미테
21842	관자놀이	관자노리라
21843	기미	지미유
21844	주궁깨	주궁깨
21845	턱	턱쭈가리(+ 비), 터기라
21846	턱수염	시여미지유, 턱쭈염, 수염
21847	뺨	뺨미라구, 뺨대기(+ 비)
21847-1	볼	볼(뺨과 볼의 의미차이 없음)
21848	가름하다	개롬:해구
21849	보조개	보주개
21850	머리카락	머리카랑
21851	비듬	비듬
21852	기계충	기계충
21853	정수리	쥐가마
21854	대머리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고두머리
21856	가르마	가름바, 가름배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탄다구, 갈른다

21857	가마	가:마
21857-1	가마(鼎)	가:마손
21857-2	가마(轎)	가:마
21857-3	가마(질그릇)	가:마여
21857-4	가마(가마니)	가마니
21858	뒤통수	디통시
21859	뒷덜미	*
21860	목	모기유, 메강지(+ 비)
21861	먹살	멕쌀, 멕싸를

## 2.6.2. 상체

21901	어깨	어깨
21902	밀치다	툑친다
21903	겨드랑	저드렁
21904	등	등어리
21905	가슴	가슴
21906	결리다	절린다
21907	갈비뼈	갈비, 갈비때
21908	허파	허파
21909	쓸개	씨래
21910	콩팥	콩판
21910-0-1	-에	콩파세서
21910-0-2	-을	콩파슬
21911	팔	팔
21912	팔꿈치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팔짱긴다
21914	손톱	손톱
21915	오른손	바른손
21916	왼손	왼:손
21917	다르다	달러유, 틀린다
21917-0-1	-아서	달르드라구
21917-1	틀리다	틀려따

21918	왼손잡이	왼:손자비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송꾸락, 엄지
21920	집게손가락	곤지, 둘째손꼬락
21921	가운뎃손가락	중지, 인지
21922	약손가락	*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송꼬라기라
21924	생인손	생한손
21925	사마귀	사:마기
21926	손아귀	소나구미(손아굼+ 이)
21927	손목	숨목
21928	뺨	뺨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지
21931	옆구리	여꾸리
21932	간지럽다	간지루워
21933	간지름	간:지름
21934	잔허리	가는허리
21935	근육	그:늑
21936	배꼽	배꼬비유
21937	목물	등말

### 2.6.3. 하체

22001	복사뼈	복쌍시
22002	발가락	발꼬락
22003	발바닥	발빠당
22004	발톱	발토비지
22005	냄새	냄:새
22006	고린내	코린내
22007	굳은살	꾸득쌀
22008	정강이	압짱기
22009	종아리	종아리
22010	장딴지	장:딴지라

22011	회초리	호초리
22012	무릎	무릅, 무르파기
22012-0-1	-을	무르플, 무르파글
22012-0-2	-에	무르피, 무르파게
22013	오금	오곰뎡, 오곰쟁이, 오고미, 오곰
22014	엉덩이	영:데이두, 궁:데이(엉덩이와 궁둥이를 구별하지 못함)
22015	궁둥이	궁:데이라구(엉덩이와 궁둥이를 구별하지 못함)
22016	불기	불:기, 사태
22017	명	명
22018	명울	명어리, 몽오리
22019	가랑이	가래이, 가랭이
22020	사이	새:예, 새이예, 사이예
22021	살	사시구, 산, 사타구이
22021-0-1	-이	사시, 사치, 사타구이가
22021-0-2	-을	사타구일
22022	사타구니	사타구니, 사타구이(비칭이 아님)
22023	가래툰	가래툰, 가래토시
22023-0-1	-을	*
22024	허벅다리	허벅찌
22025	넙적다리	너벅따리, 넙쪽따리
22026	가부좌(跏趺坐)	책쌍다리, 양:반다리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 해:따구 다/하다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강:기지
22102	기침	기침
22103	재채기	재채기
22104	사레	사:래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들려따, 들린다
22105	딸꾹질	딸꾸기

22106	트림	그:트림, 거:트름, 기트름
22107	곰보	곰:보라구, 얼곰배기라구
22108	천연두	손니미라구
22109	여드름	여:드름
22110	학질	초하기라구, 하루거리
22110-1	하루거리	하루거리가
22110-2	이틀거리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메누리고곰
22111	홍역	호녀게, 호녀
22112	볼거리	볼거리, 볼:버리, 별:버리
22113	땀띠	땀:띠라구
22114	두드러기	두드래기, 두드러기
22115	버짐	버짐
22115-1	마른버짐	마른버짐
22115-2	진버짐	진:버짐
22115-3	도장 버짐	도장부시름
22116	문둥이	문:덩이지유, 나변환자
22116-1	문둥병	문둥뽕, 문:덩뽕
22117	부스럼	부시르문, 부스름
22117-1	종기	종:기
22118	고름	고름, 고름
22119	곰기다	곰:긴다, 곰:긴다
22120	난쟁이	난쟁이, 난:재이
22121	사팔뜨기	사:팔띠기, 사:파리
22122	언챙이	어챙이
22123	소경	소:경이라, 장:니미라, 봉:사라구
22123-1	당달봉사	당달봉사, 달:달봉사
22124	애꾸	외통배기라구, 애:꾸라
22125	눈곱	눈꼽
22126	다래끼	안:질, 대래키
22126-1	다래끼(눈 위쪽)	대래키라구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대래키
22127	절름발이	절름바리라, 절름바리지

22128	굽사등이	굽싸똥이, 곱쌔
22129	귀머거리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밤:병어리
22131	병어리	병어리구
22132	잠꾸러기	장꾸러기, 잠뽀
22133	줄리다	조:롭따, 조:러워요, 줄리다
22134	하품	하품
22135	졸음	조:름
22135-0-1	-을	조르믈
22135-0-2	-에	조르미
22136	잠꼬대	장꼬대

## 2.7. 육아

22201	입덧	입땀
22201-0-1	-을	입떠슬
22202	갓난아이	간나나기, 깐나내기라구
22203	어린아이	어린내라구
22204	경기(驚氣)하다	정기한다구
22205	눅히다	누인다
22206	계집아이	여식(+ 존), 기지배, 기지바이
22207	예쁘다	예:뿌다구, 이:뿌다
22208	사내아이	머스마
22209	아우 타다	아수탄다
22209-1	아우보다	아우본다구, 아수본다구(+ 구)
22210	야위다	말라따, 여이따구, 야여따구
22211	쌍둥이	쌍둥이
22212	오줌	오주믈
22213	똥	똥
22214	기저귀	지저구
22215	뉘다(排便)	누키녕거
22216	방귀	방:기, 방:귀

22216-1	뀌다	뀨다구
22217	구린내	쿠린내, 구린내
22218	구리다	쿠리여
22219	포대기	퍼대기
22220	기지개	기:지개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킨다
22221	거짓말	거:짐말
22222	남부끄럽다	뭇망시루꾸, 부꾸럽찌, 나미부꾸러워
22223	겹쟁이	겹쟁이
22224	불쌍하다	불쌍하다
22225	죄암죄암	취암:지암
22226	곤지곤지	곤지곤지, 췌깁췌깁
22227	따로따로	장:사장사, 따루따루: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짹짹	짹짹
22230	부라부라	부라:부라(좌우로 흔드는 것) 세상달강세상:달강(앞뒤로 흔드는 것)
22231	걸음마	거름마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어퍼진다구, 너머진다구
22234	곤두박질	곤두박쩔
22235	안기다	앙켜유, 앙킨다
22236	바람개비	팔랑개비라
22237	호르기	호:디기
22238	숨바꼭질	숨바꼭쩔
22239	소꿉놀이	통고바리
22240	사금파리	새금파리, 깨금파리
22241	연	연:
22241-1	방패연	*
22241-2	가오리연	꼬리여니라구
22242	걸리다	걸려따
22243	고누	고:니래넝거넝
22244	땅뺏기	땅따먹끼, 땅빼끼노리

22245	팽이	팽이, 팽고리
22246	딱지치기	딱짜치기
22247	구슬	다마라(+ 다)(일본말), 구스리라
22248	그네	그내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똥다
22249	밑신개	발따깨
22250	굴렁쇠	굴름쇠, 굴:림쇠
22251	굴리다	굴:린다
22251-0-1	-고	굴:리고
22251-0-2	-어야	굴:리야지
22252	자전거	자정거, 자장거, 자전거라구
22253	목말	무:등
22254	말타기	*
22255	달음박질	똥박찌리라, 다름박찌리라
22256	썰매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탄다
22256-2	송곳	썰매꼬지
22256-2	송곳	썰매꼬재이
22257	엄살	엄살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똥다구
22258	부아	승질난다구, 부에난다, 부아가

##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라, 아버지, 아번님
22302	어머니	어무니지,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어무니라, 엄마
22303	할아버지	하라부지, 조부라구, 하라버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부지
22304	할머니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할무니, 할머니



22305	남편	남편, 아무개아부지
22305-1	남편(호칭)	으—ㅇ:감님(화자나 대상이 노인일 때) 여바유, 아무개아부지, 아무개하라부지 나즘바요, 나바요
22306	아내	우리집식꾸라구, 우리집안싸람
22306-1	아내(호칭)	아무개엄마, 여바요, 아무개할머이
22307	형	형님(결혼한 후), 형(어릴 때)
22307-1	형(호칭)	형님(결혼한 후), 형이라(어릴 때)
22308	아우	아우(나이가 들어서), 동생(어릴 때)
22308-1	아우(호칭)	아무개야(이름), 동생(나이가 들어서)
22309	누나	누:님(나이가 들어서), 누:나(어릴 때)
22309-1	누나(호칭)	누님(나이가 들어서), 누나(어릴 때)
22310	누이	누이동생, 여동생이라
22310-1	누이(호칭)	동생, 아무개야(이름)
22311	자식	자시기라
22312	만아들	장:남, 크나털, 크내라구, 마다더리라구
22313	만딸	마따리라
22314	막내	망내
22315	오빠	오빠라, 오라버니(나이가 들어서)
22315-1	오빠(호칭)	오빠야, 오라번님(나이가 들어서)
22316	언니	형이라(+ 구), 언니(+ 신), 형님(나이가 들어서)
22316-1	언니(호칭)	형(+ 구)(어릴 때), 형(+ 구)(어릴 때), 언 니를(+ 신), 형님(나이가 들어서)
22317	아비	애비라(아기 낳기 전이나 아기가 어릴 때), 아버미라(+ 존)(아이가 크면)
22317-1	아비(호칭)	아버마(+ 존), 아범(+ 존), 애비야
22318	어미	에미라구(아기 낳기 전이나 아기가 어릴 때), 어머미라(+ 존)(아이가 크면)
22318-1	어미(호칭)	아무개에미야, 어머마(+ 존)
22319	손자	손자
22320	손녀	손녀
22321	사위	사위
22321-1	사위(호칭)	성서방(사위의 성을 따서), 사위
22322	외손자	외손자

22323	외손녀	외손녀
22324	꾸짖다	꾸지러찌유
22324-0-1	-고	꾸지꾸
22324-1	나무라다	나무래구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처:녀, 색:씨라
22327	혼인	결혼, 호닌
22327-1	혼인식	잔치
22328	혼인 잔치	잔치한다
22329	장가가다	장가랴 가야지
22329-1	시집가다	시지벌 가야지
22330	혼숫감	혼수
22331	함	하:떨
22332	겹사돈	겹사도니지
22333	새색시	새택
22333-1	새색시(호칭)	새닥
22334	시아버지	시아번님, 시으르니라(+ 존), 시어르신, 아번니미라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번님
22335	시어머니	시어머니, 시몬니미라구(+ 존)(특히 남의 시어머니를 부를 때)
22335-1	시어머니(호칭)	어먼님
22336	비위	비위
22337	아주버니	시수기라구, 시아주버님
22337-1	아주버니(호칭)	아주번님
22338	서방님	서방님, 시동상이라구
22338-1	서방님(호칭)	삼촌(+ 신), 서방님
22339	도련님	도련님, 시동상이라구
22339-1	도련님(호칭)	도련님, 삼추니지(+ 신)
22340	형님	형님, 맏똥서라
22340-1	형님(호칭)	형니미라
22341	시누이	시누이, 시누는, 시눈니미라구
22341-1	시누이(호칭)	형님, 시눈니미라구

22341-2	아가씨	시는데, 자그나씨, 고모(+ 신)
22341-3	아가씨(호칭)	자그나씨, 고모라(+ 신)
22342	올케	올케
22342-1	올케(호칭)	올케
22343	매형	매형, 매형
22343-1	매형(호칭)	매형님
22344	매제	매부
22344-1	매제(호칭)	매부
22345	큰아버지	백뿌(+ 존), 크나부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부지라구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둘째아부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세:째아부지
22346	큰어머니	뱅모(+ 존), 크너머니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머니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둘:째어머이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세:째어머이
22347	큰집	큰댁(+ 존), 큰집(+ 신)
22348	작은아버지	숙뿌라구(+ 존), 자그나부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그나부지
22349	작은어머니	송모라(+ 존), 자그너머이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자그너머니
22350	삼촌	삼촌
22350-1	삼촌(호칭)	삼촌
22351	아저씨	당숙, 오춘당숙(+ 신), 아저씨
22351-1	아저씨(호칭)	아저씨라
22352	아주머니	당송모, 아주머니
22352-1	아주머니(호칭)	아주머니, 송모라구, 아주머이라구
22353	조카	조카라고
22354	조카딸	조카따리라, 질려
22355	고모	고:모
22355-1	고모(호칭)	고모라구
22356	고모부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모부

22357	고종	고종사추니, 고종사:춘끼리, 고종가니다
22358	이모	이모
22358-1	이모(호칭)	이모
22359	이모부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모부
22360	이종	이종사:춘, 이종가니구
22361	외삼촌	외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외삼촌
22362	외숙모	외숙모, 외삼촌택
22362-1	외숙모(호칭)	외숙모
22363	외종	외:사춘간이라
22364	외할아버지	외:하라부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외하라부지
22365	외할머니	외(:)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외할머니
22366	장인	자:인, 자인으:른, 자인어른, 병장어른, 병장으:른
22366-1	장인(호칭)	자인으:른, 병장으:른
22367	장모	장:모, 병모
22367-1	장모(호칭)	장모님, 병모님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처남
22369	처남택	처나매택
22369-1	처남택(호칭)	처나매택
22370	홀아버	홀아버이
22371	홀어미	과:부, 과:택
22372	계모	서:모, 계모
22372-1	계부	이:부다부지
22373	아저씨	아저씨
22373-1	아저씨(호칭)	아저씨
22374	아주머니	아주머이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무개어머니(아이이름+ 어머니)
22375	사나이	장:정이지, 사내가

22376	영감	영:감님
22376-1	할망구	할망구
22377	나이	나이
22377-0-1	-를	나:이를
22378	환갑	항:갑
22378-1	환갑 잔치	항:갑잔치
22379	사투리	사:투리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생선, 물꼬기
22402	민물고기	میم물꼬기
22403	피라미	피래미
22404	지느러미	지눌, 지누리
22405	아가미	*
22406	창자	창수
22407	송사리	송:사리, 송사리
22408	헤엄	헤움치서
22409	메기	통바우라, 메:기, 며:기
22410	자라	자라
22411	거북	거부기라구
22412	미꾸라지	미꾸리, 미꾸라지
22413	개구리	개구리
22414	올챙이	올:챙이
22415	두꺼비	두꺼비
22416	거머리	그:머리
22417	다슬기	올:개이
22418	우렁이	올:배이
22419	고둥	*
22420	달팽이	탈팽이

22421	새우	새우
22421-1	새우(민물 대)	새우
22421-2	새우(민물 소)	새 배이
22421-3	새우(바다 대)	*
22421-4	새우(바다 소)	*
22422	새우젓	새우젓
22422-0-1	-이	새우저시니까
22423	가재	가:재
22424	갈치	칼치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가오리
22427	가자미	*
22428	멸치	머르치
22429	명태	부거
22429-1	동태	동태
22429-2	황태	황태
22429-3	노가리	노가리
22429-4	북어	부거
22429-5	생태	생태
22430	조기	조기, 자:반
22431	도미	*
22432	뱀장어	뱀종어
22433	낙시	낙씨
22434	미끼	낙씨밥
22435	낙싯대	낙씨때
22436	얼레	실패, 말패, 연강개(연줄을 감는 것)
22437	조개	조가비
22438	소라	소라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래
22502	날벌레	날빨래

22503	파리	파:리
22503-1	쉬파리	쉬파리
22504	쉬슬다	쉬릴 깔리먼, 쉬깔링게
22505	가시	가시
22506	진딧물	뜸물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찌여따
22507	잠자리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항:갑찌, 항:가치
22508-1	암컷	항:가치
22508-2	수컷	중:가치
22509	메뚜기	메띠기, 메뚜기
22510	여치	여:치
22511	사마귀	오줌싸개
22512	벌	불:, 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치녕거
22513	땅벌	땅뻘
22514	나비	나비
22515	하루살이	하루사리
22516	풍뎡이	풍디이
22517	모기	모기
22518	장구벌레	*
22519	매미	매미
22520	개똥벌레	반디뿔
22521	반딧불	반디뿔
22522	거미	거:미, 거미
22523	굼벵이	굼:뻥이, 굼:병이
22524	구더기	구더기
22525	노래기	노내기
22526	그리마	구러마
22527	지네	지네
22528	개미	개:미
22529	바구미	둥이
22530	진드기	찔:디기

22531	벼룩	베룩
22532	이	이
22532-1	서캐	서캐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송:충이, 송:칭이
22534	귀뚜라미	귀뚜라미
22535	누에	누에
22536	고치	고추, 누에 고추
22537	번데기	번:디기
22538	지렁이	지:렁이
22539	회충(蛔蟲)	회:, 회충
22540	소금쟁이	연짱사
22541	방개	방:개

### 2.9.3. 가축

22601	가축	가축
22602	암소	암소
22603	송아지	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매:미, 매미
22605	황소	황소
22606	길들이다	일:갈킨다, 질디린다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이러: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위:위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아)	*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아)	어더어더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물러
22607	쇠고기	소:고기
22608	고기(肉)	고기
22609	돌치	돌치, 들소(소에게만 해당됨)
22610	꼬리	꽁지
22611	망아지	망아지
22612	당나귀	당나기



22613	갈기	*
22614	돼지	돼:지
22614-1	멧돼지	산돼지
22615	주둥이	주테이
22616	돼지 머리	돼:지 대가리, 돼:지 머리
22617	돼지우리	대:지울, 대:지우리
22617-1	오래오래	오래:오래오래, 돌돌돌돌(새끼부를때)
22618	개(犬)	멍멍이, 개
22618-1	수캐	수캐
22618-2	암캐	암캐
22619	강아지	강아지
22620	염소	염소
22621	고양이	고냥이
22621-1	수고양이	수꼬냥이
22621-2	암고양이	안꼬냥이, 암고냥이
22622	토끼	토끼
22623	거위(鵞)	게우, 게유
22624	암탉	암탉
22625	병아리	병아리
22626	모으다	모이능거
22627	수탉	수탉
22627-0-1	-이	수타기
22628	벼슬(鷄冠)	벼슬
22629	부리	주테이, 입
22630	모이	모:이, 모시
22630-0-1	-을	모시, 모이
22630-1	모이다	모이드러
22631	닭털	달기털
22632	닭똥	닥똥
22633	어리	달기둥어리, 닥둥어리
22634	닭장	닥짱
22635	둥우리	둥지
22636	날개	날개

22637	깃	*
22637-0-1	-을	*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호:랑이, 호:레이
22702	살쾡이	살경이
22703	여우	여우, 여깡이, 여깨이
22704	원숭이	원:숭이
22705	사슴	사슴
22706	노루	노:루
22706-0-1	-이	노:루가
22706-0-2	-를	노:루를
22707	고슴도치	고슴도치, 고손도치
22708	두더지	두더지
22709	족제비	족제비, 쪽제비
22710	뱀	뱀:
22711	도마뱀	도매뱀
22712	구렁이	구렁이
22713	살모사	독:쌌
22714	생쥐	생:쥐
22715	박쥐	박:쥐
22716	거꾸로	까꾸루
22717	다람쥐	다림쥐
22718	새(鳥)	날짐승, 날김성
22719	꿩	꿩
22720	솔개	솔개미
22721	독수리	독쭈리
22722	제비(燕)	제:비
22723	두루미	두루미
22724	소쩍새	소쩍쌌
22725	꿩	꿩:, 꿩:
22726	장끼	쟁기, 쟁끼

22727	까투리	까투리
22727-1	꺼병이	콩아병아리, 콩에 병아리
22728	종달새	노고저리
22729	빠꾸기	빠꼭새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뜸부기	뜸:부기, 뜸:비기
22732	올빼미	올빼미
22733	까치	까: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 딱따구리새
22735	뎃	새:차우, 돈 논는다
22735-0-1	-을	도슬
22736	올가미	옹무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창꼬시내유, 진달래
22802	철쭉꽃	철뚜꼬시
22803	민들레	민들래
22804	맨드라미	맨두라미
22805	봉선화	봉숭아
22806	파리	파:리
22807	해바라기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봉오리, 꼬뽕오리
22809	시들다	시드러따
22810	질경이	질경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질경이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질경이 나물
22811	빨기	깎:비기
22812	비름	비름
22813	쇠비름	소비름

22814	썸바귀	가새썸배, 썸바구, 썸바기
22815	고들빼기	꼬들빼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꼬들빼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고들빼무침
22816	고사리	고사리
22817	고비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도깨비바늘
22819	도꼬마리	도꼬마리
22820	억새	새깁이
22821	갈대	갈때
22822	이끼	바우오시
22823	아주까리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
22825	수세미	수세미
22826	덩굴	덤불
22827	덤불	덩굴, 덤불
22827-1	가시덤불	덩굴
22828	잔디	잔디 이편다

##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소나무
22902	솔방울	솔빵울
22903	관솔	광:솔
22904	솔가리	솔가루
22905	그러모으다	글거모은다
22906	뽕나무	*
22907	오디	오둥
22908	도토리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갈:나무
22910	상수리	구람
22911	웃	온나무, 오돌른다구, 오시올러따
22911-0-1	-으로	오치를

22912	버드나무	버드나무
22913	느티나무	느트나무
22914	그림자	그:림자
22914-1	그늘	음달, 그느리라구두
22915	숲	숲쏘개, 수피
22915-0-1	-을	수프루
22915-0-2	-에	수폐
22916	시원하다	시연:하다
22917	찢레	찢레낭구, 찢레꼐
22918	척	척
22918-0-1	-에	척 덤부레 거려썌요
22919	가지(枝)	저까지
22920	끝	상순
22920-0-1	-이	끄시
22920-0-2	-에	끄슬
22920-0-3	-을	끄테
22921	삭정이	삭따리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꺾넌다, 탄다
22922	나무	나무
22922-0-1	-을	나무털
22922-0-2	-에	나무예
22923	나무하다	나무비러가따, 나무해러간다
22924	그루터기	*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
22925	등걸	등컬
22926	장작	장작
22927	패다	팬다
22928	부스러기	도:끼밥, 부스라기
22929	숯	순
22929-0-1	-이	수시유
22929-0-2	-을	수설
22929-0-3	-에	수세다
22930	불잉걸	관:불

22931	씩	씩
22932	잎	입, 이피지유, 이파리, 입싸구
22932-0-1	-을	이펼
22932-1	잎사귀	입싸구라(잎과 잎사귀 구별하지 못함) 이파리(잎과 잎사귀 구별하지 못함)
22933	가랑잎	가랑닙, 가랑니피라구
22934	뿌리	뿌리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금
23002	돌배	돌빼, 돌배
23003	복숭아	복쑹아(주로 재배한 것을 가리킴) 복쌍 (주로 저절로 난 것을 가리킴)
23004	곶감	고:깎
23005	홍시	홍시
23006	고욤	고욤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오야
23010-0-1	-을	오야를
23011	석류	성뉴
23012	모과	모:가
23013	과일	과:일
23014	꼭지	꼭찌유, 꼭따리라구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밤:송이가
23015-2	팻밤	푸뵤
23015-3	알밤	알감
23015-4	쌍둥밤	쌍둥밤
23016	보너	속:겹띠기
23017	호두	호두, 호도
23018	가래(楸子)	*

23019	개암	깨금
23020	머루	머루
23021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
23023	으름	으:름
23024	참외	차:매, 차몽가
23025	딸기	딸:기
23025-1	"딸기(밭 재배)"	딸:기
23025-2	"딸기(밭 야생)"	*
23025-3	"딸기(들 재배)"	* (들에서는 자생함)
23025-4	"딸기(들 야생)"	딸:기, 멍석딸기
23025-5	"딸기(산 재배)"	* (산에서는 자생함)
23025-6	"딸기(산 야생)"	딸:기, 산딸기
23026	뱀딸기	뱀:딸기
23027	마름(菱)	*(아는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함)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산봉오리라구, 산꼭때기라구
23102	기슭	산 지슬기루
23102-0-1	-에	지슬개
23103	골짜기	상:골, 상꼴짜기, 골짜기루
23104	메아리	*
23105	고함	고암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질러따구, 처따구
23106	묘	산소, 모:이
23107	뿔자리	모:이짜리
23107-1	광중	*
23108	구덩이	구데이, 구덩이
23109	비탈	산빼알, 비타리라, 비아리라

23110	가파르다	까팔지따
23111	언덕	언덕
23112	낭떠러지	녕떠러지기
23113	들(野)	들:
23113-0-1	-에	드:레
23114	별	별판
23115	갈림길	갈래길, 갈름길
23116	헤어지다	헤어져, 히어지능
23117	바위	바:위
23117-0-1	-을	바:위를
23117-0-2	-에	바:위에
23118	돌(石)	도:리지
23118-0-1	-을	도:럴
23118-0-2	-에	도:레
23119	자갈	자갈
23120	모래	모래
23120-0-1	-를	모래럴
23121	진흙	진흑
23121-1	찰흙	찰흑

## 2.11.2. 산과 들

23201	물	무리지유
23202	거품	거품
23203	개운하다	개운:하다, 깨운해자너
23204	도랑	또랑
23204-1	봇도랑	보또랑
23205	둑	뚝뽕
23206	잠기다	장긴다구
23207	개울	개울
23208	내(川)	*
23209	미역 감다	미역감넌다, 모여캔다
23210	밭가승이	뽕거덩이



23211	목욕하다	모요캐능
23212	수채	수채, 수채꾸멍
23213	개골창	수채또랑
23214	시궁창	*
23215	옹덩이	음:덩이
23216	수렁	고논
23217	늪	수, 수꾸데이, 수꾸덩이
23217-0-1	-에	수꾸덩이에
23218	배(船)	배
23219	나루터	밴나드리, 나루터라구
23220	돛	돈
23220-0-1	-에	도시지유
23221	돛대	도때
23222	돛배	장:사빠(장삿배처럼 큰 배만 돛을 달기 때문에)
23223	돛 줄	도때주리지
23224	돛 줄	배쭈리지
23225	거루	나루빠
23226	상앗대	사:때
23227	개(펼)	개빨
23228	물	육찌("물"은 모름)
23228-0-1	-으로	*
23229	밀물	밈물(밀물과 썰물을 구별하지 못함)
23230	썰물	썰물(밀물과 썰물을 구별하지 못함)
23231	가라앉다	가라안저
23232	그물	그:물
23233	해녀	해:녀

### 2.11.3. 시후

23301	새벽	새벽
23302	새벽밥	새벽빤
23303	아침	아침

23304	아침밥	아침, 아침빠비지
23305	점심	점:심(점심과 점심밥을 구별하지 않음)
23306	저녁	저녀게, 저녀기지(저녁과 저녁밥을 구별하지 않음)
23307	설핏하다	실푸:태먼, 슬푸:태먼
23308	노을	노을
23308-0-1	-을	노으리
23309	불그레하다	불그레:해지
23310	해거름	해질고페(해가 넘어가기 직전) 해질고벤(해가 넘어가기 직전) 해거르메(뜨거운 기운이 가시고 서늘해질 때)
23311	땅거미	땅끄미나, 땅:꿈(아주 캄캄해서 전혀 안 보이는 것)
23312	봄	봄, 봄철
23313	여름	여름, 여름철, 하절
23314	더위	더위가
23315	추위	추위가
23316	가을	가을
23316-0-1	-에	가으레
23317	겨울	겨울
23317-0-1	-에	겨울겐
23318	얼음	어:르미
23319	오늘	그밀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내:일, 냐:
23321	모레	모:래
23322	글피	그훈날
23323	그글피	*
23324	어제	어제
23325	그저께	어끄저께
23326	그그저께	그그저께
23327	훗날	훈나래
23328	하룻날	초하루, 하룻날, 초하룻나리

23329	이튼날	초이트리구, 이튼날
23330	사흔날	초사흐리구, 사흔날
23331	나흔날	초나흘, 나흔날, 나흘
23332	닷셋날	초다썰, 다썰날, 다썰
23333	엿셋날	초여썰, 여썰날
23334	이렛날	초이래, 이렌날
23335	여드렛날	초여드래, 여드랜날
23336	아흐렛날	초아으래, 아흐랜날
23337	열흘날	열흘
23338	하루	하루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흘
23341	나흘	나흘
23342	닷새	다썰
23343	엿새	여썰
23344	이레	이레
23345	여드레	여드레
23346	아흐레	아으레
23347	열흘	열흘
23348	한나절	반:나절("한나절"과 "반나절"이 같음) 한나절("한나절"과 "반나절"이 같음)
23348-1	반나절	반:나절
23349	그믐	그믐, 그믐날
23349-1	그믐께	그믐께, 그믐께썸
23350	지금	지금
23351	아직	안적
23352	이제	인제
23353	이미	이미
23354	요즈음	요즈매
23355	금방	금방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별, 벨
23401-0-1	-이	벼시 조타
23401-0-2	-을	벼슬
23402	따스하다	따스하다
23403	아지랑이	아:지랑이
23404	응달	음달
23405	양달	양지쫓기루
23406	비(雨)	비
23407	가랑비	가랑비
23408	이슬비	이슬비
23409	안개	앙:개
23410	눈개	*
23411	무지개	무지개
23412	소나기	쏘내기
23413	갑자기	갑짜기
23414	홍수	홍수나따
23415	번개	병개
23416	천둥	천둥
23417	벼락	벼락
23418	무섭다	미섭찌유, 미수워유
23419	함박눈	함방눈
23420	싸락눈	싸래기눈
23421	발자국	발짜우가
23422	진눈깨비	징갈비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고드라미
23425	햇무리	햄무리
23426	달무리	달무리
23427	둥글다	뚱그러캐
23428	은하수	으나수
23429	금성	새뻔

23430	가뭄	가뭄
23431	마르다	말르구
23431-0-1	-어서	말러서
23432	위	우예
23433	아래	아:래를
23434	왼쪽	왼:쪽
23435	오른쪽	바른쪽
23436	결	겨트루
23436-0-1	-에	겨태
23437	회오리바람	회이리바람
23438	북풍	북풍
23439	남풍	남풍
23440	동풍	동풍
23441	서풍	서풍

보충 어휘

=2	다시마
=2	쌀까루
=2	기울
=2	독뼈선
=2	청버선
=2	송이버선
=2	피꼬리버선
=2	모찌떡
=2	마구설기
=2	노고술(작은 술)
=2	ㅍ실러서
=2	ㅍ:름땡어리
=2	녹ㅍ를
=2	사기그를
=2	장:뚝소래기
=2	땀물통을
=2	중대래킨대
=2	씨갑씨
=2	우뺑
=2	건너방
=2	가둔다구

=2	미장이
=2	초롱(등잔을 안에 넣고 들고 다니는 것)
=2	물바딘데
=2	연통(연기가 나가는 통으로 된 것)
=2	아리운동내
=2	아래퐁내
=2	지개꼬리
=2	외상
=2	열모슴(고사리 같은 산나물)
=2	함섬:
=2	대:깨
=2	서너너덤말
=2	말:기
=2	구김
=2	긴
=2	등거리(잠방이와 같이 입는 얇은 상의)
=2	중이적쌈
=2	호장
=2	초신(짚신보다 고운 것)
=2	인두판
=2	대:보름
=2	백쫑날
=2	굴근지복(건과 상옷을 포함해서 모두)
=2	코뚜레
=2	메주빠쿠
=2	담말뜨리(다섯 말짜리)
=2	중체(도드미보다 구멍이 작고 고운체보다 큰 것으로 말총으로 곱게 만듦)
=2	도드미(얼기미보다 구멍이 작고 중체보다 큰 것으로 말총으로 만듦)
=2	씨래박
=2	집깨기
=2	배불리기독
=2	쌈지뿔
=2	쌈:지두(주머니 종류를 다)
=2	마빠기
=2	마뽀기
=2	사랑니
=2	송곤니
=2	쌍가마
=2	실처따구
=2	따그래이(상처 딱지)
=2	구역찢

=2	사:주
=2	자근대기라
=2	재:당숙(7촌)
=2	재:당질
=2	삼:당숙(9촌)
=2	당지리(조카)
=2	생길러
=2	생길
=2	이:질
=2	이:질러
=2	재초땡
=2	바:리채
=2	창깨구리
=2	항소깨구리
=2	물뺨래
=2	개구리차무
=2	제절(묘의 앞)
=2	어드무리해다(어둑어둑하다)
=2	어든침침하다(어둑어둑하다)
=2	버널바서
=2	계란 꾸루미
=2	채:따
=2	왕굴자리(돛자리와 같은데 굽게 찢 것)
=2	매빵석(고운 것이나 잘고 적은 것을 너는 것)
=2	마당뻘
=2	복뻘
=2	오지그른
=2	질그르슨(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것)
=2	헐뻘
=2	뽕 쪼인다
=2	뜯:느지유
=2	뜯:버서
=2	벼유
=2	싸기
=2	모자리꼬랑
=2	모자리파니라
=2	모자리노니라
=2	모쫌다
=2	오:싱기구 (이르게 하는 모내기)
=2	늦썰기구 (늦게 하는 모내기)
=2	올:배

=2	느빠
=2	벼끌크렁
=2	벼끌크렁
=2	베뿌리라구
=2	물꼬
=2	머리밥
=2	쌀버리라구
=2	왜
=2	퇴비장에
=2	오양친다
=2	비료
=2	별태미라구
=2	줄:가리
=2	줄가리
=2	보리짚
=2	풍년
=2	방아칸
=2	물래방까네
=2	챙기름
=2	영그너지유



## 제3편 음운

### 3.1. 음운 체계

#### 3.1.1. 단모음

31001-0-1	태(輪)-이/가	태가
31001-0-2	태(輪)-보다	태구, 테고
31002-0-1	태(胎)-이/가	태가
31002-0-2	태(胎)-보다	태구, 태털
31003-0-1	떼(群)-이/가	떼가
31003-0-2	떼(群)-보다	떼루, 떼털
31004-0-1	때(時)-이/가	때가
31004-0-2	때(時)-보다	때고
31005-0-1	틀(機)-이/가	트리라구
31005-0-2	틀(機)-보다	틀, 틀하구
31006-0-1	털(毛)-이/가	터리
31006-0-2	털(毛)-보다	털하고
31007-0-1	글(文)-이/가	그리구
31007-0-2	글(文)-보다	글하구
31008-0-1	걸(옷)-이/가	거리구
31008-0-2	걸(옷)-보다	걸하구
31009-0-1	기(旗)-이/가	기라
31009-0-2	기(旗)-보다	기구
31010-0-1	귀(耳)-이/가	귀
31010-0-2	귀(耳)-보다	귀구

31011-0-1	시(生時)-이/가	시
31011-0-2	시(生時)-보다	시럴
31012-0-1	쉬(蠅卵)-이/가	쉬
31012-0-2	쉬(蠅卵)-보다	쉬럴
31013-0-1	쇠(鐵)-이/가	쇠가
31013-0-2	쇠(鐵)-보다	쇠보다
31014-0-1	외:국(外國)-이/가	외국
31014-0-2	외:국(外國)-보다	*
31015-0-1	왜국(倭國)-이/가	왜누미라
31015-0-2	왜국(倭國)-보다	*
31016-0-1	쉬:다(休)-더라	쉬어서
31016-0-2	쉬:다(休)-어서	쉬지, 쉬:구
31017-0-1	쇠:다(설을~)-더라	쉬:따, 세:따
31017-0-2	쇠:다(설을~)-어서	쇠:구
31018-0-1	베(布)-이/가	베
31018-0-2	베(布)-보다	베하구
31019-0-1	배(船)-이/가	배
31019-0-2	배(船)-보다	배하구
31020-0-1	배(腹)-이/가	배
31020-0-2	배(腹)-보다	배유
31021-0-1	(떡)메(柸)-이/가	메
31021-0-2	(떡)메(柸)-보다	메루
31022-0-1	매(鞭)-이/가	매
31022-0-2	매(鞭)-보다	매넌
31023-0-1	메:다(擔)-이/가	민다, 멘다구
31023-0-2	메:다(擔)-보다	메:구, 미:구

31024-0-1	매:다(繫)-이/가	맨다구, 매야지
31024-0-2	매:다(繫)-보다	쫘매라
31025-0-1	떼:다(分離)-이/가	텐다구
31025-0-2	떼:다(分離)-보다	*
31026-0-1	때:다(炊)-이/가	땨:다
31026-0-2	때:다(炊)-보다	땨:다구
31027-0-1	베:다(切斷)-이/가	빈다, 벤:다구
31027-0-2	베:다(切斷)-보다	비어라, 비:유
31028-0-1	배:다(孕胎)-이/가	배:따
31028-0-2	배:다(孕胎)-보다	배:서
31029-0-1	세:다(算)-이/가	*
31029-0-2	세:다(算)-보다	시어, 세:
31030-0-1	새:다(漏泄)-이/가	샌다
31030-0-2	새:다(漏泄)-보다	새지유, 새:서
31031-0-1	뒤(後)-이/가	뒤:예, 뒤에
31031-0-2	뒤(後)-보다	*
31032-0-1	되(升)-이/가	*
31032-0-2	되(升)-보다	되유
31033-0-1	게:(蟹)-이/가	기:, 게
31033-0-2	게:(蟹)-보다	*
31034-0-1	개:(犬)-이/가	개:
31034-0-2	개:(犬)-보다	*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여러시
31035-0-2	여럿(多)-보다	여럿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여러슬
31036-0-1	물결(波)-이/가	물꺼리
31036-0-2	물결(波)-보다	*
31036-0-3	물결(波)-을/를	*
31037-0-1	예:의(禮儀)-이/가	*
31037-0-2	예:의(禮儀)-보다	예이느
31037-0-3	예:의(禮儀)-을/를	예이를
31038-0-1	계:획(計劃)-이/가	계:해기라
31038-0-2	계:획(計劃)-보다	계:핵
31038-0-3	계:획(計劃)-을/를	*
31039-0-1	규칙(規則)-이/가	규치기라
31039-0-2	규칙(規則)-보다	*
31039-0-3	규칙(規則)-을/를	*
31040-0-1	휴일(休日)-이/가	*
31040-0-2	휴일(休日)-보다	휴가
31040-0-3	휴일(休日)-을/를	*
31041-0-1	교통(交通)-이/가	*
31041-0-2	교통(交通)-보다	교통
31041-0-3	교통(交通)-을/를	*
31042-0-1	효:자(孝子)-이/가	*
31042-0-2	효:자(孝子)-보다	효:자
31042-0-3	효:자(孝子)-을/를	*
31043-0-1	웬일(何事)-이/가	웬니리여
31043-0-2	웬일(何事)-보다	*

31043-0-3	웬일(何事)-을/를	*
31044-0-1	궤:( 짹 )(櫃)-이/가	*
31044-0-2	궤:( 짹 )(櫃)-보다	궤: 짹
31044-0-3	궤:( 짹 )(櫃)-을/를	*
31045-0-1	왜란(倭亂)-이/가	*
31045-0-2	왜란(倭亂)-보다	왜정
31045-0-3	왜란(倭亂)-을/를	*
31046-0-1	헛대(鷄架)-이/가	해예
31046-0-2	헛대(鷄架)-보다	해
31046-0-3	헛대(鷄架)-을/를	*
31047-0-1	원망(怨望)-이/가	*
31047-0-2	원망(怨望)-보다	웬: 망
31047-0-3	원망(怨望)-을/를	*
31048-0-1	권:투(拳鬪)-이/가	*
31048-0-2	권:투(拳鬪)-보다	권:투
31048-0-3	권:투(拳鬪)-을/를	*
31049-0-1	의논(議論)-이/가	*
31049-0-2	의논(議論)-보다	이:논
31049-0-3	의논(議論)-을/를	*
31050-0-1	무늬(紋)-이/가	*
31050-0-2	무늬(紋)-보다	무네
31050-0-3	무늬(紋)-을/를	*
31051-0-1	왕(王)-이/가	왕이
31051-0-2	왕(王)-보다	*
31051-0-3	왕(王)-을/를	*
31052-0-1	과자(菓子)-이/가	*
31052-0-2	과자(菓子)-보다	과자

31052-0-3 과자(菓子)-을/를

\*

###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이리

31053-0-2 일(一)-보다

일보다

31054-0-1 일:(事)-이/가

이:리지

31054-0-2 일:(事)-보다

일:보다

31055-0-1 매(鞭)-이/가

매가

31055-0-2 매(鞭)-보다

매보다

31056-0-1 매:(鷺)-이/가

매가

31056-0-2 매:(鷺)-보다

매:보다

31057-0-1 밤(夜)-이/가

바미

31057-0-2 밤(夜)-보다

밤보다

31058-0-1 밤:(栗)-이/가

바:미

31058-0-2 밤:(栗)-보다

밤:보다

31059-0-1 눈(眼)-이/가

누니

31059-0-2 눈(眼)-보다

눈보다

31060-0-1 눈:(雪)-이/가

누:니

31060-0-2 눈:(雪)-보다

눈:보다

31061-0-1 말(馬)-이/가

마리

31061-0-2 말(馬)-보다

말보다

31062-0-1 말(斗)-이/가

마리

31062-0-2 말(斗)-보다

말보다

31063-0-1 말:(言)-이/가

마:리

31063-0-2 말:(言)-보다

말:보다

31064-0-1	손(客)-이/가	소니라구
31064-0-2	손(客)-보다	손보다
31065-0-1	손(手)-이/가	소니
31065-0-2	손(手)-보다	손보다
31066-0-1	손:(孫)-이/가	소니
31066-0-2	손:(孫)-보다	자손도
31067-0-1	배(梨)-이/가	배가
31067-0-2	배(梨)-보다	배보다
31068-0-1	배:(倍)-이/가	배:가
31068-0-2	배:(倍)-보다	배:는
31069-0-1	벌(罰)-이/가	버리
31069-0-2	벌(罰)-보다	벌보다
31070-0-1	벌:(蜂)-이/가	버:리
31070-0-2	벌:(蜂)-보다	벌:보다
31071-0-1	솔(松)-이/가	소리유
31071-0-2	솔(松)-보다	솔보다
31072-0-1	솔:(刷)-이/가	소:리
31072-0-2	솔:(刷)-보다	솔:보다
31073-0-1	줄(鉉)-이/가	주리
31073-0-2	줄(鉉)-보다	줄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주:리라
31074-0-2	줄:(연장)-보다	줄:보다
31075-0-1	돌:(石)-이/가	도:리지유
31075-0-2	돌:(石)-보다	돌:보다
31076-0-1	담(牆)-이/가	다미

31076-0-2	담:(牆)-보다	담보다
31077-0-1	담:(膽)-이/가	다:미
31077-0-2	담:(膽)-보다	담:두
31078-0-1	들:(野)-이/가	드:리
31078-0-2	들:(野)-보다	들:두
31079-0-1	달-(懸)-고/-더라	단다, 달구
31080-0-1	달-(甘)-고/-더라	달지유, 달구
31081-0-1	달:-(熱)-고/-더라	단다, 달치
31082-0-1	갈-(換)-고/-더라	간:다구
31083-0-1	갈-(磨)-고/갈-(磨)-더라	갈:구, 가러, 갈:더라
31084-0-1	갈:-(耕)-고/갈:-(耕)-더라	갈:지유, 갈:구
31085-0-1	걸-(收)-고/-더라	거꾸, 거떠라
31086-0-1	걸:-(步)-고/-더라	건능거지, 건넌다구
31087-0-1	적-(書)-고/-더라	적꼬, 적떠라
31088-0-1	적:-(小)-고/-더라	적:꾸, 적:떠라

## 3.2. 음운 과정

### 3.2.1. 활용

#### 1) 기초 항목

32001-0-1	막-(防)[ㄱ]-지	막찌
32001-0-2	막-(防)[ㄱ]-고	마꼬
32001-0-3	막-(防)[ㄱ]-더라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그니까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마거여지



32002-0-1	흐르-(流)[ㅡ]-지	흐르지
32002-0-2	흐르-(流)[ㅡ]-고	흐르게
32002-0-3	흐르-(流)[ㅡ]-더라	흐르더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흐르니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흘러따
32003-0-1	오-(來)[ㅗ]-지	오지
32003-0-2	오-(來)[ㅗ]-고	오구
32003-0-3	오-(來)[ㅗ]-더라	오더라
32003-0-4	오-(來)[ㅗ]-으니까	오니까
32003-0-5	오-(來)[ㅗ]-아/어(왔/었다)	와따
32004-0-1	듣-(聞)[ㄷ 변]-지	드찌
32004-0-2	듣-(聞)[ㄷ 변]-고	드꾸
32004-0-3	듣-(聞)[ㄷ 변]-더라	드떠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드르니까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드러따
32005-0-1	많:-(多)[ㄴᄇ]-지	만:창캐
32005-0-2	많:-(多)[ㄴᄇ]-고	망:쿠
32005-0-3	많:-(多)[ㄴᄇ]-더라	만:터라
32005-0-4	많:-(多)[ㄴᄇ]-으니까	마:느니까
32005-0-5	많:-(多)[ㄴᄇ]-아/어(왔/었다)	마:나서, 마:너서
32006-0-1	말-(任)[ㅌ]-지	마지
32006-0-2	말-(任)[ㅌ]-고	마꾸
32006-0-3	말-(任)[ㅌ]-더라	마떠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마트니까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마터따
32007-0-1	알:-(知)[ㄹ]-지	알:지유
32007-0-2	알:-(知)[ㄹ]-고	알:구
32007-0-3	알:-(知)[ㄹ]-더라	알:더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아:니까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아러따
32008-0-1	감:-(閉眼)[ㄱ]-지	깜:찌
32008-0-2	감:-(閉眼)[ㄱ]-고	깡:꾸
32008-0-3	감:-(閉眼)[ㄱ]-더라	감:떠라
32008-0-4	감:-(閉眼)[ㄱ]-으니까	가르나, 까르니까
32008-0-5	감:-(閉眼)[ㄱ]-아/어(왔/었다)	가마따, 까머따, 가머따
32009-0-1	벗-(脫)[ㅅ]-지	버찌
32009-0-2	벗-(脫)[ㅅ]-고	버꼬, 버꾸
32009-0-3	벗-(脫)[ㅅ]-더라	버떠라
32009-0-4	벗-(脫)[ㅅ]-으니까	버스니까
32009-0-5	벗-(脫)[ㅅ]-아/어(왔/었다)	버서따
32010-0-1	옴-(可)[ㅇ]-지	올치
32010-0-2	옴-(可)[ㅇ]-고	올쿠
32010-0-3	옴-(可)[ㅇ]-더라	올터라
32010-0-4	옴-(可)[ㅇ]-으니까	오르니까
32010-0-5	옴-(可)[ㅇ]-아/어(왔/었다)	오러따
32011-0-1	입-(着衣)[ㅍ]-지	입찌
32011-0-2	입-(着衣)[ㅍ]-고	이꾸
32011-0-3	입-(着衣)[ㅍ]-더라	입떠라
32011-0-4	입-(着衣)[ㅍ]-으니까	이브니까
32011-0-5	입-(着衣)[ㅍ]-아/어(왔/었다)	이버여지
32012-0-1	바꾸-(換)[ㅈ]-지	바꾸지
32012-0-2	바꾸-(換)[ㅈ]-고	바꾸구
32012-0-3	바꾸-(換)[ㅈ]-더라	바꾸더라
32012-0-4	바꾸-(換)[ㅈ]-으니까	바꾸니까
32012-0-5	바꾸-(換)[ㅈ]-아/어(왔/었다)	바꾸어야지
32013-0-1	덮-(覆)[ㅊ]-지	덱찌
32013-0-2	덮-(覆)[ㅊ]-고	덱꾸
32013-0-3	덮-(覆)[ㅊ]-더라	덱떠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더프니까
32013-0-5	덮-(覆)[ㅍ]-아/어(왔/었다)	더퍼따
32014-0-1	묻:- (問)[ㄷ 변]-지	무:찌
32014-0-2	묻:- (問)[ㄷ 변]-고	무:꾸
32014-0-3	묻:- (問)[ㄷ 변]-더라	무:떠라
32014-0-4	묻:- (問)[ㄷ 변]-으니까	무르니까
32014-0-5	묻:- (問)[ㄷ 변]-아/어(왔/었다)	무리
32015-0-1	낫:- (癒)[ㅅ 변]-지	나:찌
32015-0-2	낫:- (癒)[ㅅ 변]-고	나쿠
32015-0-3	낫:- (癒)[ㅅ 변]-더라	나:떠라
32015-0-4	낫:- (癒)[ㅅ 변]-으니까	나:니까
32015-0-5	낫:- (癒)[ㅅ 변]-아/어(왔/었다)	나:따
32016-0-1	닫-(閉)[ㄷ]-지	닫찌
32016-0-2	닫-(閉)[ㄷ]-고	다꾸
32016-0-3	닫-(閉)[ㄷ]-더라	닫떠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드니까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다더따
32017-0-1	쫓-(追)[ㅈ]-지	쫓찌
32017-0-2	쫓-(追)[ㅈ]-고	쫓꾸
32017-0-3	쫓-(追)[ㅈ]-더라	쫓떠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쫓츠니까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쫓처따
32018-0-1	베:- (枕)[베]-지	비지, 베:지
32018-0-2	베:- (枕)[베]-고	베:구
32018-0-3	베:- (枕)[베]-더라	비:더라, 베:더라
32018-0-4	베:- (枕)[베]-으니까	베니까
32018-0-5	베:- (枕)[베]-아/어(왔/었다)	비어서
32019-0-1	깨:- (破)[깨]-지	깨지
32019-0-2	깨:- (破)[깨]-고	깨구

32019-0-3	깨:-(破)[ ㅅ ]-더라	깨드라
32019-0-4	깨:-(破)[ ㅅ ]-으니까	깨씨니까
32019-0-5	깨:-(破)[ ㅅ ]-아/어(왔/었다)	깨:따
32020-0-1	펴-(伸)[ ㅅ ]-지	펴지
32020-0-2	펴-(伸)[ ㅅ ]-고	펴구
32020-0-3	펴-(伸)[ ㅅ ]-더라	펴드라
32020-0-4	펴-(伸)[ ㅅ ]-으니까	페니까
32020-0-5	펴-(伸)[ ㅅ ]-아/어(왔/었다)	펴:서
32021-0-1	밖-(明)[ ㅅ ]-지	박찌
32021-0-2	밖-(明)[ ㅅ ]-고	발꾸
32021-0-3	밖-(明)[ ㅅ ]-더라	박떠라
32021-0-4	밖-(明)[ ㅅ ]-으니까	발그니까
32021-0-5	밖-(明)[ ㅅ ]-아/어(왔/었다)	발가서
32022-0-1	삶:-(烹)[ ㅅ ]-지	쌈:찌
32022-0-2	삶:-(烹)[ ㅅ ]-고	쌈:꾸
32022-0-3	삶:-(烹)[ ㅅ ]-더라	쌈:떠라
32022-0-4	삶:-(烹)[ ㅅ ]-으니까	살므니까
32022-0-5	삶:-(烹)[ ㅅ ]-아/어(왔/었다)	살머따, 쌀머따
32023-0-1	읔-(吟)[ ㅅ ]-지	*
32023-0-2	읔-(吟)[ ㅅ ]-고	*
32023-0-3	읔-(吟)[ ㅅ ]-더라	*
32023-0-4	읔-(吟)[ ㅅ ]-으니까	*
32023-0-5	읔-(吟)[ ㅅ ]-아/어(왔/었다)	*
32024-0-1	밟:-(踏)[ ㅅ ]-지	밟:찌
32024-0-2	밟:-(踏)[ ㅅ ]-고	바:꾸, 바:꼬
32024-0-3	밟:-(踏)[ ㅅ ]-더라	밟:떠라
32024-0-4	밟:-(踏)[ ㅅ ]-으니까	발브니까
32024-0-5	밟:-(踏)[ ㅅ ]-아/어(왔/었다)	발버
32025-0-1	하-(爲)[ ㅅ ]-지	하지, 해지

32025-0-2	하-(爲)[ㅏ 변]-고	하구
32025-0-3	하-(爲)[ㅏ 변]-더라	하더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하니까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해서
32026-0-1	맺-(結)[ㅈ]-지	매찌
32026-0-2	맺-(結)[ㅈ]-고	매꾸
32026-0-3	맺-(結)[ㅈ]-더라	매떠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매즈니까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매저서
32027-0-1	엷:-(無)[ㅂㅅ]-지	엷따
32027-0-2	엷:-(無)[ㅂㅅ]-고	어:꾸
32027-0-3	엷:-(無)[ㅂㅅ]-더라	엷떠라
32027-0-4	엷:-(無)[ㅂㅅ]-으니까	엷쓰니까
32027-0-5	엷:-(無)[ㅂㅅ]-아/어(왔/었다)	엷쳐서
32028-0-1	얏-(坐)[ㅂㅅ]-지	안:찌
32028-0-2	얏-(坐)[ㅂㅅ]-고	양:꾸
32028-0-3	얏-(坐)[ㅂㅅ]-더라	안:떠라
32028-0-4	얏-(坐)[ㅂㅅ]-으니까	안즈니까
32028-0-5	얏-(坐)[ㅂㅅ]-아/어(왔/었다)	안저서
32029-0-1	비비-(刮)[ㅣ]-지	비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비비구
32029-0-3	비비-(刮)[ㅣ]-더라	비비더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비비니까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비벼서
32030-0-1	끄-(消)[ㅡ]-지	끄지
32030-0-2	끄-(消)[ㅡ]-고	끄구
32030-0-3	끄-(消)[ㅡ]-더라	끄드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끄니까
32030-0-5	끄-(消)[ㅡ]-아/어(왔/었다)	껴:따

32031-0-1	꺾-(折)[ㄱ]-지	꺾찌
32031-0-2	꺾-(折)[ㄱ]-고	꺾꾸
32031-0-3	꺾-(折)[ㄱ]-더라	꺾떠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꺾끄니까
32031-0-5	꺾-(折)[ㄱ]-아/어(왔/었다)	꺾꺼서
32032-0-1	신:-(履)[ㄴ]-지	신찌
32032-0-2	신:-(履)[ㄴ]-고	신:꾸
32032-0-3	신:-(履)[ㄴ]-더라	신떠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신느니까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신너따
32033-0-1	보-(視)[ㄷ]-지	보지
32033-0-2	보-(視)[ㄷ]-고	보구
32033-0-3	보-(視)[ㄷ]-더라	보더라
32033-0-4	보-(視)[ㄷ]-으니까	보니까
32033-0-5	보-(視)[ㄷ]-아/어(왔/었다)	봐:따, 바:따
32034-0-1	추-(舞)[ㅈ]-지	추지
32034-0-2	추-(舞)[ㅈ]-고	추구
32034-0-3	추-(舞)[ㅈ]-더라	추더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추니까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추어따
32035-0-1	피우-(吸煙)[ㅈ]-지	피우지
32035-0-2	피우-(吸煙)[ㅈ]-고	피우구
32035-0-3	피우-(吸煙)[ㅈ]-더라	피우더라
32035-0-4	피우-(吸煙)[ㅈ]-으니까	피우니까
32035-0-5	피우-(吸煙)[ㅈ]-아/어(왔/었다)	피워따
32036-0-1	서-(立)[ㅅ]-지	스지
32036-0-2	서-(立)[ㅅ]-고	스구
32036-0-3	서-(立)[ㅅ]-더라	스더라
32036-0-4	서-(立)[ㅅ]-으니까	스니까
32036-0-5	서-(立)[ㅅ]-아/어(왔/었다)	서서

32037-0-1	기-(匍腹)[ㅣ]-지	기지
32037-0-2	기-(匍腹)[ㅣ]-고	기구
32037-0-3	기-(匍腹)[ㅣ]-더라	기더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기니까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었다)	기어
32038-0-1	이-(戴)[ㅣ]-지	이지
32038-0-2	이-(戴)[ㅣ]-고	이구
32038-0-3	이-(戴)[ㅣ]-더라	이더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이니까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여:파
32039-0-1	아니-(否)[ㅣ]-지	*
32039-0-2	아니-(否)[ㅣ]-고	아니고
32039-0-3	아니-(否)[ㅣ]-더라	아니더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아니니까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아니요, 아니여쎌요
32040-0-1	되-(升)[ㅁ]-지	되지
32040-0-2	되-(升)[ㅁ]-고	되구
32040-0-3	되-(升)[ㅁ]-더라	되더라
32040-0-4	되-(升)[ㅁ]-으니까	되니까
32040-0-5	되-(升)[ㅁ]-아/어(왔/었다)	돼:서
32041-0-1	있-(有)[ㅍ]-지	이찌
32041-0-2	있-(有)[ㅍ]-고	이꾸
32041-0-3	있-(有)[ㅍ]-더라	이떠라
32041-0-4	있-(有)[ㅍ]-으니까	이쓰니까
32041-0-5	있-(有)[ㅍ]-아/어(왔/었다)	이써서
32042-0-1	놓-(放)[ㅎ]-지	노치
32042-0-2	놓-(放)[ㅎ]-고	노쿠
32042-0-3	놓-(放)[ㅎ]-더라	노터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노:니까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노아라
32043-0-1	훔-(掇)[ㄹ]-지	훔찌
32043-0-2	훔-(掇)[ㄹ]-고	훔꾸
32043-0-3	훔-(掇)[ㄹ]-더라	훔떠라
32043-0-4	훔-(掇)[ㄹ]-으니까	훔트니까
32043-0-5	훔-(掇)[ㄹ]-아/어(왔/었다)	훔터유
32044-0-1	굽:-(麗)[ㄷ 변]-지	굽:찌
32044-0-2	굽:-(麗)[ㄷ 변]-고	고:꾸
32044-0-3	굽:-(麗)[ㄷ 변]-더라	굽:떠라
32044-0-4	굽:-(麗)[ㄷ 변]-으니까	고우니까
32044-0-5	굽:-(麗)[ㄷ 변]-아/어(왔/었다)	고와서
32045-0-1	쥐:-(握)[ㄱ]-지	쥐지
32045-0-2	쥐:-(握)[ㄱ]-고	쥐구
32045-0-3	쥐:-(握)[ㄱ]-더라	쥐:더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쥐:니까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쥐어서
32046-0-1	가-(去)[ㄱ]-지	가지
32046-0-2	가-(去)[ㄱ]-고	가고
32046-0-3	가-(去)[ㄱ]-더라	가더라
32046-0-4	가-(去)[ㄱ]-으니까	가니까
32046-0-5	가-(去)[ㄱ]-아/어(왔/었다)	가따

## 2) 일반 항목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머꾸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거서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뜨꾸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더서
32049-0-1	"같-(如)-지 -고 -더라"	가꼬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타서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야꾸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터서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히:찌, 흐:찌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히터, 히터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나르더라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날라, 날러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구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리서
32054-0-1	"일:-(洵)-지 -고 -더라"	일지
32054-0-2	"일:-(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여지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얼:지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러서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넘:찌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숨:찌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머서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쉬:꾸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위서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누:찌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서, 누어따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지꾸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어, 기어
32061-0-1	"밉:-(憎)-지 -고 -더라"	미:꾸, 밉떠라
32061-0-2	"밉:-(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워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넙찌앙케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파서, 노파두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지떠라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어서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부찌, 부:떠라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어따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우:꼬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서서
32066-0-1	"짓:-(吠)-지 -고 -더라"	지꾸
32066-0-2	"짓:-(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저서
32067-0-1	"꽃:-(插)-지 -고 -더라"	꼬찌
32067-0-2	"꽃:-(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바서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잘라:터라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서, 낱:라구
32069-0-1	"땅:-(辯)-지 -고 -더라"	따:코, 따:터라
32069-0-2	"땅:-(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서
32070-0-1	"끓:-(切)-지 -고 -더라"	끈치
32070-0-2	"끓:-(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너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괜:창코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괜차너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일꼬, 익찌, 익떠라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거서
32073-0-1	"뜯:-(澁)-지 -고 -더라"	틀:꾸, 틀떠라
32073-0-2	"뜯:-(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틀버유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옴:짱케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마서

32075-0-1	"뚫:- (貫)-지 -고 -더라"	뚫찌, 뚫떠라
32075-0-2	"뚫:- (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뚫버따
32076-0-1	"꿇:- (跪)-지 -고 -더라"	꿇꾸, 꿇꼬
32076-0-2	"꿇:- (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러따
32077-0-1	"닿:- (扞 연필심이)-지 -고 -더라"	딸지앙케
32077-0-2	"닿:- (扞 연필심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라우
32078-0-1	"닿:- (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다리고
32078-0-2	"닿:- (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린다, 다려서
32079-0-1	"짜:- (鹽)-지 -고 -더라"	짜장케
32079-0-2	"짜:- (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서
32080-0-1	"말:- (捲)-지 -고 -더라"	말고
32080-0-2	"말:- (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려유
32081-0-1	"쓰:- (書)-지 -고 -더라"	쓰고
32081-0-2	"쓰:- (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서
32082-0-1	"오르:- (登)-지 -고 -더라"	올르지
32082-0-2	"오르:- (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러, 올라서
32083-0-1	"바쁘:- (忙)-지 -고 -더라"	바쁘지
32083-0-2	"바쁘:- (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빠서, 바빠서
32084-0-1	"고프:- (餓)-지 -고 -더라"	고프구
32084-0-2	"고프:- (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파서
32085-0-1	"쏘:- (射)-지 -고 -더라"	쏘:지
32085-0-2	"쏘:- (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췌:서
32086-0-1	"꾸:- (夢)-지 -고 -더라"	꾸더라
32086-0-2	"꾸:- (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어서
32087-0-1	"머물르:- (留)-지 -고 -더라"	머물르지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물러따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다듬꼬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드머서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전디지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디야지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마르구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러서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쫘다, 찌구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어서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마시구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시따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세:구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어바라, 세어바라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포개지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포개서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뚜디리지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디리서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키지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켜:따
32097-0-1	"쫌:-(바람을)-지 -고 -더라"	쫌이구
32097-0-2	"쫌:-(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쫌여서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쇠장캐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쇄:여, 쇠:여
32099-0-1	"쉬:-(饅)-지 -고 -더라"	쉬:장캐
32099-0-2	"쉬:-(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어서

32100-0-1	"회-(白)-지 -고 -더라"	히다
32100-0-2	"회-(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히서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볶찌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뿐꺼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양:꾸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나서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파무꾸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더서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불지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서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빨지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라서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죽찌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거따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거:꼬이따, 거:떠라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러가지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물지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러서
32109-0-1	"줄:-(睡)-지 -고 -더라"	줄:지
32109-0-2	"줄:-(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루어서, 조:러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쓸구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러라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감:찌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머유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더듬찌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드머서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구찌, 굳:꾸, 구:떠라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어서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무겁찌앙캐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구어서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이찌, 이:떠라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어서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비꾸이따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서서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까:마치앙캐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마타, 까:마타, 거머서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너쿠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니까, 너어서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고:더라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과:서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언:찌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언저
32121-0-1	"귀찮-(?)-지 -고 -더라"	귀찬창캐
32121-0-2	"귀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차나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발리구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발리따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말꼬, 막떠라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가서
32124-0-1	"끓:-(膿)-지 -고 -더라"	곰:짱캐
32124-0-2	"끓:-(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골마따

32125-0-1	"굵:-(太)-지 -고 -더라"	구:꾸, 국:떠라
32125-0-2	"굵:-(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거서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얄:꾸, 얄ㅂ떠라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얄버서, 열버
32127-0-1	"쑤:-(春)-지 -고 -더라"	쑤지
32127-0-2	"쑤:-(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러따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버리따, 이저버리지
32129-0-1	"훅:-(舐)-지 -고 -더라"	훅꾸
32129-0-2	"훅:-(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훅터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짧꾸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짧버서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래장캐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래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지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떠니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모:타구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태서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몰:르더라, 모르구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라서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프구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퍼서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루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커서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꼬구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따"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쭈지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어서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마추지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추어
32140-0-1	"테우-(梧)-지 -고 -더라"	테우지
32140-0-2	"테우-(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테워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이꾸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어따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갈리지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려서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기다리지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다리떠니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세:더라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어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지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따
32146-0-1	"켜-(툽을)-지 -고 -더라"	케구
32146-0-2	"켜-(툽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케:서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되:장케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되:서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쉬:지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어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흘피지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흘피서



32150-0-1	"눅:-(焦)-지 -고 -더라"	누:찌앙캐
32150-0-2	"눅:-(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리따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깨다떠라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러따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마렵짱캐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려워서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부꾸럽찌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꾸루워서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가까꾸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까워서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집꼬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퍼서
32156-0-1	"긋:-(刮)-지 -고 -더라"	그:찌
32156-0-2	"긋:-(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라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씨코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서라
32158-0-1	"쫓-(搗)-지 -고 -더라"	찌치
32158-0-2	"쫓-(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어서
32159-0-1	"긁-(搔)-지 -고 -더라"	*
32159-0-2	"긁-(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거, 깔거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굶:짱캐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굶머따
32161-0-1	"닳:-(似)-지 -고 -더라"	담:찌
32161-0-2	"닳:-(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머따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실쿠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러서
32163-0-1	"끓-(𪗇)-지 -고 -더라"	끓창캐
32163-0-2	"끓-(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고라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부찌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어라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지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타떠니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말르지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말러서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쓰더라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써서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슬푸지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슬퍼서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기쁘지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기뻐서
32170-0-1	"쏘-(蜚 벌이)-지 -고 -더라"	쏘구
32170-0-2	"쏘-(蜚 벌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쏘아따, 쏘:서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주구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어떠니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키우구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키워따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지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두어라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부시지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시라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나누구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노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소기구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겨따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끼구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어떠니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튀게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튀어서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고이지
32179-0-2	"괴:-(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여따
32180-0-1	"여위-(癯)-지 -고 -더라"	*
32180-0-2	"여위-(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맵찌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워서
32182-0-1	"뀌:-(屍)-지 -고 -더라"	뀌지
32182-0-2	"뀌:-(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어따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곤치구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곤쳐서
32184-0-1	"싯:-(載)-지 -고 -더라"	싯:꾸
32184-0-2	"싯:-(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서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어:찌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더
32186-0-1	"빡-(粉碎)-지 -고 -더라"	빠코
32186-0-2	"빡-(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따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파라트라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라서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달르더라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러서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푸지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서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누더라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어서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더:럽찌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러워서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거찌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더서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끓쿠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러서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기구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겨서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부시지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셔서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빠지지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져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일쿠지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꿔서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당기지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당겨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버리지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려라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훔치지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훔쳐서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지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저따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오이구, 외:구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오여라, 외워라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사기구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사겨라
32204-0-1	"씩-(腐)-지 -고 -더라"	씩찌
32204-0-2	"씩-(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씩거따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질구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지러서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불르구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까불러따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물게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드무러서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쫄지유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쭈러서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심:찌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머따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쓰다듬찌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쓰다드머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삼:해지유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삼:해서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가벼꾸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벼워서

32213-0-1	"젓:-(撈)-지 -고 -더라"	즈:찌
32213-0-2	"젓:-(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즈:유, 즈서유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두껍찌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두꺼워서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물르지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물려서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빨개지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빨개서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배우구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배워서
32218-0-1	"다리-(躰)-지 -고 -더라"	다리지
32218-0-2	"다리-(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려야지, 다리야지
32219-0-1	"후비-(掘 귀를)-지 -고 -더라"	후비지
32219-0-2	"후비-(掘 귀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후벼서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아리구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리여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그리지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그려서
32222-0-1	"저리-(癡)-지 -고 -더라"	저리지
32222-0-2	"저리-(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저려서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불리지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불리야지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뜨스해더라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뜨시서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끄리지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끄러서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누비지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누벼서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구기지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구기따, 구겨서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비:장캐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어서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시키구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켜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매구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매:서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매지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매따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뛰지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뛰어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담:찌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머서, 다마서
32234-0-1	"가렵-(癢)-지 -고 -더라"	가렵찌
32234-0-2	"가렵-(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려워서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때리지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때려따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어둡찌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어두워서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찌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자버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차지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따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모:잘르지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잘라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부르지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러따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따루지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루따
32242-0-1	"쫓:-(啄)-지 -고 -더라"	쫓:지
32242-0-2	"쫓:-(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쫓:따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두지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어라, 뒤라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시키지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켜라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지리지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려서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던지지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던져서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이구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여서
32248-0-1	"만지-(搯)-지 -고 -더라"	만지고
32248-0-2	"만지-(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저
32249-0-1	"쪼:-(曬)-지 -고 -더라"	쪼이구
32249-0-2	"쪼:-(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쪼여서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비:틀구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트러서
32251-0-1	"돕:-(助)-지 -고 -더라"	*
32251-0-2	"돕:-(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아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씹:꾸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씹버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끄러꼬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루어서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다이더라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여서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눌르지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러서
32256-0-1	"주무르-(揉)-지 -고 -더라"	주물르구
32256-0-2	"주무르-(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물러서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미우구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워야지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고소:하다, 고수더라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소:해서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내리더라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려따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굴:르구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러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만들고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드러서
32262-0-1	"늪-(老)-지 -고 -더라"	늑찌유, 늑꼬
32262-0-2	"늪-(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늑거서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알:쿠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러서, 아러서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따르구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러서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사지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서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우구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워따
32267-0-1	"부리지-(被折)-지 -고 -더라"	뿌리지지
32267-0-2	"부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러저서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다치장캐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쳐서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리장캐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려서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무치지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쳐서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조이구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여따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팔지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라서, 파러서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찌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뽑버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뒤지구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저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마치구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쳐서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저리구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려따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휘지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휘어따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주:꼬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서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빼:떠라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서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기우리지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우려서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까꾸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까워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방갑떠라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가워서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구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따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노:라쿠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라서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푸르구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푸려서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서둘르지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둘러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서투르다, 서틀르구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틀러서, 서트러서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길:르지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길:러서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드:타구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드:태서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춡떠라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추워서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뜨겁찌앙캐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구워서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미지근해더라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지근:해서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굽떠라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구워서, 차가워서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부럽떠라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워서
32295-0-1	"알밋-(憎)-지 -고 -더라"	알밋떠라
32295-0-2	"알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미워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비슨:타더라, 비스:태자늑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스:태서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새롭따, 새로깨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서:러꾸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러웅거야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까다롭따,까더롭따,까더럽따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다로워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외롭짱캐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로워, 외:루워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아쉽떠라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쉬워서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단단해더라, 단단하구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단단해서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느떠라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저서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남:떠라, 남:뜨라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머서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냉기지, 남기더라, 남기구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남겨라, 남겨서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너머트리지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트려파
32307-0-1	"썩거리뜨리-(使凹)-지 -고 -더라"	썩불티리구
32307-0-2	"썩거리뜨리-(使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불티리서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오이구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오여서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질르지
32310-0-2	"문지르-(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질러서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가르치구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쳐서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갈키구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켜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저누구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눠따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래구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래따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
32316-0-2	"본받-(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번바들만, 본바들만헛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어질르지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질러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달리지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려서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우기지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겨서래두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중얼그리지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중얼그려떠니
32321-0-1	"지꼴이-(騷)-지 -고 -더라"	지꺼리지
32321-0-2	"지꼴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꺼려서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다니구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녀서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떨티리지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떨티리따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장케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따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장케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셔:서
32326-0-1	"숫-(湧)-지 -고 -더라"	소꾸
32326-0-2	"숫-(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소서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조꾸, 조:타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조와서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발:가케, 빨:가타구, 빨:가타구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빨:가서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끌:구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끄러서
32330-0-1	"얇:-(薄)-지 -고 -더라"	널ㅂ떠라, 널찌앙캐
32330-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널버서
32331-0-1	"하얇-(白)-지 -고 -더라"	하:야꾸
32331-0-2	"하얇-(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하야서

###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32332-0-2	국(羹)-을/를	구걸
32332-0-3	국(羹)-에(서)	구개서
32332-0-4	국(羹)-으로	구그루
32332-0-5	국(羹)-도	국뚜
32333-0-1	논(沓)-이/가	노니지
32333-0-2	논(沓)-을/를	노늘
32333-0-3	논(沓)-에(서)	노내서
32333-0-4	논(沓)-으로	노느루
32333-0-5	논(沓)-도	논두
32334-0-1	쌀(米)-이/가	싸리

32334-0-2	쌀(米)-을/를	싸럴
32334-0-3	쌀(米)-에(서)	싸래
32334-0-4	쌀(米)-으로	쌀루
32334-0-5	쌀(米)-도	쌀두
32335-0-1	봄(春)-이/가	보미
32335-0-2	봄(春)-을/를	보멸
32335-0-3	봄(春)-에(서)	보매
32335-0-4	봄(春)-으로	보므루
32335-0-5	봄(春)-도	봄두
32336-0-1	집(家)-이/가	지비
32336-0-2	집(家)-을/를	지벌
32336-0-3	집(家)-에(서)	지배서
32336-0-4	집(家)-으로	지브루
32336-0-5	집(家)-도	집뚜
32337-0-1	옷(衣)-이/가	오시유
32337-0-2	옷(衣)-을/를	오설
32337-0-3	옷(衣)-에(서)	오새서
32337-0-4	옷(衣)-으로	오스루
32337-0-5	옷(衣)-도	오:뚜
32338-0-1	방(房)-이/가	방이라
32338-0-2	방(房)-을/를	방을
32338-0-3	방(房)-에(서)	방에서
32338-0-4	방(房)-으로	방으루
32338-0-5	방(房)-도	방두
32339-0-1	낮(晝)-이/가	나시
32339-0-2	낮(晝)-을/를	나슬
32339-0-3	낮(晝)-에(서)	나재
32339-0-4	낮(晝)-으로	나즈루
32339-0-5	낮(晝)-도	나뚜



32340-0-1	낯(顔)-이/가	나시
32340-0-2	낯(顔)-을/를	나설
32340-0-3	낯(顔)-에(서)	나새
32340-0-4	낯(顔)-으로	나술
32340-0-5	낯(顔)-도	나뚜
32341-0-1	부엌(廚)-이/가	부어기
32341-0-2	부엌(廚)-을/를	부어걸
32341-0-3	부엌(廚)-에(서)	부어개서
32341-0-4	부엌(廚)-으로	부어그루
32341-0-5	부엌(廚)-도	부엌뚜
32342-0-1	밭(田)-이/가	바시
32342-0-2	밭(田)-을/를	바슬
32342-0-3	밭(田)-에(서)	바새
32342-0-4	밭(田)-으로	바스루
32342-0-5	밭(田)-도	바뚜
32343-0-1	앞(前)-이/가	아피
32343-0-2	앞(前)-을/를	아플
32343-0-3	앞(前)-에(서)	아패서
32343-0-4	앞(前)-으로	아푸루
32343-0-5	앞(前)-도	압뚜
32344-0-1	넋(魂)-이/가	넋씨, 너기
32344-0-2	넋(魂)-을/를	넋썰
32344-0-3	넋(魂)-에(서)	*
32344-0-4	넋(魂)-으로	*
32344-0-5	넋(魂)-도	넋빠진
32345-0-1	흙(土)-이/가	호기
32345-0-2	흙(土)-을/를	호걸
32345-0-3	흙(土)-에(서)	호개
32345-0-4	흙(土)-으로	호그루
32345-0-5	흙(土)-도	흑뚜

32346-0-1	여덟(八)-이/가	여더리
32346-0-2	여덟(八)-을/를	여더를
32346-0-3	여덟(八)-에(서)	여더래
32346-0-4	여덟(八)-으로	*
32346-0-5	여덟(八)-도	여덜두
32347-0-1	돌(週歲)-이/가	도리
32347-0-2	돌(週歲)-을/를	도를
32347-0-3	돌(週歲)-에(서)	도래
32347-0-4	돌(週歲)-으로	*
32347-0-5	돌(週歲)-도	돌두
32348-0-1	값(價)-이/가	갑씨
32348-0-2	값(價)-을/를	갑쌔, 갑쓸
32348-0-3	값(價)-에(서)	갑쌔서
32348-0-4	값(價)-으로	갑쓰루
32348-0-5	값(價)-도	*
32349-0-1	속:(內)-이/가	소:기
32349-0-2	속:(內)-을/를	소:걸
32349-0-3	속:(內)-에(서)	소:개서
32349-0-4	속:(內)-으로	소:그루
32349-0-5	속:(內)-도	속:뚜
32350-0-1	돈:(錢)-이/가	도:니
32350-0-2	돈:(錢)-을/를	도:늘
32350-0-3	돈:(錢)-에(서)	돈:내
32350-0-4	돈:(錢)-으로	도:느루
32350-0-5	돈:(錢)-도	돈:두
32351-0-1	발(足)-이/가	바리지유
32351-0-2	발(足)-을/를	바를
32351-0-3	발(足)-에(서)	바래
32351-0-4	발(足)-으로	발루

32351-0-5	발(足)-도	발두
32352-0-1	짐(荷物)-이/가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지물, 한지멸
32352-0-3	짐(荷物)-에(서)	지매
32352-0-4	짐(荷物)-으로	*
32352-0-5	짐(荷物)-도	짐두
32353-0-1	입(口)-이/가	이비
32353-0-2	입(口)-을/를	이벌
32353-0-3	입(口)-에(서)	이배서
32353-0-4	입(口)-으로	이브루
32353-0-5	입(口)-도	입뚜
32354-0-1	낫(鎌)-이/가	나시
32354-0-2	낫(鎌)-을/를	나설
32354-0-3	낫(鎌)-에(서)	나새
32354-0-4	낫(鎌)-으로	나스루
32354-0-5	낫(鎌)-도	나뚜
32355-0-1	강(江)-이/가	강:이
32355-0-2	강(江)-을/를	강을, 강얼
32355-0-3	강(江)-에(서)	강애서
32355-0-4	강(江)-으로	강으루
32355-0-5	강(江)-도	강두
32356-0-1	젓(乳)-이/가	저시
32356-0-2	젓(乳)-을/를	저설
32356-0-3	젓(乳)-에(서)	*
32356-0-4	젓(乳)-으로	저스루
32356-0-5	젓(乳)-도	저또
32357-0-1	꽃(花)-이/가	꼬시지
32357-0-2	꽃(花)-을/를	꼬슬
32357-0-3	꽃(花)-에(서)	꼬새

32357-0-4	꽃(花)-으로	꼬:스루
32357-0-5	꽃(花)-도	꼬뚜
32358-0-1	팥(赤豆)-이/가	파시유
32358-0-2	팥(赤豆)-을/를	파설
32358-0-3	팥(赤豆)-에(서)	파새
32358-0-4	팥(赤豆)-으로	파스로
32358-0-5	팥(赤豆)-도	파또
32359-0-1	옆(側)-이/가	여피
32359-0-2	옆(側)-을/를	여펼
32359-0-3	옆(側)-에(서)	여패
32359-0-4	옆(側)-으로	여프루
32359-0-5	옆(側)-도	엽뚜
32360-0-1	샀(賃金)-이/가	품싸기라구두
32360-0-2	샀(賃金)-을/를	*
32360-0-3	샀(賃金)-에(서)	*
32360-0-4	샀(賃金)-으로	*
32360-0-5	샀(賃金)-도	*
32361-0-1	닭(鷄)-이/가	달기
32361-0-2	닭(鷄)-을/를	다글
32361-0-3	닭(鷄)-에(서)	달개
32361-0-4	닭(鷄)-으로	다그루
32361-0-5	닭(鷄)-도	닥뚜
32362-0-1	밖(外)-이/가	*
32362-0-2	밖(外)-을/를	바끌
32362-0-3	밖(外)-에(서)	바깨, 바까태
32362-0-4	밖(外)-으로	바깨루
32362-0-5	밖(外)-도	*

## 제4편 문법

### 4.1. 대명사

#### 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나:라
40101-0-1	내-가	내가
40101-0-2	내	내:꺼
40101-0-3	나-를	나를
40101-0-4	나-에게	날:, 나를, 나한테
40101-0-5	나-와	나하구
40101-0-6	나-는	나는
40101-0-7	나-도	나도
40102	저/제-가	저:라, 저
40102-0-1	저-가	제가
40102-0-2	저-의	제
40102-0-3	저-을/를	저를
40102-0-4	저-에게	저한테
40102-0-5	저-와/과	저하구
40102-0-6	저-는	저년
40102-0-7	저-도	저도
40103	우리	우:리
40104	저희	즈:지뻬
40105	너	너:라
40105-0-1	-가	네:가
40105-0-2	-의	네:
40105-0-3	-을/를	너를
40105-0-4	-에게	너:, 너한테
40105-0-5	-와/과	너하구
40105-0-6	-는	너년너
40105-0-7	-도	너도
40106	자네	사위가 가봐, 자네라
40107	당신	서방니미라구, 자기가, 당신이
40108	너희	느:

40109	개	가, 가라구두
40109-1	애	야
40109-2	재	재
40110	자기	제
40111	당신	할아버지, 당신

## 2)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세요
40112-0-1	누-가	누가
40112-0-2	누구-의	누:꺼여
40112-0-3	누구-를	누기를
40112-0-4	누구-에게	누구, 누굴
40112-0-5	누구-와	누기하구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머:냐, 머:유
40113-0-1	무엇-이	머:냐, 무어냐, 머:가
40113-0-2	무슨	멀, 몬:, 먼:, 무슨
40113-0-3	무엇-을	모:가, 몰:
40113-0-4	무엇-과	모:, 모, 모:가치

## 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어디
40115	언제	언제
40116	어느	어튼
40117	왜	왜
40118	얼마나	얼마나
40119	어떻게	우티개, 어터개

## 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거시, 이개
40121	그것	그거시, 그개
40122	저것	저:거, 저개
40123	여기	요:기
40124	거기	고기

40125	저기	저기, 저:기(비교적 먼) 조:기(비교적 가까운)
40126	이리	일루, 이리
40127	그리	고리, 그리
40128	저리	저:리

## 4.2. 조사

### 1) 격조사

40201	-이/가	갑씨
40202	-이/가	코가
40203	-을/를	귀, 귀털
40204	-을/를	무털
40205	-에 게/게	저사람, 저사람보구
40206	-보고/더러	누기한테
40207	-보고/더러	누기한테
40208	-에	지배
40209	-에	이다매, 다으매
40210	-에서	큰대개서
40211	-에서	충주서, 서울서
40212	-에서	여기서 서울까지
40213	-으로	참쌀루
40214	-으로	베찌푸루
40215	-으로	새끼루
40216	-으로	어대로
40217	-와/과	차피 수:바기지유
40218	-와/과	나하구
40219	-보다	동생보다
40220	-처럼	돼:지가치
40221	-만큼	너가치, 너거치, 너만치
40222	-만큼	머걸만큼
40223	-아/야	봉나마
40224	-아/야	봉남씨(격식적 표현), 봉나마
40225	-아/야	영수야, 영수
40226	-아/야	누님

40226-1	-예	*
40227	-아/야	하라부지
40227-1	-요	*
40228	-이랑	국수, 술:, 떡:
40229	-커녕	마:논 커녕

## 2) 보조사

40230	-은/는	수런 먹찌만 담:벤 암피운다
40231	-만	딸만
40232	-도	키두 크구 임물두 조타
40233	-마다	날마다
40234	-부터	오늘버터
40235	-까지	넬:까지
40236	-조차	물두, 너두, 물도
40236-1	-할라	비오는데
40237	-이야/야	마:른, 말만 잘해지, 마리아 말:루는
40238	-을랑	그런 소린
40239	-이라도	부자먼서두, 부:자두
40240	-밖에	자내배끼
40241	-가지고	싸들구, 지구, 해가주

## 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오라 그래지유, 오라구
40243	알았어-요	아라씨요
40244	했지-요?	해시씨유

# 4.3. 종결어미

## 1) 명령법

40301	-아라	안저라
40302	-게	안저
40303	-으오	안즈세유



40304	-으십시오	안즈세유
40305	-세요	안즈세요

## 2) 청유법

40306	-자	가자
40307	-세	가
40308	-으오	가세요
40309	-십시오	가세요
40310	-세요	가세요

## 3) 의문법

40311	-니	오나?, 와?, 오니?
40312	-나	오나?
40313	-오	와요?
40314	-습니까	와요?
40315	-나요	와요?
40316	-니	가니?
40317	-나	가나?
40318	-시오	가세요?
40319	-십니까	가세요?
40320	-세요	가세요?

## 4) 서술법

40321	-는다	멍능구나, 멍는다
40322	-네	먹어
40323	-오	먹데요, 머거요
40324	-습니다	머거유
40325	-네요	머거유
40326	-다	쪽:따
40327	-네	쫘:개
40328	-소	저거요
40329	-으십니다	저거유, 저그네유
40330	-으세요	저거유

## 5) 반말

40331	-아	아퍼?
40332	-지	갈꺼야?, 가야지?, 갈꺼여? 갈꺼지?

## 6) ‘이다’의 종결어미

40333	-이다	생일날이다.
40334	-이니	생일이니?
40335	-이네	생일이여, 생일이지?
40336	-인가	생일인가?
40337	-이오	생일이자너유?, 생신인데유
40338	-이오	생신 아니유?
40339	-입니다.	생신이에유
40340	-입니까	생신인가유?
40341	-이시지요	생신 아니예유?, 생신이지유
40342	-이시지요	생신이에유?
40343	-이냐?	머니?
40344	-인가?	멍:가
40345	-이오?	머:유
40346	-입니까?	머:유
40347	-인가요?	무어:유
40348	-이야?	머:유, 머:야(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 용), 머:여(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
40349	-이어요?	머:유, 머:여(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 용)

## 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마:너유
40351	-습디다	만:태유
40352	-는구나/구나	멍능구나, 멍넌다
40353	-는구먼/구먼	멍능구먼
40354	-일세	오랜만이며, 오랜만일쎄 오래간만일쎄

40355	-으	가퍼주마, 가퍼주께
40356	-음세	가프께
40357	-올라	다친다, 다칠라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머꾸, 보구서
40402	-으면서	보면서, 보면서
40403	-어/-어서	추워서
40404	-으니 /-으니까	따뜨태서, 따뜨:태니까
40405	-판데	먼:이리난나 왜 이러케 마:니 모여써
40406	-다가	오다가
40407	-거든	만내면, 불르면
40408	-더라도	먹떠래두, 떼쓸때두
40409	-으려고	머글라구
40410	-도록	빠:지드룩, 죽또룩, 새:두루
40411	-을수록	안즐쭈룩
40412	-듯이	물쓰든
40413	-지	유수만 보고 연소끄근 암바

## 4.5. 주체 존대

40501	-셔	와요(또래에게) 오세요(손위 사람에게)
40502	-셨소	시머써?

## 4.6. 시제

40601	웃는다	운:넌다
40602	기어간다	기어간다
40603	크다	크다
40604	생일이다	생이리여

40605	오고 있다	오구 이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식사 해시씨, 잡소씨, 머거씨 머건니
40607	왔었다	또와씨, 와따가따, 커씨따
40608	먹더라	먹떠라
40609	먹더냐	머거요?(손위), 먹떠?(손아래)
40610	만나는 친구	보는 칭구다
40611	만난 친구	만난 칭구
40612	만났던 친구	만난 칭구를
40613	만날 친구	만나기루헨 칭구, 만날 께여
40614	큰 아이	큰 아이
40615	크던 아이	크던
40616	켰던 아이	커편 아이가
40617	마시지 않겠다	양캐따고
40618	비가 오겠다	올꺼가따, 올꺼거따, 오개따

##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암머거씨, 먹찌 아나따구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날씨가 안 조:타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양 깨끗하다 하다	안 양 깨끗태다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장가 양가씨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 안:만내 바따 만나 안 보았다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찌두 양쿠
40706-1	먹도 않고	저뚜 암먹꾸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몬:마시유
40708	맞잖소?/안 맞소?	마저씨, 내마리 마찌, 마저짜너

## 4.8. 피동과 사동

### 1)사동

40801	살리다	살려떠니
40802	늘리다	늘린다
40803	말리다1	말리유, 말려유
40804	말리다2	말리지유
40805	얼리다	얼리지유
40806	녹이다	노킨다
40807	싱기다	싱켜준다
40808	보이다	보여준다
40809	알리다	알려주라구
40810	입히다	이퍼여지유
40811	얹히다	양:키지, 안:치지유
40812	벗기다	버꺼여지
40813	웃기다	우:깁다
40814	씩히다	씩킨다
40815	숨기다	숨겨논는다
40816	굶기다	굶겨써, 굶기지
40817	깨우다	깨워라, 깨우구
40818	돌우다	도꾼다

### 2) 피동

40819	잡히다	자퍼여지유
40820	깎이다	*
40821	끼이다	치여따, 끼:이따
40822	떼이다	떼여따
40823	채이다	채여따
40824	단히다	다쳐따
40825	들리다	드킨다
40826	업히다	어퍼따
40827	바꾸다	바꾸어저따
40828	썩히다	썩핀다
40829	엎히다	언쳐따

40830	찍히다	찌켜따
40831	놀리다	놀:리키서
40832	실리다	실려서
40833	끓기다	끄너저따
40834	긁히다	끌키따, 흘키따(주로 피부에 대해) 홀칭건(주로 피부에 대해)

##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시브냐
40902	싫다	멍녕가 십떠니
40903	보다	이버 보세요
40904	버리다	다 머건네, 다: 머거버린내
40905	대다	우러댄다, 우러싼는다
40906	-나/는가 보다	올라능가부다
40907	-나/는가 보다	잠드런능가부다, 자능가부다
40908	-나/는가 보다	추웅가부다

## 4.10. 부사

41001	실컷	시컨
41002	많이	마:니
41003	너무	너머
41004	조금	조끔만
41005	자주	자주
41006	빨리	일찍, 빨리
41007	얼른	얼릉
41008	기어코	기어쿠, 구지나
41009	가끔	가:끔
41010	먼저	먼저
41011	나중에	다으매, 이다으매
41012	가득	가뜩
41013	몽땅	다, 몽땅

41014	모조리	몽조리
41015	혼자	혼자
41016	항상	만날, 맨날
41017	똑똑히	똑뜨기
41018	겨우	간시니
41019	늘	잘두
41020	저절로	저잘루, 저절루
41021	자꾸	자꾸
41022	설마	설마
41023	하마터면	까따캐면, 까딱캐떠람
41024	함께	다, 다:가치
41025	걸핏하면	투카면, 걸피태면
41026	공연히	고연:히
41027	그냥	거냥
41028	매우	엄:청
41029	곧장	고짱
41030	벌써	하마
41031	가장	제일
41032	가만히	가마니
41033	미리	미리
41034	이따금	가:끔, 이따:끔

## 4.11. 관용적 표현

### 1)관용어구

41101	여보	자기야, 여바유, 자기, 즈어머이
41102	여보세요	여보세유(칭자를 구분하지 않음)
41103	들어가요	안니이게세유, 안너이게세유 끄너유, 드러가세유
41104	수고하세요	일 잘하구가요, 잘 이써유 수고해세유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방가워, 참 올마 마니여 오랜마니여, 보구 시퍼써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	안녕하세유, 진지 잡수시써유

41107	게 하는 인사말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그동아내 안녕하서써유 올리면서 하는 말	식사 해시써유 그동아내 안녕하서써유
41108	여기 있습니다	바드세유, 여써요
41109	예	어
41110	아니	아니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웬찬타, 아무치두 안타
41112	내버려 뒀	내:부리 도, 내:버려 도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누구던지 다:, 으:재이 뜨:재이(부정적 인 표현)

## 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미빠진 도개 물부끼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도두기 소도둑 똥다
41116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안 땐 굴뚜개 연기 나까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 원 장 이 기 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 영 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 무 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 봉 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 정 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 경 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 강 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 영 목 (충 남 대 학 교)
- ◆ 자문위원 최 명 옥 (서 울 대 학 교)
- ◆ 자문위원 홍 윤 표 (연 세 대 학 교)

